

농업인 복지실태

경제 활동 | 문화여가
조사보고서 2014

Survey on the
Rural well-being

2014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1437호

발 행 일 2015년 3월

발 행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전해경

편 집 농업환경부장 이상범, 농촌환경자원과장 안옥선

연 구 원 국립농업과학원 황정임 농업연구사, 최윤지 농업연구관, 윤민혜 연구원
코뮤니타스 신동호 대표, 전윤정 선임연구원, 강구민 선임연구원,
김아영 연구원, 조이슬 연구원, 이진희 연구원
경북대학교 이강형 교수

발 행 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565-851)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

전 화 036-238-2645

인 쇄 처 코뮤니타스 053-746-0021

머 리 말

농어촌의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3월, 정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05~'09),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로 농어촌의 복지, 교육, 기초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사업과 농어촌서비스기준·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경제활동 및 문화·여가'부문을 중심으로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해온 농촌생활지표조사(2000~2012년)와 통합 조정되어 실시된 두 번째 조사로서 이전 조사와는 다른 체계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관련 조사들을 아우르면서도 조사의 신뢰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표본개편 및 농촌 통계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선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책자는 2014년 9월 25일에서 10월 25일까지 전국 농촌 및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3,939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문화·여가여건 등 2개 부문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가 관련 정책, 연구 및 지도 현장에서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 이용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전국의 표본가구 조사대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3월

연구진 일동

이용자를 위하여

1. 이 보고서는 2014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수록함.
2. 보고서에 수록된 결과분석에서는 조사대상이 된 읍면의 실제 가구 수 분포와 읍면 내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의 확률상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모집단으로부터의 추출확률을 고려한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3. 조사결과의 전체 합계와 각 항목 값이 모두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합계의 수치가 각 항목 값의 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4. 보고서의 통계표는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5. 통계표 작성 시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는 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통계 수치를, 응답자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통계 수치를 제시하였음.
6. 통계표에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는 비워둠.
7. 이 보고서는 일부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수록하고 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별책으로 발간된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8.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2014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보고서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임을 기재하여야 함.
9.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063-238-2645)로 문의 바람.

조사결과 요약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 개요
주요 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촌의 복지실태, 교육여건 및 기초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국가승인통계 제11437호('04.8.31.)

➡ 조사연혁

- 2004. 3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매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 2004. 8~11 :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 2008. 3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 2008. 10 :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 2013. 3 :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 2013. 9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승인
- 2014. 9 : 경제활동, 문화·여가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 2014년 조사체계

| 표1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표본설계	모집단	전국 농어촌 지역의 모든 가구
	표본추출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농어촌 지역 가구
	표본규모	전국 농어촌지역 3,939가구(응답률 98.2%)
	표본추출방식	- 다단계화집락추출 - 1차 추출 : 표본 동읍면 추출 - 2차 추출 : 동읍면 내 조사구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대상 : 표본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만 19세 이상) - 조사기간 : 2014년 9월 25일~10월 25일(1개월)

➡ 2014년 조사내용

- 생활전반, 경제활동, 문화·여가 등 3개 부문, 80개 항목

| 표2 | 주요 조사내용

구분	조 사 항 목
생활 전반	이주실태, 주택여건, 생활여건
경제활동	생산활동, 소비활동, 경제적 생활수준
문화·여가여건	문화·여가 시 활동 참여, 희망 문화·여가 활동, 문화·여가 자원
가구원 정보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 혼인상태, 학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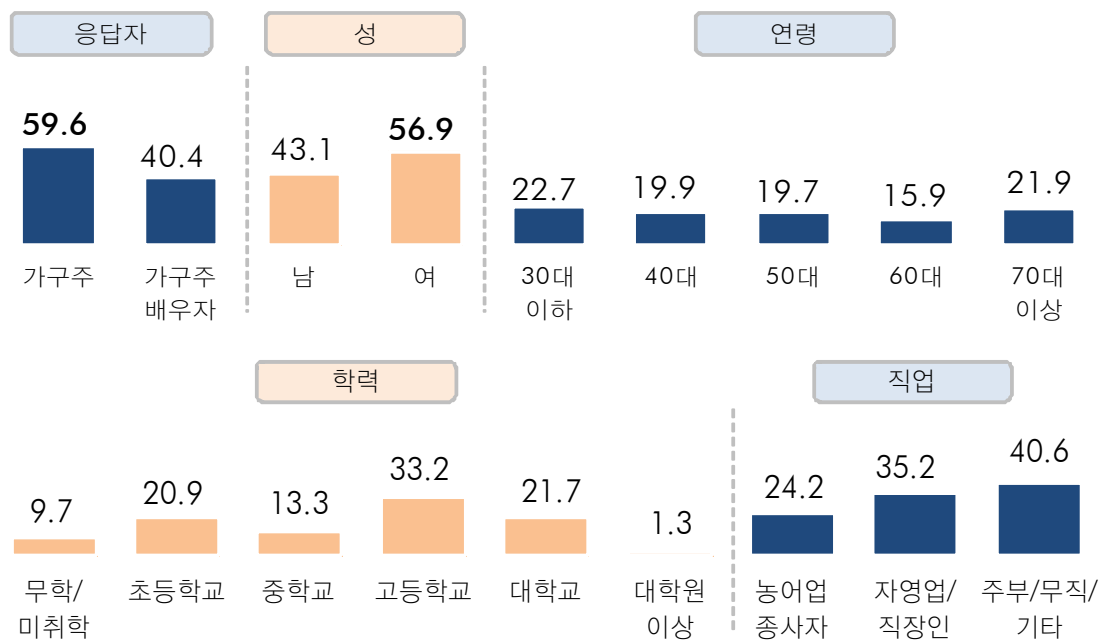
2 주요 조사 결과¹⁾

▶ 일반 사항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가구주’가 59.6%, ‘여성’이 56.9%, [60대 이상] 연령층이 37.8%, [고등학교 이상] 비중이 절반 수준(53.5%), ‘농어업종사자’층이 26.6%

단위 : %



➡ 조사대상 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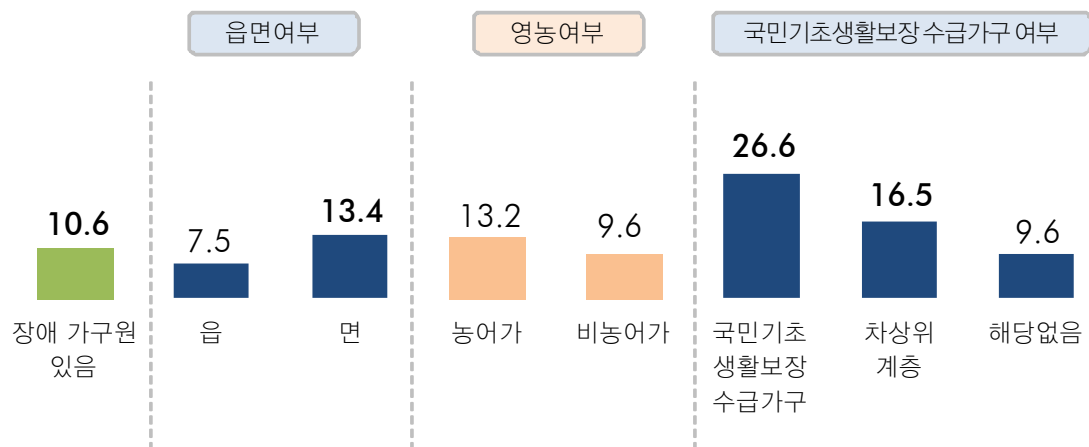
- ‘농어가’가 28.4%, 가구원 수는 평균 2.7명, ‘2세대 가구’(44.0%) 비중이 가장 높음

1)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과정을 거쳐 R을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 함

➡ 장애 가구원 유무

-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0.6%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장애가구원 있음' 비중이 높음

단위 : %



- '가구주' 비중이 56.8%, '지체장애'(57.5%)가 주된 장애종류, 장애 급수로 '6급'(21.3%), '5급'(19.7%) 비중이 높음

➡ 결혼 이민자 유무

-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가 1.5%, 가구주 배우자가 85.1%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가로 '베트남'(72.6%), '태국'(4.1%) 등 동남아시아권(83.4%) 비중이 높음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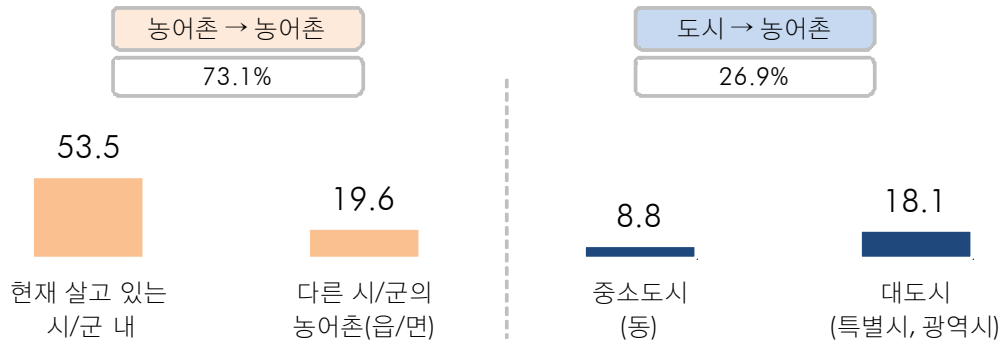
구분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동아시아	중국	몽골	유럽	독일
합계	(61)	83.4	72.6	4.1	2.3	2.2	2.2	15.8	14.8	1.0	.8	.8
읍/면	읍	(22)	74.3	64.9	6.3		3.1		23.6	23.6	2.1	2.1
	면	(38)	88.8	77.2	2.8	3.6	1.6	3.5	11.2	9.6	1.6	
영농여부	농어가	(36)	84.2	66.4	6.9	3.9	3.2	3.8	15.8	14.0	1.7	
	비농어가	(25)	82.3	81.5			0.8		15.8	15.8	1.9	1.9

생활전반

➡ 현 거주지 고향여부

- '이주했다'(57.9%),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3.6%) 등 [이주민]이 61.5%로, 현 거주지가 고향인 [선주민](38.5%) 비중보다 높은 수준
-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53.5%),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19.6%)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층이 73.1%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8.1%), '중소도시(동)'(8.8%) 등 도시에서 이주해온 층(26.9%) 보다 많음

단위 : %



➡ 주택의 건축년도

- '1990년대'(34.6%), '2000년대'(31.9%)에 건축(신축)된 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980년대'(11.9%), '1950년대 이전', '1970년대'(각 6.5%), '1960년대'(4.7%) 등 1980년대 이전에 지어져 30년 이상된 농어촌 주택이 29.6%로 전체 농어촌 가구의 1/3 가량을 차지함
- 농어촌 주택의 평균 노후정도는 23.8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1950 년대 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 이후
합계 (3,898)			23.8년	6.5	4.7	6.5	11.9	34.6	31.9	4.0
읍/면	읍 (1,816)	18.3년	2.7	2.9	2.6	9.6	40.0	38.4	3.8	
	면 (2,081)	28.6년	9.9	6.3	9.8	13.8	29.9	26.1	4.2	
영농 여부	농어가 (1,114)	29.6년	9.3	7.3	10.6	17.5	33.0	19.1	3.3	
	비농어가 (2,784)	21.4년	5.4	3.7	4.8	9.6	35.2	37.0	4.3	

➡ 주택의 종류 및 점유형태

- 주택의 종류로 '단독주택'(54.6%)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파트'(34.3%), '다세대주택'(5.6%), '연립주택'(4.0%) 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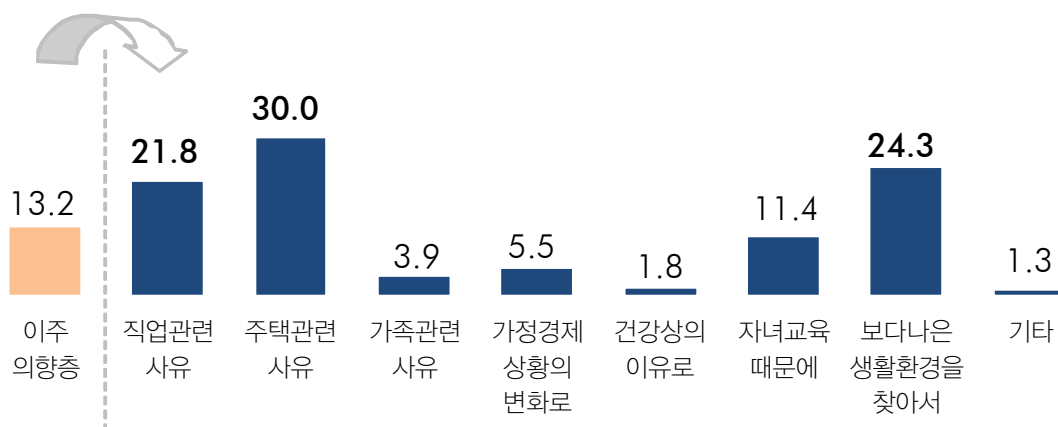


- 주택의 점유형태로 '자가'(78.8%)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세'(8.6%), '보증부 월세'(6.9%), '무상'(3.9%), '월세(사글세)'(1.7%) 순

➡ 향후 이주의향

- 이주 의향층이 13.2%로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62.1%),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10.4%) 등 농어촌으로 이동하겠다는 층이 72.5%
- 이주 희망 이유(n=516)로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30.0%)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24.3%),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21.8%), '자녀 교육 때문에'(11.4%),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5.5%),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3.9%), '건강상의 이유로'(1.8%) 순

단위 : %



➡ 지역생활 만족도

- 지역생활 전반에 대해 평균 48.9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환경·경관’(평균 63.5점), ‘자연재해, 사고, 범죄 안전’(평균 61.3점)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초생활 기반’(평균 47.5점),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평균 44.7점), ‘교육 여건’(평균 43.4점), ‘경제활동 여건’(평균 42.9점),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평균 38.9점) 순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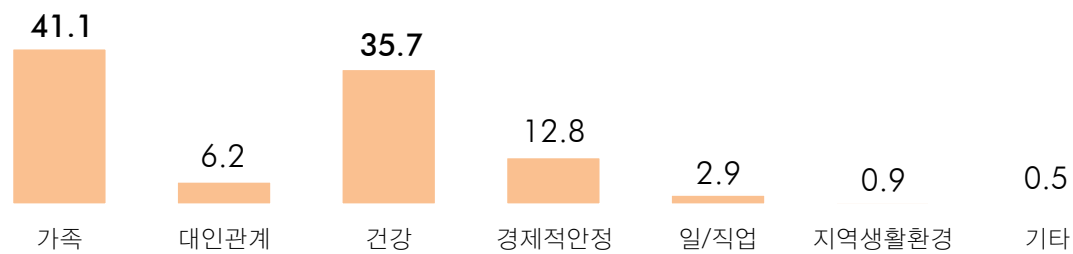
구분		지역의 전반적 생활여건			보건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기초 생활 기반	환경· 경관	경제 활동 여건	자연 재해, 사고, 범죄 안전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합계		48.9	50.0	47.7	44.7	43.4	38.9	47.5	63.5	42.9	61.3
읍/면	읍	50.0	50.9	49.1	46.2	45.4	40.4	49.7	64.4	44.3	61.4
	면	47.9	49.3	46.4	43.3	41.7	37.6	45.5	62.8	41.7	61.3
영농 여부	농어가	48.8	50.4	47.2	44.6	40.7	37.4	46.9	64.7	41.2	64.3
	비농어가	48.9	49.9	47.9	44.7	44.5	39.5	47.7	63.1	43.6	60.1

*종합/체감/차원 만족도 : [조사연구 개요]의 ‘8. 자료처리 및 분석’ 참조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행복한 편’(41.1%), ‘매우 행복함’(3.9%) 등 [행복한 편(합)]이라는 응답이 45.0%로, ‘행복하지 않는 편’(11.8%), ‘전혀 행복하지 않음’(1.1%) 등 [행복하지 않는 편(합)](12.9%)이라는 응답보다 높음.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58.7점으로 ‘약간 행복한 수준’의 평가
-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41.1%), ‘건강’(35.7%)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12.8%), ‘대인관계’(6.2%), ‘일/직업’(2.9%), ‘지역 생활 환경’(0.9%) 순

단위 : %



경제활동

부업현황

- 부업종이 4.4%, 부업종(n=135)의 업종으로 '농어업'(29.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설업'(13.3%), '기타 서비스업'(10.7%), '제조업'(9.5%), '도매 및 소매업'(7.6%), '숙박 및 음식점업'(7.0%), '교육서비스업'(4.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0%) 순

단위: %(명)

구분			농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합계 (135)			29.2	9.5	13.3	7.6	7.0	4.4	4.0	10.7	14.2
읍/면	읍 (48)		35.9	2.0	12.9	11.0	4.3	4.9	4.0	10.1	14.9
	면 (87)		25.6	13.6	13.6	5.8	8.4	4.2	4.0	11.0	13.8
영농 여부	농어가 (95)		32.0	10.1	17.4	4.8	7.4	0.3	5.0	12.0	11.0
	비농어가 (40)		22.6	8.1	3.7	14.4	6.0	14.3	1.6	7.6	21.8
부업 현황	자영업 (69)		42.1	8.1	12.7	11.9	6.9			5.0	13.4
	임금근로 (65)		15.7	11.0	14.0	3.2	7.0	9.1	8.2	16.7	15.1

- 부업 소득(n=134)으로 '월 평균 50만원 미만'(36.1%)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월 평균 50-100만원 미만'(31.2%) 비중도 높아 월 평균 100만원 미만 비중이 절반 이상(67.3%)을 차지함
- 다음으로 '월 평균 100-150만원 미만'(19.1%), '월 평균 150-300만원 미만'(10.2%), '월 평균 300만원 이상'(3.3%) 순

단위: %



➡ 희망 부업 현황

- 현재 부업을 하지 않는 층(n=2,969) 중 6.0%가 향후 부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부업 희망층(n=175)의 희망 업종으로 '기타 서비스업'(15.5%)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5.1%), '교육서비스업'(11.7%), '제조업'(10.7%), '농어업', '도매 및 소매업'(각 1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4%), '금융 및 보험업'(4.4%), '건설업'(3.9%) 순

단위 : %(명)

구분		농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 점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 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기타 서비 스업	기타
합계 (175)		10.4	10.7	3.9	10.4	15.1	4.4	11.7	6.4	15.5	11.5
읍/면	읍 (88)	3.3	9.8	0.8	14.8	10.5	6.3	18.1	8.0	15.8	12.6
	면 (86)	17.8	11.5	7.1	5.8	19.8	2.5	5.1	4.8	15.2	10.4
영농 여부	농어가 (49)	20.9	14.3	7.8	4.2	17.4			7.2	12.2	16.0
	비농어가 (126)	6.4	9.2	2.4	12.8	14.2	6.1	16.2	6.1	16.7	9.8
희망부업 형태	자영업 (87)	15.3	10.0	2.2	20.1	26.4		10.0	2.3	9.5	4.1
	임금근로 (87)	5.5	11.3	5.6	0.7	3.8	8.9	13.4	10.6	21.4	18.9

➡ 은퇴계획

-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절반가량(51.5%)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특정 연령'(11.3%), '이미 은퇴했음'(6.1%) 순
- 한편, 특정 연령을 선택한 경우(n=347) 은퇴 희망 연령로 '60-64세'(39.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65-69세'(22.4%), '70-74세'(17.6%) 비중도 높음. 평균 은퇴 희망 연령은 63.7세

단위 : %(명)

구분		평균	60세 미만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합계 (347)		63.7세	12.6	39.2	22.4	17.6	3.4	4.8
읍/면	읍 (201)	62.3세	17.3	38.4	25.5	14.7	1.4	2.8
	면 (146)	65.5세	6.3	40.3	18.3	21.5	6.0	7.6
영농 여부	농어가 (82)	68.7세	3.2	19.3	23.9	25.4	8.7	19.6
	비농어가 (265)	62.2세	15.6	45.3	22.0	15.2	1.7	0.3

➡ 창업 및 취업 희망실태

- 소득이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지 않는 층(n=834) 중 향후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층이 6.7%로 나타난 가운데, 창업 및 취업 희망층(n=54)의 희망 업종으로 '기타 서비스업'(25.6%)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어업'(14.6%), '숙박 및 음식점업'(10.3%), '제조업', '건설업'(각 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5%), '도매 및 소매업'(1.4%), '교육서비스업'(0.5%) 순
- 희망 소득으로 '월 평균 50-100만원 미만'(29.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월 평균 100-150만원 미만'(21.4%), '월 평균 50만원 미만'(20.8%), '월 평균 150-300만원 미만'(15.5%), '월 평균 300만원 이상'(12.4%) 순

단위 : %



➡ 농어촌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영역

- '창업 자금 지원'(34.4%)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기술교육/인력 양성'(27.6%), '시설/설비 지원'(27.2%) 비중도 높음. 이밖에 '사업컨설팅/정보 제공'(4.2%), '농어촌 창업 절차 간소화'(2.7%), '홍보·마케팅활동 지원'(2.6%), '소규모 사업체 대상 규제 완화'(1.3%) 비중은 낮음

단위 : %(명)

구분		기술 교육/ 인력 양성	창업 자금 지원	시설/ 설비 지원	사업 컨설팅/ 정보 제공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농어촌 창업 절차 간소화	소규모 사업체 대상 규제 완화	기타	
합계		(3,826)	27.6	34.4	27.2	4.2	2.6	2.7	1.3	0.2
읍/면	읍	(1,783)	29.3	33.7	24.9	5.1	2.5	2.8	1.5	0.0
	면	(2,042)	26.0	35.0	29.1	3.4	2.6	2.5	1.0	0.3
영농 여부	농어가	(1,096)	19.8	37.2	33.2	2.9	2.4	2.9	1.4	0.3
	비농어가	(2,730)	30.7	33.3	24.8	4.7	2.6	2.6	1.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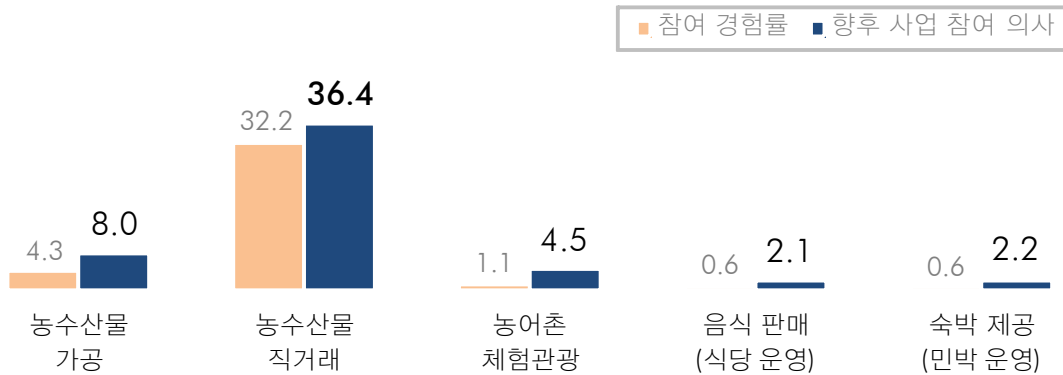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농수산물 직거래’(32.2%) 참여 경험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농수산물 가공’(4.3%), ‘농어촌 체험관광’(1.1%), ‘음식판매(식당운영)’, ‘숙박제공(민박 운영)’(각 0.6%) 경험률은 높지 않음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

- ‘농수산물 직거래’(36.4%) 사업에서 사업 참여 의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수산물 가공’(8.0%), ‘농어촌 체험관광’(4.5%), ‘숙박 제공(민박 운영)’(2.2%), ‘음식 판매(식당 운영)’(2.1%) 순으로 사업 참여 경험률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단위 : %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 ‘고객·판로 확보’(30.2%)가 주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력 부족’(22.0%), ‘자금 부족’(20.0%), ‘시설/설비 부족’(10.9%), ‘기획력 및 기술력 부족’(7.1%), ‘경영관리 역량 부족’(4.2%), ‘관련 규제로 인한 제약’(1.4%), ‘행정·제도 복잡’(1.1%), ‘참여자간 갈등’(1.0%) 순

단위 : %(명)

구분	자금 부족	기획력 및 기술력 부족	경영 관리 역량 부족	시설/설비 부족	행정·제도 복잡	관련 규제로 인한 제약	인력 부족	고객·판로 확보	참여자 간 갈등	기타
합계 (470)	20.0	7.1	4.2	10.9	1.1	1.4	22.0	30.2	1.0	2.0
읍 (86)	23.4	6.5	4.5	5.9	3.6	4.3	19.2	30.2	0.5	1.9
면 (384)	19.3	7.3	4.2	12.0	0.5	0.7	22.7	30.2	1.2	2.0

➡ 농업 계획 및 농업 승계자 유무

- 농업 계획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63.8%)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24.1%), '확대할 계획이다'(7.4%),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4.7%) 순

단위 : %(명)

구분			확대할 계획이다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축소할 계획이다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
합계 (1,098)			7.4	63.8	24.1	4.7
읍/면	읍 (277)		7.6	67.2	20.6	4.5
	면 (822)		7.4	62.6	25.3	4.7
농축산물 판매금액	5백만원 미만 (408)		7.3	55.4	30.0	7.3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211)		5.4	65.1	25.2	4.3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217)		4.5	66.6	25.0	3.8
	2천만원 이상 (260)		11.8	73.0	13.6	1.6

- 농업 승계자가 있는 가구(9.4%)에 비해 없는 가구(58.9%) 비중이 높은 가운데, '아직 잘 모르겠다'는 가구는 31.7%

단위 : %(명)

구분			농업 승계자 있음	농업 승계자 없음	아직 잘 모르겠다
합계 (1,098)			9.4	58.9	31.7
읍/면	읍 (275)		13.4	56.3	30.2
	면 (822)		8.0	59.8	32.3
농축산물 판매금액	5백만원 미만 (407)		7.2	67.6	25.2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211)		7.6	57.0	35.3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219)		6.9	58.6	34.5
	2천만원 이상 (258)		16.4	46.6	37.0

➡ 농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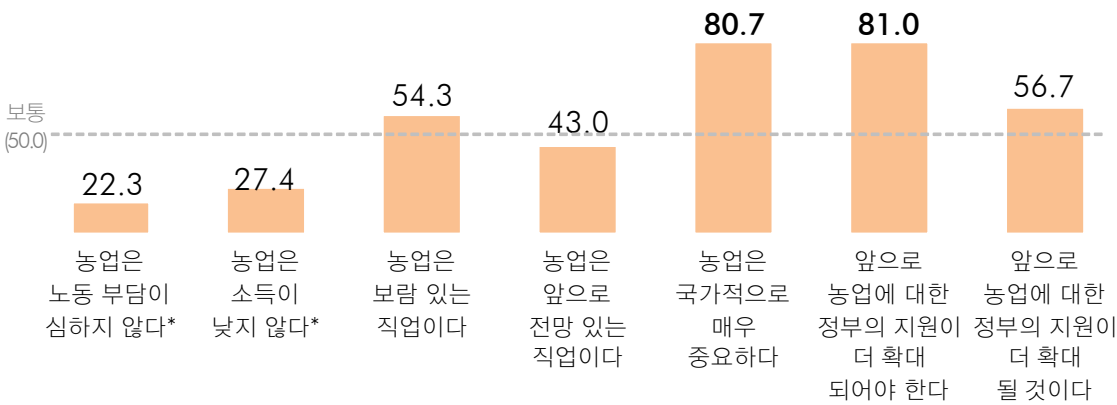
-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n=1,120)의 공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가운데, ‘가능한 한 농업을 계속하고 싶다’(평균 57.8점)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 높았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만족스럽다’(평균 43.0점), ‘가능한 한 농업이 가족 내에서 대물림 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평균 35.6점)는 인식에 대한 공감도는 낮음

단위: 점

구분		농어가(n=1,120) 기준		
		가능한 한 농업을 계속하고 싶다	가능한한농업이가족내에서 대물림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합계		57.8	35.6	43.0
읍/면	읍	61.7	41.9	45.4
	면	56.6	33.4	42.2

- 전체 조사대상 가구(n=3,939)는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 되어야 한다’(평균 81.0 점), ‘농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평균 80.7점) 등 농업의 중요성과 관련된 인식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은 반면, ‘농업은 소득이 낮지 않다*’(평균 27.4점), ‘농업은 노동 부담이 심하지 않다*’(평균 22.3점) 등에 대한 공감도는 낮음

단위: 점



*부정문으로 바꾸고 역코딩 함

➡ 주요 생활비 지출항목

- ‘식료품비’(25.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광열수도비’(18.0%), ‘보건의료비’(16.5%), ‘교통통신비’(14.2%), ‘교육비’(9.6%), ‘주거비’(6.5%), ‘관혼상제비’(2.7%), ‘피복신발비’(1.8%), ‘가구가사용품비’, ‘문화여가비’(각 1.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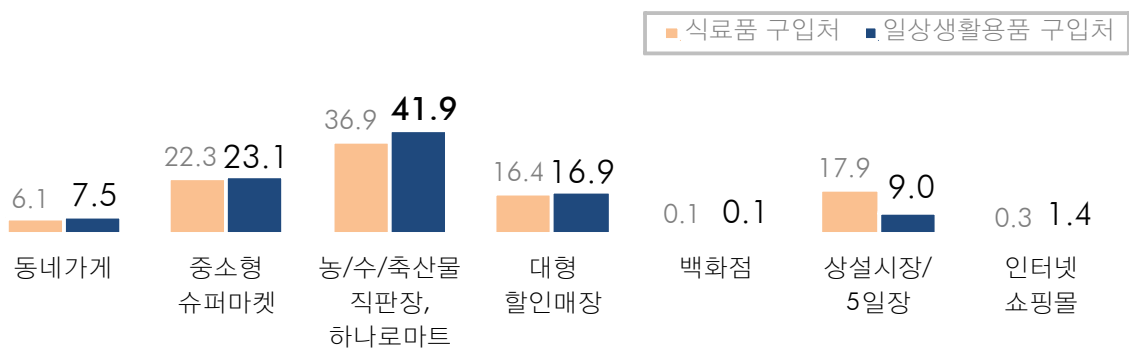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교통통신비	관혼상제비	기타
합계 (3,937)			25.2	16.5	1.1	1.8	6.5	18.0	9.6	1.1	14.2	2.7	3.2
읍/면	읍 (1,836)		29.0	11.5	1.5	2.5	9.4	13.5	11.7	1.5	14.5	2.3	2.7
	면 (2,101)		21.9	20.9	0.8	1.2	4.0	21.9	7.7	0.8	14.0	3.1	3.6
영농여부	농어가 (1,120)		18.0	22.2	0.9	0.6	2.8	23.5	7.4	0.4	15.0	4.2	5.0
	비농어가 (2,817)		28.1	14.2	1.2	2.2	8.0	15.9	10.4	1.4	14.0	2.1	2.5

➡ 주요물품 구입실태

- 식료품 물품 구입처로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36.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용품 물품 구입처 역시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41.9%) 비중이 가장 높음
- 식료품(17.9%)의 경우 일상생활용품(9.0%)에 비해 ‘상설시장/5일장’ 비중이 다소 높음(+8.9%p)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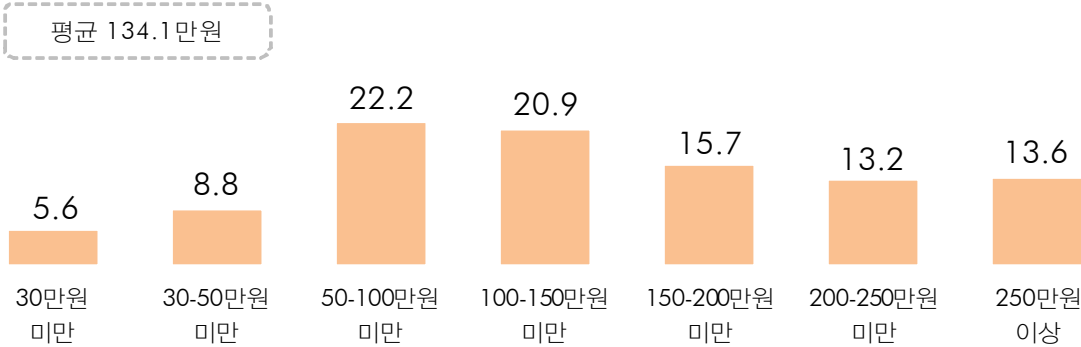


- 식료품 구입처 및 일상생활용품 구입처까지 이동 시 소요되는 시간으로 ‘10-20분 미만’ 비중이 각각 39.8%, 40.2%로 가장 높았으며, 물품 구입처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식료품의 경우 평균 13.6분, 일상생활용품의 경우 평균 13.2분으로 비슷한 수준

➡ 월 평균 생활비

- 월 평균 생활비로 '50-100만원 미만'(22.2%), '100-150만원 미만'(20.9%) 등 [50-150만원 미만](43.1%)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0-200만원 미만'(15.7%), '250만원 이상'(13.6%), '200-250만원 미만'(13.2%), '30-50만원 미만'(8.8%), '30만원 미만'(5.6%) 순으로 월 평균 생활비는 134.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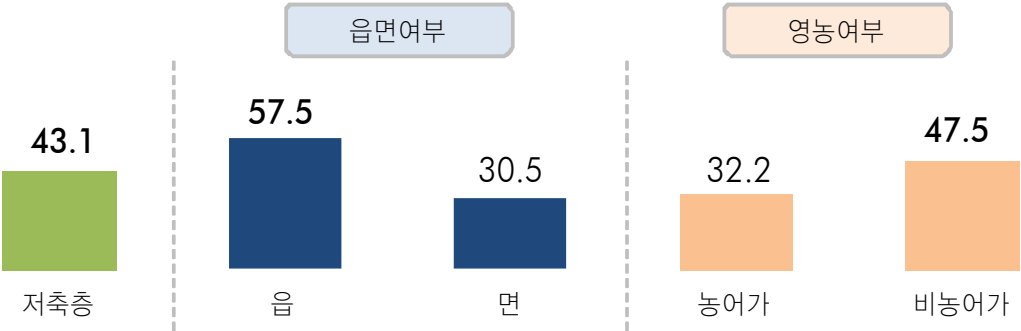
단위 : %



➡ 저축 현황

-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가 43.1%
-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저축층'이 43.1%로 나타난 가운데,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저축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종합만족도가 평균 40.3점으로 '다소 불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계의 부채 수준'(평균 51.5점)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 수준'(평균 42.0점), '가계의 소득수준'(평균 40.3점), '가계의 순자산 수준'(평균 37.3점), '여유자금'(평균 36.2점), '노후준비금'(평균 34.2점), '저축하고 있는 금액'(평균 31.7점) 순

단위 : 점

구분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가계의 소득 수준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 수준	저축 하고 있는 금액	가계의 순자산 수준	가계의 부채 수준	여유 자금	노후 준비금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합계		40.3	42.3	38.3	40.3	42.0	31.7	37.3	51.5	36.2	34.2
읍/면	읍	42.0	43.9	40.2	41.7	42.9	35.9	38.0	52.2	39.1	36.9
	면	38.8	41.0	36.6	39.0	41.2	28.0	36.7	50.9	33.7	31.9
영농 여부	농어가	39.6	42.2	36.9	39.0	41.0	29.1	38.1	47.9	34.3	33.0
	비농어가	40.6	42.4	38.8	40.8	42.4	32.7	37.0	52.9	37.0	34.7

➡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여건 변화

- 과거 5년 전에 비해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여건이 '나빠진 편'(27.0%), '매우 나빠짐'(1.7%) 등 [나빠진 편(합)]이라는 응답이 28.7%로 '좋아진 편'(21.7%), '매우 좋아짐'(0.9%) 등 [좋아진 편(합)](22.6%)이라는 응답보다 다소 높음. 한편, '보통'이라는 의견이 절반수준(48.7%)으로 5년 전과 비슷한 수준(평균 48.3점)이라는 평가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좋아짐	좋아진 편	좋아진 편(합)	보통	나빠진 편	매우 나빠짐	나빠진 편(합)
합계 (3,938)		48.3점	0.9	21.7	22.6	48.7	27.0	1.7	28.7
읍/면	읍 (1,838)	49.6점	0.8	23.0	23.9	51.0	23.9	1.2	25.1
	면 (2,100)	47.2점	1.0	20.4	21.5	46.8	29.7	2.1	31.8
영농 여부	농어가 (1,119)	47.5점	0.4	22.0	22.4	46.5	29.2	1.9	31.1
	비농어가 (2,819)	48.6점	1.2	21.5	22.7	49.6	26.1	1.6	27.7

➡ 향후 5년 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 전망

-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전망으로서 '좋아질 것'(26.2%), '매우 좋아질 것'(1.5%) 등 [좋아질 것(합)]이라는 응답이 27.7%로, '나빠질 것'(19.0%), '매우 나빠질 것'(1.6%) 등 [나빠질 것(합)](20.6%)이라는 응답에 비해 약간 많았음. 한편, '보통'이 51.7%로 5년 전 대비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평가보다 약간 긍정적인 평가(평균 51.7점)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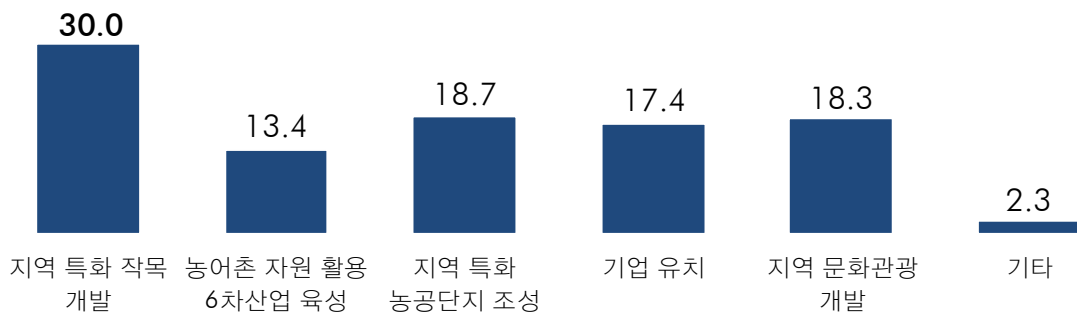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좋아질 것	좋아질 것	좋아질 것(합)	보통	나빠질 것	매우 나빠질 것	나빠질 것(합)
합계 (3,937)			51.7점	1.5	26.2	27.7	51.7	19.0	1.6	20.6
읍/면	읍 (1,837)		53.4점	1.4	27.7	29.1	55.0	14.5	1.3	15.8
	면 (2,100)		50.3점	1.5	24.9	26.4	48.7	23.0	1.8	24.8
영농 여부	농어가 (1,118)		49.8점	0.9	24.3	25.2	49.7	23.4	1.7	25.0
	비농어가 (2,819)		52.5점	1.7	27.0	28.7	52.5	17.3	1.5	18.8

➡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

- '지역 특화 작목 개발'(30.0%)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 특화 농공단지 조성'(18.7%), '지역 문화관광 개발'(18.3%), '기업 유치'(17.4%), '농어촌 자원 활용 6차 산업 육성'(13.4%) 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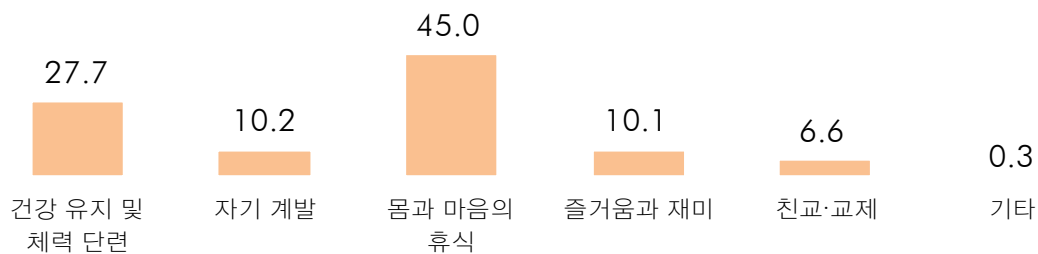


문화여가

➡ 여가활동의 목적

-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45.0%)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강 유지 및 체력 단련'(27.7%), '자기 계발'(10.2%), '즐거움과 재미'(10.1%), '친교·교제'(6.6%) 순

단위 : %



➡ 주된 여가활동 실태

- 'TV 및 라디오 시청'(29.2%)이 주된 여가활동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포츠활동'(17.5%), '스포츠 관람'(1.5%) 등 [스포츠 관련 활동](19.0%), '휴식'(17.8%), '사회활동'(14.4%), '문화예술관람'(5.4%), '문화예술활동'(1.4%) 등 [문화예술 관련활동](6.8%), '취미활동'(4.8%), '여행'(3.3%), '독서, 신문/잡지 보기'(2.0%),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1.9%) 순

단위 : %(명)

구분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여행	취미 활동	사회 활동	휴식	TV 및 라디오 시청	독서, 신문/ 잡지 보기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합계 (3,929)			5.4	1.4	1.5	17.5	3.3	4.8	14.4	17.8	29.2	2.0	1.9
읍/면	읍	(1,833)	8.2	1.3	1.6	24.4	5.5	5.8	11.3	17.0	19.7	2.4	2.0
	면	(2,095)	3.0	1.5	1.5	11.4	1.5	4.0	17.1	18.5	37.5	1.6	1.9
영농 여부	농어가	(1,118)	1.1	1.3	2.8	11.1	1.5	2.5	18.6	19.0	39.3	1.1	0.8
	비농어가	(2,811)	7.1	1.5	1.1	20.0	4.1	5.7	12.7	17.3	25.2	2.3	2.4

*1.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 ‘자택(집)’(49.2%)이 주된 여가활동 장소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민간시설’(19.1%), ‘마을 내 공동시설’(11.6%), ‘읍/면 공공시설’(7.1%), ‘시/군 공공시설’(4.5%) 순

단위 : %(명)

구분		자택 (집)	시/군 공공시설	읍/면 공공시설	마을 내 공동시설	민간 시설	기타
합계 (3,921)		49.2	4.5	7.1	11.6	19.1	8.4
읍/면	읍 (1,828)	38.7	5.6	7.4	9.8	29.1	9.5
	면 (2,093)	58.4	3.6	6.9	13.2	10.5	7.5
영농 여부	농어가 (1,115)	58.4	2.0	8.2	14.7	10.5	6.3
	비농어가 (2,806)	45.6	5.5	6.7	10.4	22.6	9.3

- 여가활동 장소까지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으로 ‘30분-1시간 미만’(29.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0-20분 미만’(26.5%), ‘20-30분 미만’(15.0%), ‘5-10분 미만’(14.9%), ‘1시간 이상’(9.6%), ‘5분 미만’(4.8%)순으로 평균 소요시간은 12.1분

단위 : %(명)

구분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합계 (1,976)			12.1분	4.8	14.9	26.5	15.0	29.2	9.6
읍/면	읍 (1,110)	15.3분	3.5	12.5	24.4	17.0	32.9	9.7	
	면 (865)	9.3분	6.5	17.9	29.3	12.4	24.5	9.5	
영농 여부	농어가 (461)	8.6분	7.6	22.2	25.7	8.7	30.4	5.3	
	비농어가 (1,514)	13.5분	4.0	12.6	26.7	16.9	28.9	10.9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 ‘관람 경험층’이 29.2%, 관람층의 총 관람 횟수는 평균 7.6회, 무료관람 횟수는 평균 0.8회

단위 : 회

구분	합계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 연주회 관람	전통 예술 공연 관람	연극, 무용 공연 관람	영화 관람	연예 공연 관람	스포츠 관람
총 관람 횟수	7.6	0.4	0.6	0.3	0.2	0.4	5.0	0.2	0.6
총 관람 횟수 중 무료관람 횟수	0.8	0.1	0.2	0.1	0.1	0.0	0.2	0.1	0.1

➡ 체육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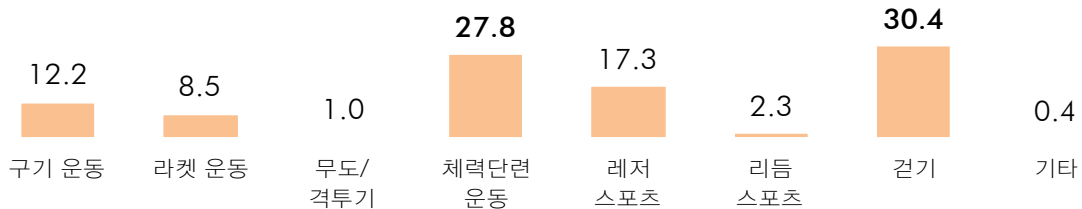
- 지난 1개월 간 체육활동 '경험층'이 26.0%로 나타났으며, 경험층(n=944)의 체육활동경험 횟수로 '3-4회'(20.2%) 비중이 가장 높음. 평균 체육활동 횟수는 9.8회

단위 : %(명)

구분		경험 여부		경험 횟수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평균	1-2회	3-4회	5-10회 미만	10-15회 미만	15-20회 미만	20-25회 미만	25회 이상
합계		(3,939)	26.0	(944)	9.8회	15.8	20.2	19.4	19.6	7.5	9.5	8.0
읍/면	읍	(1,838)	32.9	(546)	9.8회	14.8	21.5	18.3	21.1	6.9	9.6	7.7
	면	(2,101)	20.1	(397)	9.7회	17.3	18.5	20.8	17.4	8.3	9.4	8.3
영농 여부	농어가	(1,120)	16.9	(184)	10.4회	14.6	19.8	23.8	14.2	7.0	9.1	11.5
	비농어가	(2,819)	29.7	(760)	9.6회	16.1	20.3	18.3	20.9	7.6	9.6	7.1

- '걷기'(30.4%), '체력단련운동'(27.8%)이 주된 체육활동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레저스포츠'(17.3%), '구기 운동'(12.2%), '라켓 운동'(8.5%), '리듬스포츠'(2.3%), '무도/격투기'(1.0%) 순

단위 : %



➡ 여행 경험

- '여행 경험층'이 45.0%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 여행 경험층'(36.3%)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내+국외 여행 경험층'(6.0%), '국외 경험층'(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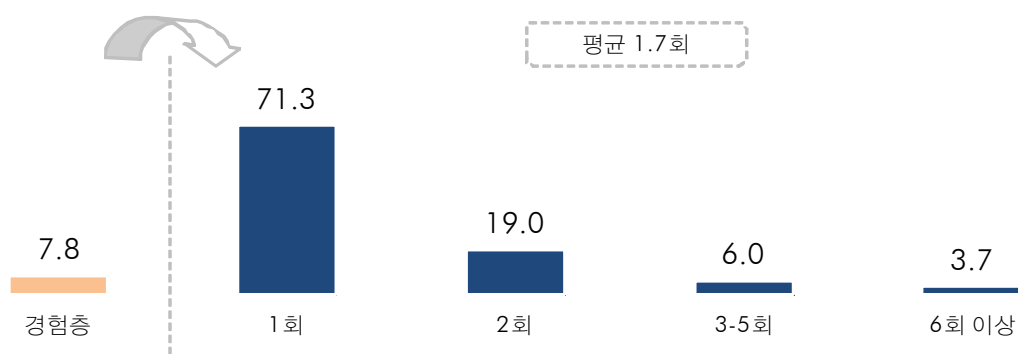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여행 경험층	국내+국외 여행경험층	국내 여행경험층	국외 여행경험층	비 경험층
합계 (3,939)		45.0	6.0	36.3	2.7	55.0
읍/면	읍 (1,838)	53.0	7.1	42.6	3.3	47.0
	면 (2,101)	38.0	4.9	30.9	2.2	62.0
영농 여부	농어가 (1,120)	42.1	4.5	35.1	2.5	57.9
	비농어가 (2,819)	46.2	6.6	36.8	2.8	53.8

➡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강좌, 강습회 등에 참여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층이 7.8%로 나타난 가운데, 전문인력 지도 횟수(n=309)로 '1회'(71.3%)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회'(19.0%), '3-5회'(6.0%), '6회 이상'(3.7%) 순으로 평균 지도 횟수는 1.7회

단위 : %



➡ 문화·여가 동호회 활동 실태

- 문화·여가 동호회 활동층이 9.7%로 나타난 가운데, 활동층(n=371)의 활동 동호회 개수로 '1개'(67.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개'(16.3%), '3개'(6.5%), '5개'(5.3%), '4개'(4.0%) 순으로 평균 참여 동호회 개수는 1.6개

단위 : %(명)

구분		활동 여부		활동 동호회 개수						
		사례수	활동층	사례수	평균	1개	2개	3개	4개	5개
합계		(3,939)	9.7	(371)	1.6개	67.9	16.3	6.5	4.0	5.3
읍/면	읍	(1,838)	12.2	(219)	1.7개	68.2	13.1	5.1	5.1	8.5
	면	(2,101)	7.5	(153)	1.5개	67.5	20.9	8.5	2.4	.7
영농 여부	농어가	(1,120)	8.4	(93)	1.5개	66.7	20.8	8.5	2.6	1.4
	비농어가	(2,819)	10.3	(279)	1.7개	68.3	14.8	5.9	4.4	6.6

- 활동하는 동호회 종류로 '스포츠활동'(52.6%), '스포츠관람'(1.9%) 등 [스포츠 관련 동호회](54.5%)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활동'(12.4%), '문화예술관람'(8.1%) 등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20.5%), '사회활동'(11.5%), '취미활동'(8.5%), '여행'(3.2%) 순

단위 : %(명)

구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여행	취미 활동	사회 활동	기타
합계 (381)		8.1	12.4	1.9	52.6	3.2	8.5	11.5	1.7
읍/면	읍 (224)	11.4	14.4	1.4	50.5	2.8	7.1	11.4	0.9
	면 (156)	3.5	9.5	2.5	55.6	3.8	10.5	11.7	2.9

- 동호회 활동의 참여 경력으로 '5년 이상'(38.1%)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3년 미만'(28.4%), '3-5년 미만'(18.3%), '6개월-1년 미만'(8.7%), '6개월 미만'(6.5%) 순

단위 : %(명)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383)		6.5	8.7	28.4	18.3	38.1
읍/면	읍 (225)	8.0	9.5	28.8	17.7	35.9
	면 (158)	4.4	7.6	27.9	19.0	41.2

- 동호회 활동의 전문성으로 '중급'(55.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급'(19.6%), '준전문가 수준'(12.5%), '전문가 수준'(7.4%) 순

- 읍지역, 동호회 참여 경력 5년 이상층에서 '준전문가' 이상 비중이 높은 반면, 면지역, 참여 경력 5년 미만층에서 '초급'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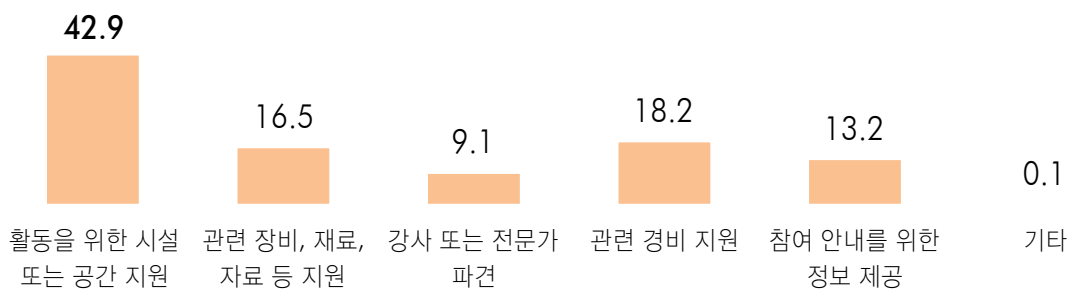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초급	중급	준전문가 수준	전문가 수준	해당 없음
합계 (383)		19.6	55.9	12.5	7.4	4.6
읍/면	읍 (225)	16.5	62.4	12.4	6.2	2.6
	면 (158)	24.1	46.7	12.6	9.1	7.5
동호회 참여 경력	5년 미만 (237)	26.3	57.1	5.8	4.8	6.0
	5년 이상 (146)	8.9	53.9	23.2	11.6	2.3

➡ 동호회 활성화 필요요소

- ‘활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 지원’(42.9%)이 동호회 활동에 새롭게 참여하거나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관련 경비 지원’(18.2%), ‘관련 장비, 재료, 자료 등 지원’(16.5%), ‘참여 안내를 위한 정보 제공’(13.2%), ‘강사 또는 전문가 파견’(9.1%)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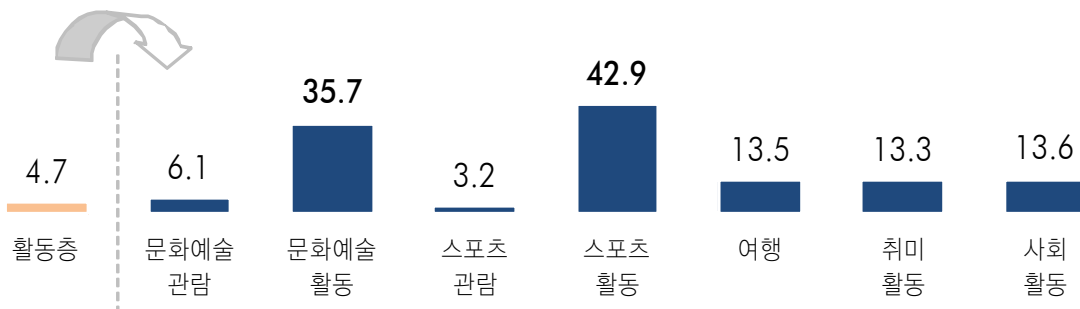
단위: %



➡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실태

-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층이 4.7%로 나타난 가운데, 그 종류로 ‘스포츠활동’(42.9%), ‘스포츠관람’(3.2%) 등 [스포츠 관련 활동](46.1%)과 ‘문화예술활동’(35.7%), ‘문화예술관람’(6.1%) 등 [문화예술 관련 활동](41.8%)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활동’(13.6%), ‘여행’(13.5%), ‘취미활동’(13.3%) 순

단위: %



- 문화·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23.3%),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21.4%) 등 [참여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4.7%로,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25.6%), ‘거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7.7%) 등 [참여하지 않는 편](33.3%)이라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22.0%

➡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필요 요소

- ‘활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 지원’(48.4%)이 주된 필요요소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련 경비 지원’(17.0%), ‘관련 장비, 재료, 자료 등 지원’(12.1%), ‘참여 안내를 위한 정보 제공’(11.0%), ‘강사 또는 전문가 파견’(10.3%) 순으로 동호회 활성화 필요 요소와 비슷한 분포를 보임

단위: %(명)

구분			활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 지원	관련 장비, 재료, 자료 등 지원	강사 또는 전문가 파견	관련 경비 지원	참여 안내를 위한 정보 제공	기타
합계 (3,901)			48.4	12.1	10.3	17.0	11.0	1.2
읍/면	읍	(1,820)	49.3	12.7	9.4	15.2	12.4	1.0
	면	(2,081)	47.6	11.5	11.2	18.5	9.9	1.3
영농 여부	농어가	(1,108)	49.2	12.9	11.5	16.2	9.8	0.5
	비농어가	(2,793)	48.1	11.7	9.9	17.3	11.5	1.4

➡ 희망 문화·여가활동 실태

-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으로 ‘여행’(30.7%)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스포츠활동’(18.3%), ‘스포츠관람’(3.5%) 등 [스포츠 관련 활동](21.8%), ‘문화예술관람’(11.6%), ‘문화예술활동’(7.9%) 등 [문화 예술 관련 활동](19.5%), ‘휴식’(14.8%), ‘취미활동’(9.2%), ‘사회활동’(3.8%) 순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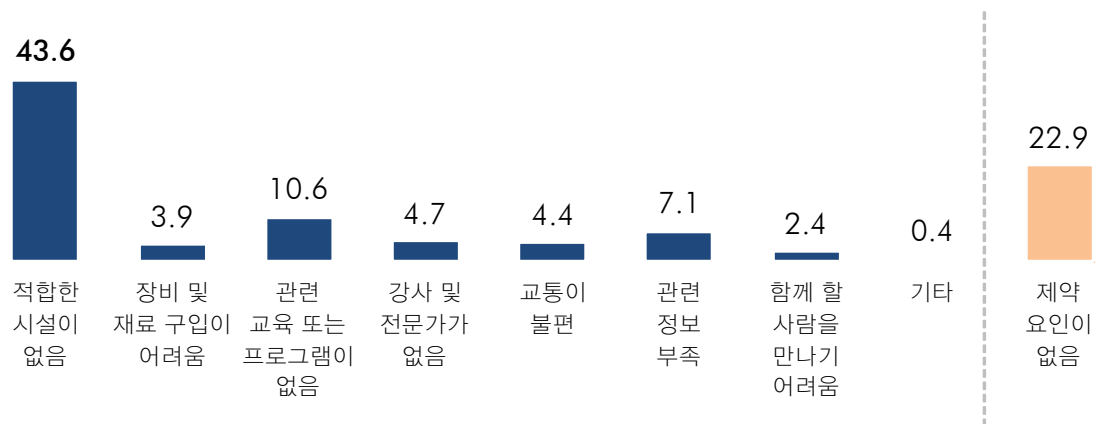
구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여행	취미 활동	사회 활동	휴식	기타
합계 (3,930)			11.6	7.9	3.5	18.3	30.7	9.2	3.8	14.8	0.2
읍/면	읍	(1,833)	12.7	7.1	3.0	20.7	31.1	9.0	3.7	12.5	0.1
	면	(2,097)	10.6	8.6	3.9	16.3	30.3	9.4	3.9	16.9	0.2
영농 여부	농어가	(1,118)	8.3	7.1	3.3	18.5	31.4	9.8	3.9	17.5	0.2
	비농어가	(2,812)	12.9	8.2	3.6	18.3	30.4	9.0	3.8	13.8	0.2

-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동반자로 ‘가족·친지’(48.4%)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구’(23.4%), ‘이웃주민’(12.9%), ‘혼자’(11.7%),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2.7%), ‘직장동료’(0.7%) 순

➡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 ‘적합한 시설이 없음’(43.6%)이 주된 지역적 제약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없음’(10.6%), ‘관련 정보 부족’(7.1%), ‘강사 및 전문가가 없음’(4.7%), ‘교통이 불편’(4.4%), ‘장비 및 재료 구입이 어려움’(3.9%), ‘함께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움’(2.4%) 순. 한편, ‘제약 요인이 없음’은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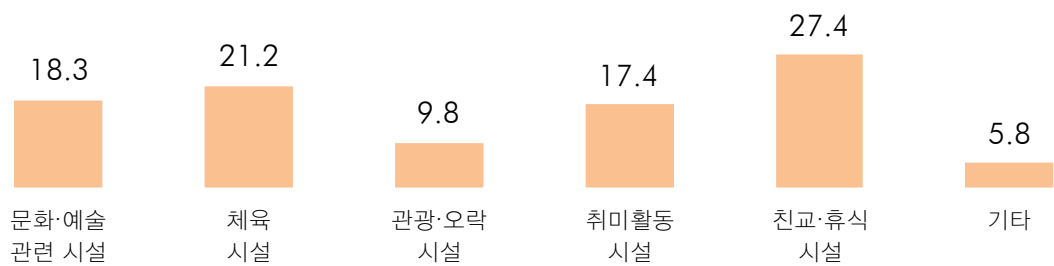
단위 : %



➡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 “찜질방/목욕탕”(15.9%), “공원”(5.7%) 등 ‘친교·휴식시설’(27.4%)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체육단련 시설/스포츠센터”(10.1%), “수영장”(5.8%) 등 ‘체육시설’(21.2%), “영화관”(10.7%)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18.3%), “문화센터”(14.2%) 등 ‘취미활동 시설’(17.4%), ‘관광, 오락 시설’(9.8%) 순

단위 : %



➡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 ‘체육활동 지도’(25.3%)가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주된 프로그램이었으며, 다음으로 ‘영화 상영’(16.0%), ‘전통예술 공연’(12.1%), ‘문화예술 교육’(11.6%), ‘취미활동 교육’(9.5%), ‘연예 공연’(8.5%), ‘음악 공연’(8.3%), ‘연극/무용 등 공연’(5.2%), ‘미술품 전시’, ‘이동 도서관’(각 1.8%) 순

단위 : %(명)

구분		미술품 전시	음악 공연	전통 예술 공연	연극/무용 등 공연	영화 상영	연예 공연	문화 예술 교육	체육 활동 지도	취미 활동 교육	이동 도서관
합계 (3,893)		1.8	8.3	12.1	5.2	16.0	8.5	11.6	25.3	9.5	1.8
읍/면	읍 (1,820)	1.9	8.1	10.0	5.4	19.9	7.2	9.5	26.2	10.2	1.5
	면 (2,073)	1.8	8.5	13.9	5.0	12.5	9.6	13.3	24.6	8.8	2.1
영농 여부	농어가 (1,108)	1.0	6.7	14.9	3.9	12.2	10.9	12.7	28.5	7.7	1.6
	비농어가 (2,785)	2.1	8.9	11.0	5.7	17.5	7.6	11.1	24.1	10.1	1.9

➡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로 ‘만족하지 않는 편’(44.1%), ‘매우 불만족’(5.7%) 등 [불만족(합)]이라는 응답이 49.8%로, ‘만족하는 편’(9.8%), ‘매우 만족’(0.3%) 등 [만족(합)](10.0%)이라는 응답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은 40.2%로 문화·여가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간 불만족하는 수준’(38.7점)의 평가를 보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만족(합)	보통	만족하지 않는 편	매우 불만족	불만족(합)
합계 (3,938)		38.7점	0.3	9.8	10.0	40.2	44.1	5.7	49.8
읍/면	읍 (1,838)	39.5점	0.3	10.3	10.6	41.4	43.0	4.9	48.0
	면 (2,100)	38.0점	0.2	9.3	9.5	39.1	45.1	6.3	51.4
영농 여부	농어가 (1,119)	38.2점	0.5	8.7	9.2	39.9	44.8	6.0	50.9
	비농어가 (2,819)	38.9점	0.2	10.2	10.3	40.3	43.8	5.5	49.4

➡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여건 변화

- 전반적인 문화·여가 여건이 ‘좋아진 편’(22.0%), ‘매우 좋아짐’(1.0%) 등 [좋아진 편(합)]이라는 응답이 23.0%로, ‘나빠진 편’(7.4%), ‘매우 나빠짐’(0.8%) 등 [나빠진 편(합)](8.2%)이라는 응답보다 많았음. 반면, ‘보통’이 68.8%로 과거 5년 전과 ‘비슷한 수준’(평균 53.8점)이라는 평가를 보임

목차
전체 목차

■ 조사연구 개요	57
-----------------	----

제1부 | 개인설문조사

1100. 일반사항	73
11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4
1120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76
1130 장애 가구원 유무 및 장애 종류와 등급	77
1140 결혼이민자 유무	81
1200. 생활전반	82
121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83
1220 주택의 건축년도	89
1230 주택의 종류 및 점유 형태	91

1240	향후 이주의향	94
1250	지역생활 만족도	98
1260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101

1300. 경제활동 104

생산활동

1311	부업현황	105
1312	희망 부업현황	108
1313	은퇴계획	111
1314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112
1315	농어촌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영역	115
1316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실태	116
1317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	118
1318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119
1319	영농형태 및 농축산물 판매금액	120
1320	농업 계획 및 농업 승계자 유무	121
1321	농업에 대한 인식	123

소비활동

1331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125
1332	주요 물품 구입 실태	126

경제적 생활수준

1341 월 평균 생활비	132
1342 저축 현황	133
1343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134
1344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 변화	135
1345 향후 5년 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 전망	136
1346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	137

1400. 문화여가

문화여가활동 참여

1411 여가활동의 목적	139
1412 주된 여가활동 실태	140
1413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149
1414 체육활동 경험	151
1415 여행 경험	153
1416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155
1417 동호회 활동 실태	156
1418 동호회 활성화 필요 요소	159
1419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실태	160
1420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필요 요소	162

희망 문화여가활동

1421 희망 문화여가활동 실태	163
-------------------------	-----

1422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168
--------------------------------	-----

문화여가 지원

1431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170
-----------------------	-----

1432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173
------------------------------------	-----

1433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174
-----------------------	-----

1434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여건 변화	176
-------------------------------------	-----

제2부 | 기존통계 활용

2100. 보건의료 부문	179
----------------------------	-----

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180
-----------------------------	-----

2102 만성질환 현황	181
--------------------	-----

2103 주관적 건강 인식	182
----------------------	-----

2104 건강검진 수진율	183
---------------------	-----

2105 월 평균 보건의료비	184
-----------------------	-----

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185
-------------------------------------	-----

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186
--------------------------	-----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187
--------------------------------	-----

2109 농작업 손상	188
2110 병상 수	189
2111 보건의료기관 수	190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191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192
2200. 복지 부문	193
2201 독거노인 현황	194
2202 장수인구 비율	194
2203 치매노인 비율	195
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195
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196
2206 노인일자리 참여	197
2207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198
2208 영유아 비율	199
2209 유치원 취원율	200
2210 보육시설 현황	201
2211 조손가구 비율	204
2212 장애인 추가비용	204
2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205

2300. 교육 부문	207
2301 학생 수	208
2302 학교 수	209
2303 학급 수별 학교 수	210
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211
2305 소규모학교 비율	212
2306 복식학교 비율	213
2307 교원 수	214
2308 연령별 교원 수	215
2309 사무직원 수	216
2310 사서교사 배치율	217
2311 보건교사 배치율	218
2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219
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220
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21
2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22
2316 통학수단	223
2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224
2318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225
2319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227

2320 학업중단 비율	228
2321 대학(교) 진학률	229
2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230
2323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및 참여율	231
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232
2325 도서관 현황	233
2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34
2400. 문화여가 부문	235
2401 주요 여가활동	236
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237
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238
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239
2405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240
2500. 기초생활여건/환경·경관 부문	241
250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242
2502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243
2503 주택의 시설 현황	244
2504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245

2505 상수도 보급률	246
2506 하수도 보급률	246
2507 도로 포장률	247
2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248
2509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248
2510 인터넷 이용 목적	249
251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250
2512 환경오염 체감정도	252
2600. 지역역량 부문	254
2601 사회단체 참여율	255
2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256
2700. 경제활동 부문	257
2701 소득 및 가계지출	258
2702 부채 규모	259
2703 소득 만족도	260
2704 소비생활 만족도	261
2705 노후준비	262
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263
2707 자동차 보유 여부	264

■ 부록	265
(1) 전국 표본리스트	267
(2) 주요 항목별 타 자료 비교	279
(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296
(4) 주요 용어정리	306
(5)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310

목차2
표 목차

제1부 | 개인설문조사

표1110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74
표1110 -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75
표1120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76
표1130 - (1) 가구주와의 관계	78
표1130 - (2) - ①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79
표1130 - (2) - ②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 추이	79
표1130 - (3) 장애등급	80
표1140 - (1) 결혼이민자 유무	81
표1140 - (2) 출신국가	81
표1210 - (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83
표1210 - (2) - ① 이주 후 거주기간('이주했다' 층)	85

표1210 - (2) - ② 이주 후 거주기간‘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층 ...	86
표1210 - (3) 이주 직전 주택 위치	87
표1220 주택의 건축년도	89
표1230 - (1) 주택종류	91
표1230 - (2) - ① 주택 점유형태	93
표1230 - (2) - ② 주택 점유형태 - 추이	93
표1240 - (1)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94
표1240 - (2) 이주 희망 지역	95
표1240 - (3) 이주 희망 이유	96
표1250 - (1) 지역생활 영역별 만족도	98
표1250 - (2) 지역생활 영역별 만족도 - 추이	99
표1260 - (1)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102
표1260 - (2) 행복의 영향 요인	103
표1311 - (1) 부업현황	105
표1311 - (2) 종사자 지위	105
표1311 - (3) 부업 업종	106
표1311 - (4) 부업 소득	107
표1312 - (1) 희망 부업 형태	108
표1312 - (2) 희망 부업 업종	109

표1312 - (3) 희망 부업 기대소득	110
표1313 - (1) 은퇴계획	111
표1313 - (2) 은퇴 희망 연령	111
표1314 - (1)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112
표1314 - (2) 희망 창업 및 취업 업종	113
표1314 - (3) 창업 및 취업 기대소득	114
표1315 농어촌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영역	115
표1316 - (1) 참여층의 경영형태	116
표1316 - (2) 가구소득 기여도 비중	117
표1316 - (3) 가구소득 기여도에 대한 만족도	117
표1316 - (4) 정부 지원 수혜 여부	117
표1317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	118
표1318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119
표1319 - (1) 영농형태	120
표1319 - (2) 농축산물 판매금액	120
표1320 - (1) 농업 계획	121
표1320 - (2) 농업 승계자 유무	122
표1321 - (1) 농업에 대한 인식(1)	123
표1321 - (2) 농업에 대한 인식(2)	124
표1331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125

표1332 - (1) - ① 식료품 물품 구입처	126
표1332 - (1) - ② 일상생활용품 물품 구입처	127
표1332 - (2) - ① 식료품 주된 구입처 위치	128
표1332 - (2) - ② 일상생활용품 주된 구입처 위치	129
표1332 - (3) 주된 구입처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30
표1332 - (4) 물품 구입처까지 편도 소요시간	131
표1341 월 평균 생활비	132
표1343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134
표1344 지역의 경제활동여건 변화	135
표1345 지역의 경제활동여건 전망	136
표1346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영역	137
표1411 여가활동 목적	139
표1412 - (1) 주된 여가활동	141
표1412 - (2) 주된 여가활동 동반자	143
표1412 - (3) 주된 여가활동 빈도	144
표1412 - (4) 주된 여가활동 장소	145
표1412 - (5) 주된 여가활동 장소 위치	146
표1412 - (6) 여가활동 장소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47

표1412 - (7) 여가활동 장소까지 편도 소요시간	148
표1413 - (1) 총 관람 횟수	149
표1413 - (2) 총 관람 횟수 중 무료 관람 횟수	150
표1414 - (1) 지난 1개월 간 체육활동 경험	151
표1414 - (2) 주된 체육활동	152
표1415 - (1) 여행 경험 여부	153
표1415 - (2) 여행 횟수	154
표1416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여부	155
표1417 - (1) 동호회 활동 여부	156
표1417 - (2) 활동하는 동호회 종류	157
표1417 - (3) 동호회 참여 빈도	157
표1417 - (4) 동호회 참여 경력	158
표1417 - (5) 동호회 활동 전문성	158
표1418 동호회 활성화 필요 요소	159
표1419 - (1)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여부	160
표1419 - (2) 문화여가활동 참여도	161
표1420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필요 요소	162
표1421 - (1) - ① 희망 문화여가활동	163
표1421 - (1) - ② 희망 문화여가활동 - 세부사항	163
표1421 - (2)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	166

표1421 - (3) 희망 문화여가활동 빈도	167
표1422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169
표1431 - (1) - ①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 세부사항	170
표1431 - (1) - ②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171
표1431 - (2) 주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허용범위	172
표1432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173
표1433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174
표1434 과거 5년 전 대비 문화여가 여건 변화	176

제2부 | 기존통계 활용

표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180
표2102 만성질환 현황	181
표2103 주관적 건강 인식	182
표2104 건강검진 수진율	183
표2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184
표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185
표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186
표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187
표2109 - (1) 농기계 및 농약 사용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	188

표2109 - (2)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종류별 분포	188
표2110 병상 수	189
표2111 보건의료기관 수	190
표2112 - (1)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2005)	191
표2112 - (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2010)	191
표2113 - (1)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192
표2113 - (2)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192
표2201 독거노인 현황	194
표2202 장수인구 비율	194
표2203 치매노인 비율	195
표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195
표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196
표2206 노인일자리 참여	197
표2207 - (1)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198
표2207 - (2)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198
표2208 영유아 비율	199
표2209 유치원 취원율	200
표2210 - (1)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201
표2210 - (2)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	202
표2210 - (3)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	203

표2211 조손가정	204
표2212 장애인 추가비용	204
표2213 - (1) 결혼이민자 현황	205
표2213 - (2)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	206
표2213 -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	206
표2213 - (4)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의 어려움	206
표2301 학생 수	208
표2302 학교 수	209
표2303 학급 수별 학교 수	210
표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211
표2305 소규모학교 비율	212
표2306 복식학교 비율	213
표2307 교원 수	214
표2308 연령별 교원 수	215
표2309 사무직원 수	216
표2310 사서교사 배치율	217
표2311 보건교사 배치율	218
표2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219
표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220
표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21

표2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22
표2316 통학수단	223
표2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224
표2318 - (1)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초등학교 6학년	226
표2318 - (2)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중학교 3학년	226
표2318 - (3)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고등학교 1학년	227
표2319 학교 진학률	228
표2320 학업중단 비율	228
표2321 대학(교) 진학률	229
표2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230
표2323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231
표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232
표2325 도서관 현황	233
표2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34
표2401 주요 여가활동	236
표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237
표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238
표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239
표2405 - (1)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현황	240
표2405 - (2) 지역별 문화 동아리 참여현황	240

표2501 - (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05)	242
표2501 - (2)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10)	242
표2502 - (1) 주거형태	243
표2502 - (2) 점유형태	243
표2503 - (1) 주거시설	244
표2503 - (2) 난방형태	244
표2504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245
표2505 상수도 보급률	246
표2506 하수도 보급률	246
표2507 도로 포장률	247
표2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248
표2509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248
표2510 인터넷 이용 목적	250
표2511 - (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건축물 및 시설물/교통사고	250
표2511 - (2)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국가안보/범죄위험	250
표2511 - (3)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식량안보/신종 전염병	251
표2511 - (4)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정보보안/태풍지진등자연재해	251
표2511 - (5)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화재산불/전반적인 사회 안전	251
표2512 - (1) 환경오염 체감정도 - 대기오염	252
표2512 - (2) 환경오염 체감정도 - 수질오염	252

표2512 - (3) 환경오염 체감정도 - 토양오염	253
표2512 - (4) 환경오염 체감정도 - 소음공해	253
표2512 - (5) 환경오염 체감정도 - 녹지 등 주위환경 개선	253
표2601 사회단체 참여율	255
표2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256
표2701 소득 및 가계지출	258
표2702 부채 규모	259
표2703 소득 만족도	260
표2704 소비생활 만족도	261
표2705 노후준비	262
표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263
표2707 자동차 보유 여부	264

목차3
그림 목차

그림1130 - (1) 장애 가구원 유무	77
그림1130 - (2) 장애 가구원 유무 - 추이	77
그림1130 - (3) 가구주와의 관계 - 추이	78
그림1130 - (4) 장애등급 - 추이	80
그림1210 - (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 추이	84
그림1210 - (2) 이주 후 거주기간	86
그림1210 - (3)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추이	88
그림1220 주택의 건축년도 - 추이	90
그림1230 - (1) 주택종류	91
그림1230 - (1) 주택종류 - 추이	92
그림1240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97
그림1260 - (1)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101
그림1260 - (2) 행복의 영향 요인	103

그림1311 - (1) 부업 소득	107
그림1312 - (1) 희망 부업 형태	108
그림1312 - (2) 희망 부업 기대소득	110
그림1314 - (1)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112
그림1314 - (2) 창업 및 취업 기대소득	114
그림1316 - (1) 참여 경험 여부	116
그림1317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	118
그림1320 농업 승계자 유무	122
그림1321 농업에 대한 인식(2)	124
그림1332 - (1) 물품 구입처	127
그림1332 - (2) 주된 구입처 위치	129
그림1332 - (3) 물품 구입처까지 편도 소요시간	131
그림1341 월 평균 생활비	132
그림1342 - (1) 저축 현황	133
그림1342 - (2) 저축 현황 - 추이	133
그림1346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영역	137
그림1411 여가활동 목적	139
그림1412 - (1) 주된 여가활동	140

그림1412 - (2) 주된 여가활동 동반자	142
그림1412 - (3) 주된 여가활동 장소 위치	146
그림1412 - (4) 여가활동 장소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47
그림1412 - (5) 여가활동 장소까지 편도 소요시간	148
그림1413 - (1) 문화예술프로그램 평균 관람 경험	149
그림1413 - (2)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횟수	149
그림1414 - (1) 주된 체육활동	152
그림1415 - (1) 여행 경험층 - 추이	153
그림1415 - (2) 여행 횟수 - 추이	154
그림1416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여부	155
그림1418 동호회 활성화 필요 요소	159
그림1419 - (1)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여부	160
그림1421 - (1) 희망 문화여가활동	164
그림1421 - (2)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	165
그림1422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168
그림1431 - (1)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170
그림1433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 추이	175

조사연구 개요

 농촌진흥청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 목적
법적 근거
조사연혁
표본설계
조사원 선정 및 교육
조사방법
조사내용
자료처리 및 분석

1. 조사 목적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촌의 복지실태, 교육여건 및 기초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법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국가승인통계 제11437호('04.8.31.)

3. 조사연혁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매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2004. 8~1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2008. 3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2008. 10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2013. 3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2013. 9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2014. 9	경제활동, 문화·여가 부문에 맞춘 조사내용 승인

4. 표본설계

① 모집단(survey population)

- 전국 읍/면 지역의 모든 가구(2010 인구주택총조사)

단위 : 명

시도	가구수	인구수
전국	3,308,353	8,627,388
서울	-	-
인천	27,638	70,924
경기	652,076	1,916,731
강원	211,437	548,161
대전	-	-
충북	220,551	565,190
충남	461,581	1,209,093
부산	33,772	93,106
울산	64,276	185,811
대구	55,985	167,225
경북	489,928	1,191,614
경남	436,017	1,112,808
광주	-	-
전북	209,872	502,091
전남	395,200	931,327
제주	50,020	133,307

② 추출 단위(sampling unit)

-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 : 읍/면
-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ssu) : 조사구(아파트는 단지)
- 3차 추출단위(ultimate sampling unit: usu) : 가구

③ 추출 틀(sampling frame)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④ 층화(stratification)

- 1차 층화 : 읍/면 지역으로 층화
- 2차 층화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3차 층화 : 내재적 층화(implicit stratification)

아파트 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지역별 1~3개로 층화

⑤ 표본배분

- 역배분(power allocation)에 의해 지역별 표본 배분을 함

층화추출에서 흔히 고려되는 네이만배분(Neyman allocation)은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나 큰 규모의 부모집단에 대해서는 매우 효율적인 표본할당을 제공하지만 소규모 부모집단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표본을 할당시킴

$$n_h^{Neyman} = n \frac{N_h S_{yh}}{\sum_{h=1}^H N_h S_{yh}} \quad \text{여기서 } N_h \text{는 층크기이고 } S_{yh} \text{는 조사변수 } y \text{의 층분산}$$

이러한 단점을 피하고자 Bankier(1988)²⁾가 제시한 “역배분(power allocation)”을 고려할 수 있음. 역배분은 주어진 표본크기 n 을 H 개의 부모집단 (층)에 할당할 때, 층별 특성치 y 의 상대표준오차(coefficient of variation, CV) cv_{yh} 와 크기측도(measure of size) 혹은 중요도 t_{xh} 의 a 승의 곱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것

$$n_h^{power} = \frac{(t_{xh})^a cv_{yh}}{\sum_{h=1}^H (t_{xh})^a cv_{yh}}$$

네이만배분은 $a = 1$ 과 $t_{xh} = t_{yh}$ 을 갖는 역배분의 특수형태이고, 층별 상대표준오차가 거의 동일하고 $t_{xh} = N_h$ 이라면 역배분은 층크기 기준의 절충배분의 특수형태임

기존 조사들은 주요 분석 특성들을 달리하며 하나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는 상대표준오차들 cv_{qh} 의 조화평균을 고려

$$cv_{yh} = \left(\frac{1}{Q} \sum_{q=1}^Q cv_{qh}^{-1} \right)^{-1}$$

2) Bankier, M.D. (1988). Power allocations: determining sample sizes for subnational areas. The American Statistician 42, pp.174~177.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지역	아파트	비아파트	합계
소계	910	3,100	4,010
경기	230	250	480
강원	60	280	340
충북	110	290	400
충남	100	340	440
전북	10	390	400
전남	80	600	680
경북	140	360	500
경남	180	320	500
제주	0	270	270

6. 표본추출

- 1차 추출 : 표본 읍/면 추출 - 읍/면별 인구수 pps 추출
- 2차 추출 : 읍/면 내 조사구 추출 - 동읍/면 내 인구주택 조사구 pps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 조사구 명부 기초로 계통추출

5. 조사원 선정 및 교육

- 조사원 선정 : 2년 이상의 공공조사 경력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였으며, 1명의 조사원이 50가구 내외를 담당함
- 조사원 교육 : 집합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집합교육 : 투입된 모든 조사원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유의사항, 친절도에 대한 교육
 - 수시교육 : 응답거부 시 대처방안과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여 문제점 해결
 - 모든 조사원이 동일한 개념과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하여 조사원 교육 실시

6.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 196개 읍/면의 401개 마을에 거주하는 4,010가구
 - 전체 4,010가구 중 통상적인 응답률을 고려하여 95%(3,810가구)로 목표 응답률 설정
 - 3,939가구(응답률 98.2%) 조사 완료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직접면접식과 자기기입식 병행
- 표본대체 :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대체방안 마련 및 그에 따른 조사 진행
 - 3회 방문 후 대체 진행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장기부재,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대체 진행
- 조사 일정 : 9월 25일~10월 25일(1개월)

7.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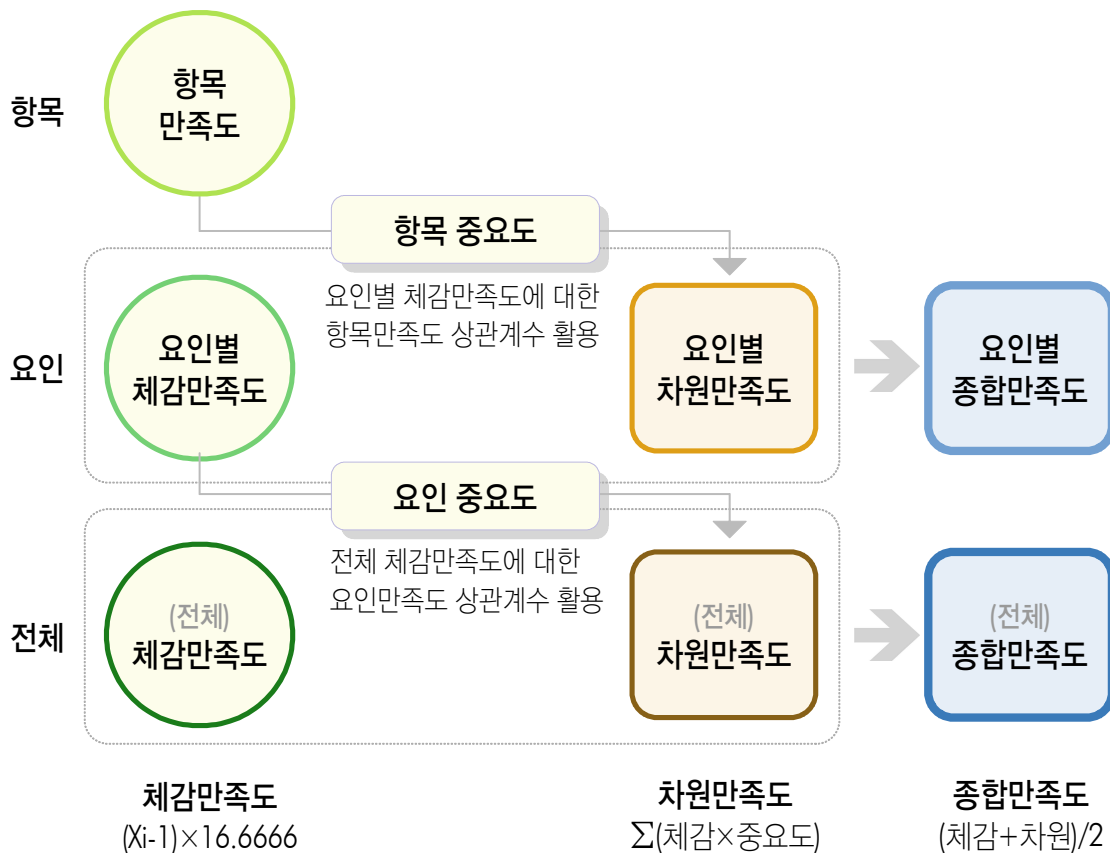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실태 및 의식에 관한 내용
 - 3개 부문, 80개 항목
- 일반적인 문항의 경우 다항선택형 질문(Multiple-choice Question)과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을 사용함
- 각종 평가적 신념(만족도, 인식 등)을 측정하는 척도로 Likert 척도(5점 척도)를 주로 사용함

구분		조사항목
생활 전반	이주 실태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및 이주 후 거주기간, 이주 직전 주택 위치 등
	주택 여건	주택 건축년도,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등
	생활여건	이주의향, 지역생활 영역별 중요도 및 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행복의 영향요인,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등
경제 활동	생산활동	부업현황 및 부업 희망 실태, 은퇴계획,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농어촌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영역,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경험 및 참여의사, 영농형태, 농축산물 판매금액, 농업에 대한 인식 등
	소비활동	주요 생활비 지출항목, 주요 물품 구입처, 월 평균 생활비, 저축 현황 등
	경제적 생활수준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지역의 경제활동 변화 및 전망,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영역 등
문화 여가	문화여가활동 참여	여가활동 목적, 주된 여가활동 실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경험, 체육활동 경험, 여행경험, 동호회 활동 실태,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등
	희망 문화여가 활동	희망 문화여가활동 실태, 문화·여가활동 시 지역적 제약요인,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실태,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문화여가 자원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지역의 문화여가여건 변화 등
일반사항		가족 수,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업, 동거여부, 농어가 여부, 장애 가구원 현황, 결혼이민자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해당 여부 등

8. 자료처리 및 분석

① 자료처리

-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과정을 거쳐 R을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함
-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교육여건 만족도 등 평가적 신념과 관련된 문항의 직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평균값(Mean) 산출[100점 만점 환산[($X_i - 1$) $\times$ 25점, X_i :측정값]
- 종합만족도³⁾ 산출방법 : 상관관계 분석으로 상관계수를 활용해 중요도를 산출하고 중요도를 감안해 종합만족도를 산출함



3) 종합만족도 : '전체 체감만족도'(전체 만족도에 대한 실측값)에 대한 요인을 구성하는 '요인별 체감만족도'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관계수 및 중요도를 산출하고 중요도를 감안한 '전체 차원만족도'와 '전체 체감만족도'를 함께 고려해 '전체 종합만족도'를 산출함

-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 전반적인 체감 만족도 및 하위요소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상관계수의 합을 기준으로 평가 항목의 중요도를 산출함
 - 지역의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16.22%), [기초생활기반](16.39%),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15.49%), [교육여건](14.92%), [경제활동 여건](14.55%),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11.43%), [환경경관](10.60%) 등으로 중요도가 산출됨
 -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가계의 소득수준](17.02%), [가계의 일상적 소비수준](16.54%), [가계의 순자산 수준](15.93%), [노후 준비금](14.94%), [저축하고 있는 금액, [여유자금](각 13.95%), [부채수준](7.66%) 등으로 중요도가 산출됨
- 보다 효율적인 전략적 방향 수립을 위해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IPA)을 병행함
 - 사업(정책)의 가치평가와 향후 자원배분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또는 기업 관리법으로 사업(정책)의 다양한 관리 대상 요인 중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투자할 부분과 상대적으로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관리할 부분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



② 추정

● 기호 정의: 층화 다단 집락추출법 추정을 위해 필요한 기호 정의

- Y : 모총계
- $\bar{Y}$: 모평균
- h : 시도, 특성에 따라 나눈 h 번째 층 ($h = 1, 2, \dots, H$)
- i : i 번째 표본 읍/면
- j : j 번째 표본 가구
- y_{hij} : h 층에 속한 i 번째 읍/면의 j 번째 가구의 속성치
- $y_{hi\cdot}$: h 층에 속한 i 번째 읍/면의 총계 추정치
- w_{hij} : h 층에 속한 i 번째 읍/면의 j 번째 가구의 설계가중치
- $w_{hi\cdot}$: h 층에 속한 i 번째 읍/면의 설계가중치
- N_h : h 층에 속한 모집단 동/면들의 수
- n_h : h 층에 속한 표본 읍/면들의 수
- m_{hi} : h 층, i 번째 읍/면의 표본 가구수

● 총계 및 분산추정

$$\cdot \hat{Y} = \sum_{h=1}^H \sum_{i=1}^{n_h} w_{hi\cdot} \cdot y_{hi\cdot}$$

$$\cdot \hat{V}(\hat{Y}) = \sum_{h=1}^H \hat{V}_h(\hat{Y})$$

$$\text{여기서, } \hat{V}_h(\hat{Y}) = \frac{n_h(1-f_h)}{n_h-1} \sum_{i=1}^{n_h} (y_{hi\cdot} - \bar{Y}_h)^2, \quad \bar{Y}_h = \frac{\sum_{i=1}^{n_h} y_{hi\cdot}}{n_h}$$

● 모평균 및 분산추정

$$\cdot \hat{\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cdot y_{hij} \right) / w_{..}$$

$$\text{여기서, } w_{..}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cdot \hat{V}(\hat{\bar{Y}}) = \sum_{h=1}^H \hat{V}_h(\hat{\bar{Y}})$$

$$\text{여기서, }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hat{\bar{Y}}) \right) / w_{..}$$

$$\bar{e}_{hi.} = \left(\sum_{i=1}^{n_h} Y_{hi} \right) / n_h$$

● 설계가중치

- 1차층(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내의 가구들은 가중치 동일

$$\cdot w_{hij} = \frac{N_h}{m_{h+}} \quad , \quad m_{h+} = \sum_i \sum_j m_{hij}$$

- 읍/면부의 가중치는 최소 제주의 185에서 최대 경기의 1,580 사이의 범위

<읍/면부 가구의 설계가중치>

구분	층 번호	총 가구수	표본 가구수	가중치
경기	1	268,893	220	1,222
	2	410,821	260	1,580
강원	1	64,536	100	645
	2	25,575	40	639
	3	73,893	120	616
	4	47,433	80	593
충북	1	76,607	140	547
	2	41,629	80	520
	3	102,315	180	568

<읍/면부 가구의 설계가중치>

구분	층 번호	총 가구수	표본 가구수	가중치
충남	1	176,626	200	883
	2	59,831	60	997
	3	225,124	180	1,251
경북	1	245,825	240	1,024
	2	119,963	120	1,000
	3	180,125	140	1,287
경남	1	174,122	180	967
	2	151,533	160	947
	3	208,410	160	1,303
전북	1	122,466	200	612
	2	27,398	80	342
	3	60,008	120	500
전남	1	244,173	460	531
	2	70,973	120	591
	3	80,054	100	801
제주	1	50,020	270	185

● 사후층화에 대한 가중치 조정

- 조사 완료된 표본 응답자의 층별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상대적으로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층의 응답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층별 표본응답자 연령대별 비율>

층 구분	2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경기	19.5	23.3	18.9	15.3	23.0	100.0
강원	6.1	13.5	23.1	21.8	35.4	100.0
충북	5.7	12.8	21.8	22.8	36.9	100.0
충남	7.8	13.5	13.8	24.8	40.1	100.0
경북	7.6	12.1	14.8	18.7	46.8	100.0
경남	10.8	19.1	15.3	18.8	36.0	100.0
전북	3.5	5.8	14.2	31.2	45.4	100.0
전남	2.2	6.7	14.2	29.2	47.8	100.0
제주	4.7	19.1	31.3	16.4	28.5	100.0

- 2010년 총조사 결과에 의한 모집단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표본에 비해 50대 이하 인구비율이 높고,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낮음
- 표본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와 사후층화에 의한 가중치 조정이 필요

<층별 모집단 연령대별 비율>

층 구분	2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경기	25.6	25.0	21.1	14.4	13.8	100.0
강원	16.3	18.8	23.4	18.8	22.6	100.0
충북	19.5	18.9	20.8	17.2	23.6	100.0
충남	22.0	18.4	19.3	17.4	22.9	100.0
경북	16.1	18.1	20.2	18.8	26.9	100.0
경남	19.3	21.3	20.0	16.8	22.6	100.0
전북	9.2	13.2	18.7	22.8	36.0	100.0
전남	10.9	14.8	18.0	21.8	34.5	100.0
제주	11.8	20.5	20.4	20.0	27.3	100.0

- 층별 모집단 연령대별 인구를 벤치마킹 변수로 하는 사후층화⁴⁾를 실시한 결과 사후 조정된 층별 표본 응답자 연령대별 비율은 다음과 같음
- 모집단 비율에 상당 부분 근접해진 것을 알 수 있음

<가중치 조정 후 층별 표본응답자 연령대별 비율>

층 구분	2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경기	30.7	27.8	18.5	9.5	13.6	100.0
강원	19.0	17.9	25.0	17.8	20.4	100.0
충북	22.9	20.3	18.6	17.4	21.0	100.0
충남	25.5	18.6	20.8	14.6	20.6	100.0
경북	19.7	20.0	19.1	16.7	24.5	100.0
경남	25.3	19.5	20.2	15.6	19.5	100.0
전북	12.1	12.5	21.3	20.4	33.7	100.0
전남	14.7	13.8	17.4	22.8	31.3	100.0
제주	18.1	19.5	19.4	17.6	25.5	100.0

4) Holt, D., Smith, T.M.F.(1979). Post-stratifica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42(1), pp.33~46.

제1부 개인 설문조사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1100> 일반사항

1200> 생활전반

1300> 경제활동

1400> 문화·여가

1100> 일반 사항

- 11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120>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 1130> 장애 가구원 유무 및
장애 종류와 등급
- 1140> 결혼이민자 유무

111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가구주'가 59.6%, '여성'이 56.9%, [60대 이상] 연령층이 37.8%
- ▶ '농어업종사자'가 24.2%, 종사자 지위로 '자영업자'가 42.9%



'가구주'가 59.6%, '여성'이 56.9%, [60대 이상] 연령층이 37.8%

[조사대상자(n=3,939) 중 응답자에 한해 - 가구주와의 관계 : 응답률 100.0%(n=3,939)]

[성, 학력 : 응답률 98.0%(n=3,859), 연령 : 응답률 98.0%(n=3,856)]

가구주나 배우자 중 1명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응답자의 59.6%가 '가구주' 본인이며, 성별로는 '여성'(56.9%) 비중이 '남성'(43.1%)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별로 '60대'(15.9%), '70대 이상'(21.9%) 등 [60대 이상] 비중이 37.8%였으며, '30대 이하'(22.7%), '40대'(19.9%), '50대'(19.7%)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력별로 '고등학교'(33.2%), '대학교'(21.7%), '대학원 이상'(1.3%) 등 [고등학교 이상](56.2%) 비중이 '초등학교'(20.9%), '중학교'(13.3%), '무학/미취학'(9.7%) 등 [중학교 이하] (43.9%)에 비해 높았다.

| 표1110-(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단위: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가구주와의 관계	합계	(3,939)	100.0	성	합계	(3,859)	100.0
	가구주	(2,347)	59.6		남	(1,663)	43.1
	가구주 배우자	(1,592)	40.4		여	(2,195)	56.9
연령	합계	(3,856)	100.0	학력	합계	(3,859)	100.0
	30대 이하	(874)	22.7		무학/미취학	(373)	9.7
	40대	(768)	19.9		초등학교	(806)	20.9
	50대	(758)	19.7		중학교	(511)	13.3
	60대	(613)	15.9		고등학교	(1,281)	33.2
	70대 이상	(844)	21.9		대학교	(837)	21.7
					대학원 이상	(50)	1.3



'농어업종사자'가 24.2%, '자영업자'가 42.9%

[직업 - 조사대상자(n=3,939)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7.8%(n=3,851)]

[종사자 지위 - 주부/무직/기타를 제외한 경제활동층(n=2,288)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100.0%(n=2,288)]

직업별로는 '주부/무직/기타'(40.6%)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농어업종사자'(24.2%) 비중 또한 높았다. '사무 종사자'(12.8%), '판매 종사자'(4.7%), '서비스 종사자'(3.3%) 등 자영업/직장인은 35.2%였다.

종사자 지위로 '자영업자'(42.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상용직'(33.5%), '무급가족 봉사자'(14.5%), '임시직'(4.8%), '일용직'(4.4%) 순이었다.

| 표1110 - (2)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직업	합계	(3,851)	100.0	종사자 지위	합계	(2,288)	100.0
	농어업종사자	(933)	24.2		자영업자	(981)	42.9
	관리자	(10)	0.3		상용직	(766)	33.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05)	2.7		임시직	(110)	4.8
	사무 종사자	(494)	12.8		일용직	(100)	4.4
	서비스 종사자	(126)	3.3		무급가족 봉사자	(331)	14.5
	판매 종사자	(179)	4.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6)	3.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5)	2.5				
	단순노무 종사자	(223)	5.8				
	군인	(5)	0.1				
	주부/무직/기타	(1,563)	40.6				

1120>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농어가 여부, 총 가구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 응답률 100.0%(n=3,939)]

[가족형태 : 응답률 98.6%(n=3,885)]

▶ 농어가가 28.4%, 가구원 수는 평균 2.7명, '2세대 가구'가 44.0%

농어촌 가구 중 농어가가 28.4%였으며, 면지역(39.9%)에서 농어가 비중이 읍지역(15.3%)에 비해 다소 높았다. 가구원 수는 '2명'(32.0%) 비중이 가장 높아 평균 2.7명이었으며, 부부 중심의 '1세대' 가구가 26.9%, 부모, 자녀 중심의 '2세대' 가구가 44.0%로 나타났다. 한편,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22.1%였다. 조사 대상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5.2%, '차상위계층 가구'는 2.9%였다.

| 표1120 |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구분			
		구성비				구성비	
농어가 여부	합계	(3,939)	100.0	가족 형태	합계	(3,885)	100.0
	농어가	(1,120)	28.4		1인가구	(857)	22.1
	비농어가	(2,819)	71.6		1세대	(1,044)	26.9
총 가구원 수	합계	(3,939)	100.0		2세대	(1,710)	44.0
	1명	(857)	21.8		3세대	(271)	7.0
	2명	(1,260)	32.0		4세대	(3)	0.1
	3명	(670)	17.0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여부	합계	(3,939)	100.0
	4명	(810)	20.6		수급층	(203)	5.2
	5명	(246)	6.3		차상위계층 ⁵⁾	(114)	2.9
	6명 이상	(96)	2.4		해당없음	(3,622)	92.0

5)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1130> 장애 가구원 유무 및 장애 종류와 등급

- ▶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0.6%, '가구주' 비중이 56.8%
- ▶ '지체장애'(57.5%)가 주된 장애종류, 장애 급수로 '6급'(21.3%), '5급'(19.7%) 비중이 높음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0.6%, '가구주' 비중이 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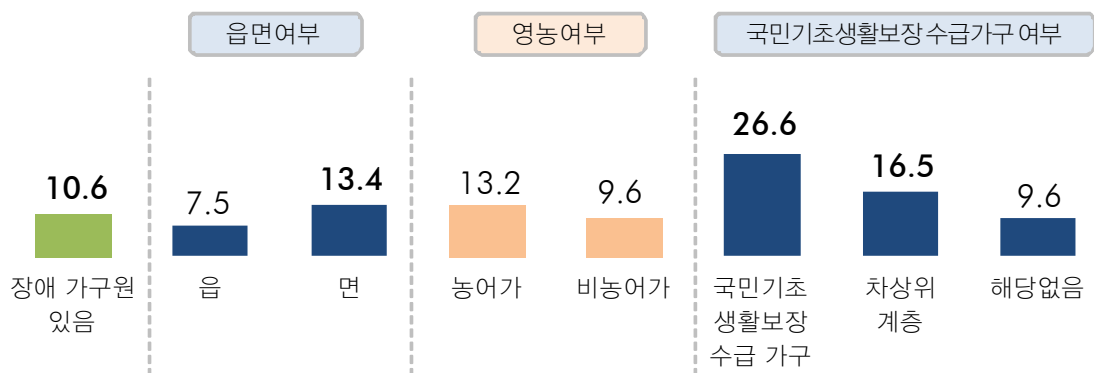
귀택에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으십니까?

[장애 가구원 유무 - 조사가구(n=3,939) 기준/ 가구주와의 관계 -중복응답,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n=447) 기준]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10.6%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에서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중이 높았다.

| 그림1130 - (1) | 장애 가구원 유무

단위: %



장애 가구원 유무 - 추이

- 2013년 대비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더(+5.4%p) 표집됨

| 그림1130 - (2) | 장애 가구원 유무 - 추이

단위: %



가구주와의 관계(n=447)로 ‘가구주’ 본인이 56.8%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가구주의 배우자’(21.9%), ‘가구주의 자녀’(10.7%), ‘부모’(5.6%), ‘손자녀/그 배우자’(2.4%), ‘자녀의 배우자’(1.7%), ‘형제자매/그 배우자’(0.7%), ‘조부모’(0.2%) 순이었다.

| 표1130 - (1) |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명)

구분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그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그배우자
합계 (447)			56.8	21.9	10.7	1.7	2.4	5.6	0.2	0.7
읍/면	읍 (143)		62.2	15.0	15.8	1.0	2.2	3.9	0.0	0.0
	면 (304)		54.3	25.2	8.3	2.0	2.5	6.3	0.3	1.0
영농 여부	농어가 (156)		49.0	28.2	14.1	2.8	0.4	5.0	0.6	0.0
	비농어가 (291)		61.0	18.6	8.9	1.1	3.4	5.9	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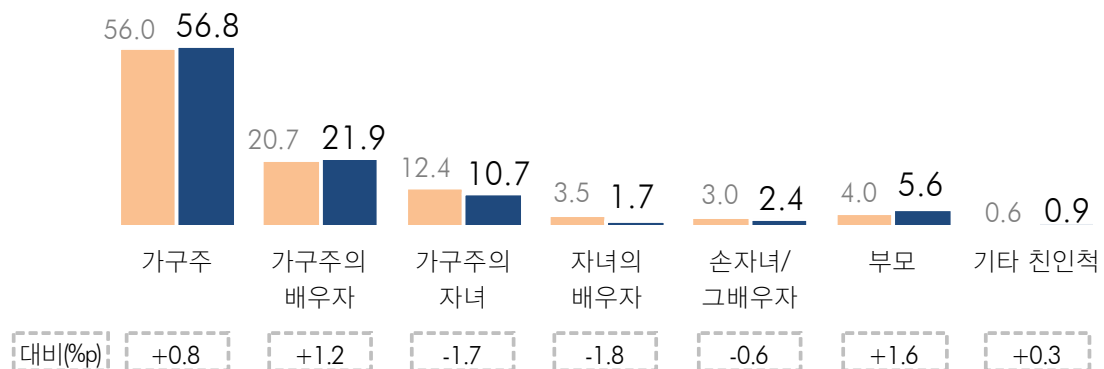


가구주와의 관계 - 추이

- 2013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 그림1130 - (3) | 가구주와의 관계 - 추이

단위: %



*기타 친인척=조부모+형제자매/그 배우자



'지체장애'(57.5%)가 주된 장애종류, 장애 급수로 '6급'(21.3%), '5급'(19.7%) 비중이 높음

귀하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가구원의 장애종류와 등급은 무엇입니까?

[장애가구원이 있는 가구(n=447)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장애 종류, 중복장애 여부: 응답률 100.0%(n=447), 장애 등급: 응답률 97.8%(n=437)]

장애종류로 '지체장애'(57.5%)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각장애'(10.4%), '청각장애'(8.8%), '뇌병변장애'(8.3%), '정신지체', '신장장애'(각 3.1%), '정신장애'(2.3%), '언어장애'(1.7%), '발달장애'(1.5%) 순이었다. 한편, '비등록 장애인'은 1.8%였으며, '중복' 장애를 가진 가구원은 7.5%로 나타났다.

| 표1130 - (2) - ① |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단위: %(명)

구분			장애 종류										중복여부	
			지체 장애	뇌병 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비등 로장 애인	비해 당	중복
합계 (447)			57.5	8.3	10.4	8.8	1.7	3.1	1.5	2.3	3.1	1.8	92.5	7.5
읍/면	읍	(143)	59.9	8.0	7.3	7.1	0.8	2.7	1.0	3.0	5.2	2.8	96.1	3.9
	면	(304)	56.4	8.4	11.8	9.6	2.1	3.2	1.7	2.0	2.0	1.4	90.8	9.2
영농 여부	농어가	(156)	55.4	7.1	14.5	8.8	2.1	2.7	3.7	1.1	2.1	1.4	93.6	6.4
	비농어가	(291)	58.6	8.9	8.2	8.8	1.4	3.2	0.3	3.0	3.6	2.1	91.9	8.1

*장애종류: 1.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장애 종류 및 중복여부 - 추이

- 2013년에 비해 '지체장애' 비중이 증가(+11.8%p)하고, '중복' 장애 비중은 감소함(-13.0%p)

| 표1130 - (2) - ② | 장애종류 및 중복 여부 - 추이

단위: %(명)

구분		장애 종류										중복여부	
		지체 장애	뇌병 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비등 록장 애인	비해 당	중복
2014	(447)	57.5	8.3	10.4	8.8	1.7	3.1	1.5	2.3	3.1	1.8	92.5	7.5
2013	(129)	45.7	11.5	10.0	8.4	2.9	5.4	3.2	2.7	5.9	2.8	79.5	20.5
증감(%)		11.8	-3.2	0.4	0.4	-1.2	-2.3	-1.7	-0.4	-2.8	-1.0	13.0	-13.0

*2013년에는 '안면장애'(0.4%), '장루·요루 장애'(0.9%) 항목이 있었음

장애등급으로 '6급'(21.3%), '5급'(19.7%)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장애 비중이 41.0%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3급'(18.4%), '2급', '4급'(각 14.9%), '1급'(10.8%) 순이었다.

| 표1130 - (3) | 장애등급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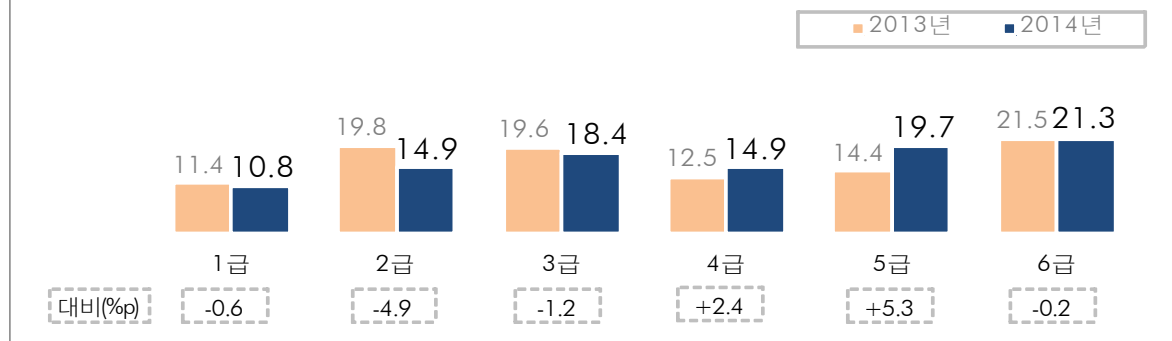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437)			10.8	14.9	18.4	14.9	19.7	21.3
읍/면	읍 (141)		4.8	12.7	25.1	18.2	20.6	18.6
	면 (296)		13.6	16.0	15.2	13.4	19.2	22.6
영농 여부	농어가 (150)		8.3	9.7	15.0	18.7	21.0	27.3
	비농어가 (287)		12.1	17.6	20.2	13.0	19.0	18.2

장애 등급 - 추이

- 2013년에 비해 '5급'(+5.3%p), '4급'(+2.4%p) 비중이 증가한 반면, '2급' 비중이 감소(-4.9%p)

| 그림1130 - (4) | 장애등급 - 추이

단위: %



1140> 결혼이민자 유무

귀택에는 결혼이민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어디입니까?

[결혼이민자 유무 - 조사가구(n=3,939) 기준, 가구주와의 관계, 출신국가 -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n=61) 기준]

▶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가 1.5%,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가는 동남아시아권(83.4%)

결혼이민자가 있는 가구가 1.5%로 나타났으며, 농어가에서 '있음' 비중이 약간 높았다. 가구주와의 관계로 '가구주의 배우자'(85.1%)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자녀의 배우자'는 14.1%, '가구주'는 0.8%였다.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가구주의 배우자'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에서 '자녀의 배우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140 - (1) | 결혼이민자 유무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유무		가구주와의 관계			
		사례수	있음	사례수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합계		(3,939)	1.5	(61)	0.8	85.1	14.1
읍/면	읍	(1,838)	1.2	(22)	2.1	90.1	7.8
	면	(2,101)	1.8	(38)		82.1	17.9
영농 여부	농어가	(1,120)	3.2	(36)		77.6	22.4
	비농어가	(2,819)	0.9	(25)	1.9	95.7	2.4

결혼이민자(n=61)의 출신국가로 '베트남'(72.6%), '태국'(4.1%), '라오스'(2.3%) 등 [동남아시아](83.4%)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국'(14.8%) 등 [동아시아](15.8%), '독일'(0.8%) 등 [유럽](0.8%) 순이었다.

| 표1140 - (2) | 출신국가

단위 : %(명)

구분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동아시아	중국	몽골	유럽	독일
합계		(61)	83.4	72.6	4.1	2.3	2.2	2.2	15.8	14.8	1.0	0.8
읍/면	읍	(22)	74.3	64.9	6.3		3.1		23.6	23.6		2.1
	면	(38)	88.8	77.2	2.8	3.6	1.6	3.5	11.2	9.6	1.6	
영농 여부	농어가	(36)	84.2	66.4	6.9	3.9	3.2	3.8	15.8	14.0	1.7	
	비농어가	(25)	82.3	81.5			0.8		15.8	15.8		1.9

1200> 생활 전반

- 121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 1220> 주택의 건축년도
- 1230> 주택의 종류 및 점유 형태
- 1240> 향후 이주의향
- 1250> 지역생활 만족도
- 1260>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121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 ▶ [이주민](61.5%) 비중이 [선주민](38.5%) 보다 높은 수준
- ▶ 이주층의 이주 후 평균 거주 기간은 12년 내외
- ▶ 이주 직전 주택 위치로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53.5%) 등 [농어촌→농어촌] 비중이 73.1%



[이주민](61.5%) 비중이 [선주민](38.5%) 보다 높은 수준

귀하께서 현 거주지로 이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현 거주지 고향 여부 : 조사대상 가구(n=3,939) 기준]

‘이주했다’(57.9%),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3.6%) 등 [이주민]이 61.5%로, 현 거주지가 고향인 [선주민](38.5%) 비중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이주민] 비중이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 비중이 높았다.

| 표1210-(1) |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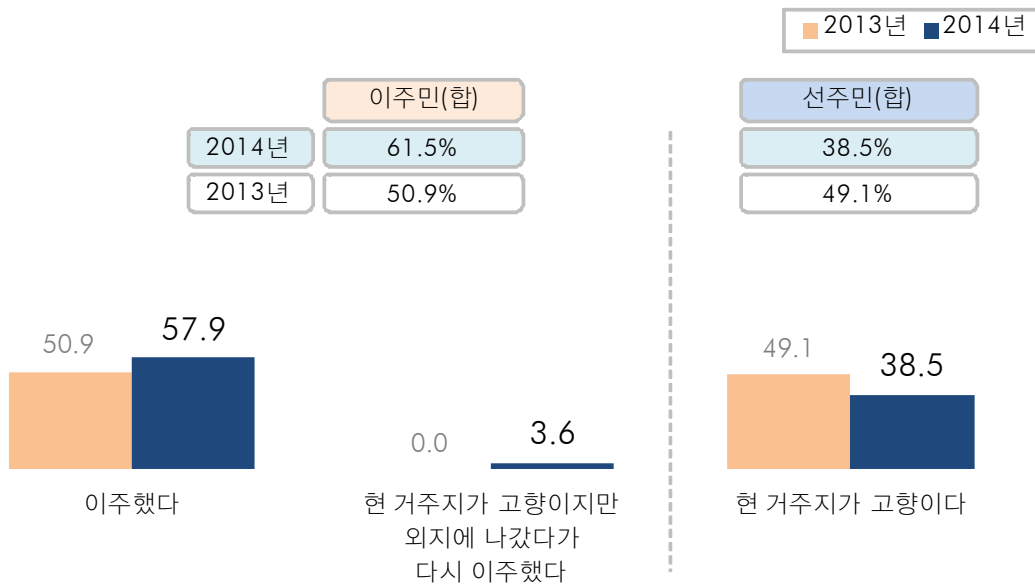
구분		이주 했다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	이주민 (합)	현 거주지가 고향이다	선주민 (합)
합계 (3,939)		57.9	3.6	61.5	38.5	38.5
읍/면	읍 (1,838)	71.6	3.8	75.4	24.6	24.6
	면 (2,101)	45.9	3.4	49.3	50.7	50.7
영농 여부	농어가 (1,120)	27.4	4.0	31.4	68.6	68.6
	비농어가 (2,819)	70.0	3.4	73.4	26.6	26.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83.0	4.3	87.3	12.7	12.7
	40대 (768)	69.9	4.8	74.7	25.3	25.3
	50대 (758)	51.0	3.8	54.9	45.1	45.1
	60대 (613)	46.2	2.8	49.0	51.0	51.0
	70대 이상 (844)	33.9	2.1	36.0	64.0	64.0

현 거주지 고향 여부 - 추이

- 2013년에 비해 이주민 비중이 다소 증가함(+10.6%p)

| 그림1210 - (1) | 현 거주지 고향 여부 - 추이

단위 : %





이주층의 이주 후 평균 거주 기간은 12년 내외

귀하께서 현 거주지로 이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주 후 거주기간 : 이주층(n=2,281/141)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2,277)/99.3%(n=140)]

‘이주했다’는 층(n=2,277)의 이주 후 거주기간으로 ‘5-10년 미만’(21.0%), ‘1-3년 미만’(17.3%), ‘3-5년 미만’(13.2%), ‘1년 미만’(10.1%) 등 [10년 미만] 비중이 절반 이상(61.6%)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0-30년 미만’(27.0%), ‘30-50년 미만’(7.8%), ‘50년 이상’(3.6%) 순으로 평균 거주기간은 11.4년 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 표1210 - (2) - ① | 이주 후 거주기간(‘이주했다’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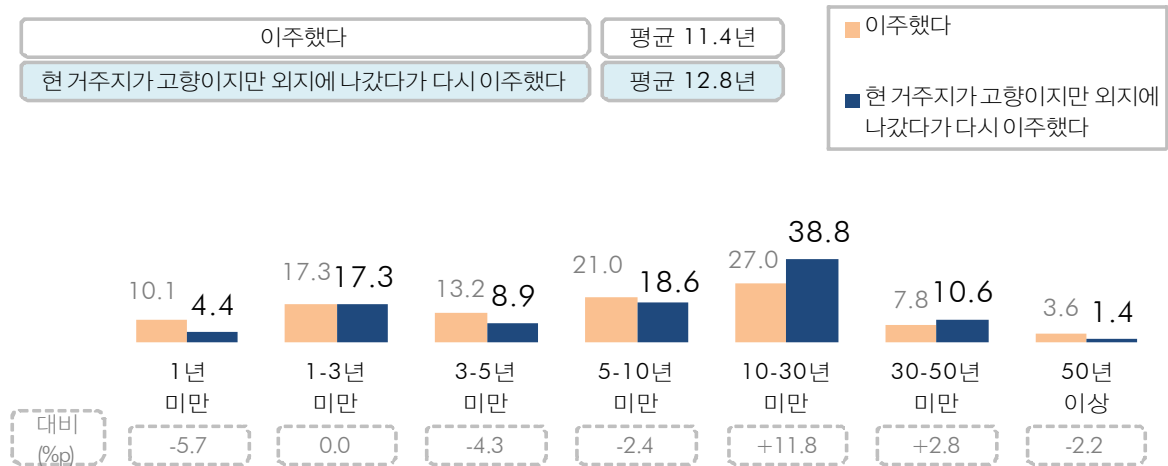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30년 미만	30-50년 미만	50년 이상
합계 (2,277)			11.4년	10.1	17.3	13.2	21.0	27.0	7.8	3.6
읍/면	읍 (1,312)	9.0년	13.1	19.4	12.3	23.2	25.7	4.5	1.8	
	면 (965)	14.6년	5.9	14.5	14.3	18.1	28.9	12.2	6.0	
영농 여부	농어가 (306)	23.8년	1.5	4.7	4.6	13.4	37.5	28.3	9.9	
	비농어가 (1,971)	9.4년	11.4	19.3	14.5	22.2	25.4	4.6	2.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22)	4.3년	14.9	31.0	20.1	22.9	10.3	0.8		
	40대 (537)	8.3년	10.8	11.5	14.1	27.7	33.6	1.6	0.7	
	50대 (387)	12.8년	6.8	10.8	10.9	21.7	37.6	11.1	1.1	
	60대 (283)	19.3년	4.3	10.0	6.2	11.4	39.6	23.2	5.2	
	70대 이상 (286)	26.8년	2.0	4.4	6.6	13.8	33.9	18.8	20.4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한 층(n=140)의 이주 후 거주기간으로 ‘10-30년 미만’(38.8%)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10년 미만’(18.6%), ‘1-3년 미만’(17.3%), ‘3-5년 미만’(8.9%), ‘1년 미만’(4.4%) 등 [10년 미만](49.2%), ‘30-50년 미만’(10.6%), ‘50년 이상’(1.4%) 순이었다. 이주층에 비해 ‘10-30년 미만’ 비중이 높아(+11.8%p) 평균 거주기간(12.8년)이 약간 더 긴(+1.4년) 것으로 나타났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거주기간이 길었다.

| 그림1210 - (2) | 이주 후 거주기간

단위 : %



| 표1210 - (2) - ② | 이주 후 거주기간(‘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층) 단위 : %(명)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30년 미만	30-50년 미만	50년 이상
합계 (140)		12.8년	4.4	17.3	8.9	18.6	38.8	10.6	1.4
읍/면	읍 (69)	7.8년	8.1	27.1	10.9	20.1	32.6	1.2	
	면 (71)	17.6년	0.8	7.7	6.9	17.1	44.8	19.8	2.9
영농 여부	농어가 (45)	18.9년		4.4	6.2	14.5	53.9	19.4	1.7
	비농어가 (95)	9.8년	6.5	23.5	10.2	20.6	31.6	6.4	1.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7)	5.3년	11.4	40.6	14.3	16.1	17.7		
	40대 (36)	11.5년	3.7	4.9	12.2	29.8	40.4	8.9	
	50대 (29)	17.4년	2.0	10.0	7.4	12.8	43.0	24.8	
	60대 (17)	17.8년		8.8	3.3	14.0	56.5	17.4	
	70대 이상 (18)	19.6년		8.0		17.7	54.9	8.0	11.5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53.5%) 등 [농어촌→농어촌] 비중이 73.1%

(이주층에 한해) 현 거주지로의 이주 직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이주층(n=2,422)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4%(n=2,406)]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53.5%),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19.6%)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주해온 층이 73.1%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8.1%), ‘중소도시(동)’(8.8%) 등 도시에서 이주해온 층(26.9%) 보다 많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어촌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비중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한 층에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비중이 높았다.

| 표1210 - (3) | 이주 직전 주택 위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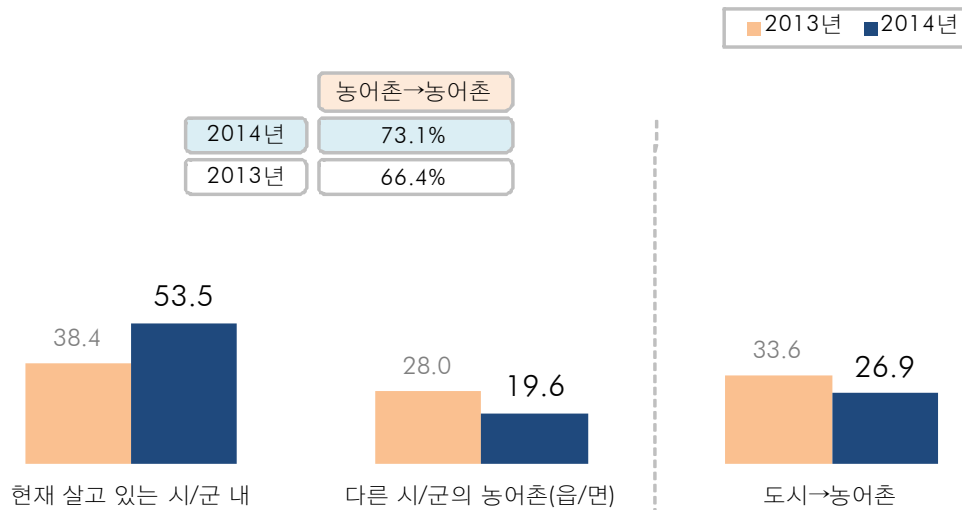
구분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면)	농어촌 →농어촌	중소 도시 (동)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도시 →농어촌
합계 (2,406)		53.5	19.6	73.1	8.8	18.1	26.9
읍/면	읍 (1,375)	54.6	20.1	74.7	8.8	16.5	25.3
	면 (1,031)	51.9	19.0	71.0	8.9	20.1	29.0
영농 여부	농어가 (347)	50.3	24.2	74.5	8.2	17.3	25.5
	비농어가 (2,059)	54.0	18.8	72.9	8.9	18.2	27.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758)	51.5	17.6	69.1	9.9	21.0	30.9
	40대 (570)	56.8	14.7	71.5	9.5	19.0	28.5
	50대 (413)	53.6	20.5	74.1	8.5	17.5	25.9
	60대 (297)	53.2	21.9	75.1	10.0	14.9	24.9
	70대 이상 (303)	51.8	28.1	79.9	4.3	15.8	20.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했다 (2,267)	54.3	19.6	73.8	8.5	17.7	26.2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 (140)	40.3	20.6	60.9	14.3	24.8	39.1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추이

- 2013년 대비 농어촌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층이 증가(+6.7%p)

| 그림1210 - (3) |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추이

단위 : %



*2013년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군+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읍/면 지역

1220 주택의 건축년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건축(신축)년도는 언제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9%(n=3,898)]

▶ 주택의 평균 노후정도는 23.8년

‘1990년대’(34.6%), ‘2000년대’(31.9%)에 건축(신축)된 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980년대’(11.9%), ‘1950년대 이전’, ‘1970년대’(각 6.5%), ‘1960년대’(4.7%) 등 1980년대 이전에 지어져 30년 이상된 농어촌 주택이 29.6%로 전체 농어촌 가구의 1/3 가량을 차지했다. 농어촌 주택의 평균 노후정도는 23.8년이였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에서 주택 건축 후 경과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 표1220 | 주택의 건축년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1950 년대이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 이후
합계 (3,898)			23.8년	6.5	4.7	6.5	11.9	34.6	31.9	4.0
읍/면	읍 (1,816)	18.3년	2.7	2.9	2.6	9.6	40.0	38.4	3.8	
	면 (2,081)	28.6년	9.9	6.3	9.8	13.8	29.9	26.1	4.2	
영농 여부	농어가 (1,114)	29.6년	9.3	7.3	10.6	17.5	33.0	19.1	3.3	
	비농어가 (2,784)	21.4년	5.4	3.7	4.8	9.6	35.2	37.0	4.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64)	14.3년	0.8	0.7	0.9	3.5	40.5	49.9	3.7	
	40대 (754)	18.2년	1.8	3.0	4.2	8.9	37.8	38.7	5.5	
	50대 (751)	24.0년	4.8	5.0	7.4	13.8	32.7	32.0	4.3	
	60대 (608)	27.6년	8.3	6.5	8.7	18.5	31.8	22.0	4.3	
	70대 이상 (839)	36.2년	17.3	9.2	12.3	17.3	27.0	14.2	2.6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397)	18.3년	2.6	2.4	3.6	9.0	37.2	41.2	3.9	
	선주민 (1,501)	32.5년	12.7	8.3	11.1	16.5	30.4	16.9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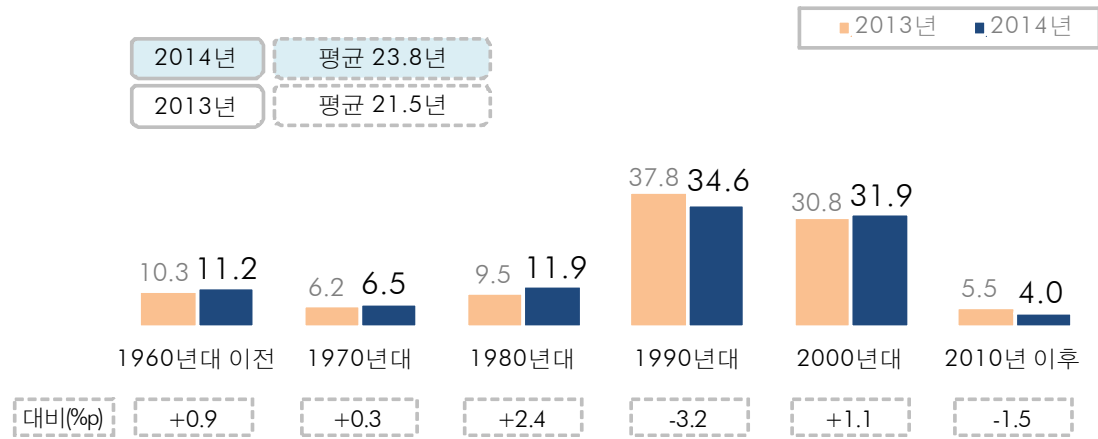


주택의 건축년도- 추이

- 2013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주택의 평균 노후 정도는 약간 더 긴(+2.3년) 수준임

| 그림1220 | 주택의 건축년도 - 추이

단위 : %



1230 주택의 종류 및 점유 형태

▶ '단독주택' 비중이 54.6%, '자가' 비중이 78.8%

 '단독주택' 비중이 54.6%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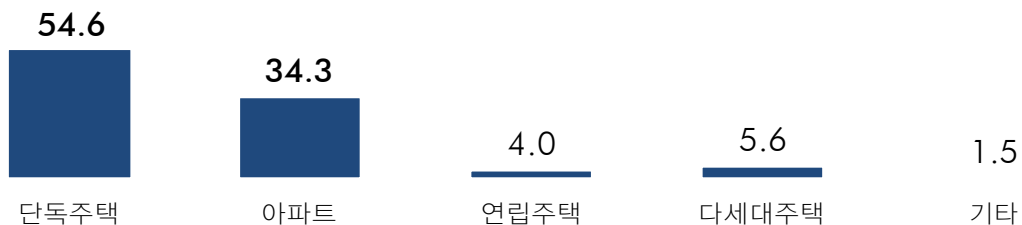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37)]

주택의 종류로 '단독주택'(54.6%)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파트'(34.3%), '다세대주택'(5.6%), '연립주택'(4.0%)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에서 '단독주택'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 그림1230 - (1) | 주택종류

단위 : %



| 표1230 - (1) | 주택종류

단위 : %(명)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합계 (3,937)			54.6	34.3	4.0	5.6	1.5
읍/면	읍	(1,837)	28.6	54.5	5.7	10.2	1.1
	면	(2,100)	77.4	16.7	2.5	1.5	1.9
영농 여부	농어가	(1,119)	94.1	3.2	0.9	0.4	1.4
	비농어가	(2,818)	39.0	46.7	5.2	7.6	1.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15.0	62.3	6.2	15.7	0.8
	40대	(768)	40.6	48.0	4.7	3.9	2.8
	50대	(757)	64.1	29.2	3.0	1.4	2.2
	60대	(613)	76.7	16.3	4.3	1.4	1.3
	70대 이상	(843)	86.1	10.9	2.0	0.4	0.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21)	33.9	50.2	5.9	8.4	1.6
	선주민	(1,516)	87.7	8.9	0.9	1.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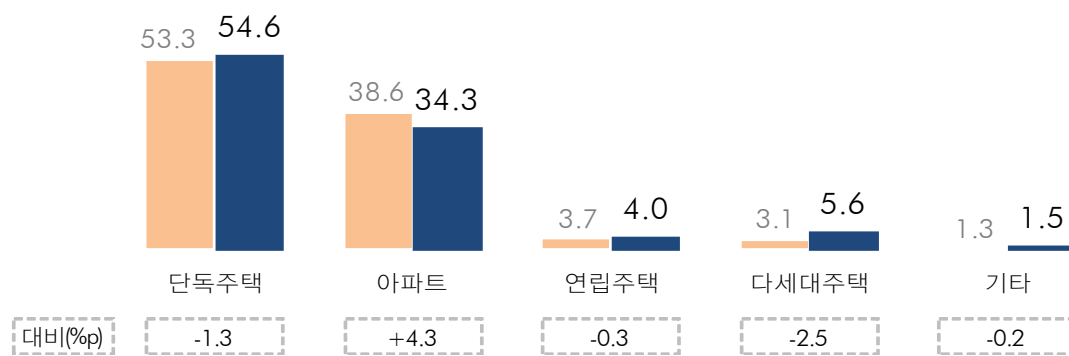


주택종류 - 추이

- 2013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 그림1230 - (2) | 주택종류 - 추이

단위 : %



**'자가' 비중이 78.8%**

주택의 점유형태는?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38)]

주택의 점유형태로 '자가'(78.8%)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세'(8.6%), '보증부 월세'(6.9%), '무상'(3.9%), '월세(사글세)'(1.7%)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 층에서 '자가'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전세', '보증부 월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1230 - (2) - ① | 주택 점유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	무상
합계 (3,938)			78.8	8.6	6.9	1.7	3.9
읍/면	읍	(1,837)	71.7	11.3	10.3	1.9	4.8
	면	(2,100)	85.0	6.2	4.0	1.5	3.2
영농 여부	농어가	(1,119)	95.5	1.3	1.0	0.3	2.0
	비농어가	(2,819)	72.2	11.5	9.3	2.3	4.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54.9	19.1	14.9	2.0	9.0
	40대	(768)	75.8	13.3	6.8	1.5	2.6
	50대	(757)	88.3	3.7	4.0	2.7	1.3
	60대	(613)	91.8	2.5	2.3	1.3	2.1
	70대 이상	(844)	91.4	2.4	1.3	0.8	4.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22)	68.5	13.1	10.6	2.6	5.2
	선주민	(1,516)	95.2	1.4	1.1	0.4	1.9

**주택 점유형태 - 추이**

- 2013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 표1230 - (2) - ② | 주택 점유형태 - 추이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	무상
2014년	(3,938)	78.8	8.6	6.9	1.7	3.9
2013년	(2,763)	81.1	9.9	3.7	3.7	1.8
증감(%p)		-2.3	-1.3	3.2	-2.0	2.1

1240> 향후 이주의향

- ▶ 이주 의향층이 13.2%, 농어촌으로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72.5%
- ▶ '주택 관련 사유'(30.0%)가 주된 이주의향 이유



이주 의향층이 13.2%

귀하께서는 향후 5년 내에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향후 이주 의향 : 응답률 100.0%(n=3,939)]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이 '있다'(7.6%), '반반이다'(5.6%) 등 [이주 의향층이 13.2%로 주택 점유형태로 '전세', '보증부 월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이주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1240 - (1) |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단위 : %(명)

구분			있다	반반이다	이주 의향층
합계 (3,939)			7.6	5.6	13.2
읍/면	읍	(1,838)	10.1	6.5	16.6
	면	(2,101)	5.3	4.8	10.1
영농 여부	농어가	(1,120)	3.4	2.1	5.5
	비농어가	(2,819)	9.2	7.0	16.2
응답자 성	남성	(1,663)	7.5	5.9	13.4
	여성	(2,195)	7.5	5.5	13.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16.8	9.8	26.6
	40대	(768)	9.9	8.6	18.5
	50대	(758)	4.6	4.7	9.3
	60대	(613)	3.0	3.3	6.3
	70대 이상	(844)	1.3	1.2	2.5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22)	10.6	7.7	18.3
	선주민	(1,517)	2.6	2.3	4.9



농어촌으로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72.5%

다른 곳으로 이주하신다면 어디로 이주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주 의향층(n=519) 중 응답가구에 한해: 응답률 99.2%(n=515)]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62.1%),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10.4%) 등 농어촌으로 이동하겠다는 층이 72.5%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7.0%), ‘중소도시(동)’(9.6%) 등 도시로 이주하겠다는 층(26.6%)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동생활, 요양 등 ‘시설 입소’ 비중은 0.2%였다.

| 표1240 - (2) | 이주 희망 지역

단위 : %(명)

구분			농어촌→농어촌		농어촌→도시		시설 입소 (공동생활, 요양 등)	기타 (해외파견, 이민 등)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다른 시/군의 농어촌 (읍/면)	중소 도시 (동)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합계 (515)			62.1	10.4	9.6	17.0	0.2	0.7
읍/면	읍	(303)	61.6	11.3	10.8	15.5		0.8
	면	(212)	62.8	9.0	7.9	19.2	0.6	0.5
영농 여부	농어가	(61)	60.9	12.1	16.6	8.7		1.8
	비농어가	(454)	62.3	10.2	8.7	18.1	0.3	0.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31)	64.8	6.1	10.8	17.6		0.6
	40대	(142)	64.5	12.2	8.1	14.5		0.7
	50대	(70)	54.8	15.5	6.5	21.6		1.5
	60대	(39)	51.1	20.5	11.9	13.4	3.1	
	70대 이상	(19)	70.7	11.7	2.7	14.9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441)	60.9	10.4	10.0	17.7	0.2	0.8
	선주민	(75)	69.4	10.4	7.1	12.5	0.7	

'주택 관련 사유'(30.0%)가 주된 이주의향 이유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주 의향층(n=51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4%(n=516)]

이주 희망 이유(n=516)로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30.0%)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24.3%),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21.8%), '자녀 교육 때문에'(11.4%),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5.5%),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3.9%), '건강상의 이유로'(1.8%) 순이었다.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 층에서 '직업관련 사유', '주택 관련 사유' 비중이 다소 높은 반면,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족관련 사유' 비중이 높았다. 한편, 도시로 이주하려는 층에서 '직업관련 사유', '자녀교육 때문에' 비중이 높은 반면,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층에서 '주택 관련 사유',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 비중이 높았다.

| 표1240 - (3) | 이주 희망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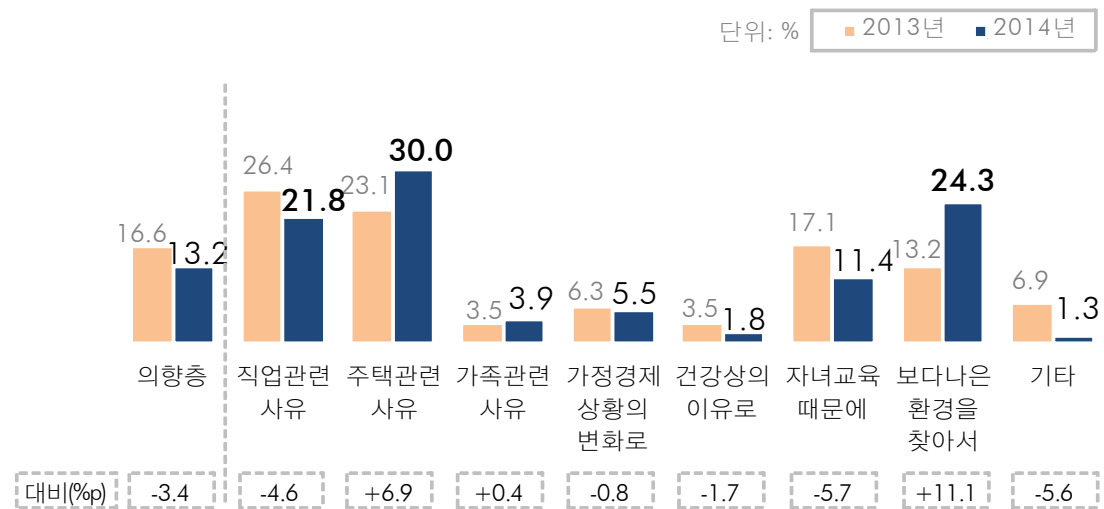
구분			직업 관련 사유	주택 관련 사유	가족 관련 사유	가정 경제 상황의 변화로	건강 상의 이유로	자녀 교육 때문에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서	기타
합계 (516)			21.8	30.0	3.9	5.5	1.8	11.4	24.3	1.3
읍/면	읍 (303)		22.2	31.8	1.9	5.1	0.9	13.3	23.6	1.3
	면 (213)		21.3	27.5	6.6	6.0	3.1	8.8	25.3	1.3
영농 여부	농어가 (61)		12.2	19.3	12.2	3.4	8.6	18.2	20.6	5.4
	비농어가 (456)		23.1	31.5	2.7	5.8	0.9	10.5	24.8	0.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33)		25.2	38.7	2.5			10.0	23.0	0.7
	40대 (142)		23.3	20.2	1.9	10.4	0.8	17.6	25.4	0.5
	50대 (70)		15.6	28.1	4.9	6.5	3.1	8.1	30.6	2.8
	60대 (39)		11.5	28.7	6.1	14.1	7.9	1.8	24.7	5.0
	70대 이상 (19)		5.6	16.9	21.5	17.9	10.5		25.3	2.3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441)		22.8	31.5	3.8	5.5	1.3	10.9	23.4	0.9
	선주민 (75)		16.0	21.6	4.4	5.4	4.9	14.8	29.6	3.3
이주 희망 지역	농어촌→농어촌 (373)		16.8	37.3	3.6	6.9	1.2	6.5	26.1	1.7
	농어촌→도시 (137)		35.5	10.2	4.0	1.9	3.0	25.5	19.8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및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 2013년 대비 이주 의향층이 감소(-3.4%p)한 가운데, 이주 희망 이유로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11.1%p), '주택관련 사유'(+6.9%p) 비중이 증가한 반면, '자녀 교육 때문에'(-5.7%p), '직업 관련 사유'(-4.6%p) 비중은 감소함

| 그림1240 | 이주 희망 이유 - 추이

단위: %



1250> 지역생활 만족도

[조사대상 가구(n=3,939) 기준/만족도 100점 만점 환산: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 지역생활 전반에 대해 '보통 수준'(평균 48.9점)의 평가

지역생활 전반에 대해 평균 48.9점으로 '보통 수준'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전반적인 느낌을 반영한 체감만족도(50.0점)와 각 평가 속성별 만족도를 환산한 차원만족도(47.7점)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는 '환경·경관'(평균 63.5점), '자연재해, 사고, 범죄 안전'(평균 61.3점)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초생활 기반'(평균 47.5점),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평균 44.7점), '교육 여건'(평균 43.4점), '경제활동 여건'(평균 42.9점),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평균 38.9점) 순이었다.

읍지역, 50대 이상 연령층,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에서 평가 영역에 관계없이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1250 - (1) | 지역생활 영역별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전반적인 지역생활 만족도			보건 의료 및 복지 서비스	교육 여건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기초 생활 기반	환경· 경관	경제 활동 여건	자연재 해, 사고, 범죄 안전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합계		48.9	50.0	47.7	44.7	43.4	38.9	47.5	63.5	42.9	61.3
읍/면	읍	50.0	50.9	49.1	46.2	45.4	40.4	49.7	64.4	44.3	61.4
	면	47.9	49.3	46.4	43.3	41.7	37.6	45.5	62.8	41.7	61.3
영농 여부	농어가	48.8	50.4	47.2	44.6	40.7	37.4	46.9	64.7	41.2	64.3
	비농어가	48.9	49.9	47.9	44.7	44.5	39.5	47.7	63.1	43.6	60.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48.4	49.5	47.3	42.7	45.9	37.9	47.1	60.8	44.5	59.6
	40대	47.4	48.7	46.1	43.8	41.8	35.3	46.7	62.6	41.3	59.4
	50대	49.1	50.5	47.8	45.4	42.9	39.0	47.7	64.9	42.6	60.3
	60대	50.3	51.5	49.1	47.4	44.3	41.2	48.7	64.9	42.1	63.6
	70대 이상	49.3	50.1	48.5	45.3	42.2	41.5	47.3	64.6	43.9	63.8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6.5	47.5	45.5	43.5	42.7	36.8	45.6	59.0	42.8	54.8
	비의향층	49.2	50.4	48.0	44.8	43.5	39.2	47.7	64.2	42.9	62.3

 지역생활 영역별 만족도 - 추이

- 평가 영역 구성이 달라 동등비교가 어려운 가운데, 환경경관, 경제활동 여건 만족도가 약간 높아짐

| 표1250 - (2) | 지역생활 영역별 만족도 - 추이

단위: 점

구분		지역의 전반적 생활여건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사 교육 여건	학교 교육 여건	문화 여가	기초 생활 기반	환경 경관	경제 활동 여건	자연 재해, 사고, 범죄 안전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2014년	(3,939)	48.9	50.0	47.7	44.7		43.4		38.9	47.5	63.5	42.9	61.3
2013년	(2,764)				48.9	44.4	47.3	51.8	41.4	51.0	60.2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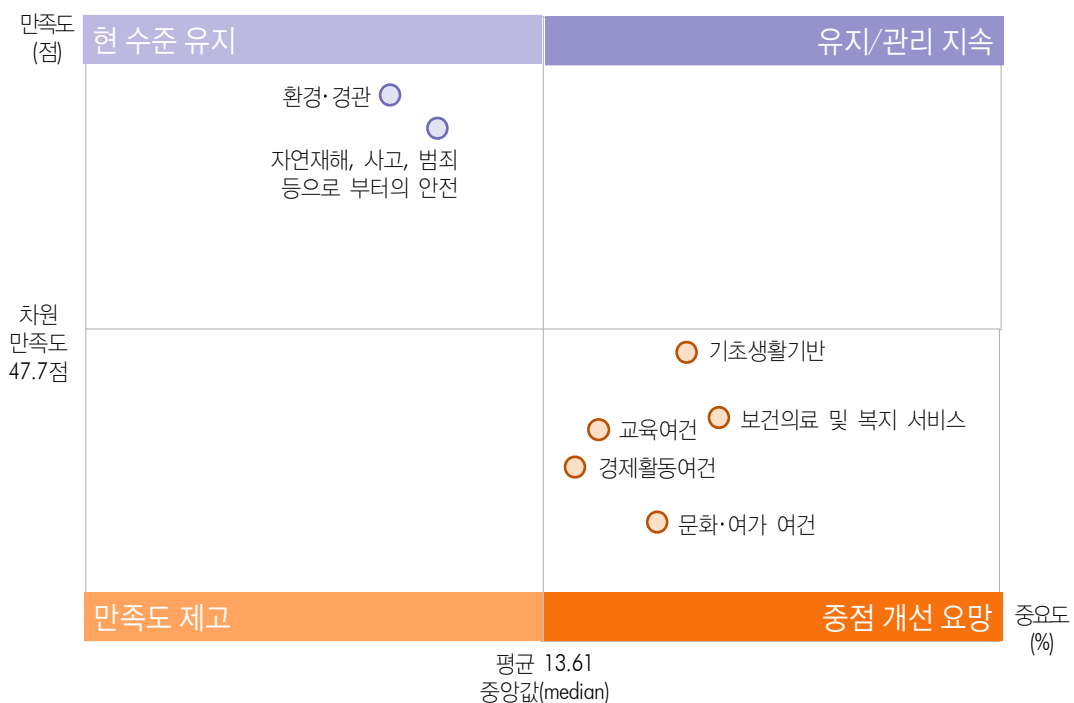
포트폴리오(Portfolio) 분석

[자원 만족도 기준]

- ▶ [현 수준 유지 영역] : '환경·경관',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부터의 안전'
 [중점개선 요망 영역] :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

'환경·경관',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부터의 안전' 영역의 경우, 만족도는 높은 반면,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현 수준 유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문화여가 여건', '교육여건', '기초생활기반', '경제활동 여건'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만족도가 낮아 [중점개선 요망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60>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58.7점
- ▶ '가족'(41.1%), '건강'(35.7%)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은 평균 58.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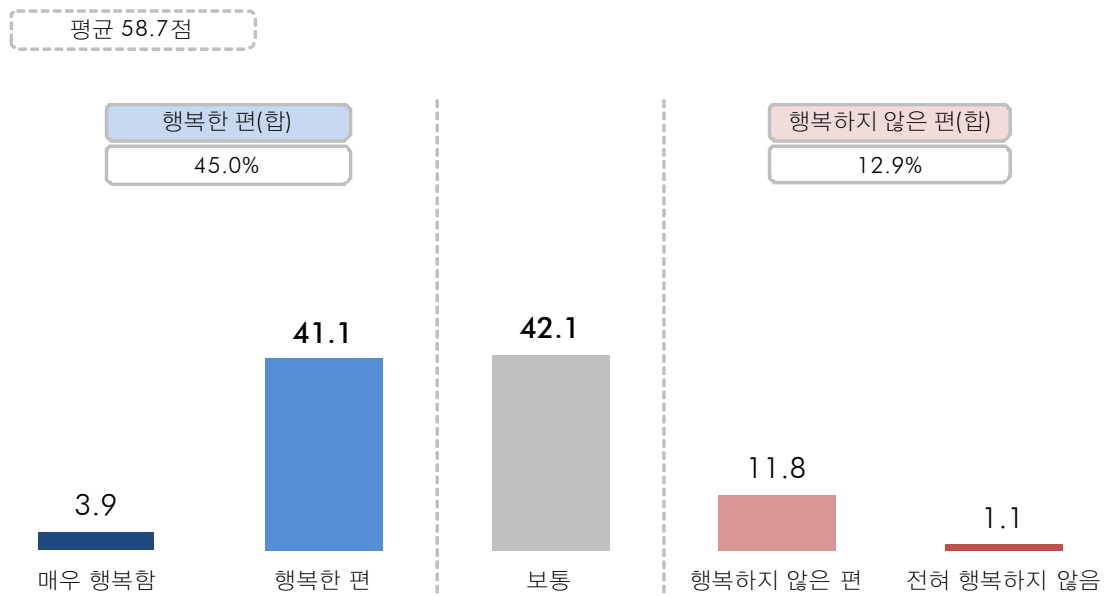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34)]

‘행복한 편’(41.1%), ‘매우 행복함’(3.9%) 등 [행복한 편(합)]이라는 응답이 45.0%로, ‘행복하지 않은 편’(11.8%), ‘전혀 행복하지 않음’(1.1%) 등 [행복하지 않은 편(합)](12.9%)이라는 응답보다 높아 행복감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8.7점 이었다. 한편, ‘보통’이라는 응답은 42.1%였다.

| 그림1260 - (1)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단위 : %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 향후 5년 내 이주의향층에서 [행복한 편(합)] 비중이 높아 행복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행복하지 않은 편(합)] 비중이 높았다.

| 표1260 - (1) |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행복함	행복한 편	행복한 편 (합)	보통	행복하지 않은 편	전혀 행복하지 않음	행복하지 않은 편 (합)
합계 (3,934)			58.7점	3.9	41.1	45.0	42.1	11.8	1.1	12.9
읍/면	읍 (1,836)		60.4점	4.2	46.0	50.2	38.2	10.3	1.3	11.6
	면 (2,097)		57.2점	3.6	36.8	40.4	45.4	13.2	1.0	14.2
영농 여부	농어가 (1,117)		58.0점	2.9	38.1	41.0	47.8	10.5	0.7	11.2
	비농어가 (2,817)		59.0점	4.3	42.3	46.6	39.8	12.3	1.3	13.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3)		64.3점	4.2	55.1	59.3	35.4	4.5	0.8	5.3
	40대 (768)		63.3점	6.7	48.0	54.7	38.0	6.7	0.7	7.4
	50대 (757)		57.8점	4.0	38.8	42.8	43.6	11.6	2.0	13.6
	60대 (611)		56.2점	3.0	36.4	39.4	43.9	15.7	1.0	16.7
	70대 이상 (842)		51.8점	2.0	27.2	29.2	47.7	22.1	1.0	23.1
장애 가구원 유무	있음 (419)		50.8점	3.3	26.2	29.5	43.7	24.2	2.6	26.8
	없음 (3,514)		59.7점	4.0	42.9	46.9	41.9	10.3	0.9	11.2
결혼 이민자 유무	있음 (61)		58.4점	1.1	39.6	40.7	51.2	8.1		8.1
	없음 (3,873)		58.7점	3.9	41.1	45.1	41.9	11.9	1.1	13.0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여부	수급 가구 (203)		49.8점	3.1	23.0	26.1	47.3	23.4	3.2	26.6
	차상위계층 (114)		56.9점	2.7	34.8	37.5	51.7	9.3	1.6	10.9
	해당없음 (3,617)		59.3점	4.0	42.3	46.3	41.5	11.3	1.0	12.3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420)		60.4점	4.8	44.9	49.7	38.3	11.2	0.8	12.0
	선주민 (1,513)		56.0점	2.4	35.1	37.5	48.1	12.8	1.5	14.3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517)		63.4점	4.8	54.2	59.0	32.5	6.6	1.8	8.4
	비의향층 (3,416)		58.0점	3.8	39.1	42.9	43.5	12.6	1.0	13.6

'가족'(41.1%), '건강'(35.7%)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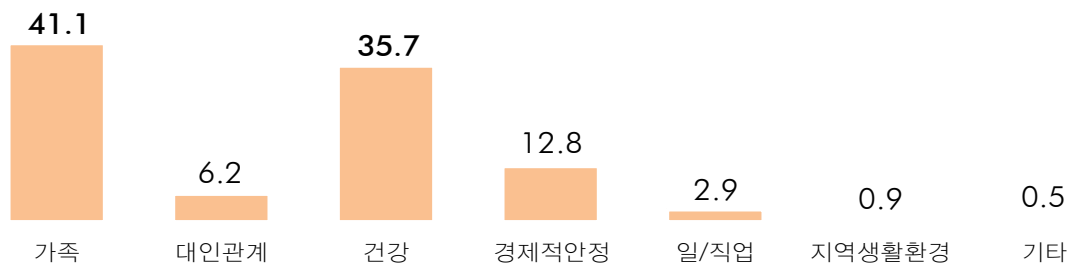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99.8%(n=3,931)]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41.1%), '건강'(35.7%)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12.8%), '대인관계'(6.2%), '일/직업'(2.9%), '지역 생활 환경'(0.9%) 순이었다.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 비중이 높은 반면, 면지역,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 비중이 높았다.

| 그림1260 - (2) | 행복의 영향 요인

단위 : %



| 표1260 - (2) | 행복의 영향 요인

단위 : %(명)

구분			가족	대인 관계	건강	경제적 안정	일/ 직업	지역생활 환경	기타
합계 (3,931)			41.1	6.2	35.7	12.8	2.9	0.9	0.5
읍/면	읍 (1,834)		45.6	7.9	30.8	11.5	3.1	0.7	0.5
	면 (2,098)		37.2	4.7	40.0	13.9	2.8	1.0	0.5
영농 여부	농어가 (1,118)		39.4	3.2	41.4	12.2	2.4	1.0	0.3
	비농어가 (2,813)		41.8	7.4	33.4	13.0	3.1	0.8	0.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0)		51.7	10.7	19.0	13.3	4.0	1.0	0.4
	40대 (768)		44.5	7.6	29.1	12.8	4.2	1.0	0.7
	50대 (756)		40.1	4.3	37.3	14.2	3.1	0.5	0.5
	60대 (612)		33.2	3.4	45.8	13.6	2.4	1.2	0.4
	70대 이상 (844)		32.7	3.7	50.9	10.8	0.7	0.7	0.5

1300> 경제활동

- 1311> 부업현황
- 1312> 희망 부업현황
- 1313> 은퇴계획
- 1314>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 1315> 농어촌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영역
- 1316>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실태
- 1317>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
- 1318>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 1319> 영농형태 및 농축산물 판매금액
- 1320> 농업 계획 및 농업 승계자 유무
- 1321> 농업에 대한 인식
- 1331>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 1332> 주요 물품 구입 실태
- 1341> 월 평균 생활비
- 1342> 저축 현황
- 1343>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 1344>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 변화
- 1345> 향후 5년 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 전망
- 1346>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

1311 > 부업현황

- ▶ '부업층'이 4.4%, 임금근로층의 종사자 지위로 '일용'(37.7%) 비중이 높음
- ▶ '농어업'(29.2%)이 주된 부업 업종, 부업소득으로 월 평균 100만원 미만(67.3%) 비중이 절반 이상



'부업층'이 4.4%, 임금근로층의 종사자 지위로 '일용'(37.7%) 비중이 높음

귀택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께서는 농어업이나 주된 직업 이외에 부업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실 경우)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부업여부 - 가구주 혹은 가구주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가구(n=3,105) 기준]

[종사자 지위 - 임금 근로층(n=6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3%(n=63)]

'자영업'(2.3%), '임금근로'(2.1%) 등 부업층이 4.4%로 나타난 가운데, 농어가에서 '부업층' 비중이 약간 높았다.

| 표1311 - (1) | 부업현황

단위 : %(명)

구분		자영업	임금근로	부업층
합계 (3,105)		2.3	2.1	4.4
읍/면	읍 (1,544)	1.9	1.3	3.2
	면 (1,562)	2.6	2.9	5.6
영농 여부	농어가 (1,120)	4.3	4.3	8.6
	비농어가 (1,986)	1.1	0.9	2.0

임금근로층(n=63)의 종사자 지위로 '일용' 근로자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용'(31.4%), '임시'(30.9%) 순이었다. 비농어가에서 '상용' 비중이 다소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임시', '일용' 비중이 다소 높았다.

| 표1311 - (2) | 종사자 지위

단위 : %(명)

구분		상용	임시	일용
합계 (63)		31.4	30.9	37.7
읍/면	읍 (17)	30.7	29.3	40.0
	면 (46)	31.6	31.5	36.9
영농 여부	농어가 (47)	22.5	35.8	41.8
	비농어가 (16)	58.3	16.2	25.5

'농어업'(29.2%)이 주된 부업 업종

(하고 계실 경우) 업종은 무엇입니까?

[부업층(n=136) 중 응답가구에 한해 - 부업 업종 : 개방형 질문, 응답률 98.9%(n=135)]

부업층(n=135)의 업종으로 '농어업'(29.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설업'(13.3%), '기타서비스업'(10.7%), '제조업'(9.5%), '도매 및 소매업'(7.6%), '숙박 및 음식점업'(7.0%), '교육서비스업'(4.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0%) 순이었다. 읍지역, 농어가, 자영업 부업층에서 '농어업' 비중이 다소 높은 반면, 임금근로 부업층에서 '기타 서비스업' 비중이 다소 높았다.

| 표1311 - (3) | 부업 업종

단위 : %(명)

구분			농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합계 (135)			29.2	9.5	13.3	7.6	7.0	4.4	4.0	10.7	14.2
읍/면	읍 (48)		35.9	2.0	12.9	11.0	4.3	4.9	4.0	10.1	14.9
	면 (87)		25.6	13.6	13.6	5.8	8.4	4.2	4.0	11.0	13.8
영농 여부	농어가 (95)		32.0	10.1	17.4	4.8	7.4	0.3	5.0	12.0	11.0
	비농어가 (40)		22.6	8.1	3.7	14.4	6.0	14.3	1.6	7.6	21.8
부업 현황	자영업 (69)		42.1	8.1	12.7	11.9	6.9			5.0	13.4
	임금근로 (65)		15.7	11.0	14.0	3.2	7.0	9.1	8.2	16.7	15.1

[부업 업종 세부사항]

구분	세부사항
농어업	· 조개낙지채취/ 바지락채취/ 양식업/ 잡곡/ 마늘재배/ 조경수생산/ 천연초재배/ 감귤재배/ 과수원일용직/ 복숭아선별작업/ 양파작업/ 미역포장
제조업	· 수공업/ 고무제품제조/ 자동차부품제조/ 고추장제조/ 닭고기제조/ 양조장/ 정미소/ 석재공장/ 철강/ 길쌈/ 제조관련단순노무자
건설업	· 하우스설치 및 조립/토목기사/ 주택건설/ 목공/도로공사/ 건설일용직
도매 및 소매업	· 화장품가게/ 옷가게/ 야채가게/ 고물상/ 슈퍼/ 건강원/ 전업사/ 의약품판매/ 영업원
숙박 및 음식점업	· 조리사/ 식당/ 서빙/ 펜션/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 학원/ 강사/ 대학강사/ 교육관련종사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목회자
기타 서비스업	· 전기기사/ 배관공/ 잔디관리/ 자동차정비/ 택시/ 트랙터/ 부동산임대업/ 경비
기타	· 예술감독/ 작가/ 노래연습장/ 농가체험학습장/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부업소득으로 월 평균 100만원 미만(67.3%) 비중이 절반 이상

부업을 통한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업층(n=136) 중 응답가구에 한해 - 부업 소득 : 응답률 98.6%(n=134)]

부업 소득(n=134)으로 ‘월 평균 50만원 미만’(36.1%)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월 평균 50-100만원 미만’(31.2%) 비중도 높아 월 평균 100만원 미만 비중이 절반 이상(67.3%)이었다. 다음으로 ‘월 평균 100-150만원 미만’(19.1%), ‘월 평균 150-300만원 미만’(10.2%), ‘월 평균 300만원 이상’(3.3%) 순이었다.

농어가, 자영업 부업층에서 ‘월 평균 50만원 미만’ 비중이 다소 높았다.

| 그림1311 - (1) | 부업 소득

단위: %



| 표1311 - (4) | 부업 소득

단위: %(명)

구분			월평균 50만원 미만	월평균 50-100만원 미만	월평균 100-150만원 미만	월평균 150-300만원 미만	월평균 300만원 이상
합계 (134)			36.1	31.2	19.1	10.2	3.3
읍/면	읍 (49)		38.0	40.1	9.8	7.8	4.3
	면 (85)		35.0	26.1	24.5	11.6	2.7
영농 여부	농어가 (94)		40.4	33.3	19.5	5.9	0.9
	비농어가 (40)		25.9	26.4	18.1	20.6	9.0
부업 현황	자영업 (69)		41.0	31.2	13.5	13.1	1.2
	임금근로 (65)		31.0	31.3	25.0	7.3	5.5

1312 > 희망 부업현황

- ▶ '향후 부업 희망층'이 6.0%
- ▶ '기타서비스업'(15.5%), '숙박 및 음식점업'(15.1%)이 주된 희망 업종
- ▶ '월 평균 100-150만원 미만'(38.7%)이 희망하는 부업의 주된 기대소득 수준



'향후 부업 희망층'이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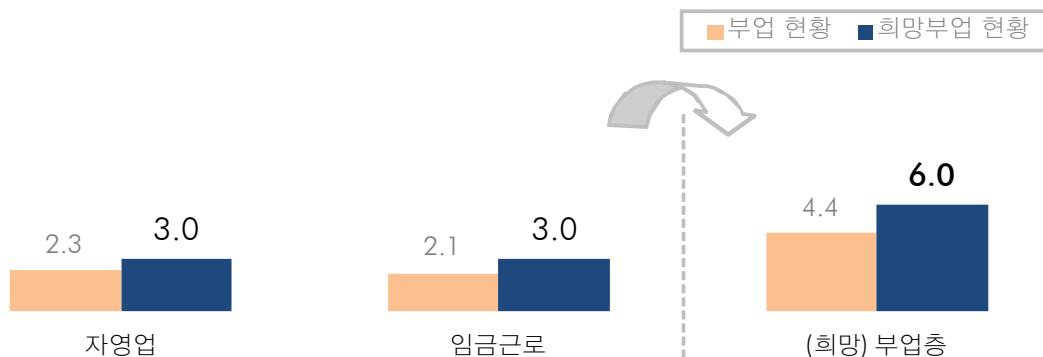
(하고 있지 않을 경우) 향후 어떤 형태의 부업을 하기를 희망하십니까?

[부업을 하지 않는 층(n=2,969) 기준]

한편, 현재 부업을 하지 않는 층(n=2,969) 중 6.0%가 향후 부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희망 부업 형태로 '임금근로'와 '자영업'이 각 3.0%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그림1312 - (1) | 희망 부업 형태

단위 : %



| 표1312 - (1) | 희망 부업 형태

단위 : %(명)

구분			자영업	임금근로	부업 희망층
합계 (2,969)			3.0	3.0	6.0
읍/면	읍 (1,495)		3.4	2.7	6.1
	면 (1,475)		2.6	3.3	5.9
영농 여부	농어가 (1,023)		2.2	2.5	4.7
	비농어가 (1,946)		3.4	3.3	6.7



'기타서비스업'(15.5%), '숙박 및 음식점업'(15.1%)이 주된 희망 업종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어떤 업종을 희망하십니까?

[부업 희망층(n=178) 중 응답가구에 한해 - 희망 업종 : 개방형 질문, 응답률 98.1%(n=175)]

부업 희망층(n=175)의 희망 업종으로 '기타 서비스업'(15.5%)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5.1%), '교육서비스업'(11.7%), '제조업'(10.7%), '농어업', '도매 및 소매업'(각 10.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4%), '금융 및 보험업'(4.4%), '건설업'(3.9%) 순이었다.

| 표1312 - (2) | 희망 부업 업종

단위 : %(명)

구분		농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 점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 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기타 서비 스업	기타
합계 (175)		10.4	10.7	3.9	10.4	15.1	4.4	11.7	6.4	15.5	11.5
읍/면	읍 (88)	3.3	9.8	.8	14.8	10.5	6.3	18.1	8.0	15.8	12.6
	면 (86)	17.8	11.5	7.1	5.8	19.8	2.5	5.1	4.8	15.2	10.4
영농 여부	농어가 (49)	20.9	14.3	7.8	4.2	17.4			7.2	12.2	16.0
	비농어가 (126)	6.4	9.2	2.4	12.8	14.2	6.1	16.2	6.1	16.7	9.8
희망 부업 형태	자영업 (87)	15.3	10.0	2.2	20.1	26.4		10.0	2.3	9.5	4.1
	임금근로 (87)	5.5	11.3	5.6	0.7	3.8	8.9	13.4	10.6	21.4	18.9

[희망 부업 업종 세부사항]

구분	세부사항
농어업	·특수작물/ 공재배/ 양배추/ 채소/ 노지채소농사/ 밤농사/ 버농사/ 농산물가공업/ 녹차밭/ 과수재배업/ 감귤재배/ 화훼/ 농업일용직/ 농업관련단순종사자
제조업	·떡제조/ 가내수공업/ 목재관련공방/ 공장/ 제조관련사무직/ 제조관련생산직
건설업	·토목공사/ 토목건설업/ 벽돌공/ 도장공사/ 건축/ 건설관련단순노무자
도매 및 소매업	·편의점/ 옷가게/ 농산물가게/ 낚시가게/ 마트/ 판매업/ 장사
숙박 및 음식점업	·한식당/ 프랜차이즈 음식점/ 카페/ 제과점/ 조리사/ 치킨집/ 식당/ 서빙/ 분식집/ 숙박/ 펜션
금융 및 보험업	·은행원/ 보험영업/ 보험설계사
교육서비스업	·학원강사/ 강사/ 교사/ 어린이집운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요양보호사/ 산모도우미/ 사회복지사/ 돌보미/ 간호사/ 관련회사원
기타 서비스업	·의류수선/ 미용/ 공인중개사/ 중개업/ 경비원/ 운전/ 물류/ 호텔관리/ 관련사무원
기타	·선거운동/ 회사원/ 사무직/ 사무보조/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일용직/ 미정



'월 평균 100-150만원 미만'(38.7%)이 희망하는 부업의 주된 기대소득 수준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기대하시는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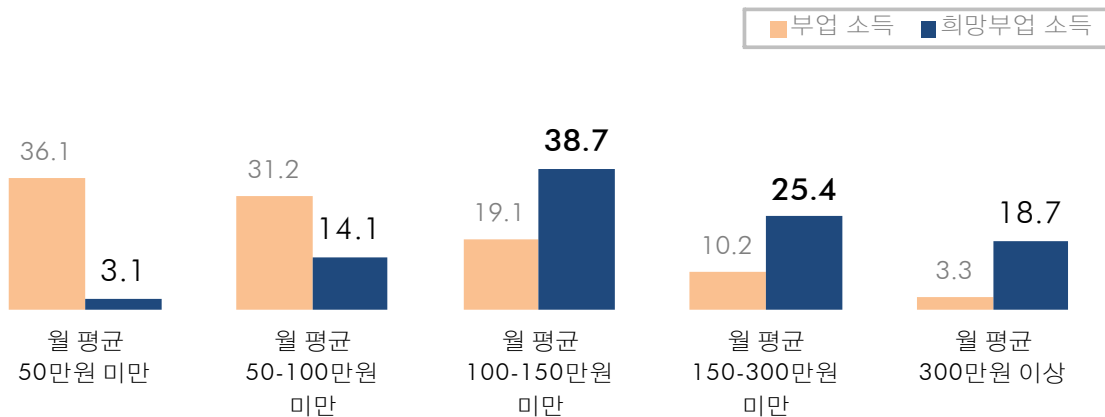
[부업 희망층(n=178) 기준]

희망 소득으로 '월 평균 100-150만원 미만'(38.7%), '월 평균 150-300만원 미만'(25.4%) 등 [100-300만원 미만] 비중이 절반 이상(64.1%)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월 평균 300만원 이상'(18.7%), '월 평균 50-100만원 미만'(14.1%), '월 평균 50만원 미만'(3.1%) 순으로 실제 부업을 하고 있는 층의 월 평균 소득보다 기대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가, 임금근로 희망층에서 월 평균 50-150만원 미만 비중이 다소 높은 반면, 비농어가, 자영업 희망층에서 월 평균 150만원 이상 비중이 다소 높았다.

| 그림1312 - (2) | 희망 부업 기대소득

단위: %



| 표1312 - (3) | 희망 부업 기대소득

단위: %(명)

구분		월평균 50만원 미만	월평균 50-100만원 미만	월평균 100-150만원 미만	월평균 150-300만원 미만	월평균 300만원 이상
합계 (178)		3.1	14.1	38.7	25.4	18.7
읍/면	읍 (91)	5.3	13.2	30.6	29.0	22.0
	면 (87)	0.9	15.1	47.2	21.6	15.3
영농 여부	농어가 (49)	2.9	24.7	52.1	13.0	7.3
	비농어가 (129)	3.2	10.1	33.6	30.0	23.0
희망 부업 형태	자영업 (88)	1.5	12.1	24.2	32.2	30.0
	임금근로 (89)	4.8	16.1	53.0	18.7	7.5

1313> 은퇴계획

귀하께서는 몇 세 정도에 은퇴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퇴계획 - 가구주 혹은 가구주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가구(n=3,105)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8%(n=3,067)]

[은퇴 희망 연령 - 특정연령 선택층(n=347) 기준]

▶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51.5%), 특정연령 선택층의 은퇴 희망 연령은 평균 63.7세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절반 가량(51.5%)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특정연령'(11.3%), '이미 은퇴했음'(6.1%)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가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 비중이 더욱 높았다.

| 표1313 - (1) | 은퇴계획

단위 : %(명)

구분		특정 연령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	이미 은퇴했음	잘 모르겠다
합계 (3,067)		11.3	51.5	6.1	31.1
읍/면	읍 (1,536)	13.1	48.1	5.1	33.8
	면 (1,530)	9.6	55.0	7.1	28.4
영농 여부	농어가 (1,091)	7.5	65.1	3.8	23.6
	비농어가 (1,976)	13.4	44.1	7.3	35.2

한편, 특정 연령을 선택한 경우(n=347) 은퇴 희망 연령로 '60-64세'(39.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65-69세'(22.4%), '70-74세'(17.6%) 비중도 높았다. 다음으로 '60세 미만'(12.6%), '80세 이상'(4.8%), '75-79세'(3.4%)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은퇴 희망 연령은 63.7세였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평균 은퇴희망 연령이 높았다.

| 표1313 - (2) | 은퇴 희망 연령

단위 : %(명)

구분		평균	60세 미만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합계 (347)		63.7세	12.6	39.2	22.4	17.6	3.4	4.8
읍/면	읍 (201)	62.3세	17.3	38.4	25.5	14.7	1.4	2.8
	면 (146)	65.5세	6.3	40.3	18.3	21.5	6.0	7.6
영농 여부	농어가 (82)	68.7세	3.2	19.3	23.9	25.4	8.7	19.6
	비농어가 (265)	62.2세	15.6	45.3	22.0	15.2	1.7	0.3

1314>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 ▶ '창업 및 취업 희망층'이 6.7%, '기타 서비스업'(25.6%)이 주된 희망 업종
- ▶ '월 평균 50-100만원 미만'(29.9%)이 주된 기대소득 수준

**'창업 및 취업 희망층'이 6.7%**

귀택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께서는 향후 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십니까? 희망하는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지 않는 층(n=834) 기준]

소득이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지 않는 층(n=834) 중 향후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층이 6.7%로 읍지역,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층에서 '취업(임금근로)' 등 [창업 및 취업 희망층] 비중이 다소 높았다. 희망 근로 형태로 '취업(임금근로)'(5.8%) 비중이 '창업(자영업)'(0.9%)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1314 - (1) |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단위 : %



| 표1314 - (1) |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단위 : %(명)

구분		창업(자영업)	취업(임금근로)	창업 및 취업 희망층
합계 (834)		0.9	5.8	6.7
읍/면	읍 (294)	1.4	9.6	11.0
	면 (540)	0.6	3.7	4.3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41)	1.7	23.1	24.8
	비의향층 (792)	0.8	4.9	5.7



'기타 서비스업'(25.6%)이 주된 희망 업종

(희망하는 경우 어떤 업종을 희망하십니까?)

[창업 및 취업 희망층(n=56) 중 응답가구에 한해 : 개방형 질문, 응답률 96.7%(n=54)]

한편 창업 및 취업 희망층(n=54)의 희망 업종으로 '기타 서비스업'(25.6%)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어업'(14.6%), '숙박 및 음식점업'(10.3%), '제조업', '건설업'(각 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5%), '도매 및 소매업'(1.4%), '교육서비스업'(0.5%) 순이었다.

창업 희망층에서 '농어업' 비중이 다소 높은 반면,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 취업 희망층에서 '기타서비스업' 비중이 다소 높았다.

| 표1314 - (2) | 희망 창업 및 취업 업종

단위 : %(명)

구분			농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합계 (54)			14.6	6.7	6.7	1.4	10.3	0.5	3.5	25.6	30.8
읍/면	읍 (33)		12.6	6.6	3.4	2.3	8.3	0.8	3.0	28.6	34.5
	면 (22)		17.6	6.7	11.8		13.2		4.3	21.2	25.2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10)		13.1	20.3			2.5	2.5	9.0	17.2	35.3
	비의향층 (44)		14.9	3.5	8.3	1.7	12.1		2.2	27.6	29.7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창업(자영업) (7)		68.8				7.6	3.5			20.1
	취업(임금근로) (47)		6.1	7.7	7.8	1.6	10.7		4.0	29.6	32.4

[희망 창업 및 취업 업종 세부사항]

구분	세부사항
농어업	· 파/ 가지/ 고추/ 사과/ 마늘/ 배추/ 고구마/ 깨 / 논농사/ 밭농사/ 농업일 용직/ 농업관련단순종사자
제조업	· 조선소/ 봉제/ 공장/ 봉투작업자
건설업	· 건축가/ 건설일용직/ 건설관련단순노무자
숙박 및 음식점업	· 펜션/ 중식당/ 종업원/ 요리사/ 식당/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학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노인돌보미
기타 서비스업	· 운수업/ 경비/ IT/ 관련사무직
기타	· 음악관련직/ 희망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월 평균 50-100만원 미만'(29.9%)이 주된 기대소득 수준

기대하시는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창업 및 취업 희망층(n=56) 기준]

희망 소득으로 '월 평균 50-100만원 미만'(29.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월 평균 100-150만원 미만'(21.4%), '월 평균 50만원 미만'(20.8%), '월 평균 150-300만원 미만'(15.5%), '월 평균 300만원 이상'(12.4%) 순이었다.

읍지역,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 취업 희망층에서 '월 평균 50만원 미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향후 5년 내 이주 의향층, 창업 희망층에서 '월 평균 300만원 이상' 비중이 다소 높았다.

| 그림1314 - (2) | 창업 및 취업 기대소득

단위 : %



| 표1314 - (3) | 창업 및 취업 기대소득

단위 : %(명)

구분			월평균 50만원 미만	월평균 50~100만 원 미만	월평균 100~150만 원 미만	월평균 150~300만 원 미만	월평균 300만원 이상
합계 (56)			20.8	29.9	21.4	15.5	12.4
읍/면	읍 (33)		24.8	21.8	25.7	16.3	11.4
	면 (23)		15.1	41.4	15.4	14.4	13.8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10)		17.7	15.8	28.4	8.6	29.5
	비의향층 (45)		21.5	33.1	19.8	17.0	8.5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창업(자영업) (7)		14.8	35.3		3.5	46.4
	취업(임금근로) (48)		21.7	29.1	24.7	17.3	7.3

1315> 농어촌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영역

농어촌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1%(n=3,826)]

▶ '창업 자금 지원'(34.4%)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영역

'창업 자금 지원'(34.4%)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기술교육/인력 양성'(27.6%), '시설/설비 지원'(27.2%) 비중도 높았다. 이밖에 '사업컨설팅/정보 제공'(4.2%), '농어촌 창업 절차 간소화'(2.7%), '홍보·마케팅활동 지원'(2.6%), '소규모 사업체 대상 규제 완화'(1.3%) 비중은 낮았다.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층에서 '기술 교육/인력 양성' 비중이 다소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시설/설비 지원',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층에서 '창업 자금 지원' 비중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1315 | 농어촌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영역

단위 : %(명)

구분		기술 교육/ 인력 양성	창업 자금 지원	시설/ 설비 지원	사업 컨설팅/ 정보 제공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농어촌 창업 절차 간소화	소규모 사업체 대상 규제 완화	기타
합계 (3,826)		27.6	34.4	27.2	4.2	2.6	2.7	1.3	0.2
읍/면	읍 (1,783)	29.3	33.7	24.9	5.1	2.5	2.8	1.5	0.0
	면 (2,042)	26.0	35.0	29.1	3.4	2.6	2.5	1.0	0.3
영농 여부	농어가 (1,096)	19.8	37.2	33.2	2.9	2.4	2.9	1.4	0.3
	비농어가 (2,730)	30.7	33.3	24.8	4.7	2.6	2.6	1.2	0.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63)	32.8	32.3	23.9	4.5	1.6	3.5	1.3	
	40대 (759)	32.0	29.5	24.5	6.2	3.3	2.3	1.8	0.4
	50대 (741)	23.4	35.0	28.3	4.8	4.2	2.6	1.6	0.1
	60대 (595)	25.5	35.2	30.4	3.5	2.3	2.0	.8	0.3
	70대 이상 (789)	23.3	39.6	29.8	2.1	1.6	2.7	.8	0.1
창업 및 취업 희망상태	창업 및 취업 희망층 (53)	10.6	46.6	24.6	9.9	4.8	1.1	2.5	
	희망하지 않음 (724)	27.2	37.4	28.7	2.8	1.3	1.6	0.7	0.2

1316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실태

귀하께서는 [2013년('13.1.1.~12.31.)을 기준으로] 다음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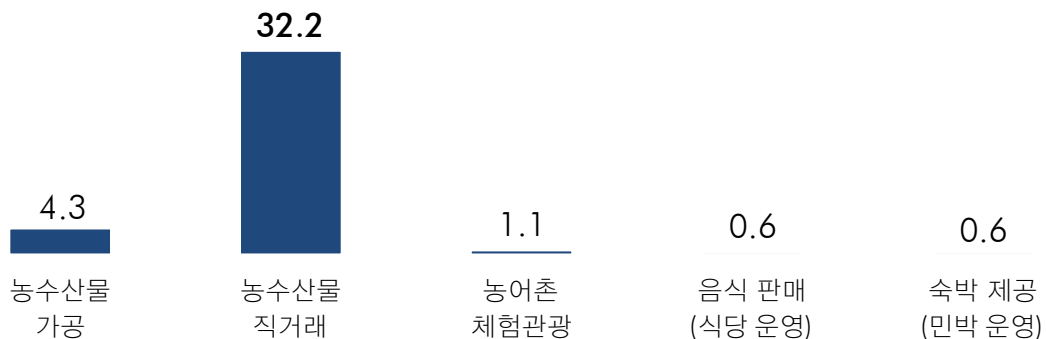
[참여 여부 : 농어가(n=1,120) 기준, 참여실태 : 각 사업별 참여층에 한해]

▶ '농수산물 직거래'(32.2%) 경험률이 가장 높음

'농수산물 직거래'(32.2%) 참여 경험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농수산물 가공'(4.3%), '농어촌 체험관광'(1.1%), '음식 판매(식당 운영)', '숙박 제공(민박 운영)'(각 0.6%) 경험률은 높지 않았다.

| 그림1316 - (1) | 참여 경험 여부

단위 : %



경영형태로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개인 경영체'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1316 - (1) | 참여층의 경영형태

단위 : %(명)

구분	개인 경영체	마을운영 위원회	마을 법인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협동 조합	기타
농수산물 가공 (48)	66.0		4.4	22.5	5.3	1.8	
농수산물 직거래 (356)	76.7	2.3	1.8	11.0	0.9	6.4	0.9
농어촌 체험관광 (11)	18.7	20.8	8.6	51.9			
음식판매(식당운영) (7)	100.0						
숙박제공(민박운영) (7)	93.9	6.1					

가구소득 기여도 비중은 ‘농수산물 직거래’(평균 49.4%) 사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음식판매(식당운영)’(평균 43.5%), ‘농수산물 가공’(평균 41.1%), ‘숙박제공(민박운영)’(평균 19.0%), ‘농어촌 체험관광’(평균 17.9%) 순이었다.

| 표1316 - (2) | **가구소득 기여도 비중**

단위 : %(명)

구분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 판매(식당 운영)		숙박 제공(민박 운영)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합계	(48)	41.1	(359)	49.4	(12)	17.9	(7)	43.5	(7)	19.0

가구소득 기여에 대한 만족도는 ‘농수산물 가공’(평균 56.6점) 사업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음식판매(식당운영)’(평균 50.5점), ‘농수산물 직거래’(평균 50.3점), ‘농어촌 체험관광’(평균 47.0점), ‘숙박제공(민박운영)’(평균 46.9점) 순이었다.

| 표1316 - (3) | **가구소득 기여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명)

구분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 판매(식당 운영)		숙박 제공(민박 운영)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합계	(48)	56.6	(358)	50.3	(11)	47.0	(7)	50.5	(7)	46.9

각 사업별 참여층 중 ‘농어촌 체험관광’사업에서 수혜 경험률이 4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수산물 가공’(19.0%), ‘농수산물 직거래’(10.1%), ‘숙박제공(민박운영)’(6.1%) 순이었다.

| 표1316 - (4) | **정부 지원 수혜 여부**

단위 : %(명)

구분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 판매(식당 운영)		숙박 제공(민박 운영)	
	사례수	수혜층	사례수	수혜층	사례수	수혜층	사례수	수혜층	사례수	수혜층
합계	(48)	19.0	(360)	10.1	(12)	49.2		0.0	(7)	6.1

1317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향후 (지속)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농어가(n=1,12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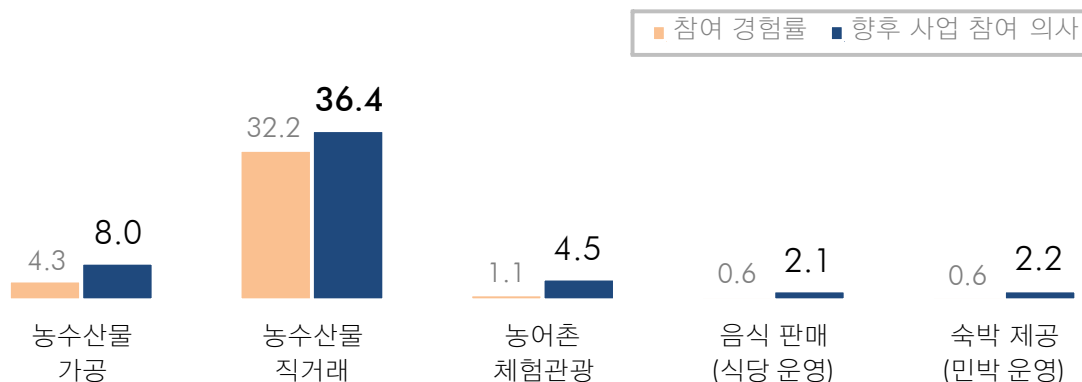
▶ '농수산물 직거래'(36.4%) 사업에서 사업 참여 의사가 가장 높음

한편 '농수산물 직거래'(36.4%) 사업에서 사업 참여 의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수산물 가공'(8.0%), '농어촌 체험관광'(4.5%), '숙박 제공(민박 운영)'(2.2%), '음식 판매(식당 운영)'(2.1%) 순으로 사업 참여 경험률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계층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농수산물 직거래' 참여 의사가 높은 경향을 보인 가운데, 사업별 참여율이 약간 높았던 면지역, 사업별 참여 경험층에서 향후 사업 참여 의사 역시 높았다.

| 그림1317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

단위: %



| 표1317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

단위: %(명)

구분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 판매 (식당 운영)	숙박 제공 (민박 운영)
합계 (1,120)			8.0	36.4	4.5	2.1	2.2
읍/면	읍 (281)		4.7	26.8	1.5	0.6	1.5
	면 (839)		9.1	39.7	5.5	2.5	2.5
농어촌 자원활용 사업 참여경험	농수산물 가공 (48)		74.6	70.5	20.9	3.5	4.6
	농수산물 직거래 (360)		13.9	90.4	7.6	4.9	4.3
	농어촌 체험관광 (12)		33.1	63.0	70.6	15.4	20.2
	음식 판매(식당 운영) (7)		6.3	88.1	20.4	88.1	22.5
	숙박 제공(민박 운영) (7)		17.9	74.5	25.5	25.5	88.2

1318>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귀하께서 위 사업에 참여하면서, 또는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참여 경험’ 또는 ‘향후 참여 의사’ 중 한 개라도 ‘있음’을 선택한 경우(n=470) 기준]

▶ ‘고객·판로 확보’(30.2%)가 사업 추진 시 주된 애로사항

‘고객·판로 확보’(30.2%)가 주된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력 부족’(22.0%), ‘자금 부족’(20.0%), ‘시설/설비 부족’(10.9%), ‘기획력 및 기술력 부족’(7.1%), ‘경영관리 역량 부족’(4.2%), ‘관련 규제에 의한 제약’(1.4%), ‘행정·제도 복잡’(1.1%), ‘참여자간 갈등’(1.0%) 순이었다.

농수산물 가공, 농수산물 직거래 참여층 및 참여 의향층에서 ‘고객·판로 확보’ 비중이 다소 높은 반면, 농어촌 체험관광, 음식판매(식당운영), 숙박제공(민박운영) 참여층 및 참여의향층에서 ‘자금부족’ 비중이 다소 높았다.

| 표1318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자금 부족	기획력 및 기술력 부족	경영 관리 역량 부족	시설/ 설비 부족	행정· 제도 복잡	관련 규제로 인한 제약	인력 부족	고객· 판로 확보	참여자 간 갈등	기타	
합계			(470)	20.0	7.1	4.2	10.9	1.1	1.4	22.0	30.2	1.0	2.0
읍/면	읍	(86)	23.4	6.5	4.5	5.9	3.6	4.3	19.2	30.2	0.5	1.9	
	면	(384)	19.3	7.3	4.2	12.0	0.5	0.7	22.7	30.2	1.2	2.0	
참여 여부	농산물 가공	(48)	26.9	8.2	5.8	10.4		1.3	15.8	26.7		5.0	
	농수산물 직거래	(355)	17.9	5.6	4.1	9.5	1.3	1.4	26.9	30.8	0.7	1.8	
	농어촌 체험관광	(12)	36.8			33.5			19.8	5.3		4.6	
	음식판매(식당 운영)	(7)	44.5	22.5						33.0			
	숙박 제공(민박 운영)	(7)	47.0			50.8				2.2			
참여 의향	농산물 가공	(89)	32.7	10.1	5.0	16.4	1.6		7.1	23.7	0.8	2.6	
	농수산물 직거래	(405)	17.5	6.9	4.6	9.5	0.8	1.6	23.9	32.6	0.7	1.9	
	농어촌 체험관광	(50)	28.7	16.0	8.0	10.1	1.4		7.0	19.2	4.9	4.8	
	음식판매(식당 운영)	(23)	58.9	12.0	7.6	6.6			3.0	11.8			
	숙박 제공(민박 운영)	(24)	53.1	4.8	7.1	16.8	5.5		2.4	10.3			

1319> 영농형태 및 농축산물 판매금액

귀택에서 주된 수입원이 되는 영농형태는 무엇입니까? 귀택에서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 금액은 얼마입니까?

[농어가(n=1,120)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영농형태 : 응답률 96.5%(n=1,081), 농축산물 판매금액 : 응답률 98.3%(n=1,101)]

▶ '논벼'(57.0%)가 주된 영농형태, 농축산물 판매금액으로 [1천만원 미만]이 56.5%

농어가(n=1,120)의 영농 형태(n=1,081)로 '논벼'(57.0%)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지채소'(11.2%), '식량작물'(9.3%), '과수'(7.2%), '시설채소', '축산'(각 5.2%), '특/약용 작물.버섯'(4.4%), '화훼'(0.3%) 순이었다.

| 표1319 - (1) | 영농형태

단위 : %(명)

구분	논벼	식량작물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수	화훼	특/약용작물버섯	축산	기타
합계 (1,081)	57.0	9.3	11.2	5.2	7.2	0.3	4.4	5.2	0.2
읍/면									
읍 (271)	54.1	9.9	12.3	5.1	5.7		7.6	5.3	
면 (810)	57.9	9.1	10.8	5.2	7.7	0.4	3.4	5.2	0.3

농축산물 판매금액(n=1,101)으로 '5백만원-1천만원 미만'(19.3%), '3백만원-5백만원 미만'(14.8%), '120만원-3백만원 미만'(12.0%), '120만원 미만'(10.4%) 등 [1천만원 미만](56.5%) 비중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1천만원-2천만원 미만'(19.9%), '2천만원-3천만원 미만'(10.6%), '3천만원-5천만원 미만'(8.1%), '5천만원-1억원 미만'(2.5%) 순으로 [1천만원-1억원 미만] 비중은 41.0%였다. 한편, '2억원 이상'(1.8%), '1억원-2억원 미만'(0.7%) 등 [1억원 이상] 비중은 2.5%였다.

| 표1319 - (2) | 농축산물 판매금액

단위 : %(명)

구분	120만원 미만	120만원-3백만원 미만	3백만원-5백만원 미만	5백만원-1천만원 미만	1천만원-2천만원 미만	2천만원-3천만원 미만	3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합계 (1,101)	10.4	12.0	14.8	19.3	19.9	10.6	8.1	2.5	0.7	1.8
읍/면										
읍 (277)	17.2	9.0	8.9	19.7	16.6	13.6	8.0	3.3	1.1	2.7
면 (824)	8.1	12.9	16.9	19.1	21.0	9.6	8.2	2.2	0.5	1.5

1320> 농업 계획 및 농업 승계자 유무

▶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층이 63.8%로 나타난 가운데, 농업 승계자가 있는 가구는 9.4%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층이 63.8%

농업 규모(논/밭/임야/시설 등 면적)에 대한 향후 5년 후 귀하의 계획은 어떠하십니까?

[농어가(n=1,120)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1%(n=1,098)]

농업 계획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63.8%)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24.1%), '확대할 계획이다'(7.4%),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4.7%) 순이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 2천만원 이상층, 농업승계자가 있는 층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비중이 높은 반면, 농축산물 판매금액 2천만원 미만층, 농업승계자가 없는 층에서 '축소할 계획이다' 비중이 높았다.

| 표1320 - (1) | 농업 계획

단위 : %(명)

구분			확대할 계획이다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축소할 계획이다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
합계 (1,098)			7.4	63.8	24.1	4.7
읍/면	읍	(277)	7.6	67.2	20.6	4.5
	면	(822)	7.4	62.6	25.3	4.7
농축산물 판매금액	5백만원 미만	(408)	7.3	55.4	30.0	7.3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211)	5.4	65.1	25.2	4.3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217)	4.5	66.6	25.0	3.8
	2천만원 이상	(260)	11.8	73.0	13.6	1.6
농업 승계자 유무	있음	(103)	13.0	71.4	13.7	1.8
	없음	(646)	6.9	56.1	29.8	7.2
	모르겠음	(347)	6.8	75.5	16.7	0.9



농업 승계자 '있음'(9.4%) < '없음'(58.9%)

귀댁에는 경영주의 뒤를 이어 농업에 종사할 사람(자녀 및 손자녀, 형제자매, 친척 등)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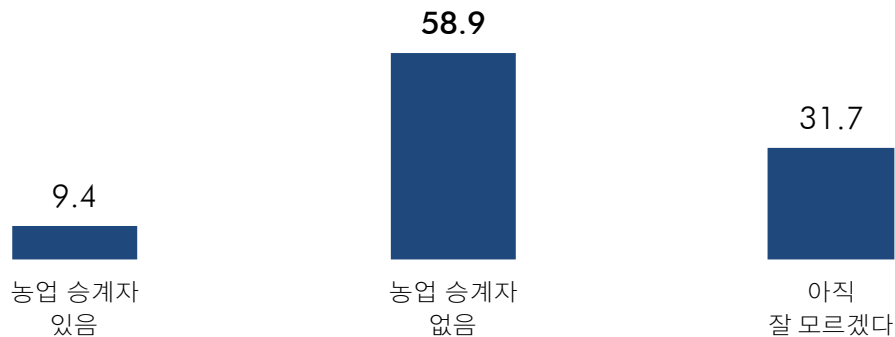
[농어가(n=1,120)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1%(n=1,098)]

농업 승계자가 있는 가구(9.4%)에 비해 없는 가구(58.9%) 비중이 높은 가운데, '아직 잘 모르겠다'는 가구는 31.7%였다.

농축산물 판매금액 5백만원 미만층에서 '농업 승계자 없음'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농축산물 판매금액 2천만원 이상층에서 '농업 승계자 있음',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 비중이 높았다.

| 그림1320 | 농업 승계자 유무

단위: %



| 표1320 - (2) | 농업 승계자 유무

단위: %(명)

구분			농업 승계자 있음	농업 승계자 없음	아직 잘 모르겠다
합계 (1,098)			9.4	58.9	31.7
읍/면	읍 (275)		13.4	56.3	30.2
	면 (822)		8.0	59.8	32.3
농축산물 판매금액	5백만원 미만 (407)		7.2	67.6	25.2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211)		7.6	57.0	35.3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219)		6.9	58.6	34.5
	2천만원 이상 (258)		16.4	46.6	37.0

1321> 농업에 대한 인식

[농업에 대한 인식(1) : 농어가(n=1,120) 기준/ 농업에 대한 인식(2) : 조사대상 가구(n=3,939) 기준]
[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 측정 값]

▶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 되어야 한다’(평균 81.0점), ‘농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평균 80.7점) 등 농업의 중요성과 관련된 인식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n=1,120)의 농업에 대한 인식의 공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가운데, ‘가능한 한 농업을 계속하고 싶다’(평균 57.8점)에 대한 공감도가 가장 높았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만족스럽다’(평균 43.0점), ‘가능한 한 농업이 가족 내에서 대물림 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평균 35.6점)는 인식에 대한 공감도는 낮았다. 읍지역, 이주민, 향후 5년 내 이주 비의향층,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농업을 확대할 계획이거나 현상태를 유지할 계획인 층, 농업 승계자가 있는 층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1321 - (1) | 농업에 대한 인식(1)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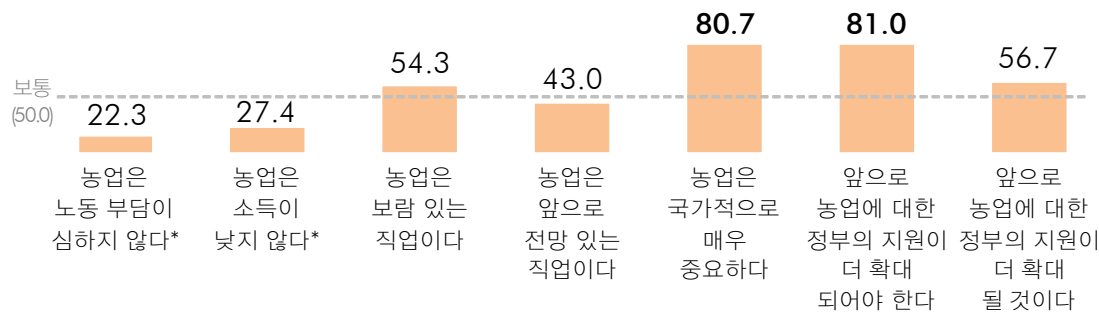
구분		농어가(n=1,120) 기준		
		가능한 한 농업을 계속하고 싶다	가능한 한 농업이 가족 내에서 대물림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합계		57.8	35.6	43.0
읍/면	읍	61.7	41.9	45.4
	면	56.6	33.4	42.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59.7	38.1	43.6
	선주민	57.0	34.4	42.7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58.1	28.8	39.3
	비의향층	57.8	35.9	43.2
농축산물 판매금액	5백만원 미만	53.7	33.7	39.7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59.3	35.2	40.4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59.7	36.4	43.7
	2천만원 이상	62.0	38.2	49.9
농업 계획	확대할 계획이다	70.8	46.3	60.3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63.8	37.5	45.1
	축소할 계획이다	44.5	29.7	33.8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	24.4	22.4	32.8
농업 승계자 유무	농업 승계자 있음	71.1	64.2	58.3
	농업 승계자 없음	54.6	30.1	41.6
	아직 잘 모르겠음	59.8	37.4	40.9

전체 조사대상 가구(n=3,939)의 인식으로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 되어야 한다’(평균 81.0점), ‘농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평균 80.7점) 등 농업의 중요성과 관련된 인식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높았으며,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다’(평균 56.7점), ‘농업은 보람 있는 직업이다’(평균 54.3점), ‘농업은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이다’(평균 43.0점) 등 농업 전망/매력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공감도를 보였다. 반면, ‘농업은 소득이 낮지 않다’(평균 27.4점), ‘농업은 노동 부담이 심하지 않다’(평균 22.3점) 등에 대한 공감도는 낮았다.

면지역, 농어가에서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농업은 노동 부담이 심하지 않다’, ‘농업은 소득이 낮지 않다’, ‘농업은 보람 있는 직업이다’, ‘농업은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이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

| 그림1321 | 농업에 대한 인식(2)

단위: 점



| 표1321 - (2) | 농업에 대한 인식(2)

단위: 점

구분		조사대상 가구(n=3,939) 기준						
		농업은 노동 부담이 심하지 않다*	농업은 소득이 낮지 않다*	농업은 보람 있는 직업이다	농업은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이다	농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 될 것이다
합계		22.3	27.4	54.3	43.0	80.7	81.0	56.7
읍/면	읍	25.6	31.8	55.8	45.1	80.3	78.4	56.5
	면	19.6	23.9	53.2	41.4	81.1	83.1	56.9
영농 여부	농어가	19.8	23.5	49.1	38.9	82.6	84.8	57.1
	비농어가	23.4	29.1	56.6	44.8	79.9	79.3	56.6

*부정문으로 바꾸고 역코딩 함

1331>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2013년('13.1.1.~12.31.)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 가운데 귀댁의 생활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7) 중 응답자에 한해: 99.9%(n=3,937)/ 중복응답: 1순위×3+2순위×2+3순위×1로 가중치를 주어 100.0% 환산 함]

▶ '식료품비'(25.2%), '광열수도비'(18.0%), '보건의료비'(16.5%)가 주된 지출 항목

'식료품비'(25.2%), '광열수도비'(18.0%), '보건의료비'(16.5%)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통통신비'(14.2%), '교육비'(9.6%), '주거비'(6.5%), '관혼상제비'(2.7%), '피복신발비'(1.8%), '가구가사용품비', '문화여가비'(각 1.1%)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아파트 거주층에서 '식료품비' 비중이 다소 높은 반면,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단독주택 거주층에서 '보건의료비', '광열수도비' 비중이 다소 높았다.

| 표1331 |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단위: %(명)

구분			식료 품비	보건 의료 비	가구 가사 용품 비	피복 신발 비	주거 비	광열 수도 비	교육 비	문화 여가 비	교통 통신 비	관혼 상제 비	기타
합계 (3,937)			25.2	16.5	1.1	1.8	6.5	18.0	9.6	1.1	14.2	2.7	3.2
읍/면	읍	(1,836)	29.0	11.5	1.5	2.5	9.4	13.5	11.7	1.5	14.5	2.3	2.7
	면	(2,101)	21.9	20.9	0.8	1.2	4.0	21.9	7.7	0.8	14.0	3.1	3.6
영농 여부	농어가	(1,120)	18.0	22.2	0.9	0.6	2.8	23.5	7.4	0.4	15.0	4.2	5.0
	비농어가	(2,817)	28.1	14.2	1.2	2.2	8.0	15.9	10.4	1.4	14.0	2.1	2.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35.6	3.8	2.3	4.5	9.9	10.3	12.7	2.2	16.3	0.7	1.8
	40대	(768)	27.4	6.6	0.8	1.3	6.8	12.2	23.6	1.5	15.6	1.7	2.4
	50대	(758)	21.6	14.0	1.1	1.6	5.3	20.3	9.0	1.1	16.7	4.6	4.6
	60대	(613)	20.6	24.9	0.8	0.5	4.5	24.0	1.2	0.5	13.0	5.3	4.6
	70대 이상	(842)	18.3	35.9	0.6	0.4	3.6	25.4	0.7	0.1	9.6	2.3	3.2
주택 종류	단독주택	(2,151)	20.2	23.8	0.8	0.9	2.8	23.8	6.0	0.6	14.2	3.4	3.6
	아파트	(1,349)	32.7	8.0	1.2	2.7	9.6	10.4	16.3	2.1	12.6	2.0	2.4
	기타	(435)	26.8	7.3	2.8	3.3	15.4	13.3	6.3	0.7	19.4	1.4	3.1

1332> 주요 물품 구입 실태

- ▶ 식료품과 일상생활용품 모두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가 주된 구입처
- ▶ '우리 읍/면 내'가 주된 구입처 위치, '자가용', '도보' 이용률이 비슷한 수준
- ▶ 물품 구입처까지 평균 13분 내외 소요됨


식료품과 일상생활용품 모두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가 주된 구입처

귀하께서는 아래 물품을 구입하실 때 주로 어느 곳을 이용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자에 한해 - 식료품 구입처 : 99.2%(n=3,907), 일상생활용품 구입처 : 99.1%(n=3,902)]

식료품 구입처로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36.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소형 슈퍼마켓'(22.3%), '상설시장/5일장'(17.9%), '대형할인매장(이마트, 홈플러스 등)'(16.4%), '동네가게'(6.1%), '인터넷 쇼핑몰'(0.3%), '백화점'(0.1%)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에서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 '상설시장/5일장' 비중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중소형 슈퍼마켓', '대형 할인매장' 비중이 높았다.

| 표1332- (1) - ① | 식료품 물품 구입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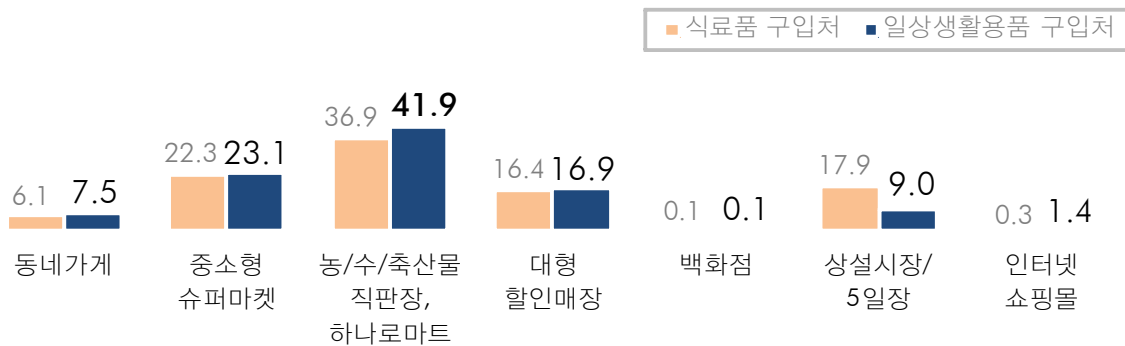
구분			동네 가게	중소형 슈퍼 마켓	농/수/ 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	대형 할인 매장	백화점	상설 시장/ 5일장	인터넷 쇼핑몰
합계 (3,907)			6.1	22.3	36.9	16.4	0.1	17.9	0.3
읍/면	읍	(1,817)	5.1	32.2	29.8	20.7	0.1	11.5	0.6
	면	(2,090)	7.0	13.7	43.0	12.6	0.1	23.4	0.1
영농 여부	농어가	(1,118)	3.5	9.8	52.6	8.2	0.1	25.5	0.3
	비농어가	(2,789)	7.2	27.3	30.6	19.6	0.1	14.8	0.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58)	4.7	36.9	21.9	31.1		4.4	0.9
	40대	(768)	5.9	23.2	37.8	23.3		9.4	0.4
	50대	(756)	4.7	19.1	45.7	12.9	0.2	17.2	0.3
	60대	(611)	6.3	11.6	46.5	8.0	0.3	27.4	
	70대 이상	(834)	9.0	14.3	37.6	4.7	0.1	34.2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398)	6.0	28.6	31.8	20.7	0.1	12.5	0.4
	선주민	(1,510)	6.4	12.2	45.0	9.6	0.1	26.3	0.3

일상생활용품 구입처 역시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41.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소형 슈퍼마켓’(23.1%), ‘대형할인매장(이마트, 홈플러스 등)’(16.9%), ‘상설시장/5일장’(9.0%), ‘동네가게’(7.5%), ‘인터넷 쇼핑몰’(1.4%), ‘백화점’(0.1%) 순으로 식료품에 비해 ‘상설시장/5일장’ 비중이 낮았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주민층에서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 비중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민층에서 ‘중소형 슈퍼마켓’, ‘대형 할인매장’ 비중이 높았다.

| 그림1332 - (1) | 물품 구입처

단위: %



| 표1332 - (1) - ② | 일상생활용품 물품 구입처

단위: %(명)

구분			동네 가게	중소형 슈퍼 마켓	농/수/ 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	대형 할인 매장	백화점	상설 시장/ 5일장	인터넷 쇼핑몰
합계 (3,902)			7.5	23.1	41.9	16.9	0.1	9.0	1.4
읍/면	읍 (1,812)		8.0	33.0	32.5	19.4	0.1	4.9	2.1
	면 (2,090)		7.1	14.6	50.0	14.6	0.1	12.6	0.9
영농 여부	농어가 (1,118)		3.0	11.2	64.3	10.0	0.1	11.0	0.3
	비농어가 (2,784)		9.3	27.9	32.9	19.6	0.2	8.2	1.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58)		7.0	35.6	21.5	28.9		2.3	4.6
	40대 (764)		8.6	22.1	38.9	25.7	0.2	3.5	1.0
	50대 (754)		6.2	21.5	51.1	14.2	0.3	6.3	0.5
	60대 (611)		6.1	13.9	55.0	9.6		15.2	0.3
	70대 이상 (834)		9.6	16.6	49.3	4.7	0.2	19.7	
현 거주지 고향 여부	이주민 (2,393)		8.5	29.1	33.1	21.0	0.2	6.1	2.0
	선주민 (1,509)		5.9	13.8	55.7	10.2		13.7	0.6



식료품과 일상생활용품 모두 '우리 읍/면 내'가 주된 구입처 위치

물품 구입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자에 한해 - 식료품 구입처 위치: 98.7%(n=3,889), 일상생활용품 구입처 위치: 97.5%(n=3,841)]

식료품 구입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구입처의 위치는 '우리 읍/면 내'(44.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우리 마을 내'(35.1%) 비중도 높았다. 다음으로 '우리 시/군 내'(17.1%), '다른 시/군'(3.6%)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 상설시장/5일장 이용층에서 '우리 읍/면 내' 비중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네가게, 중소형 슈퍼마켓 이용층에서 '우리 마을 내' 비중이 높았다.

| 표1332 - (2) - ① | 식료품 주된 구입처 위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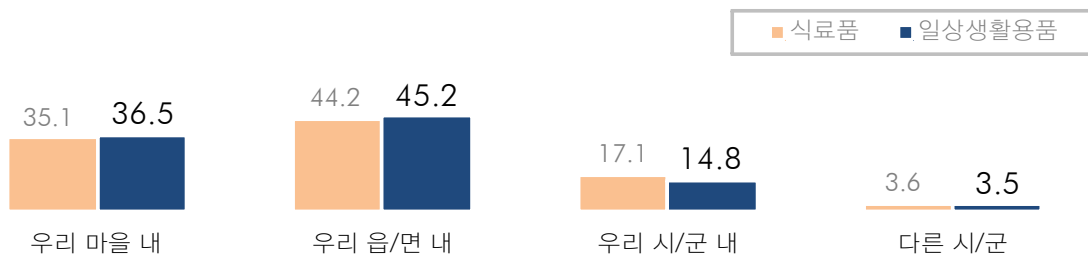
구분			우리 마을 내	우리 읍/면 내	우리 시/군 내	다른 시/군
합계 (3,889)			35.1	44.2	17.1	3.6
읍/면	읍	(1,803)	46.1	41.4	9.8	2.7
	면	(2,086)	25.6	46.6	23.5	4.3
영농 여부	농어가	(1,114)	14.0	61.2	20.7	4.1
	비농어가	(2,776)	43.6	37.4	15.7	3.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48)	41.2	35.4	19.6	3.8
	40대	(764)	45.5	32.7	16.2	5.6
	50대	(754)	31.9	47.1	17.8	3.2
	60대	(609)	29.3	50.9	17.5	2.3
	70대 이상	(833)	26.6	54.8	15.8	2.9
물품 구입처	동네가게	(239)	90.6	3.9	5.5	
	중소형 슈퍼마켓	(871)	57.9	38.5	2.9	0.8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	(1,442)	28.0	60.9	9.4	1.6
	대형할인매장	(637)	19.5	22.9	45.4	12.2
	상설시장/5일장	(697)	16.5	50.4	29.0	4.1
	백화점/인터넷 쇼핑몰 등 기타	(4)	42.7		33.8	23.5

일상생활용품 주된 구입처 위치 역시 ‘우리 읍/면 내’(45.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우리 마을 내’(36.5%) 비중도 높았다. 다음으로 ‘우리 시/군 내’(14.8%), ‘다른 시/군’(3.5%)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 상설시장/5일장 이용층에서 ‘우리 읍/면 내’ 비중이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동네가게, 중소형 슈퍼마켓 이용층에서 ‘우리 마을 내’, 대형할인매장 이용층에서 ‘우리 시/군 내’ 비중이 높았다.

| 그림1332 - (2) | 주된 구입처 위치

단위: %



| 표1332 - (2) - ② | 일상생활용품 주된 구입처 위치

단위: %(명)

구분			우리 마을 내	우리 읍/면 내	우리 시/군 내	다른 시/군
합계 (3,841)			36.5	45.2	14.8	3.5
읍/면	읍	(1,770)	48.3	40.4	8.5	2.8
	면	(2,071)	26.5	49.2	20.2	4.1
영농 여부	농어가	(1,113)	15.0	65.1	16.2	3.8
	비농어가	(2,728)	45.3	37.1	14.2	3.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16)	43.1	34.6	17.5	4.9
	40대	(756)	45.4	33.5	16.2	5.0
	50대	(750)	35.3	47.1	14.6	2.9
	60대	(607)	30.6	53.4	13.7	2.3
	70대 이상	(833)	28.0	56.8	12.8	2.5
물품 구입처	동네가게	(293)	94.7	4.2	0.6	0.5
	중소형 슈퍼마켓	(902)	58.0	38.0	2.6	1.4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	(1,634)	26.1	63.2	9.4	1.4
	대형할인매장	(655)	18.7	21.1	47.8	12.3
	상설시장/5일장	(352)	15.2	58.9	21.3	4.6
	백화점/인터넷 쇼핑물 등 기타	(5)		28.0	41.1	30.9



'자가용', '도보' 이용률이 비슷한 수준

이동 시 주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자에 한해- 식료품 구입 시 교통수단: 98.6%(n=3,884), 일상생활용품 구입 시 교통수단: 97.4%(n=3,836)]

식료품 구입을 위해 이동 시 주된 교통수단으로 '자가용'(38.8%), '걸어서'(33.4%)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은 25.5%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용품 구입처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역시 '자가용'(38.3%), '걸어서'(35.0%) 이용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은 24.4%였다.

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가용' 비중이 높은 반면, 면지역,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중교통',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걸어서' 비중이 다소 높았다.

| 표1332 - (3) | 주된 구입처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명)

구분		식료품					일상생활용품				
		사례수	걸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사례수	걸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합계		(3,884)	33.4	25.5	38.8	2.2	(3,836)	35.0	24.4	38.3	2.3
읍/면	읍	(1,803)	44.9	17.5	36.0	1.5	(1,770)	47.6	16.4	34.7	1.4
	면	(2,081)	23.5	32.4	41.2	2.8	(2,066)	24.3	31.2	41.4	3.1
영농 여부	농어가	(1,114)	14.4	31.5	49.6	4.5	(1,112)	14.7	31.1	49.6	4.7
	비농어가	(2,770)	41.1	23.1	34.5	1.3	(2,723)	43.4	21.6	33.7	1.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48)	34.7	16.3	47.9	1.1	(816)	36.8	15.9	46.3	1.0
	40대	(762)	40.5	8.0	50.3	1.2	(754)	41.2	6.7	50.8	1.3
	50대	(754)	32.4	18.7	47.7	1.2	(750)	34.9	16.7	47.5	0.9
	60대	(608)	30.1	29.2	37.0	3.7	(606)	31.7	28.2	36.3	3.9
	70대 이상	(831)	29.0	52.8	14.0	4.2	(831)	30.5	51.0	14.0	4.6



물품 구입처까지 평균 13분 내외 소요됨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자에 한해 - 식료품 구입 시 소요시간: 98.6%(n=3,883), 일상생활용품 구입 시 소요시간: 97.2%(n=3,829)]

식료품 구입처 및 일상생활용품 구입처까지 이동 시 소요되는 시간으로 '10-20분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1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 이상' 순이었다. 물품 구입처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식료품의 경우 평균 13.6분, 일상생활용품의 경우 평균 13.2분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중교통 이용층에서 평균 소요시간이 다소 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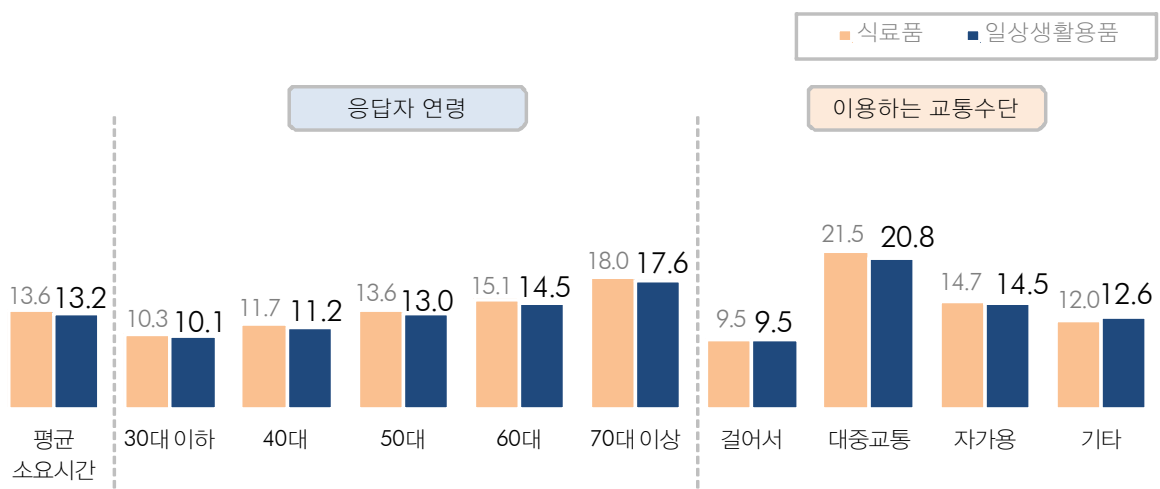
| 표1332 - (4) | 물품 구입처까지 편도 소요시간

단위: %(명)

구분		식료품							일상생활용품						
		사례수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 이상	사례수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 이상
합계		(3,883)	13.6분	4.3	28.2	39.8	15.7	11.9	(3,829)	13.2분	4.7	29.6	40.2	14.1	11.4
읍/면	읍	(1,802)	10.7분	5.0	37.9	41.1	10.9	5.2	(1,768)	10.3분	5.7	39.4	40.5	9.3	5.1
	면	(2,081)	16.2분	3.7	19.9	38.7	19.9	17.8	(2,061)	15.7분	3.8	21.2	40.0	18.2	16.8
영농 여부	농어가	(1,112)	16.8분	2.4	17.2	39.7	22.5	18.2	(1,112)	16.0분	3.4	18.6	41.0	19.6	17.3
	비농어가	(2,770)	12.4분	5.1	32.7	39.9	13.0	9.4	(2,717)	12.1분	5.2	34.1	39.9	11.8	9.0

| 그림1332 - (3) | 물품 구입처까지 편도 소요시간

단위: 분



1341> 월 평균 생활비

[2013년('13.1.1.~12.31.)을 기준으로] 귀댁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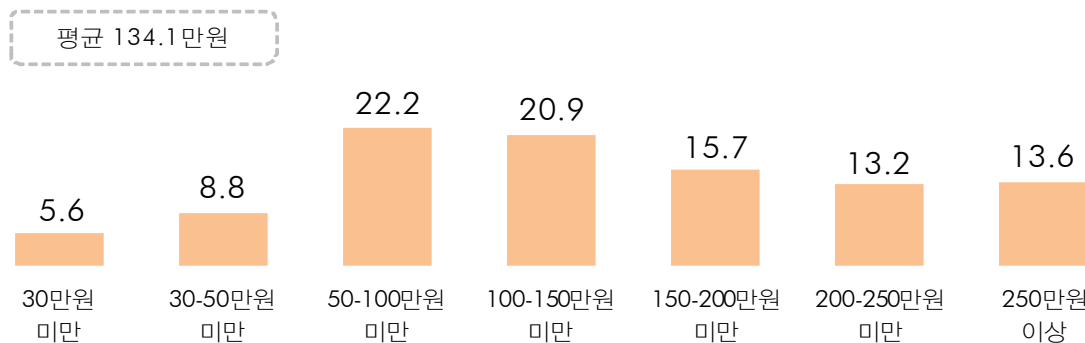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4%(n=3,915)]

▶ '50-100만원 미만'(22.2%), '100-150만원 미만'(20.9%) 등 월 평균 생활비는 134.1만원

월 평균 생활비로 '50-100만원 미만'(22.2%), '100-150만원 미만'(20.9%) 등 [50-150만원 미만(43.1%)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50-200만원 미만'(15.7%), '250만원 이상'(13.6%), '200-250만원 미만'(13.2%), '30-50만원 미만'(8.8%), '30만원 미만'(5.6%) 순으로 월 평균 생활비는 134.1만원이었다. 연 평균 가구소득이 높았던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월 평균 생활비 역시 높고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월 평균 생활비가 높은 반면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1341 | 월 평균 생활비

단위 : %



| 표1341 | 월 평균 생활비

단위 : %(명)

구분		평균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합계 (3,915)		134.1만원	5.6	8.8	22.2	20.9	15.7	13.2	13.6
읍/면	읍 (1,822)	154.9만원	3.1	5.5	18.5	19.2	19.1	15.9	18.7
	면 (2,093)	116.0만원	7.8	11.6	25.4	22.3	12.8	10.9	9.2
영농 여부	농어가 (1,115)	117.5만원	2.7	8.3	30.9	26.1	13.2	10.7	8.2
	비농어가 (2,799)	140.7만원	6.8	9.0	18.7	18.8	16.8	14.3	15.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67)	168.3만원	.7	3.4	15.6	17.4	21.6	20.8	20.5
	40대 (765)	188.8만원	1.4	.6	8.1	21.0	21.8	20.9	26.1
	50대 (750)	151.6만원	1.2	4.4	19.2	27.5	16.6	15.6	15.5
	60대 (611)	101.3만원	3.9	10.4	34.9	26.8	12.9	6.1	5.0
	70대 이상 (840)	59.5만원	19.6	24.8	35.7	12.9	4.3	2.0	.7

1342> 저축 현황

▶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가 43.1%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가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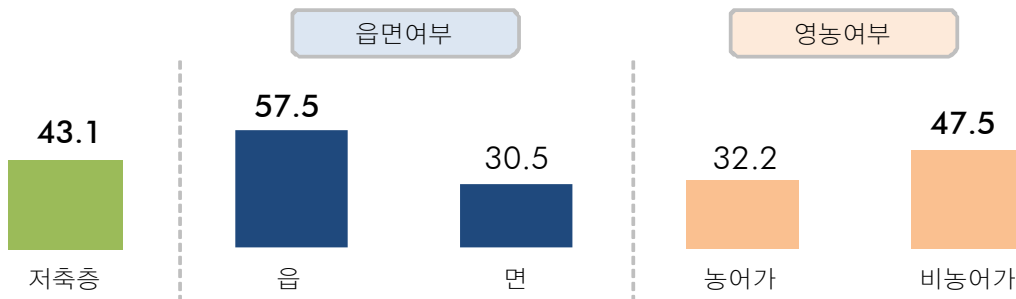
귀댁에서는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기준]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저축층'이 43.1%로 나타난 가운데, 연 평균 가구소득이 높았던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저축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림1342 - (1) | 저축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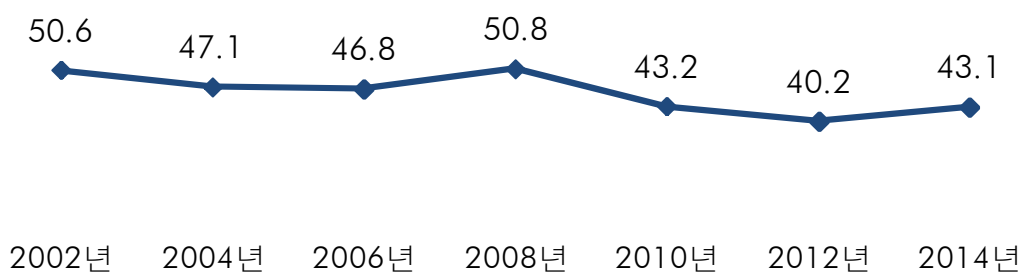


 저축현황 - 추이

● 2010년에 저축층이 감소(-7.6%p)한 이후 최근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림1342 - (2) | 저축 현황 - 추이

단위: %



1343>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조사대상 가구(n=3,939) 기준/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해 '다소 불만족하는 수준'(40.3점)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종합만족도가 평균 40.3점으로 '다소 불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인 느낌을 반영한 체감만족도(42.3점)가 각 평가 속성별 만족도를 환산한 차원 만족도(38.3점)에 비해 높았다.

세부 평가 속성별로 '가계의 부채 수준'(평균 51.5점)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 수준'(평균 42.0점), '가계의 소득수준'(평균 40.3점), '가계의 순자산 수준'(평균 37.3점), '여유자금'(평균 36.2점), '노후준비금'(평균 34.2점), '저축하고 있는 금액'(평균 31.7점) 순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저축층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1343 |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단위: 점

구분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가계의 소득 수준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 수준	저축 하고 있는 금액	가계의 순자산 수준	가계의 부채 수준	여유 자금	노후 준비금
		종합 만족도	체감 만족도	차원 만족도							
합계		40.3	42.3	38.3	40.3	42.0	31.7	37.3	51.5	36.2	34.2
읍/면	읍	42.0	43.9	40.2	41.7	42.9	35.9	38.0	52.2	39.1	36.9
	면	38.8	41.0	36.6	39.0	41.2	28.0	36.7	50.9	33.7	31.9
영농 여부	농어가	39.6	42.2	36.9	39.0	41.0	29.1	38.1	47.9	34.3	33.0
	비농어가	40.6	42.4	38.8	40.8	42.4	32.7	37.0	52.9	37.0	34.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44.4	46.5	42.3	45.2	45.8	38.8	38.6	53.4	41.3	38.0
	40대	41.4	44.5	38.3	39.6	42.5	34.3	36.1	46.9	37.1	35.3
	50대	40.0	41.4	38.6	41.1	43.0	31.6	37.8	48.2	36.7	35.2
	60대	39.3	41.3	37.3	38.5	40.7	29.1	38.1	52.9	35.0	32.8
	70대 이상	36.4	38.0	34.9	37.0	38.4	24.0	36.4	55.6	31.2	29.9
저축 현황	저축층	47.0	49.1	44.9	46.4	47.9	43.8	42.7	54.9	42.6	40.6
	비저축층	35.2	37.2	33.2	35.6	37.6	22.4	33.2	48.9	31.4	29.4

1344>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여건 변화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여건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38)]

▶ [좋아진 편(합)](22.6%) < [나빠진 편(합)](28.7%)

과거 5년 전에 비해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여건이 ‘나빠진 편’(27.0%), ‘매우 나빠짐’(1.7%) 등 [나빠진 편(합)]이라는 응답이 28.7%로 ‘좋아진 편’(21.7%), ‘매우 좋아짐’(0.9%) 등 [좋아진 편(합)](22.6%)이라는 응답보다 다소 높았다. 한편, ‘보통’이라는 의견이 절반수준(48.7%)으로 5년 전과 비슷한 수준(평균 48.3점)이라는 평가였다.

계층에 관계없이 ‘보통’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저축을 하고 있는 층에서 경제활동여건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표1344 | 지역의 경제활동여건 변화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좋아짐	좋아진 편	좋아진 편(합)	보통	나빠진 편	매우 나빠짐	나빠진 편(합)
합계 (3,938)		48.3점	0.9	21.7	22.6	48.7	27.0	1.7	28.7
읍/면	읍 (1,838)	49.6점	0.8	23.0	23.9	51.0	23.9	1.2	25.1
	면 (2,100)	47.2점	1.0	20.4	21.5	46.8	29.7	2.1	31.8
영농 여부	농어가 (1,119)	47.5점	0.4	22.0	22.4	46.5	29.2	1.9	31.1
	비농어가 (2,819)	48.6점	1.2	21.5	22.7	49.6	26.1	1.6	27.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52.5점	2.0	24.8	26.7	56.0	15.9	1.3	17.3
	40대 (768)	50.0점	0.9	25.5	26.4	48.0	24.0	1.7	25.6
	50대 (758)	46.5점	0.5	21.1	21.6	44.4	31.8	2.2	34.0
	60대 (613)	45.4점	0.9	18.0	18.9	45.2	33.7	2.2	35.9
	70대 이상 (843)	46.1점	0.4	19.3	19.7	45.9	33.1	1.3	34.4
저축 현황	저축층 (1,699)	52.5점	1.8	27.2	28.9	51.2	19.1	0.7	19.9
	비저축층 (2,239)	45.1점	0.3	17.5	17.8	46.9	32.9	2.4	35.3

1345> 향후 5년 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여건 전망

향후(약 5년 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여건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37)]

▶ [좋아질 것(합)](27.7%) > [나빠질 것(합)](20.6%)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전망으로서 ‘좋아질 것’(26.2%), ‘매우 좋아질 것’(1.5%) 등 [좋아질 것(합)]이라는 응답이 27.7%로, ‘나빠질 것’(19.0%), ‘매우 나빠질 것’(1.6%) 등 [나빠질 것(합)](20.6%)이라는 응답에 비해 약간 많았다. 한편, ‘보통’이라는 의견이 51.7%로 5년 전 대비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평가보다 약간 긍정적인 평가(평균 51.7점)를 보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영업/직장인층, 저축을 하고 있는 층,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층에서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 표1345 | 지역의 경제활동여건 전망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좋아질 것	좋아질 것	좋아질 것 (합)	보통	나빠질 것	매우 나빠질 것	나빠질 것 (합)
합계 (3,937)			51.7점	1.5	26.2	27.7	51.7	19.0	1.6	20.6
읍/면	읍 (1,837)	53.4점	1.4	27.7	29.1	55.0	14.5	1.3	15.8	
	면 (2,100)	50.3점	1.5	24.9	26.4	48.7	23.0	1.8	24.8	
영농 여부	농어가 (1,118)	49.8점	0.9	24.3	25.2	49.7	23.4	1.7	25.0	
	비농어가 (2,819)	52.5점	1.7	27.0	28.7	52.5	17.3	1.5	18.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56.8점	3.5	33.2	36.7	51.5	10.8	1.1	11.9	
	40대 (768)	53.9점	1.4	30.7	32.1	51.0	16.0	0.9	16.9	
	50대 (758)	50.6점	0.7	25.7	26.4	50.9	20.5	2.1	22.6	
	60대 (612)	47.4점	0.6	20.4	21.0	48.6	28.4	1.9	30.3	
	70대 이상 (843)	48.7점	0.9	20.3	21.2	53.2	23.4	2.0	25.5	
응답자 직업	농어업종사자 (932)	49.5점	1.1	24.1	25.1	48.2	24.7	1.8	26.5	
	자영업/직장인 (1,355)	54.0점	2.2	29.3	31.5	52.1	15.1	1.4	16.5	
	주부/무직/기타 (1,563)	51.1점	1.1	25.3	26.5	52.1	19.8	1.6	21.4	
저축 현황	저축층 (1,698)	55.8점	2.4	32.4	34.8	51.9	12.7	0.6	13.3	
	비저축층 (2,239)	48.6점	0.7	21.5	22.3	51.5	23.8	2.3	26.1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희망층 (56)	50.0점		25.6	25.6	51.3	20.6	2.5	23.1	
	비희망층 (777)	47.8점	1.1	17.6	18.7	55.6	22.9	2.8	25.7	

1346>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8.4%(n=3,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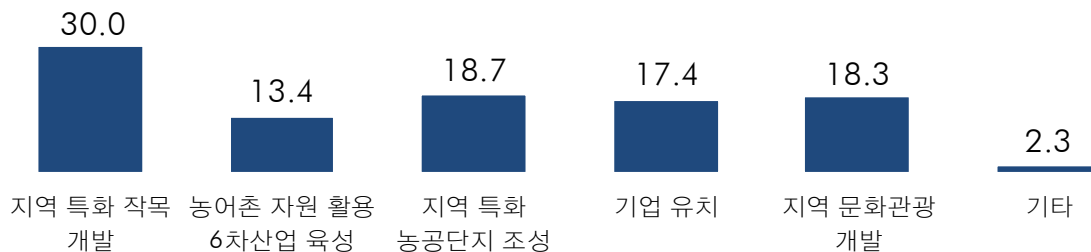
▶ '지역 특화 작목 개발'(30.0%)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영역으로 '지역 특화 작목 개발'(30.0%)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 특화 농공단지 조성'(18.7%), '지역 문화관광 개발'(18.3%), '기업유치'(17.4%), '농어촌 자원 활용 6차산업 육성'(13.4%) 순이었다.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역 특화 작목 개발'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역 문화관광 개발', '기업유치' 비중이 높았다.

| 그림1347 |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영역

단위 : %



| 표1346 |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영역

단위 : %(명)

구분			지역 특화 작목 개발	농어촌 자원 활용 6차산업 육성	지역 특화 농공단지 조성	기업 유치	지역 문화관광 개발	기타
합계 (3,877)			30.0	13.4	18.7	17.4	18.3	2.3
읍/면	읍	(1,803)	26.7	12.7	20.5	18.7	19.5	1.9
	면	(2,074)	32.9	14.0	17.0	16.2	17.2	2.7
영농 여부	농어가	(1,107)	41.7	17.0	17.3	9.6	11.8	2.6
	비농어가	(2,770)	25.3	11.9	19.2	20.5	20.9	2.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62)	24.7	10.5	15.9	22.3	25.1	1.5
	40대	(763)	23.4	16.4	21.7	16.8	19.9	1.8
	50대	(751)	32.3	13.7	15.9	19.1	17.0	2.0
	60대	(601)	32.2	13.3	21.6	15.2	15.4	2.4
	70대 이상	(818)	38.1	14.1	17.8	12.9	13.0	4.1

1400> 문화·여가

- 1411> 여가활동의 목적
- 1412> 주된 여가활동 실태
- 1413>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 1414> 체육활동 경험
- 1415> 여행 경험
- 1416>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 1417> 동호회 활동 실태
- 1418> 동호회 활성화 필요 요소
- 1419> 지역사회 공동 문화활동 실태
- 1420>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필요 요소
- 1421> 희망 문화여가활동 실태
- 1422>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 1431>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 1432>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 1433>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 1434>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여건 변화

1411 > 여가활동의 목적

귀하께서 여가활동 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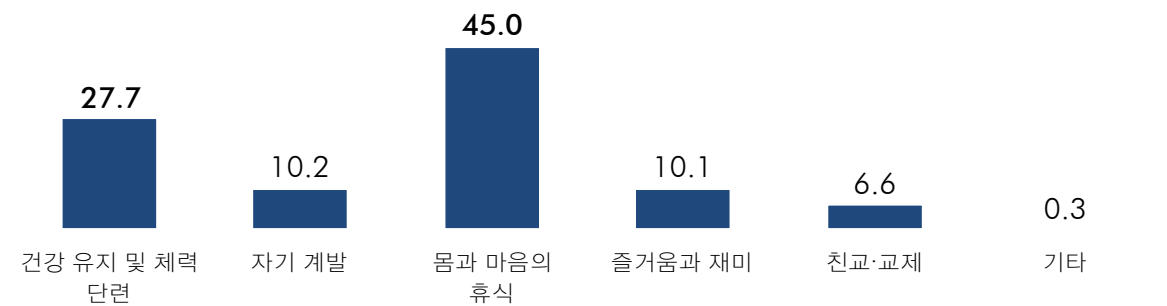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3%(n=3,912)]

▶ ‘몸과 마음의 휴식’(45.0%)이 주된 목적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45.0%)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강 유지 및 체력 단련’(27.7%), ‘자기계발’(10.2%), ‘즐거움과 재미’(10.1%), ‘친교·교제’(6.6%) 순이었다.

면지역, 연령대가 높을수록 ‘몸과 마음의 휴식’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에서 ‘건강 유지 및 체력 단련’,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기계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림1411 | 여가활동 목적 단위 : %



| 표1411 | 여가활동 목적 단위 : %(명)

구분			건강유지 및 체력 단련	자기 계발	몸과 마음의 휴식	즐거움과 재미	친교·교제	기타
합계 (3,912)			27.7	10.2	45.0	10.1	6.6	0.3
읍/면	읍	(1,824)	34.1	13.7	37.0	9.9	4.8	0.4
	면	(2,088)	22.1	7.1	52.1	10.4	8.1	0.2
영농 여부	농어가	(1,116)	24.3	3.9	53.2	10.5	8.1	0.2
	비농어가	(2,797)	29.1	12.7	41.8	10.0	6.0	0.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67)	27.8	21.5	35.0	10.6	4.9	0.2
	40대	(760)	30.9	14.3	39.3	9.9	5.3	0.3
	50대	(752)	30.7	7.2	44.9	11.1	5.9	0.3
	60대	(611)	27.8	3.9	50.5	9.9	7.6	0.2
	70대 이상	(839)	19.6	2.1	58.7	9.6	9.6	0.4

1412 > 주된 여가활동 실태

- ▶ 'TV 및 라디오 시청'(29.2%)이 주된 여가활동, '혼자'(33.9%), '가족·친지'(33.4%)가 주된 동반자
- ▶ '주 4회 이상'(33.4%) 빈도가 높고, '자택(집)'(49.2%)이 주된 여가활동 장소
- ▶ '자가용'(41.2%), '도보'(38.8%) 이용률이 비슷한 수준, 여가활동 장소까지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12.1분



'TV 및 라디오 시청'(29.2%)이 주된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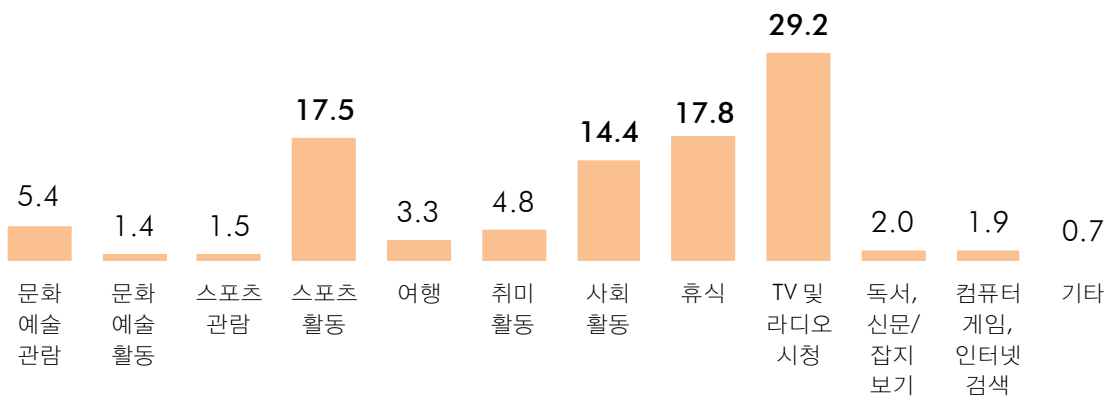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7%(n=3,929)]

'TV 및 라디오 시청'(29.2%)이 주된 여가활동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포츠활동'(17.5%), '스포츠관람'(1.5%) 등 [스포츠 관련 활동](19.0%), '휴식'(17.8%), '사회활동'(14.4%), '문화예술관람'(5.4%), '문화예술활동'(1.4%) 등 [문화예술 관련활동](6.8%), '취미활동'(4.8%), '여행'(3.3%), '독서, 신문/잡지 보기'(2.0%),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1.9%) 순이었다.

| 그림 1412 - (1) | 주된 여가활동

단위 : %



면지역, 농어가에서 'TV 및 라디오 시청'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스포츠활동',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문화예술관람' 비중이 높았다.

건강 유지 및 체력단련이 여가활동의 주된 목적이었던 층에서 '스포츠활동', 자기계발이 주된 목적이었던 층에서 '문화예술관람', '취미활동', 몸과 마음의 휴식이었던 층에서 '휴식', 'TV 및 라디오 시청', 즐거움과 재미, 친교·교제였던 층에서 '사회활동' 비중이 높았다.

| 표1412-(1) | 주된 여가활동

단위 : %(명)

구분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여행	취미 활동	사회 활동	휴식	TV 및 라디오 시청	독서, 신문/ 잡지 보기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합계			(3,929)	5.4	1.4	1.5	17.5	3.3	4.8	14.4	17.8	29.2	2.0	1.9
읍/면	읍	(1,833)	8.2	1.3	1.6	24.4	5.5	5.8	11.3	17.0	19.7	2.4	2.0	
	면	(2,095)	3.0	1.5	1.5	11.4	1.5	4.0	17.1	18.5	37.5	1.6	1.9	
영농 여부	농어가	(1,118)	1.1	1.3	2.8	11.1	1.5	2.5	18.6	19.0	39.3	1.1	0.8	
	비농어가	(2,811)	7.1	1.5	1.1	20.0	4.1	5.7	12.7	17.3	25.2	2.3	2.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13.7	2.0	1.3	23.0	6.2	7.6	10.1	15.0	13.0	1.8	5.9	
	40대	(762)	8.0	1.3	3.7	23.2	4.8	5.5	7.6	17.2	22.8	3.2	1.9	
	50대	(756)	2.4	1.9	1.2	19.4	3.4	4.6	13.1	20.6	29.6	2.2	0.9	
	60대	(611)	0.7	1.0	1.0	13.9	2.0	4.5	15.3	18.0	40.7	1.6	0.6	
	70대 이상	(843)	0.8	0.9	0.7	6.0	0.2	1.9	24.8	18.7	44.3	1.0		
여가 활동 목적	건강유지및체력단련	(1,081)	2.0	0.6	2.7	52.0	3.9	2.8	6.7	11.8	14.9	0.7	1.3	
	자기 계발	(399)	29.7	4.5	1.4	7.4	5.0	20.2	8.6	5.6	6.1	6.1	3.0	
	몸과 마음의 휴식	(1,759)	1.9	0.4	0.9	3.0	2.2	2.1	9.8	28.6	46.7	2.0	1.9	
	즐거움과 재미	(396)	6.5	4.9	2.5	7.8	6.9	7.2	25.6	7.4	25.7	0.6	4.5	
	친교·교제	(258)	4.7	1.2		3.4		3.6	68.5	4.8	12.0	1.2		
	기타	(12)	4.6		5.5	3.6	11.8		6.2		40.0			

*1.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혼자'(33.9%), '가족·친지'(33.4%)가 주된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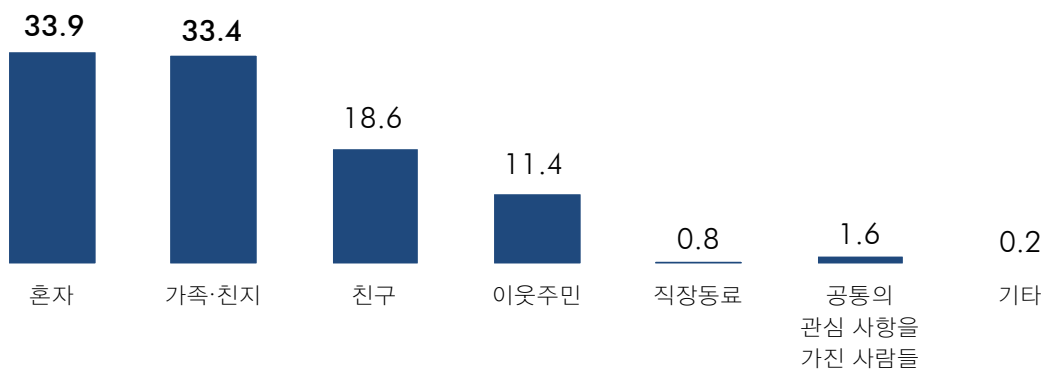
그 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7%(n=3,928)]

주된 여가활동 동반자로 '혼자'(33.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가족·친지'(33.4%) 비중도 높았다. 다음으로 '친구'(18.6%), '이웃주민'(11.4%),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1.6%), '직장동료'(0.8%) 순이었다.

| 그림1412 - (2) | 주된 여가활동 동반자

단위: %



면지역, 연령대가 높을수록 ‘혼자’, ‘이웃주민’ 비중이 높은 반면,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친지’, ‘친구’ 비중이 높았다.

주된 여가활동이 문화예술관람, 여행이었던 층에서 ‘가족·친지’ 비중이 높은 반면, 취미활동인 층에서 ‘친구’, 사회활동인 층에서 ‘친구’, ‘이웃주민’, 휴식, TV 및 라디오 시청, 독서, 신문/잡지 보기,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인 층에서 ‘혼자’ 비중이 높았다.

| 표1412-(2) | 주된 여가활동 동반자

단위: %(명)

구분			혼자	가족·친지	친구	이웃주민	직장동료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	기타
합계 (3,928)			33.9	33.4	18.6	11.4	0.8	1.6	0.2
읍/면	읍	(1,833)	29.9	35.1	24.5	7.3	1.1	1.9	0.2
	면	(2,095)	37.4	31.8	13.5	15.1	0.6	1.4	0.2
영농 여부	농어가	(1,117)	34.0	37.4	11.6	15.2	0.4	1.4	
	비농어가	(2,811)	33.9	31.8	21.5	9.9	1.0	1.7	0.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26.4	36.6	29.1	4.1	1.9	1.7	0.2
	40대	(762)	29.4	40.0	22.2	5.1	0.4	2.7	0.1
	50대	(755)	34.6	36.6	19.0	6.3	1.4	2.1	
	60대	(611)	39.6	30.1	12.6	15.7	0.1	1.4	0.6
	70대 이상	(843)	42.4	23.2	8.9	24.9	0.1	0.4	0.1
주된 여가 활동	문화예술관람	(212)	6.9	70.7	20.9	1.2		0.3	
	문화예술활동	(56)	20.5	27.9	21.8	23.3		6.4	
	스포츠관람	(61)	41.5	33.2	17.3	8.0			
	스포츠활동	(687)	18.9	24.6	41.4	7.1	2.7	5.3	
	여행	(131)	2.8	71.2	25.8	0.2			
	취미활동	(190)	21.7	20.4	38.5	13.3	1.6	4.6	
	사회활동	(565)	3.0	16.4	32.7	43.9	0.4	2.7	1.0
	휴식	(700)	43.5	39.8	8.6	7.7	0.4		
	TV 및 라디오 시청	(1,146)	55.8	37.6	1.9	4.1	0.5		0.1
	독서, 신문/잡지 보기	(78)	89.8	7.9	2.4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76)	84.0	10.8	3.2	1.9			
	기타	(27)	44.5	28.3	10.8	12.9			3.5



'주 4회 이상'(33.4%)이 주된 여가활동 빈도

그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6%(n=3,923)]

여가활동의 빈도는 '주 4회 이상'(33.4%)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 2-3회'(21.4%), '월 1-3회 정도'(20.4%), '주 1회 정도'(18.2%), '2-3개월에 1회 정도'(4.3%), '4-6개월에 1회 정도'(1.4%), '연 1회 정도'(0.9%) 순이었다.

| 표1412-(3) | 주된 여가활동 빈도

단위 : %(명)

구분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정도	월 1-3회 정도	2-3 개월에 1회 정도	4-6 개월에 1회 정도	연 1회 정도
합계 (3,923)			33.4	21.4	18.2	20.4	4.3	1.4	0.9
읍/면	읍	(1,831)	27.5	19.1	19.0	27.8	4.4	1.5	0.7
	면	(2,092)	38.6	23.5	17.4	13.9	4.2	1.4	1.0
영농 여부	농어가	(1,115)	33.3	26.3	16.9	18.2	3.1	1.2	1.0
	비농어가	(2,808)	33.5	19.5	18.7	21.2	4.8	1.5	0.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19.4	22.6	21.0	31.1	3.6	1.7	0.6
	40대	(759)	25.2	16.6	24.4	25.1	6.4	1.6	0.7
	50대	(753)	28.9	20.9	20.5	21.7	5.3	1.5	1.2
	60대	(611)	40.0	26.9	16.5	11.3	3.5	1.1	0.7
	70대 이상	(843)	54.6	22.0	9.6	9.0	2.6	1.1	1.1
주된 여가 활동	문화예술관람	(212)	5.0	2.4	19.6	60.4	9.7	2.8	
	문화예술활동	(56)	4.9	34.9	42.7	13.0		4.4	
	스포츠관람	(61)	19.8	13.2	20.3	39.2	6.0	1.4	
	스포츠활동	(687)	26.2	24.0	18.8	29.2	1.4	0.2	0.2
	여행	(131)	3.2	4.3	7.9	55.7	18.9	7.9	2.2
	취미활동	(190)	12.3	18.4	33.1	27.9	5.9	2.3	
	사회활동	(564)	26.3	33.5	22.0	12.6	3.9	0.7	0.9
	휴식	(698)	21.7	22.3	22.2	22.6	8.2	2.4	0.6
	TV 및 라디오 시청	(1,143)	60.8	17.6	11.4	6.5	1.5	0.7	1.5
	독서, 신문/잡지 보기	(78)	50.6	28.1	15.5	5.8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76)	47.9	38.0	8.6	3.7	1.8		
	기타	(27)	29.4	27.3	17.0	6.2	4.0	5.4	10.5

‘자택(집)’(49.2%)이 주된 여가활동 장소, ‘우리 마을 내’(34.3%)가 주된 여가활동 장소 위치

그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와 장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5%(n=3,921)]

‘자택(집)’(49.2%)이 주된 여가활동 장소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민간시설’(19.1%), ‘마을 내 공동시설’(11.6%), ‘읍/면 공공시설’(7.1%), ‘시/군 공공시설’(4.5%) 순이었다. 면지역,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택(집)’ 비중이 높은 반면,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민간시설’ 비중이 높았다.

휴식, TV 및 라디오 시청, 독서, 신문/잡지 보기,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이 주된 여가활동인 층에서 ‘자택(집)’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문화예술관람인 층에서 ‘민간시설’ 문화예술활동인 층에서 ‘읍/면 공공시설’, 사회활동인 층에서 ‘마을 내 공동시설’ 비중이 높았다.

| 표1412 - (4) | 주된 여가활동 장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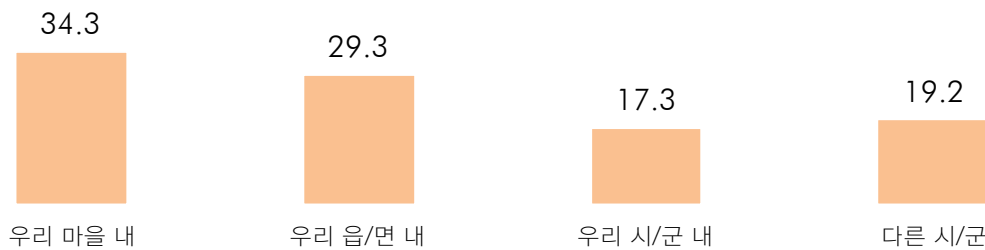
구분			자택 (집)	시/군 공공시설	읍/면 공공시설	마을 내 공동시설	민간 시설	기타
합계 (3,921)			49.2	4.5	7.1	11.6	19.1	8.4
읍/면	읍	(1,828)	38.7	5.6	7.4	9.8	29.1	9.5
	면	(2,093)	58.4	3.6	6.9	13.2	10.5	7.5
영농 여부	농어가	(1,115)	58.4	2.0	8.2	14.7	10.5	6.3
	비농어가	(2,806)	45.6	5.5	6.7	10.4	22.6	9.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2)	37.2	5.9	6.3	5.0	36.7	8.9
	40대	(761)	41.0	9.3	8.1	7.9	23.8	9.8
	50대	(754)	50.6	4.3	8.9	7.8	15.9	12.4
	60대	(611)	60.0	1.8	7.2	14.7	7.1	9.1
	70대 이상	(842)	62.0	0.9	5.4	22.2	6.2	3.3
주된 여가 활동	문화예술관람	(212)	4.9	17.4	1.7	2.5	72.3	1.3
	문화예술활동	(56)	16.9	10.6	31.6	3.4	26.4	11.1
	스포츠관람	(61)	40.0	4.7	8.1	8.1	39.2	
	스포츠활동	(685)	4.6	7.7	19.7	16.0	33.1	18.9
	여행	(131)	3.4	11.4	0.4	1.3	49.7	33.7
	취미활동	(190)	23.9	11.9	14.1	6.4	24.3	19.3
	사회활동	(562)	25.7	3.6	7.5	39.9	14.6	8.6
	휴식	(697)	59.1	1.9	5.1	8.0	18.6	7.2
	TV 및 라디오 시청	(1,146)	95.2	0.2	0.7	3.2	0.3	0.4
	독서, 신문/잡지 보기	(78)	96.1	2.6	0.8	0.5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76)	91.0	1.8	0.9		6.2	

한편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의 위치는 ‘우리 마을 내’(34.3%)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우리 읍/면 내’(29.3%), ‘다른 시/군’(19.2%), ‘우리 시/군 내’(17.3%) 순이었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마을 내 공동시설 이용층에서 ‘우리 마을 내’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시/군 공공시설, 민간시설 이용층에서 ‘우리 시/군 내’ 비중이 높았다.

| 그림1412 - (3) | 주된 여가활동 장소 위치

단위 : %



| 표1412 - (5) | 주된 여가활동 장소 위치

단위 : %(명)

구분		우리 마을 내	우리 읍/면 내	우리 시/군 내	다른 시/군
합계 (1,981)		34.3	29.3	17.3	19.2
읍/면	읍 (1,113)	28.9	32.3	15.6	23.2
	면 (868)	41.2	25.4	19.3	14.0
영농 여부	농어가 (465)	43.2	29.1	16.0	11.7
	비농어가 (1,516)	31.5	29.3	17.7	21.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43)	17.9	31.0	22.4	28.7
	40대 (445)	27.6	27.1	23.3	22.0
	50대 (372)	34.3	27.8	18.6	19.3
	60대 (243)	51.7	26.9	10.9	10.5
	70대 이상 (319)	62.9	25.5	4.8	6.8
여가활동 장소	시/군 공공시설 (176)	9.2	20.3	48.6	21.9
	읍/면 공공시설 (276)	26.0	66.4	7.4	0.2
	마을 내 공동시설 (454)	80.3	16.1	3.7	
	민간시설 (742)	10.9	31.6	23.5	33.9
	기타 (327)	44.0	16.1	13.6	26.4

 '자가용'(41.2%), '도보'(38.8%) 이용률이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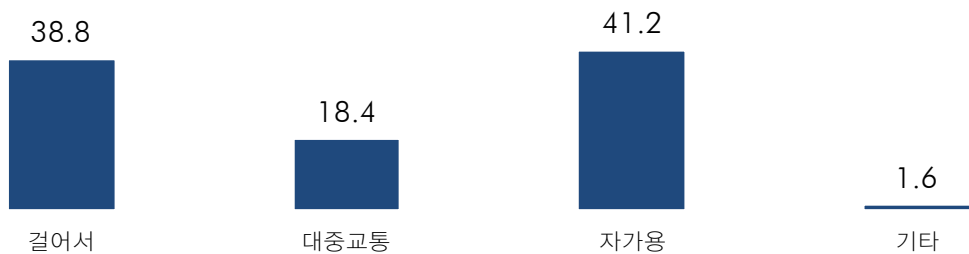
그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로 이동 시 주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여가활동 장소로 '자택'을 제외한 1,991가구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6%(n=1,983)]

여가활동 장소까지 이동하는 수단으로 '자가용'(41.2%), '걸어서'(38.8%)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층은 18.4%로 나타났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걸어서'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가용' 비중이 높았다.

| 그림1412 - (4) | 여가활동 장소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



| 표1412 - (6) | 여가활동 장소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합계 (1,983)			38.8	18.4	41.2	1.6
읍/면	읍 (1,113)		31.4	20.6	46.5	1.5
	면 (870)		48.4	15.6	34.3	1.7
영농 여부	농어가 (465)		46.3	16.2	34.6	2.9
	비농어가 (1,518)		36.5	19.1	43.2	1.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43)		21.1	24.6	53.7	0.5
	40대 (447)		31.4	10.9	57.1	0.5
	50대 (372)		37.8	15.0	43.5	3.6
	60대 (243)		60.9	15.0	21.1	3.0
	70대 이상 (319)		68.7	20.3	9.2	1.8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12.1분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여가활동 장소로 '자택'을 제외한 1,991가구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2%(n=1,976)]

여가활동 장소까지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으로 '30분-1시간 미만'(29.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0-20분 미만'(26.5%), '20-30분 미만'(15.0%), '5-10분 미만'(14.9%), '1시간 이상'(9.6%), '5분 미만'(4.8%)순으로 평균 소요시간은 12.1분 이었다.

여가활동 장소로 '민간시설', 여가활동 장소 위치로 '우리 시/군 내', 교통수단으로 '자가용' 비중이 높았던 읍지역,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층에서 편도 소요시간이 다소 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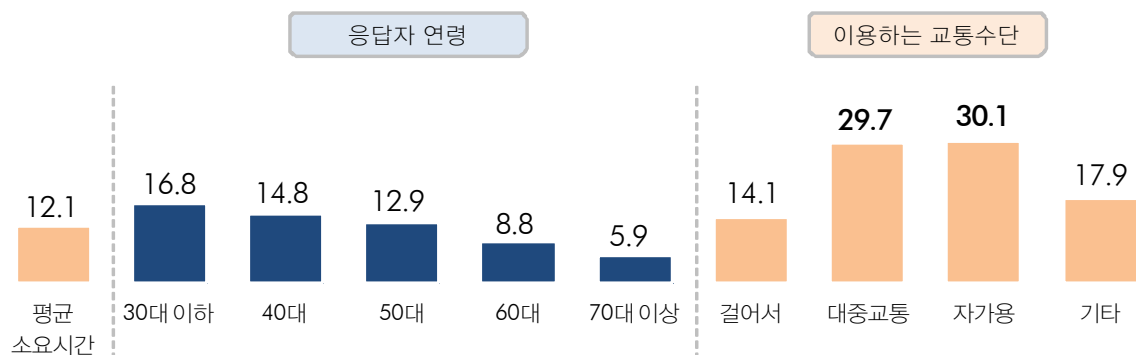
| 표1412 - (7) | 여가활동 장소까지 편도 소요시간

단위 : %(명)

구분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합계 (1,976)		12.1분	4.8	14.9	26.5	15.0	29.2	9.6
읍/면	읍 (1,110)	15.3분	3.5	12.5	24.4	17.0	32.9	9.7
	면 (865)	9.3분	6.5	17.9	29.3	12.4	24.5	9.5
영농 여부	농어가 (461)	8.6분	7.6	22.2	25.7	8.7	30.4	5.3
	비농어가 (1,514)	13.5분	4.0	12.6	26.7	16.9	28.9	10.9

| 그림1412 - (5) | 여가활동 장소까지 편도 소요시간

단위 : 분



1413>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문화예술프로그램이나 스포츠를 관람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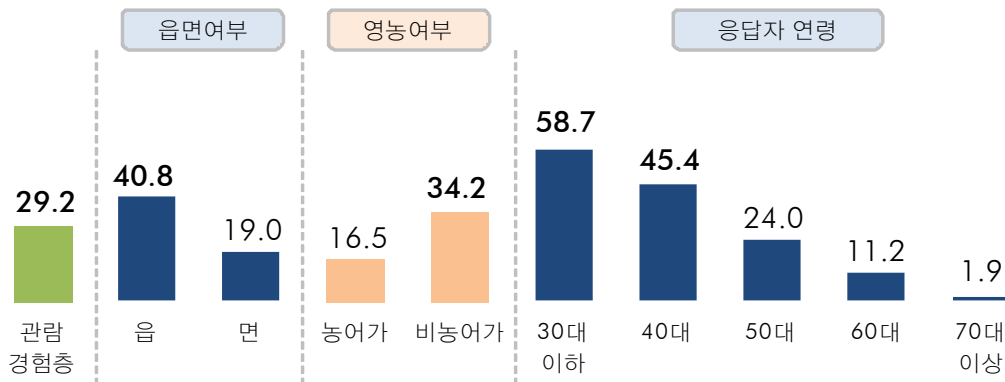
[관람 경험 여부 : 조사대상 가구(n=3,939) 기준, 관람횟수 : 관람층(n=1,149) 기준]

▶ ‘관람 경험층’이 29.2%, 관람층의 총 관람 횟수는 평균 7.6회, 무료관람 횟수는 평균 0.8회

1410>
문화여가
활동
참여

‘관람 경험층’이 29.2%로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험층 비중이 높았다.

| 그림1413 - (1)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단위 : %



관람층(n=1,149)의 총 관람 횟수는 평균 7.6회로 ‘영화 관람’(평균 5.0회) 횟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박물관 관람’, ‘스포츠 관람’(각 평균 0.6회), ‘전시회 관람’, ‘연극, 무용공연 관람’(각 평균 0.4회), ‘음악연주회 관람’(평균 0.3회), ‘전통예술공연 관람’, ‘연예공연 관람’(각 평균 0.2회) 순으로 다소 낮았다.

| 그림1413 - (2) | 문화예술프로그램 평균 관람 횟수 단위 : 회



관람층 비중이 높은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총 관람 횟수 역시 많았다.

| 표1413-(1) | 총 관람 횟수

단위: 회

구분		총 관람 횟수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 연주회 관람	전통 예술 공연 관람	연극, 무용 공연 관람	영화 관람	연예 공연 관람	스포츠 관람
합계		7.6	0.4	0.6	0.3	0.2	0.4	5.0	0.2	0.6
읍/면	읍	7.6	0.4	0.6	0.2	0.1	0.4	5.0	0.2	0.6
	면	7.6	0.5	0.6	0.3	0.2	0.3	4.9	0.3	0.6
영농 여부	농어가	5.6	0.3	0.5	0.2	0.2	0.1	4.0	0.2	0.3
	비농어가	8.0	0.5	0.6	0.3	0.1	0.5	5.2	0.2	0.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	0.5	0.8	0.2	0.1	0.6	5.8	0.2	0.4
	40대	7.4	0.5	0.4	0.3	0.1	0.2	5.1	0.2	0.6
	50대	6.9	0.3	0.3	0.3	0.3	0.3	4.1	0.1	1.1
	60대	3.8	0.4	0.5	0.2	0.3	0.1	1.9	0.2	0.4
	70대 이상	3.0	0.0	0.7	0.1	0.3	0.0	1.2	0.1	0.5

총 관람 횟수 중 무료 관람 횟수는 평균 0.8회로 나타났으며, ‘영화관람’, ‘박물관 관람’ 횟수는 각 평균 0.2회로, ‘전시회 관람’, ‘음악연주회 관람’, ‘전통예술공연 관람’, ‘연예공연 관람’, ‘스포츠 관람’(각 평균 0.1회) 횟수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평균 무료관람 횟수는 농어가에서 약간 많았다.

| 표1413-(2) | 총 관람 횟수 중 무료 관람 횟수

단위: 회

구분		무료 관람 횟수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 연주회 관람	전통 예술 공연 관람	연극, 무용 공연 관람	영화 관람	연예 공연 관람	스포츠 관람
합계		0.8	0.1	0.2	0.1	0.1		0.2	0.1	0.1
읍/면	읍	0.8	0.1	0.2	0.1	0.1		0.2		0.1
	면	0.8	0.1	0.2	0.1	0.1	0.1	0.2	0.1	0.1
영농 여부	농어가	1.3	0.1	0.3		0.1		0.6		0.1
	비농어가	0.7	0.1	0.2	0.1	0.1		0.1	0.1	0.1

1414> 체육활동 경험

- ▶ 체육활동 경험층이 26.0%, 경험층의 평균 경험 횟수는 9.8회
- ▶ '걷기'(30.4%), '체력단련운동'(27.8%)이 주된 체육활동



체육활동 경험층이 26.0%, 경험층의 평균 경험 횟수는 9.8회

귀하께서는 [지난 1개월 동안(2014.8.1.~2014.8.31.)] 여가시간에 30분 이상 체육활동(일상생활의 걷기 제외) 경험이 있으십니까?

[체육활동 경험 - 조사대상자(n=3,939) 기준, 체육활동 횟수 - 경험층(n=1,026)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2.0%(n=944)]

지난 1개월 간 체육활동 '경험층'이 26.0%로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험층 비중이 높았다.

경험층(n=944)의 체육활동경험 횟수로 '34회'(20.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0-15회 미만'(19.6%), '5-10회 미만'(19.4%), '1-2회'(15.8%), '20-25회 미만'(9.5%), '25회 이상'(8.0%), '15-20회 미만'(7.5%) 순으로 평균 체육활동 횟수는 9.8회였다.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균 체육활동 경험횟수가 많았다.

| 표1414 - (1) | 지난 1개월 간 체육활동 경험

단위 : %(명)

구분		경험 여부		경험 횟수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평균	1-2회	3-4회	5-10회 미만	10-15회 미만	15-20회 미만	20-25회 미만	25회 이상
합계		(3,939)	26.0	(944)	9.8회	15.8	20.2	19.4	19.6	7.5	9.5	8.0
읍/면	읍	(1,838)	32.9	(546)	9.8회	14.8	21.5	18.3	21.1	6.9	9.6	7.7
	면	(2,101)	20.1	(397)	9.7회	17.3	18.5	20.8	17.4	8.3	9.4	8.3
영농 여부	농어가	(1,120)	16.9	(184)	10.4회	14.6	19.8	23.8	14.2	7.0	9.1	11.5
	비농어가	(2,819)	29.7	(760)	9.6회	16.1	20.3	18.3	20.9	7.6	9.6	7.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30.6	(242)	8.9회	16.8	24.0	15.6	18.8	10.1	12.2	2.6
	40대	(768)	33.1	(220)	8.6회	22.5	18.3	18.7	22.3	7.0	5.4	5.9
	50대	(758)	31.1	(223)	9.3회	14.5	25.8	21.2	15.9	3.8	10.8	8.0
	60대	(613)	22.2	(133)	12.1회	12.4	11.6	25.1	15.7	7.2	11.2	16.8
	70대 이상	(844)	12.0	(98)	11.8회	8.6	17.5	21.9	16.4	12.8	9.7	13.1



'걷기'(30.4%), '체력단련운동'(27.8%)이 주된 체육활동

귀하께서 주로 하는 체육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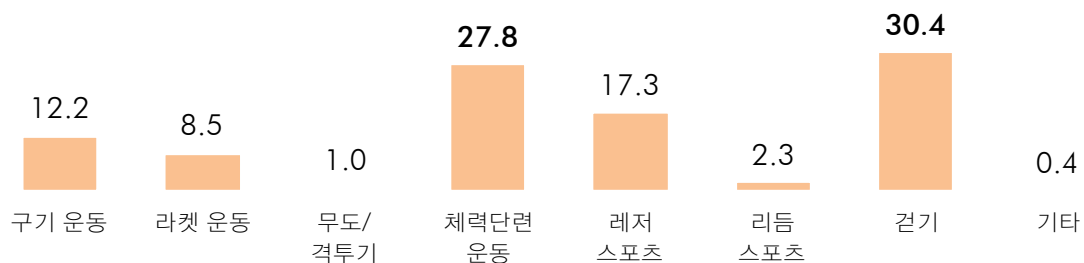
[체육활동 경험층(n=1,026)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9.7%(n=1,023)]

'걷기'(30.4%), '체력단련운동'(27.8%)이 주된 체육활동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레저스포츠'(17.3%), '구기 운동'(12.2%), '라켓 운동'(8.5%), '리듬스포츠'(2.3%), '무도/격투기'(1.0%) 순이었다.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걷기'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체력단련운동' 비중이 높았다.

| 그림1414 - (1) | 주된 체육활동

단위 : %



| 표1414 - (2) | 주된 체육활동

단위 : %(명)

구분		구기 운동	라켓 운동	무도/ 격투기	체력단련 운동	레저 스포츠	리듬 스포츠	걷기	기타
합계 (1,023)		12.2	8.5	1.0	27.8	17.3	2.3	30.4	0.4
읍/면	읍 (603)	10.2	9.3	1.4	30.2	16.6	2.4	29.8	0.1
	면 (420)	15.1	7.4	0.4	24.5	18.5	2.1	31.2	0.9
영농 여부	농어가 (188)	19.8	5.1		19.3	9.3	4.5	41.1	0.9
	비농어가 (835)	10.5	9.3	1.2	29.8	19.1	1.8	28.0	0.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68)	11.9	11.1	2.5	32.7	17.3	2.2	22.2	
	40대 (254)	11.9	10.7	0.7	32.4	16.6	2.6	25.1	
	50대 (235)	12.9	5.6		24.8	22.8	1.5	31.9	0.5
	60대 (135)	9.5	7.4	1.3	15.6	21.3	3.3	39.6	2.0
	70대 이상 (101)	17.4	5.1		15.7	6.6	2.9	51.8	0.4

1415> 여행 경험

▶ 여행 경험층이 45.0%, 경험층의 평균 경험횟수는 1.6회

 여행 경험층이 45.0%, 경험층의 평균 경험횟수는 1.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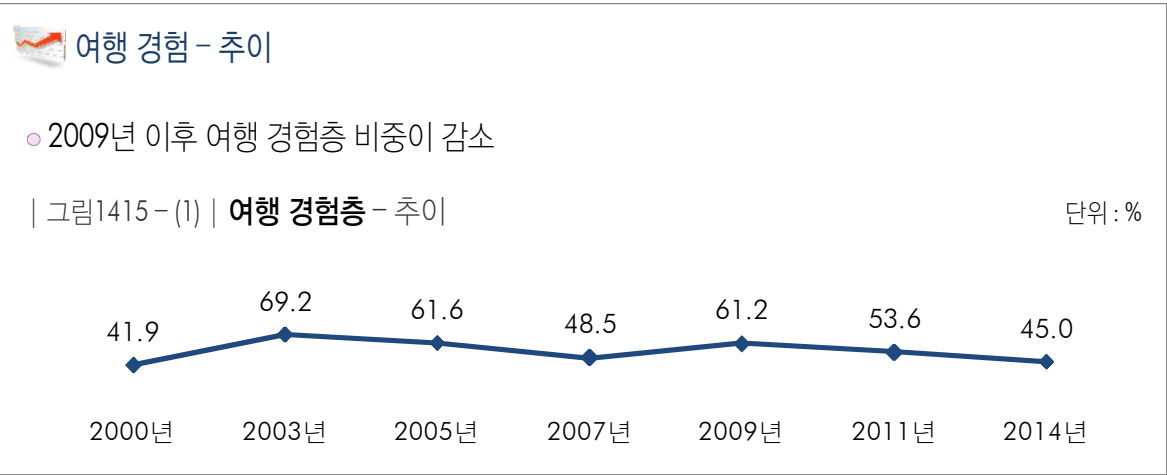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2013년(‘13.1.1.~12.31.)을 기준으로]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행 경험 여부 : 조사대상자(n=3,939) 기준, 여행 실태 : 여행 경험층(n=1,773) 기준]

‘여행 경험층’이 45.0%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 여행 경험층’(36.3%)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내+국외 여행 경험층’(6.0%), ‘국외 경험층’(2.7%) 순이었다.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행 경험률이 높았다.

| 표1415 - (1) | 여행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여행 경험층	국내+국외 여행경험층	국내 여행경험층	국외 여행경험층	비 경험층
합계 (3,939)			45.0	6.0	36.3	2.7	55.0
읍/면	읍 (1,838)		53.0	7.1	42.6	3.3	47.0
	면 (2,101)		38.0	4.9	30.9	2.2	62.0
영농 여부	농어가 (1,120)		42.1	4.5	35.1	2.5	57.9
	비농어가 (2,819)		46.2	6.6	36.8	2.8	53.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63.0	7.7	53.3	1.9	37.0
	40대 (768)		52.2	6.7	43.0	2.5	47.8
	50대 (758)		47.4	7.5	35.4	4.4	52.6
	60대 (613)		36.4	6.2	27.0	3.2	63.6
	70대 이상 (844)		23.5	1.9	19.8	1.8	76.5



1410>
문화여가
활동
참여

‘1회’(14.2%), ‘4회 이상’(13.3%), ‘2회’(11.6%), ‘3회’(5.9%) 등 평균 여행 횟수는 1.6회였다.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국내 여행 평균 경험횟수가 많았다.

| 표1415 - (2) | 여행 횟수

단위 : %(명)

구분			평균	비경험층	경험층(45.0%)			
					1회	2회	3회	4회 이상
합계 (3,939)			1.6회	55.0	14.2	11.6	5.9	13.3
읍/면	읍	(1,838)	2.1회	47.0	14.2	12.6	7.2	19.0
	면	(2,101)	1.1회	62.0	14.1	10.8	4.8	8.3
영농 여부	농어가	(1,120)	1.0회	57.9	16.7	12.9	4.9	7.5
	비농어가	(2,819)	1.8회	53.8	13.2	11.1	6.3	15.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2.9회	37.0	15.5	14.7	7.4	25.5
	40대	(768)	1.9회	47.8	12.1	14.9	7.7	17.6
	50대	(758)	1.5회	52.7	14.8	12.5	8.1	12.0
	60대	(613)	.8회	63.6	16.3	10.4	4.0	5.7
	70대 이상	(844)	.5회	76.5	13.4	5.5	2.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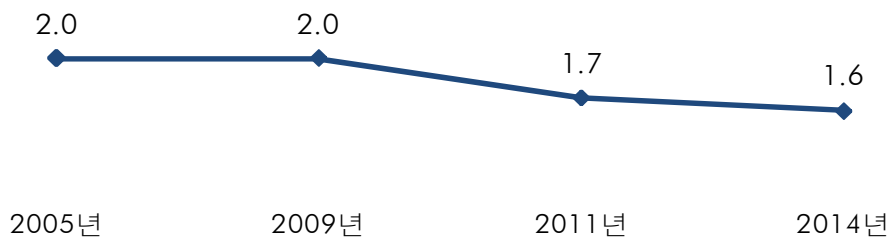


여행 횟수 - 추이

- 2011년 여행 횟수가 약간 감소(-0.3회)한 후 올해는 비슷한 수준

| 그림1415 - (2) | 여행 횟수 - 추이

단위 : 회



1416>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귀하께서는 지난 1년 간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강좌, 강습회 등에 참여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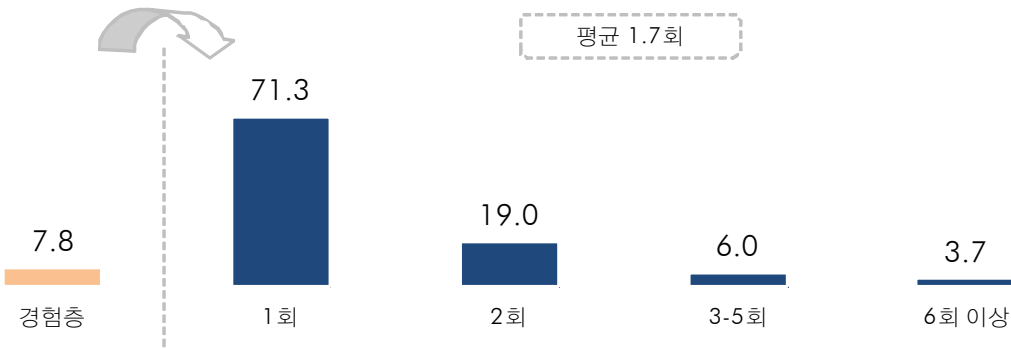
[지도 경험 여부 : 조사대상자(n=3,939) 기준, 지도 횟수 : 경험층(n=309) 기준]

▶ 전문인력 지도 경험층이 7.8%, 경험층의 평균 경험 횟수는 1.7회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강좌, 강습회 등에 참여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층이 7.8%로 나타난 가운데, 전문인력 지도 횟수(n=309)로 ‘1회’(71.3%)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회’(19.0%), ‘3-5회’(6.0%), ‘6회 이상’(3.7%) 순으로 평균 지도 횟수는 1.7회였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면지역, 농어가에서 전문인력 지도 경험 횟수가 약간 많았다.

| 그림1416 |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여부 단위 : %



| 표1416 |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경험 여부		경험 횟수					
		사례수	경험층	사례수	평균	1회	2회	3-5회	6회 이상
합계		(3,939)	7.8	(309)	1.7회	71.3	19.0	6.0	3.7
읍/면	읍	(1,838)	9.8	(181)	1.6회	68.0	22.8	6.7	2.4
	면	(2,101)	6.1	(128)	1.9회	75.9	13.6	5.0	5.5
영농 여부	농어가	(1,120)	7.1	(80)	1.8회	80.2	12.5	5.0	2.3
	비농어가	(2,819)	8.1	(230)	1.7회	68.2	21.3	6.4	4.2

1417 > 동호회 활동 실태

- ▶ 동호회 활동층이 9.7%, 활동층의 참여 동호회 개수는 평균 1.6개
- ▶ 동호회 종류로 '스포츠활동'(52.6%) 등 [스포츠 관련 동호회](54.5%) 비중이 높고, 활동 빈도로 '주 1회 정도'(30.8%), '월1-3회 정도'(25.8%) 비중이 높음
- ▶ 참여경력으로 '5년 이상'이 38.1%, 전문성으로 '중급'이 절반 수준(55.9%)



동호회 활동층이 9.7%, 활동층의 참여 동호회 개수는 평균 1.6개

귀하께서는 [현재(2014.9.1. 기준)] 문화여가활동을 위해 동호회(동우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동호회 활동 여부 - 조사대상자(n=3,939) 기준, 활동 동호회 개수 - 활동층(n=383)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7.0%(n=371)]

동호회 활동층이 9.7%로 국민여가활동조사(2012, 10.1%)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참여율이 높았다.

활동층(n=371)의 활동 동호회 개수로 '1개'(67.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개'(16.3%), '3개'(6.5%), '5개'(5.3%), '4개'(4.0%) 순으로 평균 참여 동호회 개수는 1.6개였다.

| 표1417 - (1) | 동호회 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활동 여부		활동 동호회 개수						
		사례수	활동층	사례수	평균	1개	2개	3개	4개	5개
합계		(3,939)	9.7	(371)	1.6개	67.9	16.3	6.5	4.0	5.3
읍/면	읍	(1,838)	12.2	(219)	1.7개	68.2	13.1	5.1	5.1	8.5
	면	(2,101)	7.5	(153)	1.5개	67.5	20.9	8.5	2.4	0.7
영농 여부	농어가	(1,120)	8.4	(93)	1.5개	66.7	20.8	8.5	2.6	1.4
	비농어가	(2,819)	10.3	(279)	1.7개	68.3	14.8	5.9	4.4	6.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11.4	(97)	1.9개	64.9	13.2	3.5	1.4	16.9
	40대	(768)	13.7	(104)	1.5개	73.1	11.6	11.0	2.8	1.4
	50대	(758)	12.0	(88)	1.7개	55.1	29.0	6.4	8.5	1.0
	60대	(613)	8.9	(50)	1.4개	75.1	15.6	7.5	1.0	0.9
	70대 이상	(844)	3.6	(29)	1.4개	82.5	7.4		8.6	1.6



동호회 종류로 '스포츠활동'(52.6%) 등 [스포츠 관련 동호회](54.5%) 비중이 높고, 활동 빈도로 '주 1회 정도'(30.8%), '월1-3회 정도'(25.8%) 비중이 높음

귀하께서 참여하고 계신 동호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동호회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활동층(n=383) 중 응답자에 한해 - 동호회 종류 : 응답률 99.4%(n=381), 참여빈도응답률 99.8%(n=382)]

활동하는 동호회 종류로 '스포츠활동'(52.6%), '스포츠관람'(1.9%) 등 [스포츠 관련 동호회](54.5%)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활동'(12.4%), '문화예술관람'(8.1%) 등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20.5%), '사회활동'(11.5%), '취미활동'(8.5%), '여행'(3.2%) 순이었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성에서 '스포츠활동', 여성에서 '문화예술활동' 비중이 높았다.

| 표1417- (2) | **활동하는 동호회 종류**

단위: %(명)

구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여행	취미 활동	사회 활동	기타
합계 (381)		8.1	12.4	1.9	52.6	3.2	8.5	11.5	1.7
읍/면	읍 (224)	11.4	14.4	1.4	50.5	2.8	7.1	11.4	0.9
	면 (156)	3.5	9.5	2.5	55.6	3.8	10.5	11.7	2.9
영농 여부	농어가 (93)	1.6	11.1	2.4	52.7	6.0	6.4	15.6	4.3
	비농어가 (288)	10.2	12.9	1.7	52.6	2.4	9.2	10.2	0.9
응답자 성	남성 (210)	9.5	8.3	2.4	57.2	4.7	8.2	7.7	1.9
	여성 (169)	6.5	17.7	1.2	46.5	1.4	8.9	16.3	1.5

동호회 활동 참여 빈도로 '주 1회 정도'(30.8%), '월 1-3회 정도'(25.8%)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 2-3회', '주 4회 이상'(각 14.5%), '2-3개월에 1회 정도'(9.7%), '4-6개월에 1회 정도'(2.6%), '연 1회 정도'(2.1%) 순이었다.

| 표1417- (3) | **동호회 참여 빈도**

단위: %(명)

구분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정도	월 1-3회 정도	2-3개월에 1회 정도	4-6개월에 1회 정도	연 1회 정도
합계 (382)		14.5	14.5	30.8	25.8	9.7	2.6	2.1
읍/면	읍 (225)	19.4	15.4	29.3	25.3	8.4	1.1	1.2
	면 (158)	7.5	13.2	33.0	26.6	11.6	4.7	3.5
영농 여부	농어가 (93)	10.2	14.4	30.2	23.0	16.4	1.7	4.1
	비농어가 (289)	15.8	14.5	31.0	26.8	7.6	2.8	1.5



참여경력으로 '5년 이상'이 38.1%, 전문성으로 '중급'이 절반 수준(55.9%)

귀하께서는 그 동호회 활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셨습니까? 그 동호회 활동에 있어 귀하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활동층(n=383) 기준]

동호회 활동의 참여 경력으로 '5년 이상'(38.1%)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3년 미만'(28.4%), '3-5년 미만'(18.3%), '6개월-1년 미만'(8.7%), '6개월 미만'(6.5%) 순이었다.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농어가에서 '5년 이상' 비중이 높았다.

| 표1417-(4) | 동호회 참여 경력

단위: %(명)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383)			6.5	8.7	28.4	18.3	38.1
읍/면	읍 (225)		8.0	9.5	28.8	17.7	35.9
	면 (158)		4.4	7.6	27.9	19.0	41.2
영농 여부	농어가 (94)		4.1	9.0	18.5	22.5	45.9
	비농어가 (289)		7.3	8.6	31.7	16.9	35.6

동호회 활동의 전문성으로 '중급'(55.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급'(19.6%), '준전문가 수준'(12.5%), '전문가 수준'(7.4%) 순이었다.

읍지역, 참여 경력 5년 이상층에서 '준전문가' 이상 비중이 높은 반면, 면지역, 참여 경력 5년 미만층에서 '초급' 비중이 높았다.

| 표1417-(5) | 동호회 활동 전문성

단위: %(명)

구분			초급	중급	준전문가 수준	전문가 수준	해당 없음
합계 (383)			19.6	55.9	12.5	7.4	4.6
읍/면	읍 (225)		16.5	62.4	12.4	6.2	2.6
	면 (158)		24.1	46.7	12.6	9.1	7.5
영농 여부	농어가 (94)		22.7	49.4	10.6	10.3	7.0
	비농어가 (289)		18.6	58.0	13.1	6.5	3.8
동호회 참여 경력	5년 미만 (237)		26.3	57.1	5.8	4.8	6.0
	5년 이상 (146)		8.9	53.9	23.2	11.6	2.3

1418> 동호회 활성화 필요 요소

동호회 활동에 새롭게 참여하거나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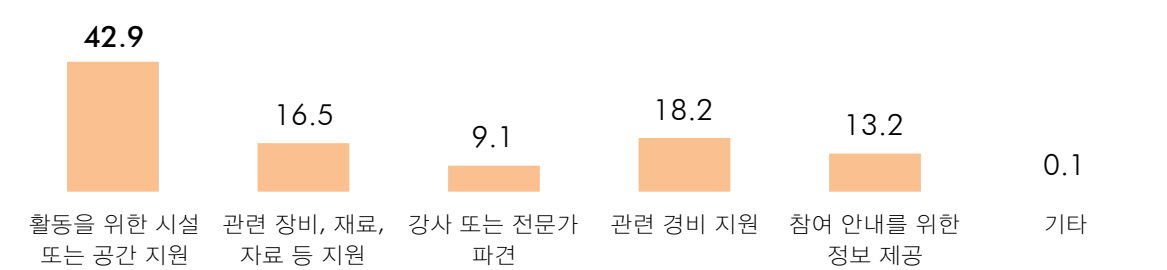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5.5%(n=3,761)]

▶ ‘활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 지원’(42.9%)이 주된 필요 요소

‘활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 지원’(42.9%)이 동호회 활동에 새롭게 참여하거나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관련 경비 지원’(18.2%), ‘관련 장비, 재료, 자료 등 지원’(16.5%), ‘참여 안내를 위한 정보 제공’(13.2%), ‘강사 또는 전문가 파견’(9.1%)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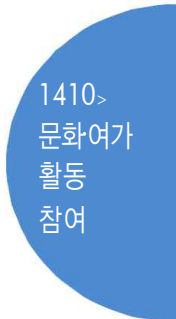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문화여가 동호회 참여층에서 ‘관련 장비, 재료, 자료 등 지원’, ‘강사 또는 전문가 파견’ 비중이 높은 반면, 비참여층에서 ‘활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 지원’, ‘참여 안내를 위한 정보 제공’ 비중이 높았다.

| 그림1418 | 동호회 활성화 필요 요소 단위 : %



| 표1418 | 동호회 활성화 필요 요소 단위 : %(명)

구분			활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 지원	관련 장비, 재료, 자료 등 지원	강사 또는 전문가 파견	관련 경비 지원	참여안내를 위한 정보 제공	기타
합계 (3,761)			42.9	16.5	9.1	18.2	13.2	0.1
읍/면	읍 (1,761)		44.5	17.9	8.9	15.6	13.1	
	면 (2,000)		41.5	15.2	9.3	20.5	13.2	0.2
영농 여부	농어가 (1,075)		47.9	15.2	9.5	16.6	10.6	0.1
	비농어가 (2,685)		40.9	17.0	9.0	18.8	14.2	0.1
문화여가 동호회	참여층 (357)		34.6	20.9	13.1	21.2	10.1	
	비참여층 (3,404)		43.8	16.0	8.7	17.9	13.5	0.2



1419>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실태

- ▶ 공동 문화여가활동층이 4.7%, '스포츠활동'(42.9%) 등 스포츠 관련 활동(46.1%)이 주된 활동
- ▶ 참여 정도 : [참여하는 편(합)](44.7%) > [참여하지 않는 편(합)](33.3%)

▶ 공동 문화여가활동층이 4.7%, '스포츠활동'(42.9%) 등 스포츠 관련 활동(46.1%)이 주된 활동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사회(마을, 아파트 단지 등)에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문화여가활동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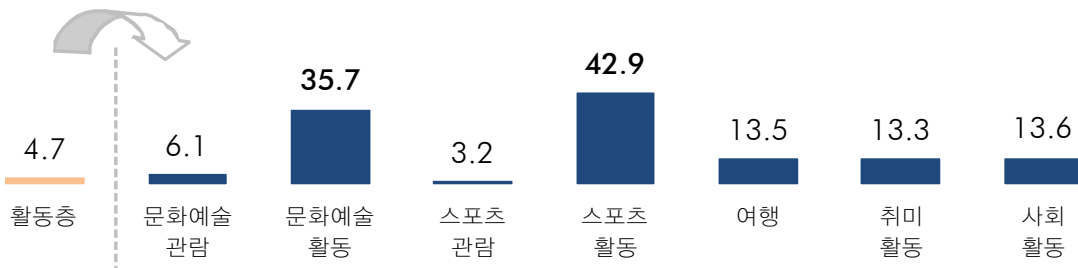
[활동 여부 - 조사대상자(n=3,939) 기준, 공동 문화여가활동 종류 - 활동층(n=184) 기준, 활동별 각 100.0%]

공동 문화여가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층이 4.7%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의 종류로 '스포츠활동'(42.9%), '스포츠관람'(3.2%) 등 [스포츠 관련 활동](46.1%)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문화예술활동'(35.7%), '문화예술관람'(6.1%) 등 [문화예술 관련 활동](41.8%) 비중도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활동'(13.6%), '여행'(13.5%), '취미활동'(13.3%) 순이었다.

읍지역, 비농어가에서 '문화예술활동'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여행', 면지역에서 '취미활동' 비중이 높았다.

| 그림1419 - (1) |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여부

단위 : %



| 표1419 - (1) |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활동 여부		활동 종류						
		사례수	활동층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여행	취미 활동	사회 활동
합계		(3,939)	4.7	6.1	35.7	3.2	42.9	13.5	13.3	13.6
읍/면	읍	(1,838)	4.0	10.2	47.5	2.7	41.7	12.0	10.4	10.7
	면	(2,101)	5.2	3.4	27.8	3.5	43.7	14.5	15.2	15.6
영농 여부	농어가	(1,120)	6.6		30.0	1.2	42.0	18.0	12.7	4.4
	비농어가	(2,819)	3.9	10.2	39.5	4.5	43.5	10.5	13.6	19.8



[참여하는 편(합)](44.7%) > [참여하지 않는 편(합)](33.3%)

귀하께서는 그 문화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활동층(n=184) 기준]

문화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23.3%),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21.4%) 등 [참여 하는 편(합)]이라는 응답이 44.7%로,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25.6%), ‘거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7.7%) 등 [참여하지 않는 편(합)](33.3%)이라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2.0%였다.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참여 하는 편(합)] 비중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참여하지 않는 편(합)] 비중이 높았다.

| 표1419 - (2) | 문화여가활동 참여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참여 하는 편 (합)	보통	거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 하지 않는 편(합)
합계 (184)		21.4	23.3	44.7	22.0	7.7	25.6	33.3
읍/면	읍 (73)	16.7	20.7	37.4	22.2	7.9	32.5	40.4
	면 (110)	24.5	25.1	49.5	22.0	7.5	21.0	28.5
영농 여부	농어가 (73)	20.0	33.8	53.7	21.8	7.2	17.2	24.4
	비농어가 (110)	22.3	16.3	38.6	22.2	8.0	31.2	39.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5)	5.7	33.3	39.0	24.6	2.2	34.2	36.4
	40대 (32)	16.6	19.6	36.1	31.2	7.3	25.4	32.6
	50대 (35)	13.0	25.6	38.7	17.9	3.7	39.7	43.4
	60대 (43)	38.0	18.9	56.9	21.6	9.6	11.9	21.5
	70대 이상 (43)	26.5	25.8	52.3	19.9	11.9	15.9	27.7

1420>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필요 요소

지역사회(마을, 아파트 단지 등) 단위 문화여가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0%(n=3,901)]

▶ ‘활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 지원’(48.4%) 이 주된 필요요소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필요 요소로 ‘활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 지원’(48.4%)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련 경비 지원’(17.0%), ‘관련 장비, 재료, 자료 등 지원’(12.1%), ‘참여 안내를 위한 정보 제공’(11.0%), ‘강사 또는 전문가 파견’(10.3%) 순으로 동호회 활성화 필요 요소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 활동이 없는 층에서 ‘활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 지원’ 비중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 활동이 있는 층에서 ‘관련 경비 지원’ 비중이 높았다.

| 표1420 |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필요 요소

단위 : %(명)

구분			활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 지원	관련 장비, 재료, 자료 등 지원	강사 또는 전문가 파견	관련 경비 지원	참여 안내를 위한 정보 제공	기타
합계 (3,901)			48.4	12.1	10.3	17.0	11.0	1.2
읍/면	읍	(1,820)	49.3	12.7	9.4	15.2	12.4	1.0
	면	(2,081)	47.6	11.5	11.2	18.5	9.9	1.3
영농 여부	농어가	(1,108)	49.2	12.9	11.5	16.2	9.8	0.5
	비농어가	(2,793)	48.1	11.7	9.9	17.3	11.5	1.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57.2	11.9	7.0	13.1	10.6	0.2
	40대	(760)	51.8	8.6	11.4	14.8	13.0	0.3
	50대	(750)	50.9	13.2	9.3	13.9	11.7	1.1
	60대	(607)	40.1	14.7	9.5	21.4	13.0	1.2
	70대 이상	(828)	38.2	12.7	15.2	23.3	7.8	2.9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있음	(182)	30.0	12.2	15.1	32.3	10.0	0.3
	없음	(3,719)	49.3	12.1	10.1	16.2	11.1	1.2

1421 > 희망 문화여가활동 실태

- ▶ '여행'(30.7%)이 주된 희망하는 문화여가 활동, '가족·친지'(48.4%)가 희망하는 주된 동반자
- ▶ 희망하는 빈도로 '월 1-3회 정도'(28.2%), '주 1회 정도'(20.5%) 비중이 높음



'여행'(30.7%)이 주된 희망하는 문화여가 활동

귀하께서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조사대상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응답률 99.8%(n=3,930)/ 중첩응답: 1순위×3+2순위×2+3순위×1로 가중치를 주어 100.0% 환산함]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으로 '여행'(30.7%)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스포츠활동'(18.3%), '스포츠관람'(3.5%) 등 [스포츠 관련 활동](21.8%), '문화예술관람'(11.6%), '문화예술활동'(7.9%) 등 [문화예술 관련 활동](19.5%), '휴식'(14.8%), '취미활동'(9.2%), '사회활동'(3.8%) 순이었다.

| 표1421 - (1) - ① | 희망 문화여가활동

단위: %(명)

구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여행	취미 활동	사회 활동	휴식	기타
합계 (3,930)	11.6	7.9	3.5	18.3	30.7	9.2	3.8	14.8	0.2
읍/면									
읍 (1,833)	12.7	7.1	3.0	20.7	31.1	9.0	3.7	12.5	0.1
면 (2,097)	10.6	8.6	3.9	16.3	30.3	9.4	3.9	16.9	0.2
영농 여부									
농어가 (1,118)	8.3	7.1	3.3	18.5	31.4	9.8	3.9	17.5	0.2
비농어가 (2,812)	12.9	8.2	3.6	18.3	30.4	9.0	3.8	13.8	0.2

| 표1421 - (1) - ② | 희망 문화여가활동 -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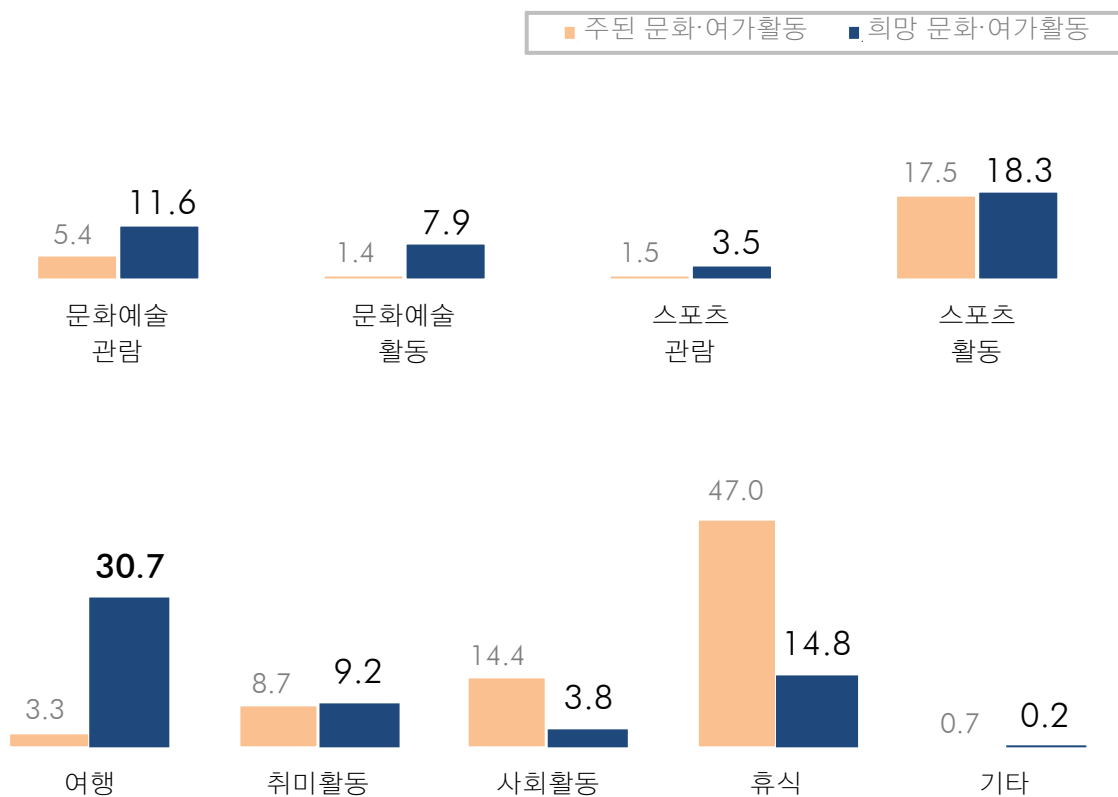
구분	세부사항
문화예술관람 (11.6%)	영화관람(5.3%), 공연관람(4.9%), 전시관람(0.8%), 기타 문화예술관람(0.6%)
문화예술활동 (7.9%)	노래교실(3.6%), 악기(1.5%), 전통예술공연, 미술(각 0.6%), 춤/무용(0.5%), 사진(0.4%), 문화예술활동(0.3%), 기타 문화예술활동(0.4%)
스포츠관람 (3.5%)	구기운동관람(2.4%), 라켓운동 관람(0.1%), 스포츠관람(0.7%), 기타 스포츠관람(0.3%)
스포츠활동 (18.3%)	체력단련 운동(6.7%), 구기운동(3.7%), 레저스포츠(3.1%), 라켓운동(2.5%), 스포츠활동(0.9%), 리듬스포츠(0.6%), 걷기(0.2%), 무도/격투기(0.1%), 기타 스포츠활동(0.6%)
여행 (30.7%)	여행(16.8%), 국내여행(7.9%), 해외여행(5.9%)
취미활동 (9.2%)	낚시, 요리(각 1.6%), 바둑/장기(0.7%), 뜨개질/십자수(0.6%), 붓글씨(서예)(0.4%), 꽃꽂이, 수집(각 0.2%), 자기 계발 등 기타 취미활동(1.8%)
사회활동 (3.8%)	봉사활동(2.4%), 교제/친교(1.0%), 종교활동, 기타 사회활동(각 0.2%)
휴식 (14.8%)	낮잠/휴식(11.0%), 산책/삼림욕(1.2%), TV시청/라디오청취, 목욕/사우나(찜질방)(각 0.9%), 기타 휴식(1.0%)

응답자가 실제로 주된 여가활동으로 응답했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여행’ 비중이 다소 높아 (+27.4%p) 실제 여행 경험률이 2009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한편, 상대적으로 물리적·인적 인프라가 필요한 ‘문화예술 활동’(+6.5%p), ‘문화예술 관람’(+6.2%p) 등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휴식’(-32.2%p)이나 ‘사회활동’(-10.6%p) 관련 욕구는 다소 낮았다.

| 그림1421 - (1) | 희망 문화여가활동

단위 : %



*주된 여가활동 ‘취미활동’=‘취미활동’+‘독서, 신문/잡지 보기’+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주된 여가활동 ‘휴식’=‘휴식’+‘TV 및 라디오 시청’



'가족·친지'(48.4%)가 희망하는 주된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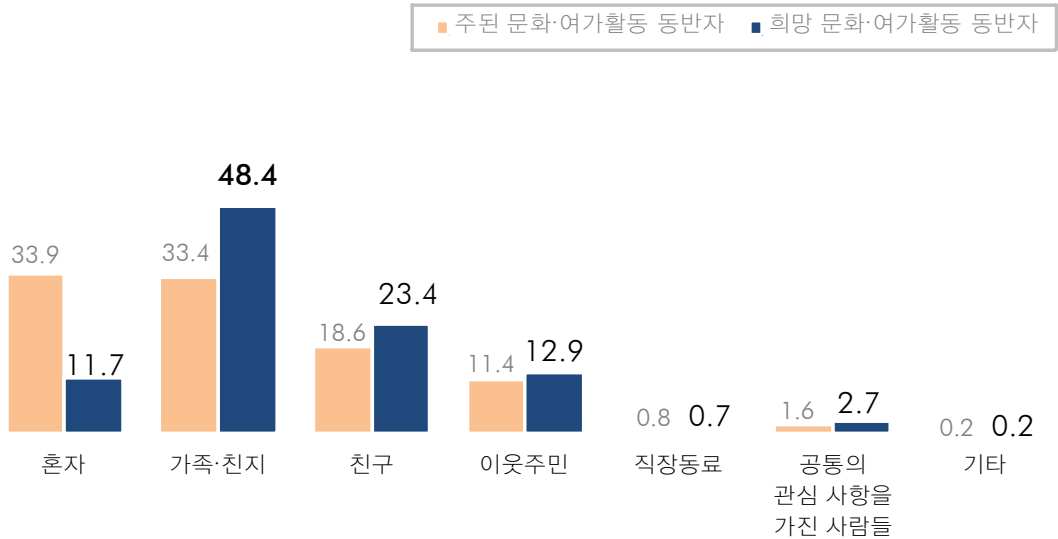
그 문화여가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기를 희망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34)]

희망 문화여가 활동의 동반자로 '가족·친지'(48.4%)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구'(23.4%), '이웃주민'(12.9%), '혼자'(11.7%),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2.7%), '직장동료'(0.7%) 순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 주된 문화·여가 활동의 주된 동반자에 비해 '가족·친지'(+15.0%p), '친구'(4.8%p) 비중이 높은 반면, '혼자' 비중은 낮았다(-22.2%p).

| 그림 1421 - (2) |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

단위 : %



읍지역,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친지’, ‘친구’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혼자’, ‘이웃주민’ 비중이 높았다.

희망 문화·여가활동이 문화예술관람, 스포츠관람, 여행인 층에서 ‘가족·친지’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인 층에서 ‘친구’, 휴식인 층에서 ‘혼자’ 비중이 높았다.

| 표1421 - (2) |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주된 동반자

단위 : %(명)

구분			혼자	가족·친지	친구	이웃주민	직장동료	공통의 관심 사항을 가진 사람들	기타
합계 (3,934)			11.7	48.4	23.4	12.9	0.7	2.7	0.2
읍/면	읍	(1,835)	10.6	48.9	28.6	7.8	1.0	2.9	0.2
	면	(2,099)	12.8	47.9	18.9	17.3	0.3	2.6	0.3
영농 여부	농어가	(1,117)	10.3	53.8	15.2	18.2	0.1	2.4	
	비농어가	(2,816)	12.3	46.2	26.7	10.8	0.9	2.9	0.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9.8	49.0	31.9	6.6	0.2	2.6	
	40대	(767)	8.0	54.7	25.5	5.5	2.4	3.9	
	50대	(758)	10.3	53.3	24.4	6.4	0.6	4.6	0.5
	60대	(611)	12.8	47.5	20.0	17.5	0.1	1.9	0.2
	70대 이상	(841)	18.5	37.9	14.3	27.9	0.1	0.9	0.5
희망 문화·여가 활동	문화예술관람	(394)	7.9	54.8	22.5	12.9	0.5	1.4	
	문화예술활동	(265)	11.2	25.4	30.1	26.8		6.4	
	스포츠관람	(82)	3.7	55.1	26.7	7.6	1.0	5.9	
	스포츠활동	(795)	8.8	32.8	36.2	16.5	2.3	3.4	0.1
	여행	(1,341)	3.5	66.6	21.1	7.2		1.6	
	취미활동	(295)	20.3	33.1	27.2	13.8		5.0	0.6
	사회활동	(124)	4.8	37.0	25.2	18.8	1.7	11.9	0.5
	휴식	(625)	33.4	43.9	7.6	13.7	0.3	0.5	0.6
	기타	(6)	66.8	11.1					22.2



희망하는 빈도로 '월 1-3회 정도'(28.2%), '주 1회 정도'(20.5%) 비중이 높음

그 문화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기를 희망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9%(n=3,935)]

희망 문화여가활동 빈도로 '월 1-3회 정도'(28.2%), '주 1회 정도'(20.5%)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 2-3회'(13.1%), '2-3개월에 1회 정도'(12.5%), '연 1회 정도'(10.0%), '4-6개월에 1회 정도'(8.2%), '주 4회 이상'(7.5%)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이 휴식인 층에서 '주 4회 이상' 비중이 다소 높았다.

| 표1421 - (3) | 희망 문화여가활동 빈도

단위 : %(명)

구분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정도	월 1-3회 정도	2-3개월에 1회 정도	4-6개월에 1회 정도	연 1회 정도
합계 (3,935)			7.5	13.1	20.5	28.2	12.5	8.2	10.0
읍/면	읍	(1,835)	6.4	12.8	21.1	35.8	10.6	5.9	7.4
	면	(2,100)	8.6	13.4	19.9	21.5	14.2	10.2	12.2
영농 여부	농어가	(1,118)	5.9	13.3	19.4	25.2	13.6	10.9	11.7
	비농어가	(2,817)	8.2	13.1	20.9	29.4	12.1	7.1	9.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5.6	12.8	19.9	39.9	9.8	5.0	7.0
	40대	(768)	4.0	13.3	20.7	34.2	13.6	7.1	7.1
	50대	(758)	4.0	10.9	22.0	29.0	15.3	8.3	10.6
	60대	(611)	8.5	13.4	20.7	19.0	13.9	11.1	13.4
	70대 이상	(841)	15.6	16.2	18.3	15.6	10.8	10.4	13.2
희망 문화여가 활동	문화예술관람	(395)	2.5	6.3	21.0	44.8	18.9	4.6	1.8
	문화예술활동	(265)	8.8	21.8	45.7	16.4	4.7	0.8	1.7
	스포츠관람	(82)	0.7	11.1	22.4	44.4	20.2	1.4	
	스포츠활동	(795)	9.7	22.2	23.4	36.0	4.9	1.8	1.9
	여행	(1,341)	0.9	3.5	9.5	25.0	18.1	18.4	24.5
	취미활동	(295)	4.9	23.7	34.5	23.5	7.5	3.9	2.1
	사회활동	(124)	5.5	22.1	33.5	33.2	4.2	0.5	1.0
	휴식	(625)	24.3	16.3	19.5	19.3	12.2	4.4	4.0
	기타	(7)	10.8	9.5	19.7		14.4	8.3	37.3

1422>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지역적 제약요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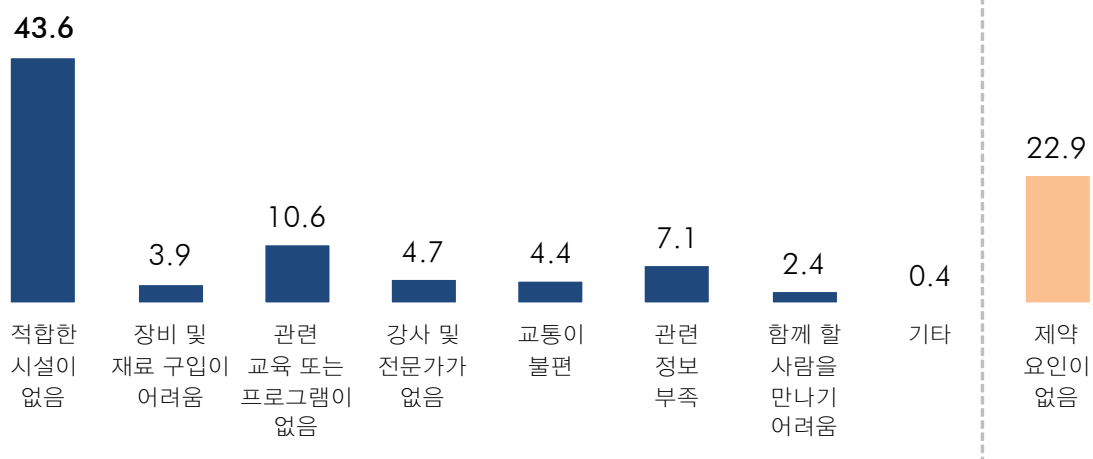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9.8%(n=3,933)]

▶ '적합한 시설이 없음'(43.6%)이 주된 지역적 제약요인

'적합한 시설이 없음'(43.6%)이 주된 지역적 제약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없음'(10.6%), '관련 정보 부족'(7.1%), '강사 및 전문가가 없음'(4.7%), '교통이 불편'(4.4%), '장비 및 재료 구입이 어려움'(3.9%), '함께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움'(2.4%) 순이었다. 한편, '제약 요인이 없음'은 22.9%였다.

| 그림1422 |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단위 : %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적합한 시설이 없음’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제약 요인이 없음’ 비중이 높았다.

희망하는 문화여가 활동이 문화예술관람, 스포츠활동인 층에서 ‘적합한 시설이 없음’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문화예술활동인 층에서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없음’ 비중이 높고, 휴식인 층에서 ‘제약 요인이 없음’ 비중이 높았다.

| 표1422 | 희망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단위 : %(명)

구분			적합한 시설이 없음	장비 및 재료 구입이 어려움	관련 교육 또는 프로 그램이 없음	강사 및 전문 가가 없음	교통이 불편	관련 정보 부족	함께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움	기타	제약 요인이 없음
합계 (3,933)			43.6	3.9	10.6	4.7	4.4	7.1	2.4	0.4	22.9
읍/면	읍	(1,834)	45.5	4.2	9.1	5.0	3.2	7.2	2.1	0.2	23.5
	면	(2,098)	42.0	3.6	11.8	4.5	5.5	7.0	2.6	0.5	22.4
영농 여부	농어가	(1,118)	44.0	3.2	12.0	3.7	4.3	6.2	3.0	0.2	23.4
	비농어가	(2,815)	43.5	4.2	10.0	5.1	4.5	7.5	2.1	0.4	22.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52.0	3.4	8.3	5.0	2.6	7.0	1.7		19.9
	40대	(768)	43.7	4.8	10.3	6.1	5.1	7.6	3.0		19.5
	50대	(755)	43.0	4.6	9.8	3.1	3.2	7.5	3.8	0.2	24.8
	60대	(612)	40.3	4.2	10.7	5.7	6.6	7.2	2.2	0.1	23.0
	70대 이상	(842)	36.3	2.9	13.7	3.9	5.0	6.4	1.5	1.6	28.6
희망 문화 여가 활동	문화예술관람	(395)	54.2	3.1	10.2	4.3	5.7	8.7	1.0	0.1	12.7
	문화예술활동	(265)	45.2	5.2	18.7	9.1	6.0	3.4	2.6		9.8
	스포츠관람	(82)	39.2	8.9	9.2	6.9	12.6	9.7	3.3		10.2
	스포츠활동	(794)	57.7	3.3	10.8	4.2	1.8	3.2	3.2	0.1	15.6
	여행	(1,338)	36.6	4.6	10.5	5.4	4.8	10.4	2.3	0.2	25.1
	취미활동	(295)	37.5	5.3	13.1	6.2	7.4	5.5	4.8	0.7	19.4
	사회활동	(124)	24.5	3.7	14.2	5.7	5.9	7.0	3.0		36.0
	휴식	(624)	40.8	1.8	5.5	1.2	2.7	6.3	1.1	1.2	39.4
	기타	(7)	30.6	6.3						8.3	54.9

1431 >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 ▶ ‘친교·휴식시설’(27.4%)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 ▶ ‘도보’(83.6%)가 주된 교통수단, 소요시간 허용범위로 ‘10분 이내’(57.5%)가 절반 수준



‘친교·휴식시설’(27.4%)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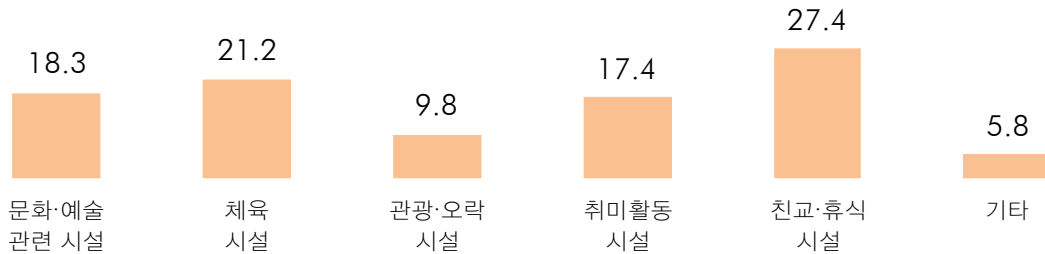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화·여가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 응답률 97.6%(n=3,845)/중복 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를 주어 100.0% 환산함]

필요한 문화여가시설로 “찜질방/목욕탕”(15.9%), “공원”(5.7%) 등 ‘친교·휴식시설’(27.4%)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체력단련 시설/스포츠센터”(10.1%), “수영장”(5.8%) 등 ‘체육시설’(21.2%), “영화관”(10.7%)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18.3%), “문화센터”(14.2%) 등 ‘취미활동 시설’(17.4%), ‘관광, 오락 시설’(9.8%) 순이었다.

| 그림 1431 - (1) |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단위 : %



| 표 1431 - (1) - ① |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 세부사항

구분	세부사항
문화예술 관련 시설 (18.3%)	영화관(10.7%), 공연시설(4.0%), 전시시설(3.0%), 기타 문화예술관련시설(0.6%)
체육 시설 (21.2%)	체력단련시설/스포츠센터(10.1%), 수영장(5.8%), 게이트볼장(1.7%), 기타 체육시설(3.6%)
관광, 오락 시설 (9.8%)	삼림욕장(4.4%), 유원지(1.8%), 쇼핑몰/백화점(2.3%), 기타 관광오락시설(1.3%)
취미활동 시설 (17.4%)	문화센터(14.2%), 취미활동 시설(1.5%), 동아리활동 공간(0.5%), 기원, 낚시터(각 0.1%) 레크레이션공간(0.9%)
친교, 휴식 시설 (27.4%)	찜질방/목욕탕(15.9%), 공원(5.7%), 마을회관(2.2%), 친교휴식시설(2.8%), 기타 친교, 휴식시설(0.8%)
기타 (5.8%)	도서관(4.0%), 놀이터(1.3%), 기타(0.4%)

면지역,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희망하는 문화·여가 활동이 휴식인 층에서 ‘친교, 휴식 시설’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희망하는 문화·여가 활동이 문화예술관람인 층에서 ‘문화예술 관련 시설’ 비중이 더욱 높았다.

| 표1431 - (1) - ② |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단위 : %(명)

구분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 시설	관광, 오락 시설	취미활동 시설	친교, 휴식 시설	기타
합계 (3,845)			18.3	21.2	9.8	17.4	27.4	5.8
읍/면	읍	(1,804)	23.8	22.7	11.4	18.5	17.6	5.9
	면	(2,042)	13.4	19.9	8.4	16.5	36.3	5.7
영농 여부	농어가	(1,092)	10.8	24.5	7.6	14.6	38.6	3.8
	비농어가	(2,754)	21.2	19.9	10.7	18.5	23.0	6.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60)	29.6	21.3	12.2	19.3	7.5	10.1
	40대	(761)	26.4	22.5	9.4	18.7	14.9	8.1
	50대	(738)	14.4	23.2	10.0	18.7	28.6	5.0
	60대	(597)	10.0	22.1	8.0	18.1	38.5	3.3
	70대 이상	(809)	7.0	15.6	8.4	13.4	54.0	1.6
희망 문화 여가 활동	문화예술관람	(387)	35.6	13.8	8.0	15.5	19.0	8.1
	문화예술활동	(260)	15.1	20.3	7.3	25.1	26.2	5.9
	스포츠관람	(81)	25.5	26.9	6.1	17.9	19.2	4.3
	스포츠활동	(784)	16.6	40.7	9.3	13.0	15.6	4.9
	여행	(1,320)	19.7	17.6	10.6	18.6	26.6	6.9
	취미활동	(286)	14.5	18.4	6.5	33.2	21.6	5.8
	사회활동	(118)	19.4	13.5	7.2	21.4	33.2	5.3
	휴식	(600)	7.7	10.2	13.7	10.2	55.2	3.0



'도보'(83.6%)가 주된 교통수단, 소요시간 허용범위로 '10분 이내'(57.5%)가 절반 수준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응답률 97.6%(n=3,845)/중복 응답: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를 주어 100.0% 환산함]

주된 교통수단의 비중은 '도보'가 83.6%, '차량'이 16.4%로 나타났다. 한편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의 소요시간 허용 범위로 '10분 이내'(57.5%) 비중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0분 이내'(20.6%), '5분 이내'(15.1%), '30분 이내'(5.1%), '1시간 이내'(1.7%) 순이었다.

'도보' 비중이 높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5분 이내' 비중이 높은 반면, '차량' 비중이 높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10-20분 이내' 비중이 높았다.

| 표1431 - (2) | 주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허용범위

단위: %(명)

구분			주된 교통수단		소요시간 허용범위				
			도보	차량	5분 이내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합계 (3,845)			83.6	16.4	15.1	57.5	20.6	5.1	1.7
읍/면	읍	(1,803)	81.8	18.2	11.4	62.0	20.6	4.7	1.3
	면	(2,042)	85.1	14.9	18.4	53.4	20.7	5.6	1.9
영농 여부	농어가	(1,092)	82.9	17.1	14.5	59.0	17.5	6.8	2.2
	비농어가	(2,753)	83.9	16.1	15.3	56.9	21.9	4.5	1.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61)	76.8	23.2	11.6	63.1	18.8	4.4	2.1
	40대	(761)	81.0	19.0	9.9	59.0	24.5	4.7	1.8
	50대	(735)	82.1	17.9	16.0	53.3	23.2	6.4	1.1
	60대	(595)	86.8	13.2	16.4	53.8	20.7	6.9	2.3
	70대 이상	(812)	92.1	7.9	23.7	54.5	16.9	3.8	1.1

1432>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를 통해 거주지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희망하십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가구에 한해: 응답률 98.8%(n=3,893)/중복 응답: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를 주어 100.0% 환산함]

▶ '체육활동 지도'(25.3%)가 희망하는 주된 프로그램

'체육활동 지도'(25.3%)가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주된 프로그램이었으며, 다음으로 '영화 상영'(16.0%), '전통예술 공연'(12.1%), '문화예술 교육'(11.6%), '취미활동 교육'(9.5%), '연예 공연'(8.5%), '음악 공연'(8.3%), '연극/무용 등 공연'(5.2%), '미술품 전시', '이동 도서관'(각 1.8%)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통예술공연', '문화예술교육' 비중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영화상영' 비중이 높았다.

| 표1432 |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미술품 전시	음악 공연	전통 예술 공연	연극/ 무용등 공연	영화 상영	연예 공연	문화 예술 교육	체육 활동 지도	취미 활동 교육	이동 도서관
합계 (3,893)			1.8	8.3	12.1	5.2	16.0	8.5	11.6	25.3	9.5	1.8
읍/면	읍	(1,820)	1.9	8.1	10.0	5.4	19.9	7.2	9.5	26.2	10.2	1.5
	면	(2,073)	1.8	8.5	13.9	5.0	12.5	9.6	13.3	24.6	8.8	2.1
영농 여부	농어가	(1,108)	1.0	6.7	14.9	3.9	12.2	10.9	12.7	28.5	7.7	1.6
	비농어가	(2,785)	2.1	8.9	11.0	5.7	17.5	7.6	11.1	24.1	10.1	1.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69)	1.9	9.7	2.8	6.2	25.7	5.5	6.7	26.9	11.3	3.2
	40대	(766)	2.4	8.8	4.1	5.5	22.1	6.7	10.7	27.3	10.0	2.5
	50대	(749)	1.7	8.2	11.1	3.9	14.1	9.4	11.7	27.8	10.7	1.4
	60대	(607)	1.6	7.1	17.2	4.6	9.3	8.9	14.2	26.1	9.8	1.1
	70대 이상	(819)	1.5	7.9	26.5	5.3	5.6	12.1	16.2	18.3	5.9	0.7

1433>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1430>
문화여가
지원

[조사대상 가구(n=3,939) 중 응답자에 한해 : 응답률 99.9%(n=3,938)/100점 만점 환산 : $(\chi_i - 1) \times 25.0000$, χ_i =측정 값]

▶ 문화여가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간 불만족하는 수준'(38.7점)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로 '만족하지 않는 편'(44.1%), '매우 불만족'(5.7%) 등 [불만족(합)]이라는 응답이 49.8%로, '만족하는 편'(9.8%), '매우 만족'(0.3%) 등 [만족(합)](10.0%)이라는 응답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은 40.2%로 문화여가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간 불만족하는 수준'(38.7점)의 평가를 보였다.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층, 지난 1개월간 체육활동 경험층, 여행 경험층,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층, 동호회 참여층,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이 있는 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 표1433 |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만족 하는 편	만족 (합)	보통	만족하지 않는 편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합계 (3,938)			38.7점	0.3	9.8	10.0	40.2	44.1	5.7	49.8
읍/면	읍 (1,838)	39.5점	0.3	10.3	10.6	41.4	43.0	4.9	48.0	
	면 (2,100)	38.0점	0.2	9.3	9.5	39.1	45.1	6.3	51.4	
영농 여부	농어가 (1,119)	38.2점	0.5	8.7	9.2	39.9	44.8	6.0	50.9	
	비농어가 (2,819)	38.9점	0.2	10.2	10.3	40.3	43.8	5.5	49.4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경험층 (1,149)	40.7점	0.5	14.5	15.0	38.1	41.3	5.6	46.9	
	비경험층 (2,789)	37.9점	0.2	7.8	8.0	41.0	45.3	5.7	51.0	
지난 1개월 간 체육활동 경험	경험층 (1,026)	44.2점	0.7	19.3	20.0	41.9	32.6	5.5	38.1	
	비경험층 (2,912)	36.7점	0.1	6.4	6.5	39.5	48.2	5.7	53.9	
여행경험	경험층 2165	37.3점	0.1	7.2	7.3	40.6	45.8	6.2	52.0	
	비경험층 1773	40.4점	0.4	12.9	13.3	39.6	42.0	5.1	47.1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경험층 (309)	47.5점	0.6	25.6	26.2	41.7	27.5	4.7	32.2	
	비경험층 (3,629)	38.0점	0.2	8.4	8.7	40.0	45.5	5.8	51.3	
동호회	참여층 (382)	48.7점	2.0	23.3	25.3	44.8	27.4	2.5	29.9	
	비참여층 (3,556)	37.6점	0.1	8.3	8.4	39.7	45.9	6.0	51.9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있음 (183)	46.8점	1.9	25.9	27.8	35.2	31.6	5.5	37.0	
	없음 (3,755)	38.3점	0.2	9.0	9.2	40.4	44.7	5.7	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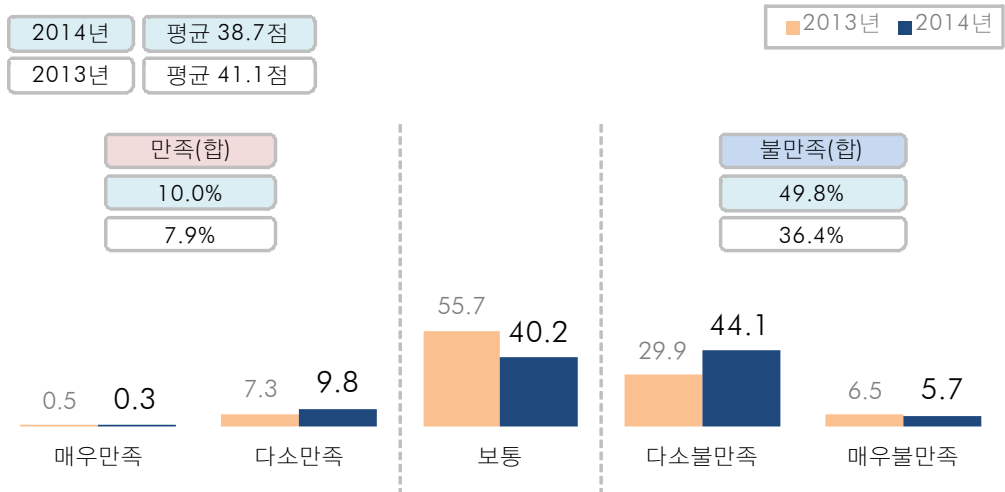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 추이

- 2013년 대비 [보통] 비중이 감소(-15.5%p)한 반면 [불만족] 비중이 증가(+13.4%p)함

| 그림1433 |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 추이

단위 : %



1434> 과거 5년 전 대비 지역의 문화여가여건 변화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여가여건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조사대상 가구(n=3,939) 기준]

▶ [좋아진 편(합)](23.0%) > [나빠진 편(합)](8.2%)

전반적인 문화여가 여건이 ‘좋아진 편’(22.0%), ‘매우 좋아짐’(1.0%) 등 [좋아진 편(합)]이라는 응답이 23.0%로, ‘나빠진 편’(7.4%), ‘매우 나빠짐’(0.8%) 등 [나빠진 편(합)](8.2%)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한편, ‘보통’이 68.8%로 과거 5년 전과 ‘비슷한 수준’(평균 53.8점)이라는 평가를 보였다.

지난 1개월간 체육활동 경험층, 여행 경험층,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층, 동호회 참여층,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있는 층에서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표1434 | 과거 5년 전 대비 문화여가 여건 변화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좋아짐	좋아진 편	좋아진 편(합)	보통	나빠진 편	매우 나빠짐	나빠진 편(합)
합계		(3,939) 53.8점	1.0	22.0	23.0	68.8	7.4	0.8	8.2
읍/면	읍	(1,838) 53.4점	0.5	22.3	22.8	68.8	7.2	1.2	8.4
	면	(2,101) 54.1점	1.4	21.7	23.1	68.9	7.6	0.4	7.9
영농 여부	농어가	(1,120) 54.0점	0.7	22.8	23.5	68.8	7.5	0.3	7.8
	비농어가	(2,819) 53.7점	1.1	21.7	22.8	68.9	7.3	1.0	8.3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경험	경험층	(1,149) 55.0점	2.0	22.5	24.5	69.7	5.4	0.4	5.8
	비경험층	(2,790) 53.2점	0.6	21.8	22.4	68.5	8.2	0.9	9.1
지난 1개월 간 체육활동 경험	경험층	(1,026) 54.8점	1.4	25.9	27.3	64.6	6.9	1.3	8.1
	비경험층	(2,913) 53.4점	0.9	20.6	21.5	70.3	7.5	0.6	8.2
여행경험	경험층	(1,773) 55.0점	1.0	24.2	25.2	68.7	5.7	0.3	6.0
	비경험층	(2,166) 52.8점	1.0	20.2	21.2	68.9	8.7	1.2	9.9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 경험	경험층	(309) 59.4점	1.2	42.6	43.8	49.7	5.4	1.1	6.5
	비경험층	(3,630) 53.3점	1.0	20.2	21.2	70.5	7.5	0.8	8.3
동호회	참여층	(383) 57.9점	2.5	32.8	35.3	58.7	6.0	0.1	6.1
	비참여층	(3,556) 53.3점	0.8	20.8	21.7	69.9	7.5	0.9	8.4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있음	(184) 57.9점	0.9	38.6	39.5	53.1	6.0	1.5	7.4
	없음	(3,755) 53.6점	1.0	21.2	22.2	69.6	7.4	0.8	8.2

제2부 기존통계 활용

 농촌진흥청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건의료 부문

복지 부문

교육 부문

문화·여가여건 부문

기초생활여건/환경·경관 부문

지역역량 부문

경제활동 부문

2100> 보건의료 부문

- 2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 2102> 만성질환 현황
- 2103> 주관적 건강 인식
- 2104> 건강검진 수진율
- 2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 2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 2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 2109> 농작업 손상
- 2110> 병상 수
- 2111> 보건의료기관 수
-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2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2101 >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 농어촌의 유병률은 31.8%, 평균 유병일수 10.3일, 평균 와병일수 0.7일

2014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주 동안 농어촌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사람은 31.8%로 2008년 이후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23.2%)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표2101 |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단위 : %, 일)

연도	구분	유병률	평균 유병일수	평균 와병일수
2008	농어촌	21.8	9.0	0.7
	도시	16.6	8.1	0.7
2010	농어촌	25.3	8.1	0.6
	도시	19.7	7.1	0.6
2012	농어촌	30.4	9.7	0.5
	도시	22.8	8.1	0.6
2014	농어촌	31.8	10.3	0.7
	도시	23.2	8.5	0.7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0세 이상 인구 대상, 지난 2주간

2102> 만성질환 현황

▶ 농어촌의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이 많으며, 도시에 비해 유병률이 높음

2013년 기준, 농어촌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33.2%), '고중성지방혈증'(19.5%), '고콜레스테롤혈증'(14.7%), '당뇨병'(11.9%)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유병률이 2012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은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고혈압' 유병률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2102 | 만성질환 현황

(단위: %)

연도	구분	유병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당뇨병
2005	농어촌	33.8	8.6	17.3	10.1
	도시	26.6	7.9	16.5	8.8
2007	농어촌	26.6	7.7	12.6	8.1
	도시	24.7	11.7	18.2	10.2
2008	농어촌	33.4	10.3	19.3	10.3
	도시	25.7	11.3	16.9	9.9
2009	농어촌	33.0	11.1	17.8	11.4
	도시	26.7	12.0	16.7	9.7
2010	농어촌	33.1	13.2	16.6	10.8
	도시	27.6	14.4	17.1	9.9
2011	농어촌	36.1	14.9	19.1	13.8
	도시	29.3	14.4	15.8	9.6
2012	농어촌	37.2	16.5	16.7	12.4
	도시	30.1	15.1	17.2	9.2
2013	농어촌	33.2	14.7	19.5	11.9
	도시	29.7	16.2	17.1	11.9

자료: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만 30세 이상 대상

2103> 주관적 건강 인식

▶ 농어촌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은 '좋다'는 평가가 43.8%

2014년 농어촌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은 '좋다'(43.8%)는 평가가 '나쁘다'(22.4%)에 비해 높았으며, '보통'은 33.8%였다. 건강에 대해 '좋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도시(49.7%)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다.

| 표2103 | 주관적 건강 인식

(단위 : %)

연도	구분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08	농어촌	46.0	10.0	36.0	32.1	21.9	18.8	3.1
	도시	52.8	10.3	42.5	35.0	12.2	10.6	1.5
2010	농어촌	42.2	9.2	33.0	34.8	23.1	19.3	3.8
	도시	47.8	10.0	37.8	38.1	14.1	11.9	2.2
2012	농어촌	43.8	10.0	33.8	33.3	22.8	18.8	4.0
	도시	45.7	10.2	35.5	39.8	14.6	12.2	2.4
2014	농어촌	43.8	11.0	32.8	33.8	22.4	18.8	3.6
	도시	49.7	11.1	38.6	36.7	13.6	11.8	1.8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이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이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104> 건강검진 수진율

▶ 농어촌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58.8%

2013년 기준, 농어촌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58.8%로, 도시(61.1%)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 표2104 | 건강검진 수진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N	분율	표준오차
1998	농어촌	3,107	44.9	1.4
	도시	5,716	49.8	1.0
2001	농어촌	1,651	45.1	1.7
	도시	6,411	48.1	0.9
2005	농어촌	1,564	50.2	1.6
	도시	6,236	46.7	1.0
2007	농어촌	862	52.6	2.5
	도시	2,116	47.5	1.4
2008	농어촌	1,801	53.5	1.7
	도시	5,002	47.8	1.1
2009	농어촌	1,916	57.1	1.7
	도시	5,556	49.8	1.0
2010	농어촌	1,368	55.1	2.3
	도시	4,883	53.8	1.0
2011	농어촌	1,214	59.9	1.8
	도시	4,809	52.2	1.0
2012	농어촌	1,127	55.3	2.0
	도시	4,478	56.2	1.1
2013	농어촌	1,036	58.8	1.5
	도시	4,319	61.1	1.0

자료: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998년 - 만 20세 이상 대상, 2001년 이후 - 만 19세 이상 대상

2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 농가의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174,851원, 어가는 188,717원

2013년 농가의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174,851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163,456원)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어가(188,717원) 보다는 낮았다.

| 표2105 | 월평균 보건의료비

(단위 : 원)

연도	구분	월평균 보건의료비
2007	농가	143,031
	어가	128,167
	도시근로자가구	111,985
2008	농가	153,203
	어가	137,000
	도시근로자가구	119,194
2009	농가	161,945
	어가	145,833
	도시근로자가구	142,343
2010	농가	167,058
	어가	163,333
	도시근로자가구	151,101
2011	농가	161,310
	어가	175,167
	도시근로자가구	159,985
2012	농가	162,980
	어가	167,673
	도시근로자가구	164,019
2013	농가	174,851
	어가	188,717
	도시근로자가구	163,456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조사(도시)

주 : 농어가는 2007년, 2008년 구분류 기준, 2009년 이후 신분류 기준

2106 >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 농어촌의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 21.3%, 치과 37.9%

2012년 기준, 농어촌의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 21.3%, 치과 37.9%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 경우 도시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 표2106 |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병의원			치과		
		N	분율	표준오차	N	분율	표준오차
2007	농어촌	188	20.0	3.9	326	34.8	3.7
	도시	452	22.8	3.1	773	41.9	2.7
2008	농어촌	456	28.0	2.5	729	45.5	2.3
	도시	1,165	21.9	1.6	2,172	39.0	1.4
2009	농어촌	529	21.7	2.8	850	42.0	2.3
	도시	1,319	25.3	1.5	2,586	45.1	1.4
2010	농어촌	360	16.0	2.5	527	34.6	3.6
	도시	855	17.3	1.5	1,820	32.5	1.6
2011	농어촌	263	19.7	3.8	439	32.1	2.7
	도시	837	17.1	1.4	1,735	33.6	1.4
2012	농어촌	226	13.1	2.6	384	31.6	3.3
	도시	709	23.1	2.2	1,579	36.6	1.7
2013	농어촌	140	21.3	4.4	341	37.9	3.0
	도시	566	27.8	2.4	1,290	35.4	2.0

자료 :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107 >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 농어촌의 자살 생각률은 15.2%, 자살 생각자의 자살 시도율은 3.0%

2012년 기준, 농어촌의 자살 생각률은 15.2%로 도시 12.9%에 비해 높았지만, 자살 생각자의 자살 시도율은 농어촌 3.0%, 도시 5.0%로 도시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 표2107 |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자살 생각률			자살 생각자의 자살시도율		
		N	분율	표준오차	N	분율	표준오차
2007	농어촌	860	16.0	2.1	158	11.5	2.4
	도시	2,113	14.7	1.1	340	3.4	0.9
2008	농어촌	1,798	19.8	1.3	384	9.3	2.3
	도시	4,998	16.9	0.7	930	5.6	0.8
2009	농어촌	1,920	18.1	1.2	406	4.6	1.2
	도시	5,558	16.0	0.7	942	7.2	1.0
2010	농어촌	1,366	18.3	1.3	260	3.1	1.1
	도시	4,886	14.0	0.7	683	6.6	1.1
2011	농어촌	1,214	16.2	1.2	225	5.2	1.7
	도시	4,812	13.4	0.7	657	6.0	1.3
2012	농어촌	1,124	15.2	1.2	184	3.0	1.4
	도시	4,467	12.9	0.6	604	5.0	1.0

자료: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만 19세 이상 대상

2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 농어촌의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은 0.9%

2013년 기준, 농어촌에서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은 0.9%로 도시와 비슷한 수준(1.3%)이었으며, 2011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표2108 |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						우울증상 경험자의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2008	농어촌	1,796	2.0	756	1.2	1,040	2.7	317	5.7	98	5.2	219	6.1
	도시	4,998	2.1	2,081	1.4	2,917	2.7	773	8.7	209	8.3	564	8.9
2009	농어촌	1,920	1.6	845	0.8	1,075	2.4	320	6.0	92	4.0	228	6.9
	도시	5,560	2.4	2,391	1.7	3,169	3.1	886	8.7	261	5.5	625	10.4
2010	농어촌	1,366	1.4	595	1.5	771	1.3	197	4.4	57	2.0	140	5.9
	도시	4,889	2.4	2,109	1.2	2,780	3.5	628	10.9	163	8.0	465	12.1
2011	농어촌	1,214	3.2	527	3.0	687	3.3	178	15.1	63	21.9	115	10.3
	도시	4,812	2.2	2,033	1.6	2,779	2.7	640	9.0	187	6.6	453	10.4
2012	농어촌	1,125	2.6	483	2.8	642	2.3	168	8.5	59	12.6	109	5.0
	도시	4,466	2.5	1,826	0.9	2,640	3.9	580	10.1	157	4.3	423	12.7
2013	농어촌	1,030	0.9	452	0.0	578	1.9						
	도시	4,301	1.3	1,802	1.0	2,504	1.6						

자료 :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만 19세 이상 대상

2109 > 농작업 손상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3.0%, 손상 종류로는 골절(34.4%)이 가장 많음

2013년에 농업인이 경험한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3.0%인 가운데, 농기계 및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은 사용하지 않는 농업인에 비해 손상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 각각 3.6%, 2.1%의 손상 발생률을 보였다. 농작업 손상 종류로는 ‘골절’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타박상/멍’(12.1%), ‘뺨/접질림(염좌)’(10.6%)의 순이었다. ‘농약 중독’ 발생률은 2.3%로 나타났다.

| 표2109 - (1) | 농기계 및 농약 사용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 (단위: 명, %)

구분		업무상 손상자수	업무상 손상 발생률
2012년	농기계 사용함	43,441	3.9
	농기계 사용 안함	21,294	2.1
	총 계	64,735	3.0
2013년	농기계 사용함	49,331	3.6
	농기계 사용 안함	15,465	2.1
	총 계	64,796	3.0

자료: 각 연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주: 업무상 손상자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임

| 표2109 - (2)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종류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업무상 손상자수	비율	구분	업무상 손상자수	비율
긁힘/찰과상	2,527	3.9	일시적 의식상실(뇌진탕 등)	1,292	2.0
찢림	848	1.3	농약 중독	1,453	2.3
타박상/멍	7,778	12.1	동물에 물림(교상)	2,184	3.4
뺨/접질림(염좌)	6,765	10.6	일시적/영구적 청력상실	155	0.2
베임(열상/개방상)	4,349	6.8	일시적/영구적 시력상실	0	0.0
신체 절단	1,194	1.9	화상	181	0.3
골절	22,027	34.4	산소 결핍/질식	134	0.2
탈구	796	1.2	감전	0	0.0
근육/인대 파열(좌상)	4,870	7.6	복합 손상	3,309	5.2
허리/목 디스크 파열	4,160	6.5	기타	3,276	5.1
			총계	64,019	100.0

자료: 2013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주: 업무상 손상자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임, 다중 응답 항목으로 총계와 항목의 합이 상이함

2110 > 병상 수

▶ 농어촌의 병상 수는 74,776개로 도시(558,311개)의 약 13% 수준

2013년 기준, 농어촌의 병상 수는 총 74,776개로 ‘병원’(27,464개), ‘요양병원’(26,842개), ‘정신병원’(6,644개), ‘의원’(6,659개)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시의 병상 수는 558,311개였다.

| 표2110 | 병상 수

(단위 : 개)

연도	구분	계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2007	농어촌	74,970	4,581	14,393	25,847	17,432	0	1,000
	도시	375,149	121,259	52,334	86,545	78,860	1,373	0
2008	농어촌	62,243	5,016	12,789	23,674	9,611	0	1,000
	도시	416,402	123,657	64,181	98,980	88,231	1,355	0
2009	농어촌	65,584	5,277	15,122	24,066	9,289	0	1,000
	도시	432,718	125,324	74,381	106,722	82,473	1,345	0
2010	농어촌	81,556	9,136	21,150	24,182	13,181	0	1,000
	도시	441,801	123,961	91,677	106,488	75,023	1,318	0
2011	농어촌	72,338	5,893	21,144	24,125	8,874	0	1,000
	도시	492,234	131,835	114,150	121,400	77,703	1,318	0
2012	농어촌	77,050	5,882	25,362	25,874	8,251	0	700
	도시	521,794	132,968	135,692	129,146	73,618	1,286	0
2013	농어촌	74,776	5,982	26,842	27,464	6,659	0	700
	도시	558,311	135,443	165,817	128,397	72,982	1,128	0

연도	구분	정신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2007	농어촌	10,461	29	0	880	154	191	2
	도시	26,253	220	17	7,365	301	469	153
2008	농어촌	9,479	24	0	377	158	158	1
	도시	30,080	229	14	8,233	704	704	75
2009	농어촌	10,197	25	0	358	63	187	0
	도시	31,513	266	39	8,336	881	1,361	77
2010	농어촌	11,647	25	0	926	63	187	0
	도시	32,634	303	45	8,565	881	1,361	77
2011	농어촌	10,544	24	0	438	76	220	0
	도시	33,341	327	90	10,205	1,228	548	89
2012	농어촌	10,486	24	0	278	52	140	1
	도시	35,027	293	61	11,669	1,485	467	82
2013	농어촌	6,644	24	0	279	95	85	2
	도시	39,231	283	92	12,309	1,851	505	273

자료 :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111 > 보건의료기관 수

▶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4,511개소로 도시(56,388개소)의 약 8% 수준

2013년 기준,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4,511개소로 ‘의원’(2,108개소), ‘치과의원’(1,007개소), ‘한의원’(959개소) 순이었으며,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표2111 | 보건의료기관 수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계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2007	농어촌	6,857	20	137	187	3,516	0	1
	도시	46,057	282	456	758	22,749	3	0
2008	농어촌	4,641	22	130	170	2,301	0	1
	도시	49,524	291	560	894	24,280	3	0
2009	농어촌	4,776	22	341	175	2,344	0	1
	도시	50,993	290	621	954	24,760	3	0
2010	농어촌	6,411	30	177	185	3,131	0	1
	도시	49,833	282	672	969	24,203	3	0
2011	농어촌	5,034	23	170	170	2,383	0	1
	도시	53,462	296	805	1,075	25,526	3	0
2012	농어촌	5,145	23	189	178	2,432	0	1
	도시	54,374	300	898	1,149	26,330	3	0
2013	농어촌	4,511	23	190	164	2,108	0	1
	도시	56,388	301	1,038	1,167	26,708	3	0

연도	구분	정신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2007	농어촌	28	4	1,543	17	1,375	25	4
	도시	19	147	11,737	121	9,520	157	48
2008	농어촌	26	20	947	8	997	18	1
	도시	92	164	12,671	131	10,251	157	30
2009	농어촌	28	3	1,007	8	1,024	21	2
	도시	102	175	13,064	143	10,681	164	36
2010	농어촌	38	5	1,444	15	1,354	29	2
	도시	105	183	12,630	144	10,450	157	35
2011	농어촌	32	3	1,118	8	1,100	24	2
	도시	112	196	13,884	170	11,205	156	34
2012	농어촌	33	3	1,130	5	1,118	30	3
	도시	123	199	13,670	194	11,322	154	32
2013	농어촌	25	3	1,007	5	959	23	3
	도시	135	197	14,572	198	11,857	168	44

자료 :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2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 기준 병의원, 한의원의 51.2%, 종합병원의 89.7%가 다른 지역(읍면 경계 밖)에 있음

2010년 기준, 농어촌 주민들은 약국(61.2%), 보건소(72.1%)의 경우 읍면 내(①+②)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병·의원, 한의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51.2%, 89.7%는 읍면 경계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2112 - (1)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2005)

(단위 : %)

이동수단		이동시간		
		15분미만	15~30분	30분 이상
걸어서	15.3	9.5	3.4	2.3
자동차	69.9	24.7	25.6	19.6
기타	14.9	4.6	5.5	4.8

자료 : 2005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 표2112 - (2)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2010)

(단위 : 개, %)

구분	계 (행정리)	(우리) 행정리 안에 있음(①)	읍(면) 사무소 소재지 에 있음(②)	다른 지역(①, ② 이외)에 있음			이용 하지 않음	
				15분 미만	15~30 분	30분 이상		
약국	36,498	11.1	50.1	37.8	42.1	40.9	17.0	0.9
보건진료소	36,498	9.1	32.0	27.6	52.2	31.4	16.4	31.3
보건소	36,498	9.6	62.5	23.6	52.7	33.1	14.2	4.2
병·의원, 한의원	36,498	8.3	39.4	51.2	29.2	43.8	27.0	1.1
종합병원	36,498	1.0	4.6	89.7	6.6	26.2	67.2	4.7

자료 : 2010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원자료 분석

2113 >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72.6%)'가 가장 높음

2014년 기준, 농어촌의 지난 1년 동안 주로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72.6%), '종합병원'(60.4%), '한의원'(55.8%), '병의원'(49.7%)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는 '치료결과 미흡'(24.2%), '진료, 입원대기시간이 길다'(22.5%), '의료비가 비싸다'(17.5%) 순으로 나타났다.

| 표2113 - (1) |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한방병원)			보건소			약국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2008	농어촌	62.9	26.6	10.5	54.4	38.7	6.8	55.0	37.9	7.0	75.6	21.2	3.2	30.5	63.2	6.3
	도시	52.0	33.3	14.7	47.3	44.1	8.6	55.2	38.1	6.7	51.0	38.3	10.7	30.8	61.9	7.3
2010	농어촌	58.4	29.8	11.8	53.5	44.2	7.7	52.0	38.7	9.3	71.2	26.3	2.5	36.5	52.0	11.6
	도시	51.3	33.4	15.2	46.1	43.1	9.7	56.6	35.7	7.6	50.6	35.0	14.4	32.3	58.4	9.3
2012	농어촌	58.8	30.2	10.9	54.5	37.7	7.8	52.0	35.7	9.3	70.0	25.8	4.2	28.9	68.9	2.2
	도시	51.7	34.4	13.9	45.2	45.6	9.2	56.6	36.2	7.6	56.7	34.2	9.1	28.2	65.9	5.9
2014	농어촌	60.4	34.4	12.6	49.7	43.6	6.7	55.8	37.1	7.1	72.6	23.3	4.1	47.3	50.8	1.9
	도시	53.2	34.4	12.6	47.5	45.0	7.4	54.0	38.6	7.4	62.2	33.9	4.0	30.0	66.2	3.8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09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113 - (2) |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

연도	구분	불친절함	의료비 비싸다	치료 결과 미흡	진료 불성실	진료, 입원 대기 시간 김	의료 시설 낙후 미비	과잉 진료	전문 의료 인력 부족	기타
2008	농어촌	11.7	32.8	19.9	9.4	16.4	2.0	5.6	1.6	0.6
	도시	13.4	27.9	20.3	9.0	15.7	5.9	4.1	3.7	0.0
2010	농어촌	11.7	29.9	17.9	8.0	19.4	2.6	8.5	1.7	0.3
	도시	8.4	30.7	21.1	6.7	19.8	5.1	5.1	2.9	0.2
2012	농어촌	13.5	24.3	18.1	10.1	16.3	6.7	5.5	5.2	0.2
	도시	11.1	28.2	19.7	11.1	17.9	2.4	7.9	1.4	0.2
2014	농어촌	10.3	17.5	24.2	8.6	22.5	5.1	5.8	5.2	0.7
	도시	11.2	26.1	20.0	9.6	19.8	2.2	9.1	2.0	0.1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의료서비스 불만족자 대상

2200> 복지 부문

- 2201> 독거노인 현황
- 2202> 장수인구 비율
- 2203> 치매노인 비율
- 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 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 2206> 노인 일자리 참여
- 2207>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 2208> 영유아 비율
- 2209> 유치원 취원율
- 2210> 보육시설 현황
- 2211> 조손가구 비율
- 2212> 장애인 추가비용
- 2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2201 > 독거노인 현황

▶ 농어촌의 65세 이상 인구 중 1인 가구는 440,726명

2010년 기준, 농어촌의 65세 이상 인구는 1,747,486명이며,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440,726명(25.2%)으로 2005년에 비해 2.2%p 증가하였다. 도시(17.7%)에 비해서도 독거노인 비율은 7.5%p 높게 나타났다.

| 표2201 | 독거노인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65세 이상 가구원	65세 이상 1인 가구원	비율
2005	농어촌	1,593,513	366,809	23.0
	도시	2,721,902	415,899	15.3
2010	농어촌	1,747,486	440,726	25.2
	도시	3,536,134	625,639	17.7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65세 이상 가구원 대상

2202 > 장수인구 비율

▶ 농어촌의 장수인구(85세 이상) 비율은 1.6%로 도시(0.6%)에 비해 높음

2010년 기준, 농어촌의 85세 이상 장수인구 비율은 1.6%로 나타나 도시(0.6%)에 비해 높았으며, '여자'(2.3%)가 '남자'(0.9%)에 비해 장수인구 비율이 높았다.

| 표2202 | 장수인구 비율

(단위: %)

연도	구분	내국인	남자	여자
2005	농어촌	1.1	0.6	1.6
	도시	0.4	0.2	0.5
2010	농어촌	1.6	0.9	2.3
	도시	0.6	0.3	0.9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85세 이상 인구 비율

2203> 치매노인 비율

▶ 전국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540,755명, 치매 유병률은 9.18%

2012년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540,755명으로, 9.18%의 치매 유병률을 나타내는 가운데, 2005년 8.25%에 비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 표2203 | 치매노인 비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65세 이상 인구	치매노인 수					치매 유병률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05	전국	4,252,919	351,025	36,606	54,274	100,328	159,817	8.25
2012	전국	5,889,675	540,755	-	-	-	-	9.18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관리 Mapping 개발연구', 2012 치매 유병률 조사

주 : 노인 인구 100명당 치매노인 수

2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 농어촌 노인의 희망거주 형태는 '일반주택·아파트'

2011년 기준, 농어촌 노인 희망거주 형태는 '일반주택·아파트'(77.7%), '자녀와의 동거'(17.2%), '시설입소'(4.2%) 순으로 도시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 표2204 | 노인 희망거주 형태

(단위 : %)

연도	구분	일반 주택·아파트	자녀 동거	고령자 전용 주거 단지	그룹홈	일반 주택·아파트 + 필요시 경로당	시설 입소	기타
2011	농어촌	77.7	17.2	0.2	0.5	0.1	4.2	0.0
	도시	72.5	18.9	1.1	1.1	0.7	5.5	0.2

자료 : 2011 노인실태조사

주 : 65세 이상 인구 대상

2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 농어촌 노인의 생활비는 '본인 및 배우자'(65.1%)가 마련하는 비율이 높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74.8%)이 주된 소득원임

2013년 기준,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65.1%)', '자녀 또는 친척 지원(25.8%)', '정부 및 사회단체(9.1%)' 순으로 나타나, 도시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농어촌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이 7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자녀 또는 친척이 지원'하는 경우에 농어촌에서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67.3%)이 지원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도시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50.1%)이 지원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 표2205 | 노인의 의존 소득원

(단위 : %)

연도	구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 단체	기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 금	예금		함께 살고 있음	함께 살고 있지 않음		
2007	농어촌	66.0	81.7	5.6	7.8	4.8	28.7	40.2	59.8	5.2	0.0
	도시	59.2	56.5	14.2	20.4	8.9	36.6	58.0	42.0	4.1	0.1
2009	농어촌	63.9	73.0	5.8	17.1	4.0	27.1	34.1	65.9	9.0	0.0
	도시	58.3	48.3	16.8	27.9	7.1	33.2	48.7	51.3	8.4	0.1
2011	농어촌	63.5	70.6	4.9	17.5	7.0	28.6	35.5	64.5	7.8	0.1
	도시	58.8	42.3	15.7	32.0	10.0	33.4	51.1	48.9	7.6	0.2
2013	농어촌	65.1	74.8	6.0	13.6	5.6	25.8	32.7	67.3	9.1	0.0
	도시	63.1	44.4	14.7	29.3	11.6	29.9	50.1	49.9	7.0	0.1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60세 이상 인구 대상

2206> 노인일자리 참여

▶ 농어촌의 노인일자리 인지율은 66.5%, 노인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층은 10.4%

2011년 기준, 농어촌의 노인일자리 인지율은 66.5%로 도시 69.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농어촌에서 노인일자리 참여하고 있는 층은 3.1%, 참여한 경험이 있는 층은 7.3%, 신청했으나 참여기회가 없는 층은 3.9%로 모두 도시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 표2206 | 노인일자리 참여

(단위 : %)

연도	구분	인지율	참여 실태			
			현재 참여 중	참여경험 있음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었음	비신청
2011	농어촌	66.5	3.1	7.3	3.9	85.7
	도시	69.8	4.5	6.6	9.7	79.2

자료 : 2011 노인실태조사

주 : 65세 이상 인구 대상

2207 >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29.8%)', '간병서비스(26.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의 90.7%가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한 가운데,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29.8%), '간병서비스'(26.2%), '가사서비스'(20.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조사에서 2011년 기준,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소득 보장'(32.3%), '의료서비스'(28.3%), '수발서비스'(21.5%)로 나타났다.

| 표2207 - (1) |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단위: %)

연도	구분		받고 싶음									
			간병 서비스	목욕 서비스	가사 서비스	식사 제공	이야 기 상대	취업 알선	건강 검진	취미 여가 프로 그램	정보 화 등 각종 교육	기타
2007	농어촌	71.5	25.3	3.0	9.4	4.1	2.6	7.2	40.6	6.6	1.0	0.1
	도시	79.1	20.0	2.3	7.6	3.2	2.7	14.0	40.3	8.1	1.5	0.3
2009	농어촌	76.6	26.9	2.2	16.2	3.8	2.2	5.2	35.6	5.4	2.0	0.5
	도시	83.8	22.1	1.3	11.7	3.5	2.6	13.1	35.6	8.3	1.4	0.3
2011	농어촌	93.1	28.3	2.5	17.8	2.6	1.9	7.3	34.5	4.0	0.9	0.2
	도시	95.3	25.2	1.8	13.2	3.3	1.6	11.9	34.3	7.0	1.4	0.3
2013	농어촌	90.7	26.2	2.7	20.8	4.2	2.4	6.9	29.8	5.8	0.8	0.4
	도시	93.2	23.4	1.8	16.3	3.8	2.2	11.9	31.3	7.9	1.2	0.2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60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207 - (2) |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단위: %)

연도	구분	소득 보장	수발 서비스	여가 생활 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경제 활동 지원	노후 주거 지원	기타
2011	농어촌	32.3	21.5	6.7	28.3	6.8	3.7	0.6
	도시	31.6	17.4	10.1	25.1	10.7	3.9	1.3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주: 65세 이상 인구 대상

2208> 영유아 비율

▶ 농어촌의 영유아 비율은 4.9%

2014년 기준, 농어촌의 0세~5세 영유아 비율은 4.9%로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며, 도시(5.4%)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2208 | 영유아 비율 (단위 : %)

연도	구분	총인구	0세~5세		
				0세~3세	4~5세
2007	농어촌	100.0	5.3	3.4	1.8
	도시	100.0	5.8	3.8	2.0
2008	농어촌	100.0	5.2	3.4	1.8
	도시	100.0	5.7	3.7	2.0
2009	농어촌	100.0	5.2	3.5	1.7
	도시	100.0	5.6	3.7	1.9
2010	농어촌	100.0	5.1	3.5	1.6
	도시	100.0	5.5	3.7	1.8
2011	농어촌	100.0	5.1	3.4	1.7
	도시	100.0	5.6	3.7	1.9
2012	농어촌	100.0	5.1	3.4	1.8
	도시	100.0	5.6	3.7	1.9
2013	농어촌	100.0	4.9	3.3	1.6
	도시	100.0	5.5	3.7	1.8
2014	농어촌	100.0	4.9	3.2	1.7
	도시	100.0	5.4	3.6	1.8

자료 :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2209 > 유치원 취원율

▶ 농어촌의 유치원 취원율은 43.2%로 도시(43.4%)와 비슷한 수준

2011년 기준, 농어촌의 유치원 취원율은 43.2%로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도시 43.4%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 표2209 | 유치원 취원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유치원 취원 대상자	유치원 재원자	유치원 취원율
2007	농어촌	261,908	95,242	36.4
	도시	1,241,154	446,308	36.0
2010	농어촌	241,045	90,099	37.4
	도시	1,068,985	448,488	42.0
2011	농어촌	212,865	92,009	43.2
	도시	1,088,943	472,825	43.4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주 : 1) 유치원 취원 대상자는 각 지역 만 3~5세 인구수임

2) 취원율 = 재원자 수/취원대상자 x100

3)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대도시+중소도시를 합한 수치임

2210 > 보육시설 현황

▶ 농어촌의 영유아 보육시설(8,269개)은 도시의 절반 수준

2013년 기준, 농어촌의 보육시설은 8,269개로, 2007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보육시설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 기준, 농어촌의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수 역시 소폭의 감소 추이를 보인 가운데, ‘개인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180,675명)가 가장 많았다.

| 표2210 - (1)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4,901	352	673	346	2,145	1	1,342	42
	대도시	12,456	938	387	403	5,469	27	5,071	161
	중소도시	13,499	458	400	253	5,467	33	6,771	117
2008	농어촌	6,504	426	751	362	2,674	3	2,246	42
	대도시	13,018	921	384	389	5,482	29	5,628	185
	중소도시	13,977	479	323	218	5,150	33	7,651	123
2009	농어촌	6,996	468	764	358	2,775	7	2,576	48
	대도시	13,485	944	393	370	5,486	29	6,068	195
	중소도시	15,069	505	313	207	5,172	30	8,715	127
2010	농어촌	7,759	506	783	354	2,947	10	3,104	55
	대도시	14,034	977	389	343	5,558	34	6,519	214
	중소도시	16,228	551	296	191	5,284	30	9,744	132
2011	농어촌	8,030	528	781	356	3,068	13	3,224	60
	대도시	14,591	999	387	327	5,630	41	6,968	239
	중소도시	17,221	589	294	187	5,436	35	10,530	150
2012	농어촌	8,477	555	773	363	3,178	19	3,509	80
	대도시	15,461	1,039	384	308	5,709	46	7,701	274
	중소도시	18,589	609	287	198	5,553	48	11,725	169
2013	농어촌	8,269	569	770	362	3,220	21	3,224	103
	대도시	15,852	1,120	383	302	5,746	56	7,927	619
	중소도시	19,649	643	286	204	5,785	52	12,481	198

자료: 각 연도 보육통계

주: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안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2210 - (2) |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30,902	2,506	6,915	2,714	13,942	5	4,550	270
	대도시	68,892	8,835	4,548	2,776	34,318	154	16,937	1,324
	중소도시	69,791	4,287	4,557	2,197	34,828	186	22,680	1,056
2008	농어촌	38,653	3,092	7,490	2,657	17,237	7,899	11	267
	대도시	74,799	9,247	4,476	2,609	36,563	11,904	8,339	1,661
	중소도시	71,450	4,482	3,581	1,940	33,257	26,920	153	1,117
2009	농어촌	45,245	3,781	8,455	3,037	20,166	32	9,403	371
	대도시	82,568	10,507	4,827	2,870	39,804	161	22,454	1,945
	중소도시	79,099	5,109	3,760	2,081	35,698	155	31,006	1,290
2010	농어촌	51,110	4,215	8,870	3,075	22,594	42	11,827	487
	대도시	90,341	11,061	4,928	2,669	43,659	203	25,518	2,303
	중소도시	87,633	5,704	3,570	1,964	38,278	153	36,550	1,414
2011	농어촌	54,512	4,530	8,857	3,115	24,577	55	12,784	594
	대도시	97,617	11,541	5,015	2,646	46,959	248	28,544	2,664
	중소도시	96,506	6,158	3,619	1,963	41,243	182	41,583	1,758
2012	농어촌	61,460	4,884	9,076	3,336	28,004	86	15,235	839
	대도시	111,076	12,183	5,284	2,616	52,339	299	35,125	3,230
	중소도시	111,701	6,658	3,651	2,142	45,896	229	50,913	2,212
2013	농어촌	63,928	5,292	9,423	3,488	30,481	99	14,021	1,124
	대도시	117,198	13,990	5,492	2,811	54,921	365	35,603	4,016
	중소도시	120,593	7,468	3,850	2,404	50,778	266	53,107	2,720

자료: 각 연도 보육통계

주: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2210 - (3) |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227,794	19,518	54,441	20,132	111,914	34	19,921	1,834
	대도시	443,670	68,506	34,116	19,362	245,412	671	68,064	7,539
	중소도시	428,469	31,117	29,654	16,412	255,158	739	89,638	5,751
2008	농어촌	264,423	22,571	56,137	20,069	133,177	58	30,671	1,740
	대도시	453,534	68,260	32,901	18,689	246,314	727	77,710	8,933
	중소도시	417,545	32,574	24,856	15,060	236,156	706	102,057	6,136
2009	농어촌	277,630	25,185	55,724	19,954	139,279	157	35,242	2,089
	대도시	465,344	70,072	32,432	18,096	248,600	769	85,284	10,091
	중소도시	432,075	34,399	24,182	14,668	235,166	729	116,317	6,614
2010	농어촌	307,963	27,447	58,344	19,849	154,732	213	44,654	2,724
	대도시	499,674	72,250	32,956	17,265	266,763	918	97,603	11,919
	중소도시	472,273	37,907	22,754	14,012	250,396	767	139,179	7,258
2011	농어촌	320,857	28,984	57,232	20,068	163,523	289	47,528	3,233
	대도시	522,894	73,711	32,714	16,634	279,297	1,128	106,252	13,158
	중소도시	504,978	40,340	22,742	13,974	263,827	869	154,630	8,596
2012	농어촌	348,759	30,206	57,290	20,922	180,619	474	54,967	4,281
	대도시	574,723	76,753	33,120	16,167	303,679	1,325	128,424	15,255
	중소도시	563,879	42,718	22,639	14,825	283,958	1,114	188,280	10,345
2013	농어촌	340,626	30,323	55,069	20,356	180,675	480	48,397	5,326
	대도시	573,577	79,950	31,748	16,166	300,273	1,509	126,877	17,054
	중소도시	572,777	44,192	22,017	15,162	289,231	1,237	188,839	12,099

자료 : 각 연도 보육통계

주 :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2211 > 조손가구 비율

▶ 농어촌의 조손가구 비율은 1.0%로 도시(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조손가구 비율은 1.0%로 도시(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2211 | 조손가정

(단위: 가구, %)

연도	구분	일반가구	조손가구	
				비율
2005	농어촌	3,142,188	21,633	0.7
	도시	12,744,940	36,468	0.3
2010	농어촌	3,308,353	32,626	1.0
	도시	14,031,069	86,668	0.6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조손가구는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의 합

2212 > 장애인 추가비용

▶ 장애인 추가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활보조기구 구입, 유지비'가 크게 증가함

2005년에는 155.4천원이었던 장애인 추가비용이 2008년에는 158.7천원, 2011년에는 160.7천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활보조기구 구입, 유지비'가 2005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 표2212 | 장애인 추가비용

(단위: 천원)

연도	총 추가 비용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 간병인	재활 기관 이용료	통신비	재활 보조 기구 구입, 유지비	부모 사후 대비비
2005	155.4	22.9	90.2	6.1	11.8	2.1	1.2	6.4	8.8
2008	158.7	17.8	57.3	6.2	9.9	2.0	1.4	36.8	6.2
2011	160.7	22.8	56.8	6.0	14.1	1.9	9.6	31.7	5.4

자료: 각 연도 장애인실태조사

2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 농어촌에서 외국 여성과 혼인 비율은 8.9%, 농림어업 종사자의 외국 여성과 혼인 비율은 26.1%

2013년 기준, 농어촌 혼인건수에서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은 8.9%로 도시(5.0%)에 비해 높았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은 26.1%로 도시 거주 농림어업 종사자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13.7%)보다 높게 나타났다.

| 표2213 - (1) |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건, %)

연도	구분	전체			농림어업 종사자		
		혼인건수(A)	외국 여성과의 혼인		혼인건수(C)	외국 여성과의 혼인	
			건수(B)	비율(B/A)		건수(D)	비율(D/C)
2004	농어촌	53,909	5,694	10.6	4,883	1,474	30.2
	도시	241,071	18,095	7.5	1,433	333	23.2
2005	농어촌	55,029	7,575	13.8	5,878	2,371	40.3
	도시	244,360	22,545	9.2	1,663	498	29.9
2006	농어촌	58,382	8,746	15.0	6,479	2,991	46.2
	도시	261,377	20,470	7.8	1,793	529	29.5
2007	농어촌	59,397	8,016	13.5	5,948	2,649	44.5
	도시	274,592	20,145	7.3	1,718	522	30.4
2008	농어촌	57,035	7,853	13.8	4,959	2,038	41.1
	도시	262,357	19,893	7.6	1,499	434	29.0
2009	농어촌	52,918	6,839	12.9	4,341	1,679	38.7
	도시	248,050	17,846	7.2	1,295	307	23.7
2010	농어촌	56,502	7,219	12.8	4,489	1,684	37.5
	도시	261,077	18,605	7.1	1,481	338	22.8
2011	농어촌	54,441	6,074	11.2	3,959	1,291	32.6
	도시	266,713	15,709	5.9	1,395	267	19.1
2012	농어촌	52,829	5,462	10.3	4,042	1,176	29.1
	도시	266,463	14,623	5.5	1,352	219	16.2
2013	농어촌	50,906	4,552	8.9	3,758	981	26.1
	도시	263,992	13,196	5.0	1,440	197	13.7

자료 :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주: 농림어업 종사자는 남편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만 집계(외국인 제외)

2012년 기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비율이 71.6%인 반면, 도시에서는 60.1%의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도시 모두 다문화가족은 자녀 양육시 '양육비, 교육비 지출', '한국어 가르치기'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2213 - (2) |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없음	1명	2명	3명이상
2009	농어촌	29.7	41.4	22.3	6.6
	도시	43.1	37.2	16.6	3.1
2012	농어촌	28.4	36.2	27.9	7.5
	도시	39.9	37.4	18.9	3.8

자료 : 각 연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표2213 - (3) |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

(단위 : %)

연도	구분	6세 미만	6~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평균(세)
2012	농어촌	54.4	26.9	9.7	4.5	4.4	6.56
	도시	51.3	24.9	7.6	4.6	11.5	7.86

자료 :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표2213 - (4)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 %)

연도	구분	어려움 없음	자녀 양육 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 와 갈등	한국어 가르 치기 어려움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 또는 보육 시설이 없음	양육비, 교육비 지출	학업 성적 부진 또는 학교 생활 부적 응	자녀의 건강, 행동의 문제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 이라는 점으로 인한 아이의 심리적 혼란	기타
2012	농어촌	53.1	7.0	30.7	10.5	50.7	4.9	7.7	1.9	2.8
	도시	49.4	6.2	22.9	11.7	49.1	3.8	4.4	2.5	2.5

자료 :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300> 교육 부문

- 2301> 학생 수
- 2302> 학교 수
- 2303> 학급 수별 학교 수
- 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 2305> 소규모학교 비율
- 2306> 복식학교 비율
- 2307> 교원 수
- 2308> 연령별 교원 수
- 2309> 사무직원 수
- 2310> 사서교사 배치율
- 2311> 보건교사 배치율
- 2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 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 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2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2316> 통학수단
- 2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 2318>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2319>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 2320> 학업중단 비율
- 2321> 대학(교) 진학률
- 2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 2323>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및 > 참여율
- 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 2325> 도서관 현황
- 2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301 > 학생 수

▶ 농어촌의 학생 수는 981,213명

2014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981,213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초등 학생 수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표2301 |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1,144,550	609,385	282,418	252,747
	도시	6,473,246	3,062,822	1,756,193	1,654,231
2009	농어촌	1,109,056	570,718	277,997	260,341
	도시	6,338,103	2,903,677	1,728,975	1,705,451
2010	농어촌	1,087,631	545,841	277,955	263,835
	도시	6,148,617	2,753,253	1,696,843	1,698,521
2011	농어촌	1,060,729	521,695	275,042	263,992
	도시	5,926,118	2,610,782	1,635,530	1,679,806
2012	농어촌	1,038,396	496,997	273,273	268,126
	도시	5,682,780	2,454,998	1,575,821	1,651,961
2013	농어촌	994,318	463,026	263,333	267,959
	도시	5,487,174	2,320,720	1,540,856	1,625,344
2014	농어촌	981,213	460,649	255,014	265,550
	도시	5,304,579	2,267,860	1,462,897	1,573,822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2> 학교 수

▶ 농어촌의 학교 수는 4,422개

2014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수는 총 4,422개로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도시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2302 | 학교 수 (단위 : 개)

연도	구분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4,526	2,609	1,240	677
	도시	6,554	3,204	1,837	1,513
2009	농어촌	4,485	2,573	1,235	677
	도시	6,675	3,256	1,871	1,548
2010	농어촌	4,489	2,566	1,239	684
	도시	6,748	3,288	1,891	1,569
2011	농어촌	4,475	2,550	1,238	687
	도시	6,842	3,332	1,915	1,595
2012	농어촌	4,457	2,531	1,236	690
	도시	6,903	3,364	1,926	1,613
2013	농어촌	4,431	2,513	1,229	689
	도시	6,977	3,400	1,944	1,633
2014	농어촌	4,422	2,508	1,229	685
	도시	7,024	3,426	1,957	1,641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3> 학급 수별 학교 수

▶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는 '1~5학급' 비중이 가장 높음

2014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학급 수는 1~5학급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7~12학급이 29.0%로 다음 순위를 나타냈다. 반면, 도시의 초·중·고등학교 학급 수는 25~36학급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19~24학급이 20.1%, 13~18학급이 13.6%로 다음 순위를 나타냈다.

| 표2303 | 학급 수별 학교 수

(단위 : %)

연도	구분	학급 수별 학교 수										
		1~5 학급	6~ 10 학급	11~ 15 학급	16~ 20 학급	21~ 25 학급	26~ 30 학급	31~ 35 학급	36~ 40 학급	41~ 45 학급	46~ 50 학급	51 학급 이상
2008	농어촌	23.2	47.8	10.3	6.2	4.5	3.1	2.2	1.6	0.5	0.3	0.3
	도시	0.7	4.7	6.0	10.1	14.6	19.1	14.7	13.5	8.2	4.7	3.7
2009	농어촌	23.9	47.0	10.1	6.4	4.7	3.1	2.2	1.7	0.4	0.4	0.2
	도시	0.7	5.0	5.7	10.9	15.8	18.7	14.9	12.8	8.1	4.0	3.2
2010	농어촌	24.4	46.6	10.1	6.0	4.9	2.9	2.4	1.7	0.5	0.3	0.2
	도시	0.6	4.9	5.8	11.4	17.1	18.6	14.8	13.0	7.4	3.7	2.7
2011	농어촌	24.1	46.6	9.8	6.2	5.1	3.0	2.4	1.8	0.5	0.3	0.1
	도시	0.6	5.3	6.2	11.5	17.8	18.8	14.7	12.5	6.9	3.5	2.1
2012	농어촌	23.5	46.9	10.2	5.9	5.1	3.1	2.5	1.8	0.6	0.3	0.1
	도시	0.6	5.3	6.8	12.7	17.9	19.0	14.5	12.0	6.4	3.0	1.8
2013	농어촌	23.5	46.9	10.8	5.5	5.1	3.1	2.5	1.6	0.6	0.3	0.1
	도시	0.7	5.1	7.4	13.3	18.4	19.2	14.1	11.6	5.9	2.9	1.4
연도	구분	학급 수별 학교 수										
		1~5 학급	7~12 학급	13~18 학급	19~24 학급	25~36 학급	37~42 학급	43~48 학급	49학급 이상			
2014	농어촌	45.3	29.0	10.0	6.5	6.8	1.7	0.5	0.3			
	도시	2.1	6.0	13.6	20.1	40.9	9.9	5.3	2.1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임

2304> 학생 수별 학교 수

▶ 농어촌의 학생 수별 학교 수는 '100명 이하'인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음

2013년 기준, 학생 수별 학교 분포를 보았을 때 농어촌에서는 학생 수 '100명 이하'가 5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도시에서는 학생 수 '1,001~1,500명'인 학교 비율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2304 | 학생 수별 학교 수

(단위 : %)

연도	구분	100명 이하	101~ 200명	201~ 400명	401~ 600명	601~ 800명	801~ 1,000명	1,001~ 1,500명	1,501~ 2,000명	2,001~ 3,000명	3,001명 이상
2008	농어촌	47.9	17.9	13.5	7.7	4.6	3.6	4.1	0.6	0.1	0.0
	도시	2.1	1.8	5.2	10.2	14.0	17.4	37.4	10.5	1.3	0.0
2009	농어촌	49.1	16.9	13.5	7.7	4.8	3.5	4.0	0.4	0.0	0.0
	도시	2.3	1.9	5.6	10.8	15.9	18.4	35.5	8.8	0.9	0.0
2010	농어촌	50.5	16.2	13.1	7.8	4.7	3.6	3.9	0.3	0.0	0.0
	도시	2.3	2.2	6.0	12.1	17.5	18.6	33.7	7.0	0.6	0.0
2011	농어촌	51.5	15.6	12.9	7.7	4.8	3.6	3.7	0.2	0.0	0.0
	도시	2.5	2.3	7.2	13.6	18.4	19.9	30.2	5.6	0.4	0.0
2012	농어촌	52.4	14.8	13.2	7.4	4.6	4.1	3.3	0.1	0.0	0.0
	도시	2.4	2.7	8.7	15.4	20.3	19.8	26.9	4.2	0.2	0.0
2013	농어촌	53.5	14.0	13.6	7.6	4.8	3.5	3.0	0.1	0.0	0.0
	도시	2.6	2.8	9.2	17.1	21.4	19.7	24.0	3.1	0.1	0.0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주 : 1) 초, 중, 고등학교 대상임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5> 소규모학교 비율

▶ 농어촌의 소규모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65.9%, 중학교 49.8%, 고등학교 14.9%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소규모학교(학생 수 100인 이하) 비율은 53.5%이며, ‘초등학교’가 65.9%, ‘중학교’ 49.8%, ‘고등학교’ 14.9%로 도시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농어촌의 초등학교, 중학교 가운데에는 소규모학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였다.

| 표2305 | 소규모학교 비율

(단위 : %)

연도	구분	소규모학교(100인 이하)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47.9	57.2	46.3	15.1
	도시	2.1	3.8	0.7	0.3
2009	농어촌	49.1	58.7	48.0	14.6
	도시	2.3	4.1	0.9	0.2
2010	농어촌	50.5	60.2	49.2	16.2
	도시	2.3	4.0	0.9	0.3
2011	농어촌	51.5	62.1	49.4	16.0
	도시	2.5	4.4	0.8	0.4
2012	농어촌	52.4	64.1	49.4	15.1
	도시	2.4	4.3	0.8	0.3
2013	농어촌	53.5	65.9	49.8	14.9
	도시	2.6	4.5	1.1	0.3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6> 복식학교 비율

▶ 농어촌의 복식학교 비율은 13.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전체 초등학교 2,513개 중 복식학교 비율은 13.2%로, 이 가운데 '2개 학년' 복식학교 비율이 9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에서는 복식학교 비율이 0.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2306 | 복식학교 비율

(단위: 개, %)

연도	구분	초등 학교		복식학급 학교 수					복식 학교 비율
				2개 학년	3개 학년	4개 학년	5개 학년	6개 학년	
2008	농어촌	2,609	364	362	2	-	-	-	14.0
	도시	3,204	47	23	10	10	3	1	1.5
2009	농어촌	2,573	386	381	1	3	1	-	15.0
	도시	3,256	34	24	4	3	2	1	1.0
2010	농어촌	2,566	382	379	3	-	-	-	14.9
	도시	3,288	36	24	6	3	3	-	1.1
2011	농어촌	2,550	368	355	6	1	-	6	14.4
	도시	3,332	27	19	3	3	1	1	0.8
2012	농어촌	2,531	335	320	2	3	-	10	13.2
	도시	3,364	24	16	5	2	-	1	0.7
2013	농어촌	2,513	332	314	2	1	1	14	13.2
	도시	3,400	30	17	6	2	1	4	0.9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1) 복식학급은 초등학교만 있음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7 > 교원 수

▶ 농어촌의 교원 수는 88,219명

2014년 기준, 농어촌의 교원 수는 88,219명으로, 2008년 대비 증가했으며,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 표2307 | 교원 수

(단위 : 명)

연도	구분	교원 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83,688	41,228	21,881	20,579
	도시	320,108	130,962	86,819	102,327
2009	농어촌	83,748	41,223	21,753	20,772
	도시	325,469	133,845	87,322	104,302
2010	농어촌	84,422	41,674	21,700	21,048
	도시	327,536	135,080	87,081	105,375
2011	농어촌	86,136	42,468	22,046	21,622
	도시	336,228	138,155	88,612	109,461
2012	농어촌	87,000	42,639	22,225	22,136
	도시	338,392	138,796	88,779	110,817
2013	농어촌	86,872	42,155	22,457	22,260
	도시	340,817	139,430	90,233	111,154
2014	농어촌	88,219	42,656	22,949	22,614
	도시	342,290	140,016	90,400	111,874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8 > 연령별 교원 수

▶ 농어촌 학교의 연령별 교원 수는 30대가 28.8%로 가장 많음

2014년 기준, 농어촌 교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2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0대'(27.1%), '50대'(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에서는 '30대' 교원 비율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7.0%), '50대'(23.6%)의 순이었다.

표2308 | 연령별 교원 수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2008	농어촌	83,688	13,617	16.3	20,878	24.9	20,501	34.1	18,433	22.0	2,259	2.7
	도시	320,108	54,187	16.9	100,257	31.3	100,383	31.4	58,095	18.1	7,186	2.2
2009	농어촌	83,748	14,412	17.2	20,737	24.8	28,537	34.1	17,779	21.2	2,283	2.7
	도시	325,469	54,141	16.6	103,410	31.8	101,487	31.2	59,637	18.3	6,794	2.1
2010	농어촌	84,422	14,243	16.9	21,294	25.2	28,270	33.5	18,219	21.6	2,396	2.8
	도시	327,536	51,086	15.6	105,824	32.3	100,166	30.6	63,006	19.2	7,454	2.3
2011	농어촌	86,136	14,453	16.8	22,345	25.9	27,534	32.0	19,240	22.3	2,564	3.0
	도시	336,228	50,321	15.0	111,401	33.1	97,931	29.1	68,821	20.5	7,754	2.3
2012	농어촌	87,000	14,407	16.6	23,624	27.2	26,273	30.2	20,133	23.1	2,563	2.9
	도시	338,392	48,577	14.4	113,373	33.5	95,140	28.1	73,518	21.7	7,784	2.3
2013	농어촌	86,872	14,038	16.2	24,309	28.0	24,460	28.2	21,332	24.6	2,733	3.1
	도시	340,817	47,105	13.8	115,152	33.8	92,949	27.3	76,962	22.6	8,649	2.5
2014	농어촌	88,219	14,075	16.0	25,369	28.8	23,919	27.1	22,088	25.0	2,768	3.1
	도시	342,290	45,305	13.2	115,054	33.6	92,257	27.0	80,729	23.6	8,945	2.6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09 > 사무직원 수

▶ 농어촌의 초·중·고교 사무직원 수는 16,870명, 학교 당 3.8명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전체 사무직원수는 16,870명, 학교 당 3.8명으로 연도별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도시의 학교 당 사무직원수는 학교당 4.9명으로 농어촌에 비해 많게 나타났다.

| 표2309 | 사무직원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사무직원 수				학교 당 사무직원 수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2008	농어촌	17,490	10,398	3,989	3,103	3.9	4.0	3.2	4.6
	도시	33,284	15,106	7,993	10,185	5.1	4.7	4.4	6.7
2009	농어촌	17,252	10,222	3,948	3,082	3.8	4.0	3.2	4.6
	도시	33,360	15,082	8,079	10,199	5.0	4.6	4.3	6.6
2010	농어촌	17,304	10,290	3,897	3,117	3.9	4.0	3.1	4.6
	도시	33,794	15,229	8,162	10,403	5.0	4.6	4.3	6.6
2011	농어촌	17,114	10,175	3,825	3,114	3.8	4.0	3.1	4.5
	도시	33,851	15,260	8,121	10,470	4.9	4.6	4.2	6.6
2012	농어촌	17,218	10,240	3,844	3,134	3.9	4.0	3.1	4.5
	도시	34,291	15,499	8,217	10,575	5.0	4.6	4.3	6.6
2013	농어촌	16,870	10,021	3,792	3,057	3.8	4.0	3.1	4.4
	도시	33,889	15,244	8,078	10,567	4.9	4.5	4.2	6.5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10> 사서교사 배치율

▶ 농어촌 학교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2.5%로 도시(8.0%)의 약 1/3수준

2013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2.5%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8.0%)의 약 1/3수준이었다.

| 표2310 | 사서교사 배치율

(단위 : %)

연도	구분	사서교사 배치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2.7	2.5	2.0	4.9
	도시	7.9	4.5	5.8	17.8
2009	농어촌	2.7	2.6	2.0	4.6
	도시	7.9	4.5	5.8	17.6
2010	농어촌	2.9	2.8	2.1	4.8
	도시	8.1	4.7	5.5	18.5
2011	농어촌	3.0	2.8	2.3	4.8
	도시	8.3	4.7	6.1	18.5
2012	농어촌	2.9	2.7	2.6	4.3
	도시	8.0	4.7	5.7	17.8
2013	농어촌	2.5	2.5	2.1	3.2
	도시	8.0	4.8	6.0	17.1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사서교사배치율(%)=사서교사 배치 학교수x100/전체학교수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임

2311 > 보건교사 배치율

▶ 농어촌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38.0%로 도시(80.7%)의 약 1/2수준

2013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38.0%로,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48.1%)을 보인 반면, 중학교에서 가장 낮은 비율(16.8%)을 나타냈다. 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80.7%로 농어촌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2311 | 보건교사 배치율

(단위 : %)

연도	구분	보건교사 배치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38.7	50.1	16.1	35.7
	도시	82.0	90.1	71.5	77.6
2009	농어촌	37.7	49.0	15.7	35.3
	도시	81.7	89.5	72.0	77.1
2010	농어촌	38.1	49.7	15.7	35.1
	도시	80.7	88.8	72.0	74.3
2011	농어촌	38.1	48.7	16.6	37.6
	도시	81.7	88.0	73.4	78.5
2012	농어촌	38.2	48.4	16.6	39.4
	도시	81.9	87.8	73.4	79.7
2013	농어촌	38.0	48.1	16.8	39.0
	도시	80.7	86.7	72.4	78.0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보건교사배치율(%)=보건교사 배치 학교수x100/전체학교수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임

2312 >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 농어촌 고등학교의 기숙사 보유율은 76.6%

2013년 농어촌 고등학교의 기숙사 보유율은 76.6%로 2008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도시(36.9%)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2312 |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단위: 개, %)

연도	구분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 고등학교	
			보유 학교수	보유율
2008	농어촌	677	528	78.0
	도시	1,513	520	34.4
2009	농어촌	677	532	78.6
	도시	1,548	523	33.8
2010	농어촌	684	503	73.5
	도시	1,569	528	33.7
2011	농어촌	687	515	75.0
	도시	1,595	560	35.1
2012	농어촌	690	537	77.8
	도시	1,613	581	36.0
2013	농어촌	689	528	76.6
	도시	1,633	603	36.9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 농어촌 학교의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는 2.4명

2013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는 2.4명으로 점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 4.4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표2313 | 학교 컴퓨터 보급률

(단위: 명)

연도	구분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3.0	3.4	3.0	2.4
	도시	5.6	6.5	6.2	4.1
2009	농어촌	2.9	3.2	2.9	2.5
	도시	5.4	6.0	6.1	4.2
2010	농어촌	2.4	2.9	1.8	2.5
	도시	5.2	5.6	5.9	4.2
2011	농어촌	2.7	2.7	2.8	2.4
	도시	4.9	5.2	5.7	4.0
2012	농어촌	2.5	2.6	2.7	2.4
	도시	4.7	4.9	5.6	4.0
2013	농어촌	2.4	2.4	2.5	2.3
	도시	4.4	4.5	5.2	3.8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14 >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농어촌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37.7%

2012년 기준, 농어촌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37.7%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이 대도시(48.0%) 및 중소도시(42.1%)에 비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낮았다.

표2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단위 : %)		
연도	구분	참여율
2007	농어촌	40.8
	대도시	38.1
	중소도시	37.5
2008	농어촌	37.9
	대도시	40.6
	중소도시	37.0
2009	농어촌	38.0
	대도시	45.9
	중소도시	42.0
2010	농어촌	42.1
	대도시	51.3
	중소도시	45.8
2011	농어촌	43.3
	대도시	54.1
	중소도시	45.5
2012	농어촌	37.7
	대도시	48.0
	중소도시	42.1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2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전국의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 비율은 47.6%

2013년 기준, 전국의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47.6%로, 고등학교(62.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49.2%), 중학교(29.3%) 순이었다.

| 표2315 |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단위 : %)

구분	학교급별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38.2	35.5	22.1	61.9	70.0
2008	38.7	33.8	26.5	61.2	70.2
2009	43.1	37.2	30.6	66.2	76.8
2010	47.6	39.8	38.1	70.1	80.8
2011	48.8	44.6	36.4	67.8	77.7
2012	44.1	42.4	29.3	61.0	70.1
2013	47.6	49.2	29.3	62.7	69.7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2316 > 통학수단

▶ 농어촌의 12세 이상 학생들의 통학수단은 '도보(37.1%)'가 가장 많고, ' 시내·좌석·마을버스'(29.3%), '승용·소형승합차'(13.9%) 순

2010년 기준, 농어촌의 12세 이상 학생들의 주된 통학수단으로는 '도보'가 37.1%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 ' 시내·좌석·마을버스'(29.3%), '승용·소형승합차'(13.9%), '통근·통학버스'(9.1%) 순이었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 시내·좌석·마을버스', '승용·승합차' 및 '통근·통학버스' 이용률이 높은 반면, '도보' 및 '전철·지하철'은 낮게 나타났다.

| 표2316 | 통학수단

(단위 : %)

연도	구분	승용 소형 승합 차	시내 좌석 마을 버스	통근 통학 버스	고속 시외 버스	전철· 지하 철	기차	택시	자전 거	도보	기타	복합 수단
2005	농어촌	11.1	35.4	8.3	2.6	0.3	0.3	0.1	2.1	37.5	0.7	1.6
	남자	12.0	34.0	8.0	2.4	0.3	0.3	0.1	3.3	37.4	0.7	1.3
	여자	10.1	37.1	8.7	2.7	0.3	0.3	0.1	0.6	37.6	0.6	1.9
	도시	5.5	29.5	5.9	1.0	7.6	0.2	0.1	1.2	45.1	0.1	3.9
	남자	6.1	28.1	5.7	1.0	7.1	0.2	0.1	2.2	45.8	0.2	3.6
	여자	4.8	31.0	6.2	1.0	8.1	0.2	0.1	0.2	44.2	0.0	4.2
2010	농어촌	13.9	29.3	9.1	1.8	0.8	0.3	0.2	2.1	37.1	0.7	4.8
	남자	14.2	28.6	8.8	1.7	0.7	0.3	0.1	3.4	37.0	0.8	4.3
	여자	13.5	30.1	9.6	1.8	0.9	0.3	0.2	0.5	37.2	0.5	5.4
	도시	6.2	26.8	6.7	0.9	6.2	0.1	0.2	1.7	43.2	0.3	7.6
	남자	6.6	25.7	6.4	0.9	5.9	0.1	0.2	3.0	43.9	0.4	6.9
	여자	5.8	28.1	7.1	0.9	6.4	0.1	0.2	0.3	42.6	0.1	8.4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317 > 결손가정 아동 비율

▶ 농어촌의 결손가정 아동 비율은 7.7%로 도시(7.5%)와 비슷한 수준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전체 12세 이하 아동 대비 결손가정 아동 비율은 7.7%인 가운데, 한부모 가정 아동은 5.7%, 조손 가정 아동은 2.0%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 아동 비율이 도시에 서 더 높은 반면, 조손 가정 아동 비율은 농어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표2317 | 결손가정 아동 비율

(단위 : %)

연도	구분	결손가정(한부모, 조손) 아동 비율		
			한부모	조손
2005	농어촌	6.7	4.8	1.9
	도시	6.7	6.2	0.5
2010	농어촌	7.7	5.7	2.0
	도시	7.5	6.7	0.8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 12세 이하 인구 대상

2318>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농어촌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우수학력 비율은 도시에 비해 낮은 편

2013년 기준, 초등학교 6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우수학력 비율을 보면 각각 농어촌이 49.1%, 34.3%, 66.7%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했을 때에도 우수학력 비율이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표2318 - (1)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초등학교 6학년 (단위 :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15.3	47.5	30.7	6.5	16.8	58.1	23.2	1.9	44.1	23.1	27.6	5.2
	대도시	19.9	51.5	25.2	3.5	27.3	56.0	15.6	1.1	61.2	19.2	17.0	2.6
	중소도시	20.2	51.2	25.2	3.3	24.1	58.3	16.4	1.2	61.4	19.3	16.8	2.5
2013	농어촌	49.1	33.9	16.5	0.5	34.3	43.2	21.6	0.9	66.7	21.8	10.8	0.8
	대도시	55.8	30.5	13.2	0.5	43.0	39.0	17.0	0.9	78.0	13.8	7.5	0.7
	중소도시	50.6	33.2	15.6	0.6	37.0	41.6	20.4	1.0	78.9	16.5	9.7	0.9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 표2318 - (2)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중학교 3학년 (단위 :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7.4	40.5	43.0	9.1	11.6	29.1	48.9	10.4	10.5	36.4	46.6	6.5
	대도시	11.9	44.3	36.4	7.4	20.1	34.1	39.7	6.1	23.7	36.3	35.4	4.6
	중소도시	11.0	45.3	36.6	7.0	18.3	33.9	41.0	6.8	19.9	37.9	37.5	4.7
2013	농어촌	26.5	55.0	17.4	1.0	9.5	49.6	36.9	3.9	16.8	50.5	30.2	2.4
	대도시	33.1	51.7	14.1	1.0	19.5	50.3	27.1	3.1	32.2	44.4	21.3	2.0
	중소도시	30.6	52.6	15.6	1.1	16.1	49.8	30.3	3.7	27.1	45.8	24.6	2.3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 표2318 - (3)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고등학교 1학년

(단위 :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9.1	43.4	41.7	5.8	7.2	30.7	47.6	14.6	4.5	32.7	56.0	6.8
	대도시	18.3	46.3	31.4	4.0	15.0	38.5	36.8	9.6	12.8	40.6	42.5	4.2
	중소도시	20.9	44.9	29.8	4.4	16.6	37.3	35.9	10.2	14.0	39.9	41.0	5.2
2013	농어촌	24.6	56.5	17.4	1.5	19.0	59.3	17.1	4.6	25.0	55.9	16.3	2.8
	대도시	31.5	53.1	13.3	2.0	27.2	55.4	13.3	4.1	37.0	49.0	11.6	2.3
	중소도시	28.9	54.0	14.9	2.2	22.8	57.3	15.4	4.6	31.4	51.8	14.0	2.7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2319 >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률은 농어촌과 도시 모두 거의 100% 수준

2014년 기준, 농어촌의 학교진학률은 중학교 100.0%, 고등학교 99.7%로, 도시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표2319 학교 진학률		(단위 : %)	
연도	구분	중학교 진학률(초→중)	고등학교 진학률(중→고)
2008	농어촌	99.9	98.8
	도시	99.9	98.8
2009	농어촌	99.9	99.0
	도시	99.9	98.6
2010	농어촌	99.9	98.8
	도시	99.8	98.1
2011	농어촌	99.9	97.9
	도시	99.9	98.2
2012	농어촌	99.9	98.9
	도시	99.9	98.7
2013	농어촌	99.9	99.0
	도시	99.9	98.9
2014	농어촌	100.0	99.7
	도시	100.0	99.7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0 > 학업중단 비율

▶ 농어촌의 학업중단 비율은 초등학교 0.3%, 중학교 0.6%, 고등학교 2.1%

2014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학교 학업중단 비율은 각각 0.3%, 0.6%로 도시 0.6%, 0.9%에 비해 낮았다. 반면, 농어촌의 고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은 2.1%로 도시 1.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표2320 | 학업중단 비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학생 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2008	농어촌	609,385	2,159	0.4	282,418	1,914	0.7	252,747	6,714	2.7
	도시	3,062,822	18,291	0.6	1,756,193	18,187	1.0	1,654,231	26,229	1.6
2009	농어촌	570,718	1,820	0.3	277,997	1,882	0.7	260,341	7,196	2.8
	도시	2,903,677	15,824	0.5	1,728,975	17,793	1.0	1,705,451	27,754	1.6
2010	농어촌	545,841	1,115	0.2	277,955	1,686	0.6	263,835	7,353	2.8
	도시	2,753,253	10,519	0.4	1,696,843	14,050	0.8	1,698,521	27,187	1.6
2011	농어촌	521,695	1,496	0.3	275,042	2,016	0.7	263,992	7,775	2.9
	도시	2,610,782	17,340	0.7	1,635,530	16,850	1.0	1,679,806	31,112	1.9
2012	농어촌	496,997	1,697	0.3	273,273	1,907	0.7	268,126	7,315	2.7
	도시	2,454,998	17,466	0.7	1,575,821	15,904	1.0	1,651,961	30,076	1.8
2013	농어촌	463,026	1,375	0.3	263,333	1,781	0.7	267,959	6,724	2.5
	도시	2,320,974	15,453	0.7	1,540,856	14,645	1.0	1,625,344	28,210	1.7
2014	농어촌	460,649	1,446	0.3	255,014	1,531	0.6	265,550	5,664	2.1
	도시	2,267,860	14,462	0.6	1,462,897	12,747	0.9	1,573,822	24,718	1.6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1 > 대학(교) 진학률

▶ 농어촌의 대학(교) 진학률은 72.9%로 도시(69.7%)에 비해 약간 높음

2013년 기준,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자는 84,850명이며, 이 중 72.9%가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진학률이 감소한 가운데, 도시(69.7%)에 비해 대학(교) 진학률이 약간 높았다.

표2321 | 대학(교) 진학률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자				대학(교)진학률		
			국내대학	국내 전문대학	국외대학		국내 대학	국내 전문 대학	국외 대학
2008	농어촌	76,446	37,915	26,668	264	84.8	49.6	70.3	1.0
	도시	505,475	303,546	115,998	1,222	83.2	60.1	38.2	1.1
2009	농어촌	74,708	37,008	26,342	272	85.2	49.5	71.2	1.0
	도시	501,590	281,706	122,942	1,458	81.0	56.2	43.6	1.2
2010	농어촌	82,011	39,772	28,289	340	83.4	48.5	71.1	1.2
	도시	551,528	298,665	127,707	1,489	77.6	54.2	42.8	1.2
2011	농어촌	84,007	36,076	28,052	315	76.7	42.9	77.8	1.1
	도시	564,461	261,064	139,334	1,459	71.2	46.3	53.4	1.0
2012	농어촌	83,048	34,714	26,598	274	74.2	41.8	76.6	1.0
	도시	553,676	254,738	132,920	1,082	70.2	46.0	52.2	0.8
2013	농어촌	84,850	36,053	25,512	265	72.9	42.5	70.8	1.0
	도시	546,347	254,266	125,893	870	69.7	46.5	49.5	0.7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국내대학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진학자가 포함되어 있고 국외대학은 국외 4년제 대학교, 전문대 포함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2 >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 농어촌의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은 각 43.3%, 8.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특수교육자(장애인)의 진학률은 43.3%로 도시(43.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농어촌 특수교육자의 취업률은 8.2%로 도시(14.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표2322 |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단위 : %)

연도	구분	진학률			취업률		
			남	여		남	여
2008	농어촌	55.9	58.3	51.9	12.1	12.6	11.3
	도시	46.5	46.9	45.7	20.5	20.0	21.6
2009	농어촌	57.0	54.3	62.2	13.3	12.8	14.3
	도시	49.6	48.3	52.0	20.2	20.9	18.7
2010	농어촌	58.3	57.3	60.4	9.9	11.3	7.2
	도시	45.4	45.0	46.3	17.8	18.8	15.7
2011	농어촌	33.3	33.6	32.8	8.7	9.9	6.1
	도시	29.2	27.5	32.3	15.9	16.0	15.9
2012	농어촌	28.8	29.1	28.5	10.2	9.1	12.0
	도시	29.6	28.6	31.7	17.0	16.5	18.0
2013	농어촌	43.3	45.0	40.0	8.2	8.1	8.3
	도시	43.6	44.6	41.6	14.6	15.1	13.5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주 : 1) 대학(교)진학률을 의미함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2323>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농어촌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4.7만원

2013년 기준, 농어촌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4.7만원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57.5%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사교육비는 모든 학교급에서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적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고등학교에서 차이가 컸다. 농어촌의 사교육 참여율도 대도시(71.4%), 중소도시(70.2%)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표2323 |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만원, %)

연도	구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농어촌	12.1	13.2	13.1	7.9	7.8	66.4
	대도시	24.6	24.7	26.2	22.7	28.0	79.6
	중소도시	22.8	23.9	23.3	19.7	23.0	77.5
2008	농어촌	12.5	13.9	13.3	8.4	8.3	64.0
	대도시	25.5	26.0	26.8	23.3	28.1	77.6
	중소도시	24.2	25.9	24.3	21.0	24.8	75.8
2009	농어촌	15.6	18.0	17.7	8.1	11.1	67.3
	대도시	26.9	26.3	27.3	27.3	32.2	76.6
	중소도시	24.5	25.4	27.4	19.9	24.3	76.0
2010	농어촌	16.0	19.1	16.9	8.4	11.3	65.4
	대도시	26.6	25.7	27.1	27.4	31.9	75.5
	중소도시	24.4	25.6	26.7	19.9	23.9	74.7
2011	농어촌	16.0	18.6	17.8	8.6	11.0	64.0
	대도시	26.6	25.3	27.9	27.2	31.7	73.8
	중소도시	24.3	25.1	27.2	20.1	23.6	72.4
2012	농어촌	15.0	16.3	18.7	9.1	11.3	58.0
	대도시	26.3	23.6	29.7	27.1	31.7	71.9
	중소도시	23.4	21.7	28.3	21.5	25.0	70.3
2013	농어촌	14.7	16.5	16.5	10.3	12.3	57.5
	대도시	27.1	24.6	29.9	28.2	33.3	71.4
	중소도시	23.8	24.1	27.1	20.3	23.5	70.2

자료: 각 연도 사교육비조사

2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 농어촌의 62.0%가 교육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음

2014년 기준, 농어촌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은 '부담스럽다'가 62.0%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보통'은 26.8%, '부담스럽지 않다'는 11.2%였다. 농어촌에서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이 2012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도시(70.4%)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 표2324 |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

연도	구분	부담스럽다			보통	부담스럽지 않다		
			매우	약간			별로	전혀
2008	농어촌	75.9	37.9	38.0	18.6	5.6	5.0	0.6
	도시	80.5	40.1	40.4	15.0	4.4	3.9	0.5
2010	농어촌	76.6	34.6	42.0	17.6	5.8	5.1	0.7
	도시	78.7	37.9	40.8	16.4	4.9	4.2	0.7
2012	농어촌	68.6	29.4	39.2	22.1	9.2	7.2	2.0
	도시	73.7	31.9	41.8	20.8	5.4	4.5	0.9
2014	농어촌	62.0	24.3	37.7	26.8	11.2	9.6	1.6
	도시	70.4	27.4	43.0	22.5	7.0	5.6	1.4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30세 이상 가구주 대상

2325> 도서관 현황

▶ 농어촌의 도서관 수는 177개, 도서관 당 종사자 수는 5.7명

2013년 기준, 농어촌의 도서관 수는 177개로 도시의 약 1/7 수준이었으며, 농어촌 도서관 당 종사자 수는 5.7명으로, 도시 8.0명에 비해 적었다.

표2325 도서관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구분	도서관 수	종사자	도서관 당 종사자 수
2007	농어촌	142	920	6.5
	도시	583	8217	14.1
2013	농어촌	177	1,006	5.7
	도시	1,287	10,275	8.0

자료: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주: 1) 도서관에 기록보존소 포함
2)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2326 >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 농어촌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율은 37.3%

2014년 기준, 농어촌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율은 37.3%로, 대도시(34.9%) 및 중소도시(38.9%)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2326 |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2007	농어촌	31.7	4.2	28.3	13.9
	대도시	29.4	7.5	25.3	9.2
	중소도시	29.3	3.9	26.9	10.7
2009	농어촌	26.4	3.1	24.4	11.8
	대도시	27.6	5.5	24.2	13.3
	중소도시	29.2	3.2	27.2	16.8
2010	농어촌	30.8	3.1	29.8	19.3
	대도시	28.1	4.2	25.6	12.8
	중소도시	33.6	3.7	31.2	16.4
2011	농어촌	25.7	2.1	24.5	13.9
	대도시	35.0	5.6	32.0	16.6
	중소도시	31.8	3.3	30.1	16.3
2012	농어촌	26.6	0.4	26.2	13.4
	대도시	37.3	4.3	34.2	14.3
	중소도시	37.3	3.8	34.8	17.8
2013	농어촌	30.6	1.7	29.9	19.3
	대도시	30.7	4.6	28.1	16.1
	중소도시	29.6	3.8	27.3	15.6
2014	농어촌	37.3	1.9	36.2	28.0
	대도시	34.9	3.2	33.4	23.0
	중소도시	38.9	3.5	37.2	27.4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주: 1) 전체참여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하나라도 참여한 경우임

2) 형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3) 비형식교육이란 강좌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개인과외, 스터디클럽 형태로 참여한 교육을 의미

※대도시: 서울 및 광역시

2400> 문화여가 여건부문

- 2401> 주요 여가활동
- 2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 2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 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 2405>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2401 > 주요 여가활동

▶ 농어촌의 주요 여가활동은 'TV 및 DVD 시청(35.6%)'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주요 여가활동으로는 'TV 및 DVD 시청'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가사일'(15.4%), '휴식'(13.0%), '종교활동'(8.9%)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여가 활동 중 'TV 및 DVD 시청'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대부분의 여가활동에서 비율이 낮으나 'TV 및 DVD 시청', '종교활동', '가사일', '휴식' 비율은 약간 높게 나타났다.

| 표2401 | 주요 여가활동

(단위 : %)

연도	구분	TV 및 DVD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창작적 취미
2007	농어촌	29.1	4.2	1.1	0.4	3.6	4.5	1.0
	도시	27.4	5.3	2.4	0.6	5.0	6.5	1.1
2009	농어촌	30.0	4.6	1.4	0.4	3.8	4.9	1.1
	도시	30.1	5.4	2.8	1.0	5.7	6.2	1.0
2011	농어촌	36.4	3.3	2.0	0.6	4.3	4.7	1.3
	도시	36.1	4.3	3.5	1.2	5.5	6.4	1.5
2013	농어촌	35.6	4.7	2.3	0.6	4.6	3.7	1.2
	도시	34.2	5.9	3.6	0.8	5.3	5.8	1.3

연도	구분	자기 개발	봉사 활동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 일	기타
2007	농어촌	1.6	0.3	9.2	16.8	18.4	9.2	0.5
	도시	3.2	0.2	10.5	13.1	15.4	8.9	0.5
2009	농어촌	1.8	0.3	8.0	19.2	14.4	8.9	1.2
	도시	3.4	0.4	10.0	13.0	12.5	8.2	0.6
2011	농어촌	1.5	0.4	8.1	16.4	12.9	7.1	1.1
	도시	2.8	0.2	9.4	12.5	9.5	6.5	0.5
2013	농어촌	1.5	0.2	8.9	15.4	13.0	7.1	1.2
	도시	2.8	0.3	8.6	12.4	10.9	7.6	0.6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6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402 >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 농어촌의 1년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경험률은 45.9%, 횟수는 7.7회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지난 1년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경험률은 45.9%, 평균 관람 횟수는 7.7회로 나타난 가운데, 유형별로는 ‘공연장’ 관람 경험률(30.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관람 경험률 및 평균 관람 횟수가 낮았다.

| 표2402 |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단위 : %, 회)

연도	구분	관람함								관람 하지 않음
				공연장 이용		전시장 이용		스포츠 관람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2007	농어촌	42.8	5.1	79.0	4.8	38.8	2.4	15.0	3.0	57.2
	도시	56.8	7.3	88.1	6.3	36.2	2.9	19.0	3.4	43.2
2009	농어촌	38.4	6.0	84.3	5.4	33.2	2.6	17.8	3.3	61.6
	도시	58.7	7.7	90.2	6.6	32.4	3.0	20.9	3.5	41.3
2011	농어촌	42.7	7.0	30.3	3.2	21.8	2.4	20.4	4.1	57.3
	도시	62.1	8.6	34.2	3.4	23.8	2.5	24.9	4.2	37.9
2013	농어촌	45.9	7.7	30.7	3.7	22.3	2.6	19.5	3.9	54.1
	도시	67.1	9.0	34.0	3.7	22.7	2.6	22.4	4.1	32.9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 2011년 이후,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를 ‘공연장’에 포함, ‘박물관’, ‘미술관’을 ‘전시장’에 포함

2403 >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 농어촌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690개로 도시(2,951)의 약 1/4 수준

2011년 기준, 농어촌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총 690개로, 지역 문화·복지 시설(299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총 2,951개로 공연시설(1,647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표2403 |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총계	공연시설				전시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 상영장		미술관	화랑
2006	농어촌	715	96	69	6	21	57	41	16
	도시	2,728	1,415	296	235	884	363	125	238
2009	농어촌	690	101	72	10	19	55	52	3
	도시	2,951	1,647	342	246	1,059	387	129	258

연도	구분		지역 문화·복지 시설				기타시설
			시군 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다목적 체육 이용시설	소계
2006	농어촌	426	53	316	57	0	136
	도시	744	72	461	178	33	206
2009	농어촌	393	43	283	67	-	141
	도시	701	84	454	163	-	216

자료 : 각 연도 시도 통계연보

주 :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2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 농어촌의 문화이용권 이용률은 1.1%

2014년 기준, 문화이용권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층이 1.1%로 매우 낮게 나타난 가운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문화이용권 이용률도 각 0.6%, 0.5%로 농어촌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2404 |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단위: %)

연도	구분	이용한 적이 있다	이용한 적이 없다
2012	농어촌	1.2	98.8
	대도시	1.6	98.4
	중소도시	1.7	98.3
2014	농어촌	1.1	98.9
	대도시	0.6	99.4
	중소도시	0.5	99.5

자료: 각 연도별 문화향수실태조사

2405>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 농어촌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6.9%, 문화 관련 동아리 참여율은 4.8%

2014년 기준, 농어촌에서 대중음악교육(4.4%), '영화교육'(3.6%)에 대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문화·예술교육 전체에 대한 참여율은 12.0%로 대도시(7.1%), 중소도시(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어촌의 문화 동아리 중 '역사문화유산'(6.3%) 동아리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농어촌의 전체 동아리 참여율은 1.8%로 대도시(0.5%), 중소도시(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2405 - (1)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전체	문학 교육	미술 교육	서양 음악 교육	전통 예술 교육	무용 교육	연극 교육	뮤지컬 교육	영화 교육	대중 음악 교육	역사 문화 유산 교육
2012	농어촌	12.0	2.3	2.3	2.9	1.4	0.9	0.7	1.2	3.6	4.4	1.7
	대도시	7.1	2.1	2.0	0.9	0.5	0.5	1.0	0.8	2.1	1.3	1.1
	중소도시	9.0	2.3	2.4	1.7	1.1	0.8	0.7	0.2	1.3	0.8	1.1
2014	농어촌	6.9	1.9	1.9	0.9	0.6	0.3	0.7	0.8	1.4	1.1	1.0
	대도시	6.9	2.2	1.7	1.1	0.6	0.4	0.4	0.2	1.0	0.6	1.7
	중소도시	7.0	2.1	2.1	2.3	0.6	0.5	0.5	0.3	1.6	0.9	1.2

자료: 각 년도별 문화향수실태조사

| 표2405 - (2) | 지역별 문화 동아리 참여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전체	문학	미술	서양 음악	전통 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 음악	역사 문화 유산
2012	농어촌	1.8	0.7	0.6	0.6	0.4	0.5	0.4	2.2	1.0	1.1	6.3
	대도시	0.5	0.6	0.2	0.4	0.1	0.3	0.2	0.5	0.4	0.3	2.7
	중소도시	1.0	0.7	0.9	0.6	0.4	0.3	0.0	0.2	0.6	0.3	4.3
2014	농어촌	4.8	0.8	0.9	0.6	0.8	0.1	0.2	0.3	1.4	0.5	0.7
	대도시	4.4	1.1	1.1	0.6	0.4	0.5	0.6	0.1	1.0	0.4	0.4
	중소도시	3.8	0.9	0.7	0.7	0.5	0.3	0.5	0.1	1.0	0.8	0.4

자료: 각 년도별 문화향수실태조사

2500>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부문

- 250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 2502>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 2503> 주택의 시설 현황
- 2504> 주택(규모, 시설)만족도
- 2505> 상수도 보급률
- 2506> 하수도 보급률
- 2507> 도로 포장률
- 2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 2509>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 2510> 인터넷 이용 목적
- 251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2512> 환경오염 체감 정도

2501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 농어촌의 주택 건축년도는 '1995~2004년'에 지은 비율이 35.0%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을 보면 '1995~2004년'이 35.0%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 '1980~1994년'(27.1%), '1979년 이전'(20.7%) 순이었다. '1979년 이전'에 지은 주택 비중이 도시(6.6%)에 비해 농어촌에서 높은 반면, 1980년~2004년에 지어진 주택 비율은 도시에서 더욱 높았다.

| 표2501 - (1)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05) (단위: %)

연도	구분	계	2000~2005년	1990~1999년	1980~1989년	1979년 이전
2005	농어촌	100.0	19.9	40.3	15.3	24.5
	도시	100.0	22.7	47.3	20.9	9.1

자료: 2005 인구주택총조사

| 표2501 - (2)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10) (단위: %)

연도	구분	계	2005~2010년	1995~2004년	1980~94년	1979년 이전
2010	농어촌	100.0	17.3	35.0	27.1	20.7
	도시	100.0	15.2	39.9	38.3	6.6

자료: 2010 인구주택총조사

2502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 ‘자가’(70.8%)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주거유형은 ‘단독주택’(63.1%), ‘아파트’(30.2%) 순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주거형태로는 ‘단독주택’(63.1%)이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30.2%), ‘연립주택’(3.0%), ‘다세대주택’(2.4%) 등의 순이었다. 반면, 도시의 경우, ‘아파트’(52.4%), ‘단독주택’(34.9%), ‘다세대주택’(8.5%)의 순이었다.

농어촌의 주택 점유형태로는 ‘자가’(70.8%)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도시에서는 ‘자가’(51.2%), ‘전세’(24.3%), ‘보증금 있는 월세’(19.5%) 순이었다.

| 표2502 - (1) | 주거형태 (단위: %)

연도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005	농어촌	68.4	24.3	3.2	2.1	2.0
	도시	39.3	46.8	3.4	8.8	1.7
2010	농어촌	63.1	30.2	3.0	2.4	1.3
	도시	34.9	52.4	2.9	8.5	1.2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 표2502 - (2) | 점유형태 (단위: %)

연도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2005	농어촌	71.9	10.2	8.1	2.2	2.1	5.5
	도시	52.2	25.3	16.4	2.0	1.7	2.4
2010	농어촌	70.8	11.0	9.9	1.9	1.6	4.9
	도시	51.2	24.3	19.5	1.8	1.3	2.0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503> 주택의 시설 현황

- ▶ 농어촌의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 목욕시설' 비중은 90%대로 높은 반면, '상수도'는 69.3%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 96.5%, '기름보일러'가 43.8%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주거시설은 '입식부엌'이 97.3%, '상수도'가 69.3%, '수세식화장실'이 90.3%, '온수목욕시설'이 94.6%로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입식부엌 98.9%, 상수도 99.5%, 수세식화장실 98.6%, 온수목욕시설 98.4%)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농어촌의 난방형태로는 '개별난방'이 96.5%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기름보일러'가 4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도시의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보일러'(67.8%)가 가장 많았다.

| 표2503 - (1) | 주거시설

(단위 : %)

연도	구분	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입식	재래식	없음	상수도	마을 상수도	자가 수도	수도 없음	수세식	재래식	없음	온수	비온수	없음
2005	농어촌	95.5	4.3	0.2	52.9	22.8	4.0	20.3	80.1	19.7	0.1	90.5	1.1	8.4
	도시	98.6	1.1	0.3	98.4	0.4	0.6	0.7	97.5	2.4	0.1	97.2	0.1	2.6
2010	농어촌	97.3	2.6	0.1	69.3	21.5	0.9	8.3	90.3	9.7	0.0	94.6	2.0	3.4
	도시	98.9	0.9	0.3	99.5	0.2	0.1	0.3	98.6	1.4	0.0	98.4	0.4	1.2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 표2503 - (2) | 난방형태

(단위 : %)

연도	구분	난방방식			개별난방의 난방시설							
		중앙 난방	지역 난방	개별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2005	농어촌	1.1	1.5	97.4	15.0	57.3	8.5	9.3	3.6	0.6	1.9	1.3
	도시	7.1	10.4	82.5	59.4	17.9	2.4	1.8	0.5	0.1	0.0	0.3
2010	농어촌	0.6	2.9	96.5	24.2	43.8	8.4	12.4	3.8	0.3	1.1	2.4
	도시	5.7	12.4	81.9	67.8	9.3	1.9	2.1	0.5	0.0	0.0	0.2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504 > 주택 만족도

▶ 농어촌의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는 52.2%

2011년 기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 비율은 농어촌에서 52.2%로 ‘불만족’(12.5%)에 비해 높은 가운데, 도시와 비슷한 수준(52.3%)을 나타냈다.

| 표2504 |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단위 :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대체로			대체로	매우
2006	농어촌	50.9	12.9	38.0	37.9	11.3	9.4	1.9
	도시	31.5	5.7	25.8	51.5	17.0	13.2	3.8
2011	농어촌	52.2	9.1	43.0	34.2	12.5	10.8	1.7
	도시	52.3	11.3	41.0	36.8	9.7	9.2	0.6

자료 : 각 연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2505> 상수도 보급률

▶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79.1%로 도시(99.5%)에 비해 낮음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79.1%로 도시(99.5%)에 비해 낮았다.

| 표2505 | 상수도 보급률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총인구	급수인구	상수도 보급률
2006	농어촌	9,539,023	5,677,070	59.5
	도시	40,160,933	39,625,063	98.7
2012	농어촌	9,892,779	7,561,558	72.1
	도시	42,084,490	41,857,340	99.5
2013	농어촌	9,767,113	7,729,999	79.1
	도시	42,464,861	42,263,478	99.5

자료 : 각 연도 상수도통계

주 : 1) 도시는 시가지, 농어촌은 읍면부, 도서지역을 포함함

2) 보급률=(급수인구÷총인구)×100

2506> 하수도 보급률

▶ 농어촌의 하수도 보급률은 58.9%로 특·광역시(98.4%), 중소도시(89.7%)에 비해 낮음

2013년 기준, 농어촌의 하수도 보급률은 58.9%로 특·광역시(98.4%), 중소도시(89.7%)에 비해 낮았다.

| 표2506 | 하수도 보급률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총인구	하수처리인구	하수도 보급률
2006	농어촌	4,984,466	2,099,011	42.1
	일반도시	32,325,541	31,386,187	97.1
	도농복합도시	12,314,262	8,964,998	72.8
2012	농어촌	2,293,128	1,394,688	60.8
	특·광역시	23,657,889	23,387,342	98.9
	중소도시	22,350,579	19,784,600	88.5
2013	농어촌	3,977,331	2,343,502	58.9
	특·광역시	24,350,968	23,971,351	98.4
	중소도시	23,799,087	21,357,422	89.7

자료 : 각 연도 하수도통계

주 : 1)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2) 보급률=(급수인구÷총인구)×100

2507 > 도로 포장률

▶ 도로 포장률은 82.5%

2013년 기준, 전체적인 도로포장률이 82.5%인 가운데, ‘고속도로’(100.0%), ‘특·광역시’(98.8%), ‘일반국도’(97.7%), ‘구도’(99.5%) 포장률이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방도’(84.3%), ‘시도’(72.6%), ‘군도’(65.9%) 순이었다.

| 표2507 | 도로 포장률 (단위 : m,%)

연도	구분	총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도로 포장률		
2007	농어촌	33,536,554	24,634,335	73.5	6,748,259	2,153,940
	특별·광역시	20,469,380	20,100,482	98.2	318,088	50,810
	일반시	31,358,613	22,663,720	72.3	1,101,465	7,593,428
	도농복합시	17,654,413	13,222,920	74.9	2,961,749	1,469,744

(단위 : km,%)

연도	구분	총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도로 포장률		
2012	총계	105,703	88,183	83.4	8,765	8,755
	고속도로	4,044	4,044	100.0	-	-
	일반국도	13,766	13,432	97.6	57	277
	특·광시도	19,464	19,298	99.1	117	49
	지방도	18,162	15,230	83.9	1,591	1,341
	시도	27,670	21,094	76.2	1,406	5,170
	군도	22,597	15,085	66.8	5,594	1,918
	구도	22,597	15,085	66.8	5,594	1,918
2013	총계	106,414	87,799	82.5	8,620	9,995
	고속도로	4,112	4,112	100.0	-	-
	일반국도	13,843	13,527	97.7	57	259
	특·광시도	4,879	4,821	98.8	20	38
	지방도	18,083	15,243	84.3	1,529	1,311
	시도	28,047	20,352	72.6	1,184	6,511
	군도	22,374	14,741	65.9	5,757	1,876
	구도	15,076	15,003	99.5	73	-

자료 : 각 연도 도로현황조사

2508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 농어촌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39.0%

2014년 기준, 농어촌의 교통안전시설(신호등, 횡단보도, 표지판, 노면표시 등)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39.0%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39.1%)와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다.

| 표2508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24.0	3.4	20.5	52.6	23.5	19.4	4.1
	도시	26.1	3.0	23.1	54.6	19.3	16.8	2.5
2010	농어촌	28.4	5.6	22.8	51.8	19.7	16.8	2.9
	도시	29.4	4.8	24.6	53.3	17.2	15.0	2.2
2012	농어촌	33.5	6.1	27.4	48.0	18.5	15.1	3.4
	도시	32.0	5.6	26.4	53.5	14.4	12.4	2.0
2014	농어촌	39.0	7.4	31.6	45.7	15.3	12.7	2.6
	도시	39.1	6.7	32.4	48.4	12.6	10.6	2.0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509 >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 농어촌의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은 70.1%로 도시(83.3%)에 비해 낮음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은 70.1%이며, 보유가구 중 인터넷 접속 가능한 가구는 96.2%였다. 도시(보유율 83.3%, 접속가능률 98.6%)에 비해 보유율 및 접속 가능률 모두 낮게 나타났다.

| 표2509 |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단위: %)

연도	구분	보유율	계			미보유
				인터넷 접속가능	인터넷 접속 불가능	
2007	농어촌	68.5	100.0	67.3	32.7	31.5
	도시	83.3	100.0	82.8	17.2	16.7
2013	농어촌	70.1	100.0	96.2	3.8	29.9
	도시	83.3	100.0	98.6	1.4	16.7

자료: 각 연도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2510> 인터넷 이용 목적

▶ 농어촌의 인터넷 이용 목적 중 '자료 및 정보 획득'(88.2%) 비중이 가장 높음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인터넷 이용 목적(복수 응답)은 '자료 및 정보 획득'이 88.2%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 '여가활동'(81.4%), '커뮤니케이션'(79.3%) 순이었다. 도시에서도 유사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인터넷 금융'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 표2510 | 인터넷 이용 목적

(단위 : %)

연도	구분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 활동	커뮤니 케이션	인터넷 구매 및 판매	인터넷 금융	홈 페이지 운영	교육 학습	커뮤 니티	SW 다운/ 업그레 이드	구직 활동	파일 공유 서비스	기타
2007	농어촌	85.9	86.9	80.2	44.9	26.1	37.4	41.2	30.1	9.7	1.4	-	6.1
	도시	87.8	85.9	83.5	51.4	35.5	40.7	49.1	37.6	11.3	3.9	-	13.2
2010	농어촌	91.6	88.9	85.6	56.8	31.5	43.9	43.0	41.9	7.4	10.1	26.1	13.2
	도시	91.6	89.1	88.9	57.9	39.6	45.6	55.2	49.0	10.1	12.0	22.2	17.9
2011	농어촌	92.0	88.0	85.2	57.7	31.1	43.3	41.9	40.6	7.4	9.7	25.1	1.2
	도시	92.0	87.9	88.4	58.6	39.3	44.5	52.2	46.3	9.9	11.5	21.5	0.6
2012	농어촌	92.3	87.3	84.4	56.8	31.1	42.3	40.4	39.3	8.4	9.2	24.1	1.8
	도시	92.3	87.5	87.8	57.9	40.0	43.8	50.3	45.0	10.7	11.5	21.0	0.9
2013	농어촌	88.2	81.4	79.3	40.0	33.2	35.3	18.0	11.4	13.0	8.0	7.8	1.7
	도시	91.9	87.3	86.7	47.5	43.4	37.5	19.2	18.7	12.3	9.5	7.2	2.0

자료 : 각 연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511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농어촌에서 '식량안보'(27.8%)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범죄위험'(62.6%), '정보보안'(57.2%), '교통사고'(56.1%)에서 크게 나타남

2014년 기준, 농어촌에서는 '식량안보'(27.8%)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범죄위험'(62.6%), '정보보안'(57.2%), '교통사고'(56.1%)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도시에서도 유사한 경향이였다. 단, 대부분의 영역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더 높았으나,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도시에서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2511 - (1)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건축물 및 시설물/교통사고 (단위: %)

연도	구분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16.6	52.6	30.8	5.1	32.1	62.9
	도시	18.1	51.9	30.0	5.8	33.4	60.8
2010	농어촌	22.6	55.4	22.1	8.2	41.1	50.7
	도시	23.7	54.5	21.9	7.0	38.9	54.1
2012	농어촌	27.4	51.4	21.2	10.0	36.0	54.0
	도시	26.0	52.8	21.3	9.3	40.1	50.7
2014	농어촌	13.7	36.4	49.9	7.5	36.3	56.1
	도시	11.7	36.8	51.6	7.3	36.6	56.2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1 - (2)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국가안보/범죄위험 (단위: %)

연도	구분	국가안보			범죄위험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22.0	41.7	36.2	-	-	-
	도시	25.2	43.1	31.6	-	-	-
2010	농어촌	13.5	31.1	55.4	8.8	28.1	63.2
	도시	15.3	32.9	51.9	8.0	28.7	63.2
2012	농어촌	23.1	36.8	40.1	9.2	25.5	65.3
	도시	21.8	38.9	39.4	9.1	27.0	63.9
2014	농어촌	15.8	33.3	51.0	9.6	27.7	62.6
	도시	14.8	33.4	51.8	8.7	26.3	65.0

자료: 각 연도 사회조사

주: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1 - (3)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식량안보/신종 전염병

(단위 : %)

연도	구분	식량안보			신종 전염병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4.4	30.2	65.5	-	-	-
	도시	4.3	26.5	69.3	-	-	-
2010	농어촌	34.1	45.0	20.9	8.8	32.1	59.0
	도시	35.0	45.9	19.0	10.6	36.4	53.0
2012	농어촌	31.0	45.9	23.1	13.2	39.2	47.6
	도시	29.9	45.4	24.6	12.9	39.7	47.4
2014	농어촌	27.8	46.6	25.6	9.0	35.5	55.4
	도시	24.5	47.1	28.4	9.4	35.5	55.0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1 - (4)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정보보안/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단위 : %)

연도	구분	정보보안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5.4	36.8	57.8	13.1	37.4	49.5
	도시	4.6	28.6	66.7	18.3	43.9	37.8
2010	농어촌	14.4	46.5	39.1	16.2	42.2	41.6
	도시	13.3	41.7	45.1	19.4	46.1	34.5
2012	농어촌	13.6	44.4	42.0	21.9	41.3	36.7
	도시	12.2	38.4	49.3	23.5	46.1	30.3
2014	농어촌	8.4	34.3	57.2	15.4	38.7	45.9
	도시	7.2	28.8	64.0	15.0	41.1	43.9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1 - (5)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화재·산불/전반적인 사회 안전

(단위 : %)

연도	구분	화재·산불			전반적인 사회 안전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8.3	44.6	47.0	7.2	39.1	53.7
	도시	10.2	48.8	40.9	8.5	40.7	50.9
2010	농어촌	15.7	51.0	33.3	10.6	47.2	42.1
	도시	16.8	56.0	27.2	11.4	50.9	37.6
2012	농어촌	18.0	49.4	32.6	14.1	47.3	38.5
	도시	17.7	55.1	27.2	13.7	49.3	37.1
2014	농어촌	15.5	50.0	34.4	10.6	41.8	47.6
	도시	13.9	51.6	34.5	9.3	39.1	51.6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512 > 환경오염 체감정도

▶ 농어촌의 환경오염 체감정도는 '보통'으로 느끼는 인식이 높음

2014년 기준, 농어촌의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정도는 '보통'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은 가운데, '녹지 등 주위환경 개선'(55.2%)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나빠졌다'는 부정적인 인식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표2512 - (1) | 환경오염 체감정도 - 대기오염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7.3	1.0	6.3	54.9	37.8	33.4	4.4
	도시	9.7	0.7	9.0	50.9	39.4	33.9	5.4
2010	농어촌	60.5	24.0	36.5	30.5	9.1	8.1	1.0
	도시	30.5	6.3	24.2	46.0	23.5	19.9	3.6
2012	농어촌	67.4	32.4	35.0	24.7	7.9	6.7	1.2
	도시	34.3	8.0	26.3	47.1	18.7	15.9	2.8
2014	농어촌	11.2	1.5	9.7	74.7	14.2	12.1	2.1
	도시	13.0	3.6	9.4	76.9	10.1	9.3	0.8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2 - (2) | 환경오염 체감정도 - 수질오염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7.2	0.9	6.3	54.3	38.5	33.2	5.3
	도시	11.2	0.8	10.4	59.0	29.8	25.7	4.1
2010	농어촌	54.2	18.8	35.4	35.8	9.9	8.8	1.1
	도시	29.4	4.9	24.5	54.7	15.9	13.8	2.1
2012	농어촌	59.8	25.1	34.7	30.8	9.4	8.1	1.3
	도시	32.0	6.4	25.6	55.6	12.4	10.8	1.6
2014	농어촌	12.9	3.4	9.5	76.8	10.3	9.6	0.7
	도시	10.9	1.5	9.4	80.9	8.2	7.1	1.1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2 - (3) | 환경오염 체감정도 - 토양오염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6.1	0.8	5.2	53.4	40.6	34.9	5.7
	도시	9.4	0.7	8.7	56.1	34.5	29.6	4.9
2010	농어촌	48.0	14.9	33.1	38.1	13.9	12.5	1.4
	도시	26.5	4.3	22.2	52.5	21.1	18.1	3.0
2012	농어촌	54.8	21.9	32.9	34.3	10.9	9.6	1.3
	도시	29.1	5.7	23.4	53.9	17.1	14.5	2.6
2014	농어촌	11.4	3.2	8.2	75.7	13.0	12.0	1.0
	도시	10.3	1.4	8.9	78.3	11.3	9.8	1.5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2 - (4) | 환경오염 체감정도 - 소음공해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5.8	0.9	4.9	52.1	42.1	34.2	7.9
	도시	7.5	0.6	6.9	44.7	47.8	38.6	9.2
2010	농어촌	46.8	17.1	29.7	33.3	19.9	15.9	4.0
	도시	23.1	4.3	18.8	40.9	36.1	27.9	8.2
2012	농어촌	52.8	23.3	29.5	29.3	17.8	14.3	3.5
	도시	23.9	5.4	18.5	41.6	34.5	26.6	7.9
2014	농어촌	10.1	2.8	7.3	72.6	17.3	14.6	2.7
	도시	8.4	1.2	7.2	71.2	20.4	16.8	3.6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512 - (5) | 환경오염 체감정도 - 녹지 등 주위환경 개선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6.9	1.0	5.9	54.0	39.2	30.5	8.6
	도시	15.3	1.6	13.7	51.3	33.4	27.1	6.3
2010	농어촌	60.8	25.3	35.5	31.6	7.5	6.6	0.9
	도시	37.8	9.1	28.7	42.9	19.2	14.8	4.4
2012	농어촌	57.7	25.8	31.9	30.9	11.4	8.8	2.6
	도시	40.9	11.3	29.6	40.7	18.5	14.2	4.3
2014	농어촌	55.2	22.7	32.5	34.7	10.1	7.9	2.2
	도시	38.3	9.8	28.5	43.2	18.5	14.4	4.1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 0 1 4 농 어 업 인 복 지 실 태 조 사

2600> 지역역량 부문

2601> 사회단체 참여율

2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2601 > 사회단체 참여율

▶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50.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50.2%인 가운데 ‘친목 및 사교단체’가 5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 단체’(15.4%),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11.5%), ‘지역사회모임’(6.8%) 순이었다.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도시에 비해 ‘친목 및 사교단체’, ‘지역사회모임’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2601 | 사회단체 참여율

(단위 : %)

연도	구분		참여율									참여 단체 없음
			친목 및 사교 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기타 단체	
2006	농어촌	41.4	82.7	17.3	20.5	12.9	2.0	2.8	1.1	-	0.3	58.6
	도시	38.2	77.7	22.7	29.6	10.3	4.2	3.5	1.2	-	0.4	61.8
2009	농어촌	41.0	68.1	13.6	9.0	7.2	0.8	0.8	0.2	-	0.3	59.0
	도시	39.5	56.2	21.1	13.1	6.0	2.1	1.1	0.3	-	0.2	60.5
2011	농어촌	47.1	60.3	14.8	10.7	5.6	0.7	0.7	0.2	6.7	0.2	52.9
	도시	46.5	53.1	20.8	16.2	4.9	1.9	0.8	0.3	1.7	0.3	53.5
2013	농어촌	50.2	59.2	15.4	11.5	5.4	0.9	0.5	0.1	6.8	0.3	49.8
	도시	50.1	58.0	18.1	14.7	5.0	1.7	0.7	0.2	1.5	0.2	49.9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6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 2010년 기준, 농어촌 마을 중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은 7.2%

2010년 기준, 농어촌 마을 중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은 7.2%로 2005년 5.4%에 비해 증가하였다.

| 표2602 |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단위 : 마을, 행정리, %)

구분		총 마을 수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	비율
2005	농어촌	36,041	1,953	5.4
2010	농어촌	36,498	2,613	7.2

자료 :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2700> 경제활동 부문

2701> 소득 및 가계지출

2702> 부채 규모

2703> 소득 만족도

2704> 소비생활 만족도

2705> 노후준비

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2707> 자동차 보유 여부

2701 > 소득 및 가계지출

▶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득은 34,524천원, 연평균 가계지출은 30,264천원

2013년 기준,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득은 34,524천원,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38,586천원으로 2007년 대비 어가에서 증가 소득이 다소 더 증가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에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43,874천원에서 55,275천원으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표2701 | 소득 및 가계지출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연평균 소득	연평균 가계지출
2007	농가	31,967	28,048
	어가	30,668	22,963
	도시근로자	43,874	33,918
2008	농가	30,523	27,102
	어가	31,176	25,405
	도시근로자	46,807	36,306
2009	농가	30,814	26,574
	어가	33,945	25,188
	도시근로자	46,238	36,440
2010	농가	32,121	27,672
	어가	35,696	26,695
	도시근로자	48,092	38,514
2011	농가	30,148	27,906
	어가	38,623	27,523
	도시근로자	50,983	40,376
2012	농가	31,031	27,490
	어가	37,381	26,625
	도시근로자	53,908	41,937
2013	농가	34,524	30,264
	어가	38,586	28,032
	도시근로자	55,275	42,571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2702 > 부채 규모

▶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27,363천원, 어가는 40,422천원

2013년 연도말 기준,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27,363천원으로 농업용 부채는 11,715천원, 가계용 부채는 7,729천원이었다. 같은 시기 기준, 어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40,422천원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어업용 부채는 20,689천원, 가계용 부채는 10,194천원으로 나타났다.

| 표2702 | 부채 규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부채		농업, 어업용		가계용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2007	농가	28,966	29,946	16,125	16,481	7,263	7,725
	어가	33,920	34,407	16,800	16,690	9,544	10,178
2008	농가	23,920	25,786	12,638	13,600	6,343	6,446
	어가	33,630	33,587	18,581	18,207	9,265	9,484
2009	농가	25,614	26,268	13,040	13,150	6,891	7,086
	어가	35,745	35,864	19,734	19,038	9,701	10,618
2010	농가	27,025	27,210	13,189	12,930	6,857	7,330
	어가	34,177	35,640	18,349	18,277	9,835	10,347
2011	농가	27,509	26,035	12,634	11,892	7,748	7,156
	어가	39,687	37,862	20,035	18,631	11,045	10,816
2012	농가	27,889	27,262	13,022	13,123	7,435	7,030
	어가	40,766	39,518	20,716	20,177	10,544	10,363
2013	농가	26,946	27,363	11,934	11,715	7,504	7,729
	어가	39,470	40,422	20,335	20,689	9,473	10,194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2703 > 소득 만족도

▶ 농어촌에서 소득 '만족' 비율은 10.8%

2013년 기준, 농어촌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 만족도는 '불만족'이 48.5%로 '만족'(10.8%)에 비해 높은 가운데, 도시 주민의 '만족' 비율(12.4%)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 표2703 | 소득 만족도

(단위 : %)

연도	구분		소득 있음							소득 없음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7	농어촌	66.2	10.2	1.3	8.9	37.8	52.0	35.9	16.1	33.8
	도시	63.6	10.0	1.1	8.9	36.2	53.8	35.7	18.2	36.4
2009	농어촌	69.9	13.5	1.6	11.9	38.3	48.2	34.9	13.3	30.1
	도시	64.9	14.2	1.5	12.7	39.6	46.2	32.7	13.5	35.1
2011	농어촌	74.0	10.5	1.2	9.3	40.5	48.9	36.3	12.6	26.0
	도시	71.9	12.0	1.5	10.5	38.9	49.1	35.5	13.6	28.1
2013	농어촌	80.3	10.8	1.7	9.1	40.7	48.5	36.0	12.5	19.7
	도시	75.6	12.4	1.5	10.9	38.6	49.1	34.6	14.5	24.4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7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 19세 이상 인구 대상

2704> 소비생활 만족도

▶ 농어촌의 소비생활 '만족' 비율은 12.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39.3%)이 '만족'(12.2%)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에 비해 '만족' 비율(13.9%)이 낮게 나타났다.

| 표2704 |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7	농어촌	10.1	1.2	8.9	45.3	44.6	33.2	11.4
	도시	10.2	1.2	9.0	43.2	46.6	33.3	13.3
2009	농어촌	12.2	1.8	10.4	45.6	42.2	33.0	9.2
	도시	14.0	1.8	12.2	46.2	39.8	29.9	9.9
2011	농어촌	10.4	1.2	9.2	49.1	40.5	31.7	8.8
	도시	13.2	1.6	11.6	46.3	40.4	30.0	10.4
2013	농어촌	12.2	1.8	10.4	48.4	39.3	31.3	8.0
	도시	13.9	2.0	11.9	46.4	39.7	29.6	10.1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2007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 19세 이상 인구 대상

2705 > 노후준비

▶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은 60.1%,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49.0%)

2013년 기준,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은 60.1%인 가운데,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49.0%),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20.8%) 순이었으며,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39.9%로 '준비능력이 없음'(49.2%), '자녀에게 의탁'(23.9%) 등의 이유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 표2705 | 노후준비

(단위 : %)

연도	구분		준비하고(되어)있음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기타
2007	농어촌	65.6	39.7	7.9	14.6	2.8	26.1	8.4	0.5
	도시	74.2	41.4	8.0	16.6	3.9	22.5	6.6	1.1
2009	농어촌	64.3	42.9	8.4	16.6	4.0	22.4	5.1	0.6
	도시	77.8	42.6	7.3	18.0	3.8	20.7	6.3	1.2
2011	농어촌	66.4	51.6	7.9	12.3	2.9	18.7	5.3	1.3
	도시	77.9	55.9	7.1	13.7	2.5	14.5	5.3	1.1
2013	농어촌	60.1	49.0	8.2	9.3	4.3	20.8	6.9	1.5
	도시	75.7	53.1	7.8	11.6	4.6	16.9	5.1	0.9

연도	구분		준비하고 있지 않음			
			아직 생각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능력 없음	자녀에게 의탁
2007	농어촌	34.4	9.3	25.5	42.0	23.1
	도시	25.8	11.6	33.4	43.0	12.0
2009	농어촌	35.7	7.1	19.5	55.5	18.0
	도시	22.2	9.1	27.9	47.3	15.7
2011	농어촌	33.6	8.7	16.4	57.7	17.1
	도시	22.1	10.7	24.8	50.4	14.1
2013	농어촌	39.9	8.4	18.4	49.2	23.9
	도시	24.3	8.9	26.0	49.9	15.1

자료 : 각 연도 사회조사

주 : 1) 2007년, 2009년 - 18세 이상 가구주 대상, 2011년, 2013년 -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2) '준비하고(되어) 있음'에서 기타는 '주식, 채권 등'을 포함

2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 농어촌 농어업 경영주의 농업 및 어업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가장 많음

2010년 기준, 농어촌의 농업 경영주의 농업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81.6%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6.4%), '5~10년'(4.6%), '15~20년'(3.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의 어업 경영주의 어업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75.6%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9.3%), '15~20년'(6.2%), '5~10년'(5.6%)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 경영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표2706 |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단위 : %)

연도	구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2005	농가	3.9	5.3	6.2	3.8	80.8
	농어촌	3.0	4.3	5.3	3.5	84.0
	도시	8.7	10.2	10.6	5.6	64.9
	어가	4.2	6.5	9.3	7.2	72.8
	농어촌	3.8	6.1	9.2	7.3	73.6
	도시	5.9	7.9	9.7	6.9	69.7
2010	농가	5.1	6.6	7.8	4.2	76.4
	농어촌	3.7	4.6	6.4	3.8	81.6
	도시	11.1	14.8	14.0	5.9	54.2
	어가	3.7	5.9	9.5	6.3	74.6
	농어촌	3.4	5.6	9.3	6.2	75.6
	도시	5.0	7.5	10.4	6.7	70.5

자료: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주: 어가는 해수면+내수면을 합한 수치임

2707 > 자동차 보유 여부

▶ 농어촌의 자동차 보유율은 61.2%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자동차 보유율은 61.2%로 2005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도시(64.1%)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 표2707 | 자동차 보유 여부

(단위 : %)

연도	구분		자동차 보유율			자동차 미보유율
			1대	2대	3대 이상	
2005	농어촌	55.9	75.7	20.7	3.6	44.1
	도시	62.9	81.4	16.8	1.8	37.2
2010	농어촌	61.2	69.9	25.8	4.3	38.8
	도시	64.1	77.0	20.9	2.2	35.9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부록

 농촌진흥청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전국표본리스트

주요 항목별 타자료 비교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주요 용어 정리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표

01 전국 표본리스트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
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1
3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1
4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
5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
6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
7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
8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
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2
1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
1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2
12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2
13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1
14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1
15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1
1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1
17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
18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2
1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2
2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2
21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1
22	경기도	양주시	남면	한산2리	1
23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1
24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
25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군리	1
26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1
27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
28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교리	1
29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1
3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1
31	경기도	이천시	율면	본죽리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32	경기도	이천시	율면	북두리	1
3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2
34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2
35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2
3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2
37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2
38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2
39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
4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
4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1
42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
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1
4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1
45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
46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1
47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
48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1
49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1
50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1
51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대치리	1
52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
53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2리	1
54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	2
5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1
5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1
57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1
58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1
59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1
60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
61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
62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
63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1
64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1
65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
66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1
67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68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수동리*	1
69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울문리	1
7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1
7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
72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
73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1
7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1
75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1
76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1
77	강원도	홍천군	동면	후동리	2
78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2
79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2
80	강원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2
81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2
82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2
83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
84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1
85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	1
86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1
87	충청북도	세종시	부강면	등곡리→부강리**	1
88	충청북도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1
8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1
9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1
91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1
92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	1
9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각계리	2
94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2
95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
9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1
97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고당리	1
98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1
99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도이리	2
100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2

* 방곡리 : 강춘테마랜드 인근지역으로 유원지화 되어 수동리로 대체

** 등곡리 : 한센병자 집단 거주지역으로 부강리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101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2
102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2
10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
10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
105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2
106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2
107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1
108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정중리	1
109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1
110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1
111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
112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1
11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창리	1
114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1
115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2
116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2
11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1
11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1
119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	1
120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1
121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
122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1
123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
124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1
125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1
126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1
127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1
128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1
129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오곡리	1
130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복운리	1
131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1
132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1
133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아현리	1
134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1
135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2
136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호리	2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137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2
138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2
139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왕리	2
140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2
141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2
142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2
14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1
14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1
145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1
14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1
14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1
14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
149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북면	전곡리	1
150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북면	상동리	1
15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1
15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1
15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2
15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2
155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성거읍	요방리→천흥리*	1
156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1
157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입장면	산정리	1
158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입장면	용정리	1
159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2
160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
161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1
162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1
163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1
164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1
165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1
166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1
167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1
16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
169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1
17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1

* 외국인 노동자 다수 거주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17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
172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1
173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1
174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
17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모서리	2
176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2
177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1
178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1
179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내상리	1
180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현문리	1
181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1
182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1
183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1
184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1
185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1
186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1
187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1
188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1
189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1
190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1
191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1
192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
193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2
194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2
195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1
196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	1
197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1
198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1
199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
200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
201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2
202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담암리	2
20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호미곶면	강사1리	1
204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호미곶면	대보1리	1
205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	택전리	2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206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연일읍	유강리	2
207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송면	송동리	2
208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대송면	제내리	2
209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동해면	도구리	2
210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동해면	도구리	2
211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면	문성리	1
212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면	현내리	1
213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마산리	1
214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학천리	1
215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신광면	우각리	2
216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신광면	상읍리	2
217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
218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
2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
2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
2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
22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
2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2
224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2
225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1
226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1
227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1
228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1
229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1
230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1
2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
2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
23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
23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
23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1
23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1
237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
238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1
239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
24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24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1
24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1
243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
244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
245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1
246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
247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1
248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1
249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2
250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2
25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1
252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1
253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1
254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1
255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2
256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2
257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
258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
259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1
260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
261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반지리	2
262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2
263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1
264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연화리***	1
265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1
266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
267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1
268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1
269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
270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
271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1
272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1
273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1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월산마을 부영1단지 아파트 지역이 김해울하2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대체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월산마을 부영4단지 아파트 지역이 김해울하2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대체

*** 저림리 : 학림도라는 섬 안에 있는 지역으로 연화리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274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1
27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
276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1
277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	1
278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1
279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서호리	1
280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1
281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1
282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
283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1
284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1
285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1
286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1
287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1
288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화배리	1
289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1
29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1
291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2
292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2
293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2
294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2
295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2
296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2
297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1
298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1
299	전라북도	정읍시	임암면	접지리	1
300	전라북도	정읍시	임암면	하부리	1
301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마정리	2
302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한교리	2
303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2
304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2
305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2
306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2
307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1
30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309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상고리	1
310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상낙리	1
311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라천리	2
312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2
313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벌정리	2
314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송천리	2
315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2
316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2
317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
318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1
319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대강리	1
320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죽암리	1
321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	1
322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신송리	1
323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당두리	1
324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1
325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
326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
327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2
328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2
329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2
330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2
331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2
332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남정리	2
333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2
334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2
335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2
336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	2
33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
338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
339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2
340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2
341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2
342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2
343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도안리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344	전라남도	보성군	검백면	운림리	1
345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1
346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1
347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객산리	1
348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1
349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2
350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2
351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만리	1
352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1
35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
354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1
355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평촌리	2
356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금산리	2
35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
358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1
359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흥리	1
360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
36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1
362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1
363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2
36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2
365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1
366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1
367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1
368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1
369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1
370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1
371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1
372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1
373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
374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2
37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
37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
37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
37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연차
37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
38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
3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
38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38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
3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
38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
38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
38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
38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
38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
3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
3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
3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
3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
3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
3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
3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
3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
3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
3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
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
4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

02 주요항목별 타 자료 비교

[생활 전반 부문]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일반 사항	장애 가구원 유무	있음(%)		5.2	10.6	+5.4	※11장애인실태조사 (13.9%)
	장애 가구원 유형	가구주(%)		56.0	56.8	+0.8	
		가구주의 배우자(%)		20.7	21.9	+1.2	
		가구주의 자녀(%)		12.4	10.7	-1.7	
		자녀의 배우자(%)		3.5	1.7	-1.8	
		손자녀/그 배우자(%)		3.0	2.4	-0.6	
		부모(%)		4.0	5.6	+1.6	
		기타친인척(%)		0.6	0.9	+0.3	
	장애 종류 및 등급	장애 종류	지체장애(%)	45.7	57.5	+11.8	※'08한국복지 패널조사 -지체장애(38.1%) -뇌병변장애(11.4%) -시각장애(13.0%) -청각장애(9.2%) -언어장애(1.3%) -정신지체(5.6%) -발달장애(0.6%) -정신장애(4.7%) -신장장애(3.6%) -비등록 장애인 (8.6%)
			뇌병변장애(%)	11.5	8.3	-3.2	
			시각장애(%)	10.0	10.4	+0.4	
			청각장애(%)	8.4	8.8	+0.4	
			언어장애(%)	2.9	1.7	-1.2	
			정신지체(%)	5.4	3.1	-2.3	
			발달장애(%)	3.2	1.5	-1.7	
			정신장애	2.7	2.3	-0.4	
			신장장애(%)	5.9	3.1	-2.8	
			비등록 장애인(%)	2.8	1.8	-1.0	
		중복장애 여부	비해당(%)	79.5	92.5	+13.0	
			중복(%)	20.5	7.5	-13.0	
		장애 등급	1급(%)	11.4	10.8	-0.6	※'08한국복지 패널조사 -1급(10.3%) -2급(17.5%) -3급(19.4%) -4급(13.2%) -5급(12.3%) -6급(18.4%)
			2급(%)	19.8	14.9	-4.9	
			3급(%)	19.6	18.4	-1.2	
			4급(%)	12.5	14.9	+2.4	
			5급(%)	14.4	19.7	+5.3	
			6급(%)	21.5	21.3	-0.2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일반 사항	결혼이민자 유무	있음(%)			1.5	-	
	결혼이민자 유형	가구주(%)			0.8	-	
		가구주의 배우자(%)			85.1	-	
		자녀의 배우자(%)			14.1	-	
	출신국가	베트남(%)			72.6	-	※'12 전국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베트남(17.7%) -태국(1.2%) -필리핀(5.2%) -캄보디아(1.8%) -중국(56.3%) -몽골(1.1%)
		태국(%)			4.1	-	
		라오스(%)			2.3	-	
		필리핀(%)			2.2	-	
		캄보디아(%)			2.2	-	
		중국(%)			14.8	-	
		몽골(%)			1.0	-	
		독일(%)			0.8	-	
이주 실태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및 이주 시기	고향이다(%)		49.1	38.5	-10.6	
		이주 후 거주기간(년)	이주했다	10.7	11.4	+0.7	
			현거주지가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이주했다		12.8	+2.1	
	이주 직전 주택 위치	농어촌 →농어촌 (%)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38.4	53.5	+15.1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28.0	19.6	-8.4	
		도시 →농어촌 (%)	중소도시(동)	33.6	8.8	-6.7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18.1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주택 여건	주택건축후 경과년수	(년)		21.5	23.8	+2.3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주택 종류	단독주택(%)	53.3	54.6	+1.3	※'12한국복지 패널조사 -단독주택 (전국 36.18%) -아파트 (전국 43.52%) -연립주택 (전국 4.79%) -다세대주택 (전국 9.65%) -기타 (전국 5.87%)
			아파트(%)	38.6	34.3	-4.3	
			연립주택(%)	3.7	4.0	+0.3	
			다세대주택(%)	3.1	5.6	+2.5	
			기타(%)	1.3	1.5	+0.2	
		점유형태	자가(%)	81.1	78.8	-2.3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자가 (전국 54.62%) -전세 (전국 18.80%) -보증부 월세 (전국 17.06%) -월세(사글세) (전국 1.94%)
			전세(%)	9.9	8.6	-1.3	
			보증부 월세(%)	3.7	6.9	+3.2	
			월세(사글세)(%)	3.7	1.7	-2.0	
			무상(%)	1.8	3.9	+2.1	
	이주의사	이주 의향층(%)		16.6	13.2	-3.4	
생활 여건	이주 희망 이유	직업관련사유(%)		26.4	21.8	-4.6	
		주택관련사유(%)		23.1	30.0	+6.9	
		자녀교육(%)		17.1	11.4	-5.7	
		현재 거주환경 불만족(%)		13.2	24.3	+11.1	
		가정 경제 상황의 변화(%)		6.3	5.5	-0.8	
		가족관련 사유(%)		3.5	3.9	+0.4	
		건강상의 이유(%)		3.5	1.8	-1.7	
		기타(%)		6.9	1.3	-5.6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생활 여건	이주 희망 지역	농어촌 → 농어촌 (%)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26.9	62.1	+35.2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39.6	10.4	-29.2	
		농어촌 → 도시 (%)	중소도시(동)	29.6	9.6	-3.0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17.0		
		시설 입소(공동생활, 요양 등)(%)			0.2	-	
		기타(해외 파견, 이민 등)(%)		3.9	0.7	-3.2	
	전반적인 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점)		51.0	50.0	-1.0	※'11농촌생활지표 지역생활만족도 (종합만족도) (농촌 46.1점)
	현재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합)(%)			45.0	-	
	행복의 영향 요인	가족(%)			41.1	-	
		대인관계(%)			6.2	-	
		건강(%)			35.7	-	
		경제적 안정(%)			12.8	-	
		일/직업(%)			2.9	-	
		지역생활 환경(%)			0.9	-	
		기타(%)			0.5	-	

[경제활동 부문]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생산 활동	부업 현황	부업총(%)		4.4	-	※'11 근로환경조사 (1.1%)
		업종	농어업(%)	29.2	-	
			제조업(%)	9.5	-	
			건설업(%)	13.3	-	
			도매 및 소매업(%)	7.6	-	
			숙박 및 음식점업(%)	7.0	-	
			교육서비스업(%)	4.4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	
			기타 서비스업(%)	10.7	-	
			기타(%)	14.2	-	
	희망 부업 현황	부업 희망총(%)		6.0	-	
		희망 업종	농어업(%)	10.4	-	
			제조업(%)	10.7	-	
			건설업(%)	3.9	-	
			도매 및 소매업(%)	10.4	-	
			숙박 및 음식점업(%)	15.1	-	
			금융 및 보험업(%)	4.4	-	
			교육서비스업(%)	11.7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4	-	
			기타 서비스업(%)	15.5	-	
			기타(%)	11.5	-	
	희망 부업 현황	희망 월 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1	-	
			50-100만원 미만(%)	14.1	-	
			100-150만원 미만(%)	38.7	-	
			150-300만원 미만(%)	25.4	-	
			300만원 이상(%)	18.7	-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생산 활동	은퇴계획 및 희망 은퇴 연령	은퇴 계획	특정 연령(%)		11.3	-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		51.5	-	
			이미 은퇴했음(%)		6.1	-	
			잘 모르겠다(%)		31.1	-	
		희망 은퇴 연령(세)			63.7	-	
	창업 및 취업 희망 실태	창업 및 취업 희망층(%)			6.7	-	
		희망 업종	농어업(%)		14.6	-	
			제조업(%)		6.7	-	
			건설업(%)		6.7	-	
			도매 및 소매업(%)		1.4	-	
			숙박 및 음식점업(%)		10.3	-	
			교육서비스업(%)		0.5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5	-	
			기타 서비스업(%)		25.6	-	
			기타(%)		30.8	-	
		희망 월 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20.8	-	
			50-100만원 미만(%)		29.9	-	
			100-150만원 미만(%)		21.4	-	
			150-300만원 미만(%)		15.5	-	
			300만원 이상(%)		12.4	-	
	농어촌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영역	기술교육/인력양성(%)			27.6	-	
		창업 자금 지원(%)			34.4	-	
		시설/설비 지원(%)			27.2	-	
		사업 컨설팅/정보 제공(%)			4.2	-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2.6	-	
		농어촌 창업 절차 간소화(%)			2.7	-	
		소규모 사업체 대상 규제 완화(%)			1.3	-	
기타(%)			0.2	-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실태	농수산물 가공(%)			4.3	-		
	농수산물 직거래(%)		16.7	32.2	+15.5		
	농어촌 체험관광(%)		6.2	1.1	-5.1		
	음식판매(식당운영)(%)		3.1	0.6	-1.9		
	숙박제공(민박운영)(%)			0.6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생산 활동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참여 의사	농수산물 가공(%)		8.0	-	
		농수산물 직거래(%)	32.5	36.4	+3.9	
		농어촌 체험관광(%)	17.1	4.5	-12.6	
		음식판매(식당운영)(%)	9.8	2.1	-5.5	
		숙박제공(민박운영)(%)		2.2		
	농어촌 자원 활용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자금부족(%)	29.3	20.0	-9.3	
		기획력 및 기술력 부족(%)	17.9	7.1	-6.6	
		경영관리 역량 부족(%)		4.2		
		시설/설비 부족(%)	16.8	10.9	-5.9	
		행정·제도 복잡(%)	2.9	1.1	-0.4	
		관련 규제에 의한 제약(%)		1.4		
		인력 부족(%)	23.3	22.0	-1.3	
		고객·판로 확보(%)	5.3	30.2	+24.9	
		참여자 간 갈등(%)	2.4	1.0	-1.4	
		기타(%)	2.1	2.0	-0.1	
생산 활동	영농형태 및 농축산물 판매금액	영농 형태	논벼(%)	57.0	-	※13 농림어업조사 -논벼(41.7%) -식량작물(8.7%) -채소·산나물(23.7%) -과수(15.4%) -화초·관상작물(1.4%) -특용작물 버섯(2.4%) -약용작물(0.7%) -축산(5.5%) -기타작물(0.5%)
			식량작물(%)	9.3	-	
			노지채소(%)	11.2	-	
			시설채소(%)	5.2	-	
			과수(%)	7.2	-	
			화훼(%)	0.3	-	
			특·약용작물, 버섯(%)	4.4	-	
			축산(%)	5.2	-	
			기타(%)	0.2	-	
		농축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미만(%)	10.4	-	
			120-3백만원 미만(%)	12.0	-	
			3백-5백만원 미만(%)	14.8	-	
			5백-1천만원 미만(%)	19.3	-	
			1천-2천만원 미만(%)	19.9	-	
			2천-3천만원 미만(%)	10.6	-	
			3천-5천만원 미만(%)	8.1	-	
			5천-1억원 미만(%)	2.5	-	
			1억-2억원 미만(%)	0.7	-	
			2억원 이상(%)	1.8	-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생산 활동	농업 계획 및 농업 승계자 유무	농업 계획	확대할 계획이다(%)		7.4	-	※'13 농림어업조사 -있음(9.8%) -없음(90.2%)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63.8	-	
			축소할 계획이다(%)		24.1	-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		4.7	-	
		농업 승계자 유무	있음(%)		9.4	-	
			없음(%)		58.9	-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		31.7	-	
	농업에 대한 인식	가능한 한 농업을 계속하고 싶다(점)			57.8	-	
		가능한 한 농업이 가족 내에서 대물림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점)			35.6	-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만족스럽다(점)			43.0	-	
		농업은 노동 부담이 심하지 않다*(점)			22.3	-	
		농업은 소득이 낮지 않다*(점)			27.4	-	
		농업은 보람 있는 직업이다(점)			54.3	-	
		농업은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이다(점)			43.0	-	
		농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점)			80.7	-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점)			81.0	-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다(점)			56.7	-	
소비 활동	주요 생활비 지출 항목	식료품비(%)			25.2	-	
		보건의료비(%)			16.5	-	
		가구가사용품비(%)			1.1	-	
		피복신발비(%)			1.8	-	
		주거비(%)			6.5	-	
		광열수도비(%)			18.0	-	
		교육비(%)			9.6	-	
		문화여가비(%)			1.1	-	
		교통통신비(%)			14.2	-	
		관혼상제비(%)			2.7	-	
		기타(%)			3.2	-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소비 활동	주요 물품 구입 실태	식료품 물품 구입처	동네가게(%)	6.1	-	※'12농촌생활지표 -동네가게 (농촌 10.3%) -수퍼마켓 및 연쇄점 (농촌 33.9%) -대형할인매장 (농촌 18.0%) -백화점 및 쇼핑센터 (농촌 0.1%) -시장(농촌 34.8%)
			중소형 슈퍼마켓(%)	22.3	-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	36.9	-	
			대형할인매장(%)	16.4	-	
			백화점(%)	0.1	-	
			상설시장/5일장(%)	17.9	-	
			인터넷 쇼핑몰(%)	0.3	-	
		일상생활 용품 물품 구입처	동네가게(%)	7.5	-	
			중소형 슈퍼마켓(%)	23.1	-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	41.9	-	
			대형할인매장(%)	16.9	-	
			백화점(%)	0.1	-	
			상설시장/5일장(%)	9.0	-	
			인터넷 쇼핑몰(%)	1.4	-	
		식료품 주된 구입처 위치	우리 마을 내(%)	35.1	-	
			우리 읍/면 내(%)	44.2	-	
			우리 시/군 내(%)	17.1	-	
			다른 시/군(%)	3.6	-	
		일상생활 용품 주된 구입처 위치	우리 마을 내(%)	36.5	-	
			우리 읍/면 내(%)	45.2	-	
			우리 시/군 내(%)	14.8	-	
			다른 시/군(%)	3.5	-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소비 활동	주요 물품 구입 실태	식료품 물품 구입처까지 교통수단	걸어서(%)		33.4	-	
			대중교통(%)		25.5	-	
			자가용(%)		38.8	-	
			기타(%)		2.2	-	
		일상생활 용품 물품 구입처까지 교통수단	걸어서(%)		35	-	
			대중교통(%)		24.4	-	
			자가용(%)		38.3	-	
			기타(%)		2.3	-	
		물품 구입처까지 평균 소요시간	식료품(분)		13.6	-	
			일상생활용품(분)		13,2	-	
경제적 생활 수준	월 평균 생활비(만원)				134.1	-	※'12한국복지 패널조사 (평균 339만원)
	저축 현황	저축층(%)			43.1	-	※'12농촌생활지표 (농어촌 40.2%)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만족도(점)		41.3	42.3	+1.0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변화	좋아진 편(합)			22.6	-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전망	좋아질 것(합)			2.7	-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영역	지역 특화 작목 개발(%)			30.0	-	
		농어촌 자원 활용 6차산업 육성(%)			13.4	-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			18.7	-	
		기업 유치(%)			17.4	-	
		지역 문화관광 개발(%)			18.3	-	
기타(%)				2.3	-		

[문화·여가여건 부문]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문화 여가 활동 참여	여가활동 목적	건강 유지 및 체력 단련(%)		27.7	-	※12국민여가활동조사 -몸과 마음의 휴식 (38.8%) -즐거움과 재미 (36.1%) -건강 유지 및 체력단련(15.3%) -친교·교제(5.9%) -자기계발(1.4%)
		자기계발(%)		10.2	-	
		몸과 마음의 휴식(%)		45.0	-	
		즐거움과 재미(%)		10.1	-	
		친교·교제(%)		6.6	-	
		기타(%)		0.3	-	
	주된 여가활동 실태	주된 여가활동	문화예술관람(%)	5.4	-	※12국민여가활동조사 -휴식(59.3%) -취미활동(20.9%) -스포츠활동(8.6%) -사회활동(5.7%) -문화예술관람(2.9%) -여행(1.2%) -스포츠관람(0.9%) -문화예술활동(0.5%)
			문화예술활동(%)	1.4	-	
			스포츠관람(%)	1.5	-	
			스포츠활동(%)	17.5	-	
			여행(%)	3.3	-	
			취미활동(%)	4.8	-	
			사회활동(%)	14.4	-	
			휴식(%)	17.8	-	
			TV 및 라디오 시청(%)	29.2	-	
			독서, 신문/잡지 보기(%)	2.0	-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1.9	-	
		주된 여가활동 동반자	혼자(%)	33.9	-	
			가족·친지(%)	33.4	-	
			친구(%)	18.6	-	
			이웃 주민(%)	11.4	-	
			직장 동료(%)	0.8	-	
			공통의 관심 사항을 가진 사람들(%)	1.6	-	
			기타(%)	0.2	-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문화 여가 활동 참여	주된 여가활동 실태	주된 여가활동 빈도	주 4회 이상(%)	33.4	-	
			주 2-3회(%)	21.4	-	
			주 1회 정도(%)	18.2	-	
			월 1-3회 정도(%)	20.4	-	
			2-3개월에 1회 정도(%)	4.3	-	
			4-6개월에 1회 정도(%)	1.4	-	
			연 1회 정도(%)	0.9	-	
		주된 여가활동 장소	자택(집)(%)	49.2	-	
			시/군 공공시설(%)	4.5	-	
			읍/면 공공시설(%)	7.1	-	
			마을 내 공동시설(%)	11.6	-	
			민간시설(%)	19.1	-	
			기타(%)	8.4	-	
		주된 여가활동 장소 위치	우리 마을 내(%)	34.3	-	
			우리 읍/면 내(%)	29.3	-	
			우리 시/군 내(%)	17.3	-	
			다른 시/군(%)	19.2	-	
		여가활동 장소까지 주된 교통수단	걸어서(%)	38.8	-	
			대중교통(%)	18.4	-	
			자가용(%)	41.2	-	
			기타(%)	1.6	-	
		여가활동 장소까지 편도 소요시간(분)		12.1	-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경험	관람 경험층(%)		29.2	-	
		관람 횟수	총 관람 횟수(회)	7.6	-	
			무료관람 횟수(회)	0.8	-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문화 여가 활동 참여	체육활동 경험	경험층(%)		26.0	-	
		경험 횟수(회)		9.8	-	
		주된 체육활동	구기 운동(%)	12.2	-	
			라켓 운동(%)	8.5	-	
			무도/격투기(%)	1.0	-	
			체력단련 운동(%)	27.8	-	
			레저스포츠(%)	17.3	-	
			리듬스포츠(%)	2.3	-	
			걷기(%)	30.4	-	
			기타(%)	0.4	-	
	여행 경험	여행 경험층(%)		45.0	-	※'12농촌생활지표 (농어촌 53.6%)
		평균 여행 횟수(회)		1.6	-	※'11농촌생활지표 (농어촌 1.7회)
	문화여가 활동 전문인력 지도경험	경험층(%)		7.8	-	
		경험 횟수(회)		1.7	-	
	문화여가 활동 동호회 활동실태	활동층(%)		9.7	-	
		활동 동호회 개수(개)		1.6	-	※'12국민여가 활동조사 (1.3개)
		동호회 종류	문화예술관람(%)	8.1	-	※'10국민여가 활동조사 -문화예술 관람활동(0.5%)
			문화예술활동(%)	12.4	-	-문화예술 참여활동(4.0%)
			스포츠관람(%)	1.9	-	-스포츠 관람활동(0.4%)
			스포츠활동(%)	52.6	-	-스포츠 참여활동(12.9%)
			여행(%)	3.2	-	-관광활동(2.6%)
			취미활동(%)	8.5	-	-취미오락활동 (25.6%)
			사회활동(%)	11.5	-	-휴식(1.2%)
			기타(%)	1.7	-	-사회 및 기타활동 (52.9%)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문화 여가 활동 참여	문화여가 활동 동호회 활동실태	동호회 참여 빈도	주 4회 이상(%)	14.5	-	
			주 2-3회(%)	14.5	-	
			주 1회 정도(%)	30.8	-	
			월 1-3회 정도(%)	25.8	-	
			2-3개월에 1회 정도(%)	9.7	-	
			4-6개월에 1회 정도(%)	2.6	-	
			연 1회 정도(%)	2.1	-	
		동호회 참여 경력	6개월 미만(%)	6.5	-	
			6개월-1년 미만(%)	8.7	-	
			1-3년 미만(%)	28.4	-	
			3-5년 미만(%)	18.3	-	
			5년 이상(%)	38.1	-	
		동호회 활동 전문성	초급(%)	19.6	-	
			중급(%)	55.9	-	
			준전문가 수준(%)	12.5	-	
			전문가 수준(%)	7.4	-	
			해당 없음(%)	4.6	-	
	문화여가 활동 동호회 활성화 필요 요소	활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 지원(%)		42.9	-	
		관련 장비, 재료, 자료 등 지원(%)		16.5	-	
		강사 또는 전문가 파견(%)		9.1	-	
		관련 경비 지원(%)		18.2	-	
		참여 안내를 위한 정보 제공(%)		13.2	-	
		기타(%)		0.1	-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 활동 실태	활동증(%)		4.7	-	
		활동 종류	문화예술관람(%)	6.1	-	
			문화예술활동(%)	35.7	-	
			스포츠관람(%)	3.2	-	
			스포츠활동(%)	42.9	-	
			여행(%)	13.5	-	
			취미활동(%)	13.3	-	
			사회활동(%)	13.6	-	
		참여도	참여하는 편(합)(%)	44.7	-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문화 여가 활동 참여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 활동 활성화 필요 요소	활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 지원(%)		48.4	-	
		관련 장비, 재료, 자료 등 지원(%)		12.1	-	
		강사 또는 전문가 파견(%)		10.3	-	
		관련 경비 지원(%)		17.0	-	
		참여 안내를 위한 정보 제공(%)		11.0	-	
		기타(%)		1.2	-	
희망 문화 여가 활동	희망 문화 여가 활동 실태	희망 문화 여가 활동	문화예술관람(%)	11.6	-	※'13 사회조사 -문화예술관람 (농촌 7.2%) -스포츠관람 (농촌 2.1%) -스포츠 활동 (농촌 6.8%) -여행(농촌 47.4%) -창의적취미 (농촌 3.3%) -사교 관련 일 (농촌 7.2%) -휴식(농촌 5.0%)
			문화예술활동(%)	7.9	-	
			스포츠관람(%)	3.5	-	
			스포츠활동(%)	18.3	-	
			여행(%)	30.7	-	
			취미활동(%)	9.2	-	
			사회활동(%)	3.8	-	
			휴식(%)	14.8	-	
			기타(%)	0.2	-	
		희망 문화 여가 활동 주된 동반자	혼자(%)	11.7	-	
			가족·친지(%)	48.4	-	
			친구(%)	23.4	-	
			이웃 주민(%)	12.9	-	
			직장 동료(%)	0.7	-	
			공통의 관심 사항을 가진 사람들(%)	2.7	-	
			기타(%)	0.2	-	
		희망 문화 여가 활동 빈도	주 4회 이상(%)	7.5	-	
			주 2-3회(%)	13.1	-	
			주 1회 정도(%)	20.5	-	
			월 1-3회 정도(%)	28.2	-	
			2-3개월에 1회 정도(%)	12.5	-	
			4-6개월에 1회 정도(%)	8.2	-	
			연 1회 정도(%)	10.0	-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희망 문화 여가 활동	희망 문화여가 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	적합한 시설이 없음(%)		43.6	-	
		장비 및 재료 구입이 어려움(%)		3.9	-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없음(%)		10.6	-	
		강사 및 전문가가 없음(%)		4.7	-	
		교통이 불편(%)		4.4	-	
		관련 정보 부족(%)		7.1	-	
		함께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움(%)		2.4	-	
		기타(%)		0.4	-	
		제약 요인이 없음(%)		22.9	-	
문화 여가 지원	필요한 문화 여가 시설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문화예술 관련 시설(%)	18.3	-	※'11농촌생활지표 필요문화여가시설 -공공도서관 (농촌 5.6%) -공연장(농촌 4.8%) -박물관/미술관 (농촌 2.0%) -건강 및 체육시설 (농촌 57.5%) -경로당(노인회관): (농촌 26.1%) -기타(농촌 3.9%)
			체육 시설(%)	21.2	-	
			관광, 오락 시설(%)	9.8	-	
			취미활동 시설(%)	17.4	-	
			친교, 휴식 시설(%)	27.4	-	
			기타(%)	5.8	-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소요시간 허용범위	5분 이내(%)	15.1	-	
			10분 이내(%)	57.5	-	
			20분 이내(%)	20.6	-	
			30분 이내(%)	5.1	-	
			1시간 이내(%)	1.7	-	

분류	문항	항목	2013 (농어촌)	2014	차이	타자료 비교
문화 여가 지원	희망하는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	미술품 전시(%)		1.8	-	
		음악 공연(%)		8.3	-	
		전통예술공연(%)		12.1	-	
		연극/무용 등 공연(%)		5.2	-	
		영화상영(%)		16.0	-	
		연예공연(%)		8.5	-	
		문화예술교육(%)		11.6	-	
		체육활동지도(%)		25.3	-	
		취미활동교육(%)		9.5	-	
		이동도서관(%)		1.8	-	
	문화여가 생활만족도	만족(합)(%)	7.9	10.0	+2.1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만족(합) (전국 41.49%) ※'13사회조사 여가 활용 만족도 (13세 이상 인구) -만족(합) (농촌 23.8%)
		만족도(점)	41.4	38.7	-2.7	※'11농촌생활지표 지역생활만족도- 문화체육여가환경 (농촌 43.1점)
	문화여가 여건 변화	좋아진 편(%)		23.0	-	※'13사회조사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 (19세 이상 인구) -좋아짐(합) (농촌 35.1%)

0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⁶⁾

표준오차(SE)와 상대표준오차(RSE)

◦ 표본오차 (sampling error)

- 모집단 전체가 아닌 일부 표본을 확률 추출하는 데에서 생기는 통계적 오차
- 표본조사를 통해 구한 통계의 정확성(precision)을 나타내는 척도
- 일반적으로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등의 형태로 표현

◦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

- 추정치의 표준편차: $\sqrt{Var(\hat{\theta})}$

◦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RSE)

$$- RSE(\hat{\theta}) = \frac{\sqrt{Var(\hat{\theta})}}{\hat{\theta}}$$

- 상대표준오차는 추정치나 표준오차의 단위와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표본조사 품질 척도로 널리 사용됨

◦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 \hat{\theta} \pm 1.96 \sqrt{Var(\hat{\theta})}$$

◦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모두 $Var(\hat{\theta})$ 의 함수로 표현

- 모두 수학적으로 동등함

◦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통계적 정확도

- 통계의 중요성, 목적, 용도에 따라 정확도 요구가 다름
- 일반적으로, 전국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1 ~ 5% 정도이고
- 시도별, 속성별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3 ~ 10% 정도임
- 상대표준오차가 지나치게 크면 공표를 지양해야 함

6) 전체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별책으로 발간된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생활 영역별 만족도

구분			n	평균	SE	RSE(%)
종합만족도	합계		3,939	48.9	1.06	2.2
	읍/면 유무	읍	1,838	50.0	1.32	2.6
		면	2,101	47.9	1.26	2.6
	영농여부	농어가	1,120	48.8	1.19	2.4
		비농어가	2,819	48.9	1.15	2.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48.4	1.30	2.7
		40대	768	47.4	1.49	3.1
		50대	758	49.1	1.38	2.8
		60대	613	50.3	1.14	2.3
		70대 이상	844	49.3	1.03	2.1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519	46.5	1.09	2.4
		비의향층	3,420	49.2	1.15	2.3
차원만족도	합계		3,939	47.7	1.06	2.2
	읍/면 유무	읍	1,838	49.1	1.30	2.6
		면	2,101	46.4	1.26	2.7
	영농여부	농어가	1,120	47.2	1.31	2.8
		비농어가	2,819	47.9	1.10	2.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47.3	1.37	2.9
		40대	768	46.1	1.37	3
		50대	758	47.8	1.28	2.7
		60대	613	49.1	1.20	2.4
		70대 이상	844	48.5	1.14	2.4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519	45.5	0.99	2.2
		비의향층	3,420	48.0	1.15	2.4
체감만족도	합계		3,938	50.0	1.11	2.2
	읍/면 유무	읍	1,838	50.9	1.42	2.8
		면	2,100	49.3	1.30	2.6
	영농여부	농어가	1,119	50.4	1.16	2.3
		비농어가	2,819	49.9	1.23	2.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49.5	1.36	2.7
		40대	768	48.7	1.72	3.5
		50대	758	50.5	1.55	3.1
		60대	613	51.5	1.24	2.4
		70대 이상	844	50.1	1.13	2.3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519	47.5	1.36	2.9
		비의향층	3,420	50.4	1.19	2.4

지역생활 영역별 만족도

구분			n	평균	SE	RSE(%)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합계		3,933	44.7	1.68	3.8
	읍/면 유무	읍	1,833	46.2	1.66	3.6
		면	2,100	43.3	2.08	4.8
	영농여부	농어가	1,119	44.6	1.90	4.3
		비농어가	2,815	44.7	1.84	4.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42.7	2.28	5.3
		40대	766	43.8	1.97	4.5
		50대	756	45.4	2.02	4.4
		60대	612	47.4	1.75	3.7
		70대 이상	843	45.3	1.71	3.8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517	43.5	1.14	2.6
		비의향층	3,417	44.8	1.86	4.1
자녀 학교 교육, 형생 교육 등 교육 여건	합계		3,923	43.4	1.24	2.9
	읍/면 유무	읍	1,826	45.4	1.51	3.3
		면	2,097	41.7	1.94	4.7
	영농여부	농어가	1,117	40.7	2.37	5.8
		비농어가	2,807	44.5	1.04	2.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45.9	1.26	2.7
		40대	766	41.8	1.79	4.3
		50대	750	42.9	1.36	3.2
		60대	611	44.3	1.83	4.1
		70대 이상	841	42.2	2.21	5.3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516	42.7	1.08	2.5
		비의향층	3,408	43.5	1.35	3.1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합계		3,931	38.9	1.37	3.5
	읍/면 유무	읍	1,831	40.4	1.95	4.8
		면	2,100	37.6	1.72	4.6
	영농여부	농어가	1,118	37.4	1.77	4.7
		비농어가	2,813	39.5	1.46	3.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37.9	1.88	5.0
		40대	764	35.3	1.87	5.3
		50대	756	39.0	1.50	3.8
		60대	612	41.2	1.71	4.1
		70대 이상	843	41.5	1.82	4.4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517	36.8	1.57	4.3
		비의향층	3,414	39.2	1.53	3.9

구분			n	평균	SE	RSE(%)
주택, 도로,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 기반	합계		3,929	47.5	1.51	3.2
	읍/면 유무	읍	1,831	49.7	1.66	3.3
		면	2,098	45.5	2.11	4.6
	영농여부	농어가	1,117	46.9	1.84	3.9
		비농어가	2,811	47.7	1.50	3.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3	47.1	1.45	3.1
		40대	766	46.7	2.53	5.4
		50대	753	47.7	1.83	3.8
		60대	612	48.7	1.66	3.4
		70대 이상	843	47.3	2.19	4.6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515	45.6	1.61	3.5
		비의향층	3,413	47.7	1.63	3.4
환경, 경관	합계		3,931	63.5	1.00	1.6
	읍/면 유무	읍	1,834	64.4	1.52	2.4
		면	2,097	62.8	1.37	2.2
	영농여부	농어가	1,119	64.7	1.49	2.3
		비농어가	2,813	63.1	1.05	1.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3	60.8	2.02	3.3
		40대	766	62.6	1.43	2.3
		50대	755	64.9	1.38	2.1
		60대	613	64.9	1.09	1.7
		70대 이상	842	64.6	1.42	2.2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517	59.0	1.56	2.7
		비의향층	3,415	64.2	0.96	1.5
직업 기회, 소득, 물가 등 경제활동 여건	합계		3,928	42.9	1.55	3.6
	읍/면 유무	읍	1,830	44.3	2.14	4.8
		면	2,098	41.7	1.50	3.6
	영농여부	농어가	1,118	41.2	2.08	5.1
		비농어가	2,810	43.6	1.51	3.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2	44.5	2.40	5.4
		40대	764	41.3	1.91	4.6
		50대	754	42.6	1.72	4.1
		60대	613	42.1	1.50	3.5
		70대 이상	843	43.9	1.31	3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514	42.8	2.38	5.6
		비의향층	3,414	42.9	1.63	3.8

구분			n	평균	SE	RSE(%)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부터의 안전	합계		3,929	61.3	0.91	1.5
	읍/면 유무	읍	1,830	61.4	1.83	3.0
		면	2,099	61.3	0.97	1.6
	영농여부	농어가	1,118	64.4	0.76	1.2
		비농어가	2,811	60.1	1.08	1.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59.6	1.21	2.0
		40대	764	59.4	1.43	2.4
		50대	756	60.3	0.81	1.3
		60대	611	63.6	0.80	1.3
		70대 이상	842	63.8	1.24	1.9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이주 의향층	515	54.8	1.34	2.5
		비의향층	3,415	62.3	0.87	1.4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구분			n	평균	SE	RSE(%)
종합 만족도	합계		3,939	40.3	0.77	1.9
	읍/면 유무	읍	1,838	42.0	1.04	2.5
		면	2,101	38.8	0.97	2.5
	영농여부	농어가	1,120	39.6	1.09	2.7
		비농어가	2,819	40.6	0.97	2.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44.4	1.63	3.7
		40대	768	41.4	1.17	2.8
		50대	758	40.0	1.10	2.7
		60대	613	39.3	0.86	2.2
		70대 이상	844	36.4	0.91	2.5
	저축현황	저축층	1,699	47.0	1.61	3.4
		비저축층	2,240	35.2	0.50	1.4
차원 만족도	합계		3,939	38.3	0.83	2.2
	읍/면 유무	읍	1,838	40.2	1.25	3.1
		면	2,101	36.6	0.94	2.6
	영농여부	농어가	1,120	36.9	1.15	3.1
		비농어가	2,819	38.8	1.05	2.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42.3	1.68	4.0
		40대	768	38.3	1.03	2.7
		50대	758	38.6	1.10	2.8
		60대	613	37.3	0.94	2.5
		70대 이상	844	34.9	0.96	2.7
	저축현황	저축층	1,699	44.9	1.74	3.9
		비저축층	2,240	33.2	0.59	1.8

구분			n	평균	SE	RSE(%)
체감 만족도	합계		3,937	42.3	0.76	1.8
	음/면 유무	음	1,838	43.9	0.94	2.1
		면	2,099	41.0	1.02	2.5
	영농여부	농어가	1,118	42.2	1.06	2.5
		비농어가	2,819	42.4	0.96	2.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46.5	1.69	3.6
		40대	768	44.5	1.48	3.3
		50대	758	41.4	1.16	2.8
		60대	613	41.3	0.86	2.1
		70대 이상	843	38.0	0.99	2.6
	저축현황	저축층	1,699	49.1	1.56	3.2
		비저축층	2,239	37.2	0.52	1.4
가계의 소득 수준	합계		3,936	40.3	1.22	3.0
	음/면 유무	음	1,836	41.7	1.76	4.2
		면	2,099	39.0	1.09	2.8
	영농여부	농어가	1,119	39.0	1.08	2.8
		비농어가	2,817	40.8	1.50	3.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45.2	2.25	5.0
		40대	768	39.6	2.08	5.2
		50대	756	41.1	1.35	3.3
		60대	613	38.5	1.11	2.9
		70대 이상	843	37.0	1.00	2.7
	저축현황	저축층	1,697	46.4	2.73	5.9
		비저축층	2,239	35.6	0.75	2.1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수준	합계		3,936	42.0	1.19	2.8
	음/면 유무	음	1,836	42.9	1.69	3.9
		면	2,099	41.2	1.30	3.2
	영농여부	농어가	1,119	41.0	1.33	3.2
		비농어가	2,817	42.4	1.44	3.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45.8	1.85	4.1
		40대	768	42.5	1.60	3.8
		50대	756	43.0	1.57	3.6
		60대	613	40.7	1.19	2.9
		70대 이상	843	38.4	1.39	3.6
	저축현황	저축층	1,697	47.9	2.37	4.9
		비저축층	2,239	37.6	1.07	2.8

구분			n	평균	SE	RSE(%)
저축하고 있는 금액	합계		3,934	31.7	1.13	3.6
	읍/면 유무	읍	1,836	35.9	1.30	3.6
		면	2,098	28.0	1.18	4.2
	영농여부	농어가	1,117	29.1	1.90	6.5
		비농어가	2,817	32.7	1.19	3.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38.8	1.90	4.9
		40대	766	34.3	1.29	3.8
		50대	756	31.6	1.45	4.6
		60대	613	29.1	1.46	5.0
		70대 이상	843	24.0	1.50	6.3
	저축현황	저축층	1,697	43.8	1.90	4.3
		비저축층	2,237	22.4	0.82	3.6
가계의 순자산 수준	합계		3,934	37.3	0.92	2.5
	읍/면 유무	읍	1,836	38.0	1.31	3.4
		면	2,097	36.7	1.10	3.0
	영농여부	농어가	1,117	38.1	1.36	3.6
		비농어가	2,817	37.0	1.13	3.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38.6	1.55	4.0
		40대	766	36.1	1.40	3.9
		50대	755	37.8	1.05	2.8
		60대	613	38.1	1.34	3.5
		70대 이상	843	36.4	1.27	3.5
	저축현황	저축층	1,697	42.7	1.70	4.0
		비저축층	2,236	33.2	0.78	2.3
가계의 부채수준	합계		3,933	51.5	1.56	3.0
	읍/면 유무	읍	1,836	52.2	2.74	5.3
		면	2,097	50.9	1.21	2.4
	영농여부	농어가	1,117	47.9	1.75	3.7
		비농어가	2,817	52.9	1.90	3.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53.4	3.82	7.2
		40대	766	46.9	1.97	4.2
		50대	756	48.2	1.62	3.4
		60대	613	52.9	1.44	2.7
		70대 이상	841	55.6	1.75	3.2
	저축현황	저축층	1,697	54.9	2.57	4.7
		비저축층	2,236	48.9	1.55	3.2

구분			n	평균	SE	RSE(%)
여유자금	합계		3,934	36.2	1.13	3.1
	음/면 유무	음	1,835	39.1	1.95	5.0
		면	2,099	33.7	1.19	3.5
	영농여부	농어가	1,119	34.3	1.65	4.8
		비농어가	2,815	37.0	1.30	3.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41.3	2.26	5.5
		40대	768	37.1	1.47	4.0
		50대	755	36.7	1.23	3.4
		60대	613	35.0	1.45	4.1
		70대 이상	843	31.2	0.90	2.9
	저축현황	저축층	1,696	42.6	1.74	4.1
		비저축층	2,239	31.4	0.85	2.7
노후 준비금	합계		3,936	34.2	1.05	3.1
	음/면 유무	음	1,836	36.9	1.63	4.4
		면	2,099	31.9	1.07	3.4
	영농여부	농어가	1,119	33.0	1.91	5.8
		비농어가	2,817	34.7	1.29	3.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874	38.0	2.80	7.4
		40대	768	35.3	1.43	4.1
		50대	756	35.2	1.37	3.9
		60대	613	32.8	1.56	4.8
		70대 이상	843	29.9	0.79	2.6
	저축현황	저축층	1,697	40.6	1.73	4.3
		비저축층	2,239	29.4	0.83	2.8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점수

구분		n	평균	SE	RSE(%)
합계		3,937	38.7	0.83	2.1
읍/면 여부	읍	1,838	39.5	1.06	2.7
	면	2,100	38.0	1.40	3.7
영농 여부	농어가	1,119	38.2	1.37	3.6
	비농어가	2,819	38.9	0.90	2.3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경험	경험층	1,149	40.7	1.57	3.9
	비경험층	2,789	37.9	1.10	2.9
지난 1개월간 체육활동 경험	경험층	1,026	44.2	0.98	2.2
	비경험층	2,912	36.7	0.94	2.6
여행경험	경험층	2,165	37.3	0.97	2.6
	비경험층	1,773	40.4	1.19	2.9
문화여가활동 전문인력 지도경험	경험층	309	47.5	2.09	4.4
	비경험층	3,629	38.0	0.79	2.1
문화여가활동 동호회	경험층	382	48.7	1.03	2.1
	비경험층	3,556	37.6	0.87	2.3
지역사회 공동 문화여가활동	있음	183	46.8	1.79	3.8
	없음	3,755	38.3	0.89	2.3

04 주요 용어정리

- **가구주**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한다.
- **생계책임자** :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관리자**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전문서비스 관리직,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등을 말한다.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등을 말한다.
- **사무 종사자**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등을 말한다.
- **서비스 종사자** :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등을 말한다.
- **판매 종사자** :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 등을 말한다.
- **농어업 종사자** :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등을 말한다.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등을 말한다.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용,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등을 말한다.
-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등을 말한다.
- **자영업자(고용주)**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모두 해당된다. 농업 종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로 본다.
- **상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된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교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 등이 해당된다.
- **임시직** : 임금근로자 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한다.
- **일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매일 고용되어 일급, 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한다.
- **무급가족종사자** : 직접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자로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가구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이다. 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며, 개별가구 단위로 급여를 실시하되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이란 단일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 **아파트** : 아파트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연립주택** : 연립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전세** : 전세란 계약한 액수의 돈을 미리 지불하고 입주하여 살다가 퇴거할 때 그 금액을 되찾아 나오는 방식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방세는 입주할 때 낸 금액의 이자이다.
- **보증부 월세** : 보증부 월세란 보증금을 내고 별도로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월세가 제때에 지불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월세분의 10배 정도의 금액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질적인 방세는 보증금의 이자와 매월 내는 월세의 합계액이다.
- **월세(사글세)** : 사글세란 매월 월세액을 정한 뒤 미리 1년분 정도의 월세 합계액을 선세(先貰)

로 내고 그 금액을 매달 삭감해 가는 형식이다. 사글세액의 잔액이 떨어질 때가 계약이 만료 되는 달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퇴거해야 한다. 만일 계약기간 내에 퇴거할 경우에는 삭감된 액수의 잔액을 되찾아갈 수 있다. 월세란 보증금이나 선세(先貰) 없이 매월 방세를 지불하는 형식이다.

- **농수산물 가공** : 농수산물 가공이란 농어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식품 및 특공산품 등을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농수산물 이용 식품 가공에는 농수산물을 수확한 후 말리거나 잘라서 판매, 세척 후 포장하여 판매, 가공하여 식품 재료 및 완성된 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농수산물 직거래** : 농수산물 직거래란 농림어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소비하는 개인 가구에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직판장, 직매장, 통신판매, 우편판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판매, 거리판매, 방문판매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농어촌 체험관광** : 농어촌체험관광이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이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수산물, 음식 판매, 숙박 운영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체험이나 교육 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하거나, 농수산물 직거래, 음식 판매, 숙박 제공 등을 병행하는 경우로 포함한다.
- **음식 판매(식당 운영)** : 마을 단위로 방문 도시민을 대상으로 식사를 준비하여 판매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개인 단위로 직접 도시 방문객을 확보하여 식사를 준비, 판매한 경험을 조사한다. 농촌진흥청 사업에 의한 '농가 맛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 **숙박 제공(민박 운영)** : 마을 단위로 방문 도시민을 대상으로 숙소를 제공하거나, 개인 단위로 직접 방문객을 확보하여 도시 방문객을 확보하여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식량작물** : 밭벼, 겉보라쌀보리, 옥수수, 콩, 팥, 감자, 고구마, 밀, 조, 수수, 메밀, 녹두 등을 가리킨다.
- **동호회** : 동호회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결성된 특정 취미나 활동에 공동의 관심과 목표를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 향우회, 동창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05 201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표

ID	층번호	아파트 여부	키	값	열	자	리	거처	번	호
----	-----	-----------	---	---	---	---	---	----	---	---

2014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 경제활동, 문화·여가 -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4년 조사는 경제활동, 문화·여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귀댁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작성기관 농촌진흥청
실사기관 코뮤니타스
전화번호 053-746-0021

면접원 이름

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동/읍/면 ()리
상세주소(번지)	아파트 동-호수
응답자	① 가구주 ② 가구주 배우자 조사표 기입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기입식

No.	방문 회차	방문시간	내용
조사	1	:	배부처
	2	:	연락처
	3	:	비고 (회수 예정 시간 및 대체사유 등)
대체	1	:	배부처
	2	:	연락처
	3	:	비고 (회수 예정 시간 및 대체사유 등)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참여 동의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협조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전국 농어촌 4,01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농어촌의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4년 조사는 **경제활동, 문화여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귀하의 **전화번호, 주소**를 수집하고 있으며, 상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각 지역을 대표하기에, 조사 내용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응답해주시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설명자 : (서명)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답례품 수령 확인서

본인은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성실히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답례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수령인 : (서명)

I. 개인 및 가구원 관련 사항

1. 다음은 귀하 및 가구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타 지역 직장 근무, 유학 등으로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배우자, 자녀)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결혼해서 분가한 경우는 제외하고 작성해 주십시오.

[보기] 가구주와의 관계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손자녀/그 배우자 ⑥ 부모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그 배우자
 ⑨ 기타 친인척

* 직업의 경우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참고)	성별	태어난 연도	혼인 상태	학력		직업 및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학교급	상태	직업*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01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02	② (가구주 배우자)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03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보기] 가구주와의 관계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손자녀/그 배우자 ⑥ 부모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그 배우자
 ⑨ 기타 친인척

* 직업의 경우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참고)	성별	태어난 연도	혼인 상태	학력		직업 및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학교급	상태	직업*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04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05	② (가구주 배우자)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06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07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보기] 가구주와의 관계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손자녀/그 배우자 ⑥ 부모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그 배우자
 ⑨ 기타 친인척

* 직업의 경우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가구주 와의 관계 (보기 참고)	성별	태어 난 연도	혼인 상태	학력		직업 및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학교급	상태	직업*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08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종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기출 등)
총 _____명			가구원(동거)		_____명		농어가 여부		① 농어가(농어업 종사자가 있음) ② 비농어가(농어업 종사자 없음)	
			비동거 가족		_____명					

2. 귀댁에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문 3번** 으로 가십시오

2.1. 귀하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가구원의 장애종류와 등급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십니까? 여러 분이 계실 경우 각각의 가구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하되,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함

구분	장애 종류(보기 참고)	중복장애 여부	장애 등급
(1) () 번 가구원		① 비해당 ② 중복	() 급
(2) () 번 가구원		① 비해당 ② 중복	() 급
(3) () 번 가구원)		)① 비해당 ② 중복	)() 급

<보기 - 장애 종류>

- | | | | |
|----------------------|-----------|---------|--------|
| ① 지체장애 | ② 뇌병변장애 | ③ 시각장애 | ④ 청각장애 |
| ⑤ 언어장애 | ⑥ 정신지체 | ⑦ 발달장애 | ⑧ 정신장애 |
| ⑨ 신장장애 | ⑩ 심장장애 | ⑪ 호흡기장애 | ⑫ 간장애 |
| ⑬ 안면장애 | ⑭ 장루·요루장애 | ⑮ 간질장애 | |
| ⑯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 | | |

3. 귀댁에는 결혼이민자가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문 4번** 으로 가십시오

3.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어디입니까? 여러 분이 계실 경우 각각의 가구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출신국가	구분	출신국가
(1) () 번 가구원		(3) () 번 가구원	
(2) () 번 가구원			

4.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십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 포함)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없음

II. 생활 전반

5. 귀하께서 현 거주지로 이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작성. 여성 응답자가 혼인시 이주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가구주(남편)를 기준으로 작성

① () 년도에 이주했다

② 현 거주지가 고향이지만 외지에 나갔다가 () 년도에 이주했다 ③ 현 거주지가 고향이다



↳ **문 6번** 으로 가십시오

5.1. 현 거주지로의 이주 직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②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③ 중소도시(동)

④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6.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건축(신축)년도는 언제입니까? () 년도

7.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타 (⇒)

8. 주택의 점유형태는?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무상

9. 귀하께서는 향후 5년 내에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그렇다 ② 반반이다 ③ 그렇지 않다



↳ **문 10번** 으로 가십시오

9.1. 다른 곳으로 이주하신다면 어디로 이주하실 생각이십니까?

①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

② 다른 시/군의 농어촌(읍/면)

③ 중소도시(동)

④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⑤ 시설 입소(공동생활, 요양 등)

⑥ 기타(해외파견, 이민 등)

9.2. 다른 곳으로 이주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

②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

③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

④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⑤ 건강상의 이유로

⑥ 자녀교육 때문에

⑦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

⑧ 기타 (⇒)

10.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생활의 여러 영역 각각에 대해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도 및 만족하시는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중요도					만족도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한 편이 다	보통 이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 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매우 만족 한다	만족 하는 편이 다	보통 이다	만족 하지 않은 편이 다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1)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주택, 도로,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기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환경·경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직업 기회, 소득, 물가 등 경제활동 여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부터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2.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행복하다 ② 행복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행복하지 않다

13. 귀하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가족 ② 대인관계(친구, 이웃, 공동체 등) ③ 건강
④ 경제적 안정 ⑤ 일/직업 ⑥ 지역 생활 환경
⑦ 기타 (⇒)

Ⅲ. 경제활동

— 생산활동 —



‘현재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14. 귀댁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께서는 농어업이나 주된 직업 이외에 부업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실 경우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 가구주, 배우자 모두 부업을 하고 있을 경우, 가구주를 기준으로 응답

① 자영업

② 임금근로(□상용 □임시 □일용)

③ 하고 있지 않음



14.1. 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어업 (⇨)
- ② 제조업 (⇨)
- ③ 건설업 (⇨)
- ④ 도매 및 소매업 (⇨)
- ⑤ 숙박 및 음식점업 (⇨)
- ⑥ 금융 및 보험업 (⇨)
- ⑦ 교육서비스업 (⇨)
- ⑧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⑨ 정보/기술/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업(⇨)
- ⑩ 기타(⇨)

14.2. 부업을 통한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월평균 50만원 미만
- ② 월평균 50~100만원 미만
- ③ 월평균 100~150만원 미만
- ④ 월평균 150~300만원 미만
- ⑤ 월평균 300만원 이상

14.3. 향후 어떤 형태의 부업을 하기를 희망하십니까?

① 자영업 ② 임금근로 ③ 희망하지 않음



↳ **문15번**으로 가십시오

14.4. 어떤 업종을 희망하십니까?

- ① 농어업 (⇨)
- ② 제조업 (⇨)
- ③ 건설업 (⇨)
- ④ 도매 및 소매업 (⇨)
- ⑤ 숙박 및 음식점업 (⇨)
- ⑥ 금융 및 보험업 (⇨)
- ⑦ 교육서비스업 (⇨)
- ⑧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⑨ 정보/기술/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업(⇨)
- ⑩ 기타(⇨)

14.5. 기대하시는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월평균 50만원 미만
- ② 월평균 50~100만원 미만
- ③ 월평균 100~150만원 미만
- ④ 월평균 150~300만원 미만
- ⑤ 월평균 300만원 이상

15. 귀하께서는 몇 세 정도에 은퇴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만 () 세 정도

②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

③ 이미 은퇴했음

④ 잘 모르겠다

※ 은퇴란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이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현재 가구주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16. 귀댁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께서는 향후 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십니까? 희망하는 근로형태는 무엇입니까? ※ 가구주, 배우자 모두 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할 경우, 가구주를 기준으로 응답

- ① 창업(자영업) ② 취업(임금근로) ③ 희망하지 않음



↳ **문17번** 으로 가십시오

16.1. 어떤 업종을 희망하십니까?

- ① 농어업 (⇨) ② 제조업 (⇨)
③ 건설업 (⇨) ④ 도매 및 소매업 (⇨)
⑤ 숙박 및 음식점업 (⇨) ⑥ 금융 및 보험업 (⇨)
⑦ 교육서비스업 (⇨) ⑧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⑨ 정보기술/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업 (⇨)
⑩ 기타 (⇨)

16.2. 기대하시는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월평균 50만원 미만 ② 월평균 50~100만원 미만 ③ 월평균 100~150만원 미만
④ 월평균 150~300만원 미만 ⑤ 월평균 300만원 이상

17. 농어촌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술교육/인력 양성 ② 창업 자금 지원 ③ 시설/설비 지원
④ 사업컨설팅/정보 제공 ⑤ 홍보·마케팅활동 지원 ⑥ 농어촌 창업 절차 간소화
⑦ 소규모 사업체 대상 규제 완화 ⑧ 기타 (⇨)

➡ ‘농어가’에 한해

18. 귀하께서는 [2013년('13.1.1.~12.31.)을 기준으로] 다음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여하신 사업에 대해 경영 형태, 소득 기여도, 가구소득 중 비중, 정부 지원 수혜 여부를 적어 주십시오.

구 분	A. 참여 경험	B. 경영 형태*	C. 가구소득 중 비중	D. 가구소득 기여도에 대한 만족도					E. 정부 지원 수혜 여부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I) 농수산물 가공	① 있음(⇨)		()%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없음

*보기 - 경영 형태

- ① 개인경영체 ② 마을 운영위원회 ③ 마을법인 ④ 영농조합법인 ⑤ 농업회사법인
⑥ 협동조합 ⑦ 기타 (⇨)

구 분	A. 참여 경험	B. 경영 형태*	C. 가구소득 중 비중	D. 가구소득 기여도에 대한 만족도					E. 정부 지원 수혜 여부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2) 농수산물 직거래	① 있음(⇨)		()%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없음								
(3) 농어촌 체험관광	① 있음(⇨)		()%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없음								
(4) 음식 판매 (식당 운영)	① 있음(⇨)		()%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없음								
(5) 숙박 제공 (민박 운영)	① 있음(⇨)		()%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없음								

*보기 - 경영 형태

① 개인경영체 ② 마을 운영위원회 ③ 마을법인 ④ 영농조합법인 ⑤ 농업회사법인
⑥ 협동조합 ⑦ 기타 (⇨)

19.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향후 (지속)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구 분	향후 참여 의사	구 분	향후 참여 의사
(1) 농수산물 가공	① 있음 ② 없음	(4) 음식 판매(식당 운영)	① 있음 ② 없음
(2) 농수산물 직거래	① 있음 ② 없음	(5) 숙박 제공(민박 운영)	① 있음 ② 없음
(3) 농어촌 체험관광	① 있음 ② 없음		

20. [‘참여 경험’ 또는 ‘향후 참여 의사’ 중 한 개라도 ‘있음’을 선택한 경우] 귀하께서 위 사업에 참여하면서, 또는 참여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자금 부족 ② 기획력 및 기술력 부족 ③ 경영관리 역량 부족
④ 시설/설비 부족 ⑤ 행정·제도 복잡 ⑥ 관련 규제에 의한 제약
⑦ 인력 부족 ⑧ 고객·판로 확보(홍보 및 마케팅) ⑨ 참여자 간 갈등
⑩ 기타 (⇨)

21. 귀택에서 주된 수입원이 되는 영농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논벼 ② 식량작물 ③ 노지채소 ④ 시설채소
 ⑤ 과수 ⑥ 화훼 ⑦ 특/약용작물·버섯 ⑧ 축산
 ⑨ 기타 (⇒)

22. [2013년('13.1.1.~12.31.)을 기준으로] 귀택에서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물의 판매 금액은 얼마입니까?

- ① 120만원 미만 ② 12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⑤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⑥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⑦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⑧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⑨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⑩ 2억원 이상

23. 농업 규모(논/밭/임야/시설 등 면적)에 대한 향후 5년 후 귀하의 계획은 어떠하
 십니까?

- ① 확대할 계획이다 ②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③ 축소할 계획이다 ④ 영농을 중단할 계획이다

24. 귀택에는 경영주의 뒤를 이어 농업에 종사할 사람(자녀 및 손자녀, 형제자매, 친척 등)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③ 아직 잘 모르겠다

25. 다음은 농업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 √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동의 한다	동의 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 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농어가에 한해	(01) 가능한 한 농업을 계속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02) 가능한 한 농업이 가족 내에서 대물림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03)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전체 농어촌 가구	(04) 농업은 노동 부담이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05) 농업은 소득이 낮다	①	②	③	④	⑤
	(06) 농업은 보람있는 직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07) 농업은 앞으로 전망있는 직업이다	①	②	③	④	⑤
	(08) 농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09)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소비활동

26. [2013년('13.1.1.~12.31.)을 기준으로]으로 다음 항목 가운데 귀하의 생활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개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주식류, 부식류, 외식비 등 **식료품비**
- ② 병원치료비, 약값, 의치, 보정기, 영양제, 보약비 등 **보건의료비**
- ③ 가구, 가정용 기기,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 등 **가구가사용품비**
- ④ 의류, 신발, 이불 등의 구입, 수선, 세탁비 등 **피복신발비**
- ⑤ 월세, 주택수리비, 관리비 등 **주거비**
- ⑥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등 **광열수도비**
- ⑦ 학비, 학원비, 과외비, 자녀용돈, 책값 등 **교육비**
- ⑧ 여행, 공연경기관람, 운동강습료, 신문구독료 등 **문화여가비**
- ⑨ 대중교통 이용료, 자동차 구입 및 수리비, 기름값, 전화/휴대폰/인터넷요금 등 **교통통신비**
- ⑩ 생일, 혼인, 장례, 제사 등 **관혼상제비**
- ⑪ 미용위생비(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 목욕비 등), 교제증여비(경조비, 사교비 등) 등 기타

27. 귀하께서는 아래 물품을 구입하실 때 주로 어느 곳을 이용하십니까? 물품 구입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의 위치와 이동 시 주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구 분	A. 물품 구입처	B. 위치	C.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D. 편도 소요시간
(1) 식료품 (농수축산물, 가공품 등)	① 동네가게 ② 중소형 슈퍼마켓 ③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 ④ 대형할인매장(이마트, 홈플러스 등) ⑤ 백화점 ⑥ 상설시장/5일장 ⑦ 인터넷 쇼핑몰	① 우리 마을 내 ② 우리 읍면 내 ③ 우리 시/군 내 ④ 다른 시/군	① 걸어서 ② 대중교통 ③ 자가용 ④ 기타 (⇨)	()분
(2) 일상 생활용품 (세제, 화장지 등)	① 동네가게 ② 중소형 슈퍼마켓 ③ 농/수/축산물 직판장, 하나로마트 ④ 대형할인매장(이마트, 홈플러스 등) ⑤ 백화점 ⑥ 상설시장/5일장 ⑦ 인터넷 쇼핑몰	① 우리 마을 내 ② 우리 읍면 내 ③ 우리 시/군 내 ④ 다른 시/군	① 걸어서 ② 대중교통 ③ 자가용 ④ 기타 (⇨)	()분

— 경제적 생활수준

28. [2013년('13.1.1.~12.31.)을 기준으로] 귀댁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 생활비는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으로서,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저축, 저축성보험료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부채/이자 상환 등), 사업용도의 비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천	백	십	일	만원
---	---	---	---	----

29. 귀댁에서는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0. 귀하께서는 경제적 생활수준과 관련된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 √표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가계의 소득 수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계의 일상적인 소비 수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매월 저축하고 있는 금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가계의 순자산* 수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가계의 부채 수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에 대비하여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노후의 생활비, 질병치료비, 문화여가비 등에 대한 노후준비금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가계의 순자산이란, 가계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것을 의미함

31. 귀댁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2.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여건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좋아진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빠진 편이다 ⑤ 매우 나빠졌다

33. 향후(약 5년 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여건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질 것이다 ② 좋아질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빠질 것이다 ⑤ 매우 나빠질 것이다

34.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 특화 작목 개발 ② 농어촌 자원 활용 6차산업 육성 ③ 지역 특화 농공단지 조성
④ 기업 유치 ⑤ 지역 문화관광 개발 ⑥ 기타 (⇒)

IV. 문화·여가

— 문화·여가활동 참여

35. 여가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여가활동 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건강 유지 및 체력 단련 ② 자기 계발 ③ 몸과 마음의 휴식 ④ 즐거움과 재미
⑤ 친교·교제 ⑥ 기타 (⇒)

36. 귀하께서는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십니까?

- ①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관람, 공연관람, 영화보기 등 **문화예술관람**
② 미술,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교실, 사진촬영, 춤/무용 등 **문화예술활동**
③ 경기장 방문관람, TV중계 시청 등 **스포츠관람**
④ 게이트볼, 족구, 축구, 탁구, 헬스, 등산 등 **스포츠활동**
⑤ 문화유적지 방문, 자연명승·풍경 관람, 농촌체험관광, 지역축제참가 등 **여행**
⑥ 요리, 생활공예, 수집, 낚시, 바둑·장기 등 **취미활동**
⑦ 친구·이웃과 교제, 가족·친지방문,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⑧ 산책, 낮잠, 목욕·사우나·찜질방, 음악감상 등 **휴식**
⑨ TV 및 라디오 시청 ⑩ 독서, 신문/잡지 보기
⑪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⑫ 기타 (⇒)

36.1. 그 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 ① 혼자 ② 가족·친지 ③ 친구 ④ 이웃 주민
⑤ 직장 동료 ⑥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 ⑦ 기타 (⇒)

36.2. 그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 1회 정도 ④ 월 1~3회 정도
⑤ 2~3개월에 1회 정도 ⑥ 4~6개월에 1회 정도 ⑦ 연 1회 정도

38.1. 귀하께서 주로 하는 체육활동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게이트볼, 족구, 축구, 야구, 농구, 골프 등 구기 운동
- ② 배드민턴, 탁구, 스쿼시, 테니스 등 라켓 운동
- ③ 검도, 유도, 태권도, 권투 등 무도/격투기
- ④ 헬스, 마라톤, 육상, 수영, 요가, 자전거, 줄넘기, 체조 등 체력단련운동
- ⑤ 스키, 승마, 등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래프팅, 서핑 등 레저스포츠
- ⑥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피겨스케이팅 등 리듬스포츠
- ⑦ 걷기
- ⑧ 기타 (⇨)

39. 귀하께서는 [2013년('13.1.1~12.31.)을 기준으로]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 **문42번** 으로 가십시오.

39.1. 귀하께서 2013년(’13.1.1.~12.31.)을 기준으로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신 횟수는 각각 총 몇 회입니까?

구 분	횟수	구 분	횟수
(1) 국내	() 회	(2) 국외	() 회

40. 귀하께서는 **[2013년('13.1.1~12.31.)을 기준으로]**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강좌, 강습회 등에 참여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실 경우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있음 - () 개 ② 없음

41. 귀하께서는 **[현재(2014.9.1. 기준)]** 문화·여가활동을 위해 동호회(동우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 수는 몇 개입니까?

- ① 있음 - () 개 ② 없음

↳ **문44번** 으로 가십시오.

**41.1. 귀하께서 참여하고 계신 동호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호회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관람, 공연관람, 영화보기 등 **문화예술관람**
- ② 미술,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교실, 사진촬영, 춤/무용 등 **문화예술활동**
- ③ 경기장 방문관람 등 **스포츠관람**
- ④ 게이트볼, 족구, 축구, 탁구, 헬스, 등산 등 **스포츠활동**
- ⑤ 문화유적지 방문, 자연명승·풍경 관람, 농촌체험관광, 지역축제참가 등 **여행**
- ⑥ 요리, 생활공예, 수집, 낚시, 바둑·장기 등 **취미활동**
- ⑦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 ⑧ 기타 (↗)

41.2. 귀하께서는 그 동호회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 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 1회 정도
 ④ 월 1~3회 정도 ⑤ 2~3개월에 1회 정도 ⑥ 4~6개월에 1회 정도
 ⑦ 연 1회 정도

41.3. 귀하께서는 그 동호회 활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오셨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상 ③ 1~3년 미만
 ④ 3~5년 미만 ⑤ 5년 이상

41.4. 그 동호회 활동에 있어 귀하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급 ② 중급 ③ 준전문가 수준
 ④ 전문가 수준 ⑤ 해당없음

42. 동호회 활동에 새롭게 참여하거나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활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 지원 ② 관련 장비, 재료, 자료 등 지원
 ③ 강사 또는 전문가 파견 ④ 관련 경비 지원
 ⑤ 참여 안내를 위한 정보 제공 ⑥ 기타 (구체적으로 :)

43.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사회(마을, 아파트 단지 등)에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문화·여가활동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문46번** 으로 가십시오.

43.1. 그 문화·여가활동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 전시회 관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관람, 공연관람, 영화보기 등 **문화예술관람**
☐ 미술, 악기연주, 노래교실, 전통예술교실, 사진촬영, 춤/무용 등 **문화예술활동**
☐ 경기장 방문관람 등 **스포츠관람**
☐ 게이트볼, 족구, 축구, 탁구, 헬스, 등산 등 **스포츠활동**
☐ 문화유적지 방문, 자연명승·풍경 관람, 농촌체험관광, 지역축제참가 등 **여행**
☐ 요리, 생활공예, 수집, 낚시, 바둑·장기 등 **취미활동**
☐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
☐ 기타 (⇨)

43.2. 귀하께서는 그 문화·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②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44. 지역사회(마을, 아파트 단지 등) 단위 문화·여가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① 활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 지원 | ② 관련 장비, 재료, 자료 등 지원 |
| ③ 강사 또는 전문가 파견 | ④ 관련 경비 지원 |
| ⑤ 참여 안내를 위한 정보 제공 | ⑥ 기타 (⇒) |

— 희망 문화·여가 활동

45. 귀하께서 앞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에서 하고 싶은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번호 : (⇒)	2순위	번호 : (⇒)	3순위	번호 : (⇒)
① 문화예술관람		② 문화예술활동		③ 스포츠관람	
④ 스포츠활동		⑤ 여행		⑥ 취미활동	
⑦ 사회활동		⑧ 휴식		⑨ 기타	

45.1. 1순위로 선택한 문화·여가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기를 희망하십니까?

- | | | |
|--------------------------|-----------|------|
| ① 혼자 | ② 가족·친지 | ③ 친구 |
| ④ 이웃 주민 | ⑤ 직장 동료 | |
| ⑥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항을 가진 사람들 | ⑦ 기타 (⇒) | |

45.2. 1순위로 선택한 문화·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기를 희망하십니까?

- | | | | |
|----------------|----------------|-----------|-------------|
| ① 주 4회 이상 | ② 주 2~3회 | ③ 주 1회 정도 | ④ 월 1~3회 정도 |
| ⑤ 2~3개월에 1회 정도 | ⑥ 4~6개월에 1회 정도 | ⑦ 연 1회 정도 | |

45.3. 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지역적 제약요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 |
|-----------------------------|-------------------|
| ① 적합한 시설이 없음 | ② 장비 및 재료 구입이 어려움 |
| ③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이 없음 | ④ 강사 및 전문가가 없음 |
| ⑤ 교통이 불편 | ⑥ 관련 정보 부족 |
| ⑦ 함께할 사람을 만나기 어려움(동호회 조직 등) | ⑧ 기타 (⇒) |
| ⑨ 제약요인이 없음 | |

문화·여가 지원

46.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화·여가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희망 위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필요한 시설	교통 수단	소요시간 허용범위	필요한 시설	교통 수단	소요시간 허용범위
번호 : (⇒)			번호 : (⇒)		

<보 가>

필요한 시설	교통수단	소요시간 허용 범위
① 전시관,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① 도보	① 5분 이내
② 게이트볼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 시설	② 차량	② 10분 이내
③ 유원지, 삼림욕장, 쇼핑몰, 카페 등 관광, 오락 시설		③ 20분 이내
④ 문화센터, 동아리활동 공간 등 취미활동 시설		④ 30분 이내
⑤ 경로당, 공원, 산책로, 찜질방/목욕탕 등 친교, 휴식 시설		⑤ 1시간 이내
⑥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기타		

47.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를 통해 거주지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희망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① 미술품 전시 | ② 음악 공연(클래식 악기/노래 등) |
| ③ 전통예술 공연(국악, 풍물 등) | ④ 연극/무용 등 공연 |
| ⑤ 영화 상영 | ⑥ 연예공연(대중음악, 마술 등) |
| ⑦ 문화예술 교육(회화, 서예, 악기연주, 노래, 춤 등) | ⑧ 체육활동 지도(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
| ⑨ 취미활동 교육(요리, 생활공예 등) | ⑩ 이동도서관 |
| ⑪ 기타 (⇒) | |

48. 귀하께서는 귀하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 ④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49.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여가여건은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 | | | |
|-----------|-----------|--------|
| ① 매우 좋아졌다 | ② 좋아진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 ④ 나빠진 편이다 | ⑤ 매우 나빠졌다 | |